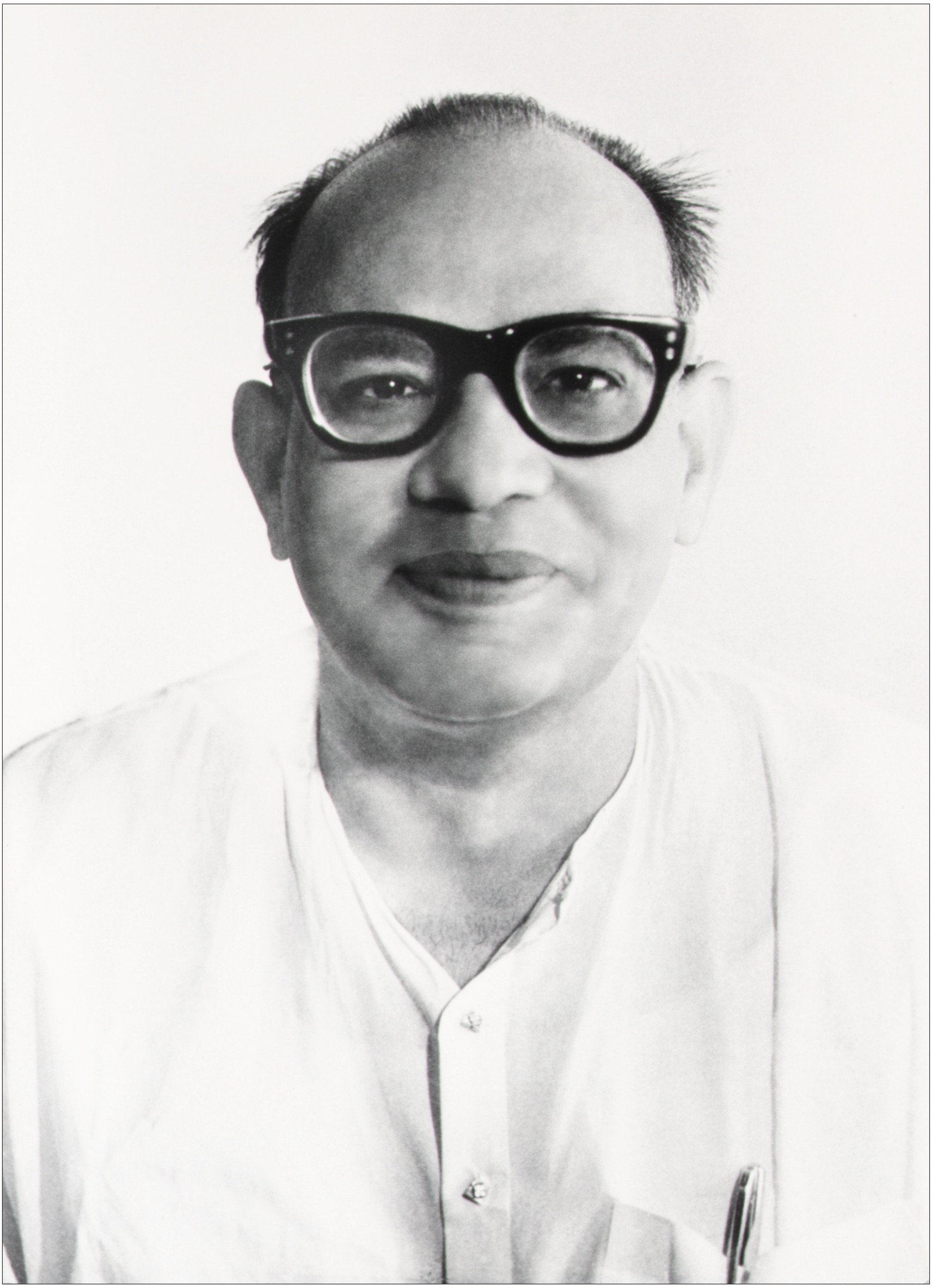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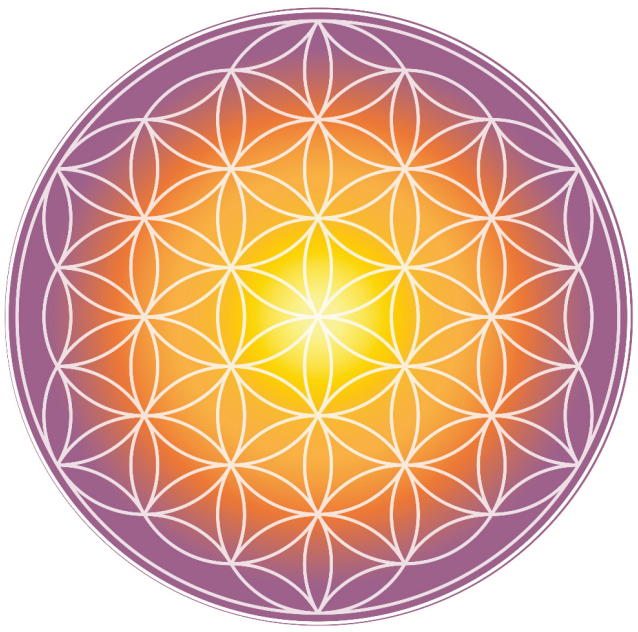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



그의 생애, 사명,
가르침 100 장면





P.R. SARKAR INSTITUTE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 바바의 생애, 사명, 가르침 100 은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티(슈리 프라밧 란잔 사카르)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인쇄본은 전시 공간을 위한 인쇄에 가장 적합하다. 전시 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각 장을 출력하는 것이 좋다. 레이아웃은 세로 방향으로 A3에 최적화되어 있다. 내부에서 전시할 경우는 핀으로 벽에 고정할 수 있도록 얇은 광택 판지로 인쇄하거나, 외부에서의 전시라면 폼코어, 플렉스 또는 기타 외부 전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것이 좋다.

이 인쇄본은 기본 콘텐츠이고, 영상과 책 모두 더 많은 이미지, 일화 및 기타 논의에 대한 확장된 내용들이 있다.

기기에서 직접 보거나 슬라이드 쇼로 투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상 버전을 다운 받으려면 www.prsinstitute.org/outreach/exhibitions 를, 책 구매를 위해서는 www.prsinstitute.org/outreach/publications 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전시를 위한 인쇄본과 영상, 그리고 책에는 필름(www.prsinstitute.org/outreach/films)과 푸자 테이블 사진집 (www.prsinstitute.org/outreach/publications)이 첨부되어 있다.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슈리 프라밧 란잔 사카르)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P.R. Sarkar Institute에서 P.R. Sarkar 기록 보관소와 아난다 마르가 디지털 기록 보관소의 도움으로 제작함.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엮음: Ácárya Guńamuktánanda Avadhúta
편집: Ácárya Guńamuktánanda Avadhúta
편집 보조: Ácárya Maheshvaránanda Avadhúta, Jyotsná Caujolle, Káliishauṇkar Mukherjee, Shivapriyá (Ellen Landau), Shravańa Kumára
한국어 번역: Avadhútiká Ánanda Vartiká Ácáryá, Bhaváni
주제 선택: Ácárya Guńamuktánanda Avadhúta, Ácárya Shambhúshivánanda Avadhúta, Shivapriyá (Ellen Landau)
더불어: Ácárya Acyutánanda Avadhúta, Ácárya Prańavátmakánanda Avadhúta, Ácárya Shambhúshivánanda Avadhúta께도 감사를 드린다.

보관된 기록 자료를 제공해 준 기관들께 감사를 드린다:
P.R. Sarkar Archives, Kolkata (Ácárya Prańavátmakánanda Avadhúta)
P.R. Sarkar Archives, Vermont (Giridhara Tom Barefoot)
Ananda Marga Digital Archive (Ácárya Guńamuktánanda Avadhúta와 Ácárya Lokeshánanda Avadhúta)

그 외에 보관 기록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Ácárya Manavendránanda Avadhúta, Ácárya Nárada Muni, Ácárya Vishvodgatánanda Avadhúta, Mukti Hava Bauman, Sauli Shántátma, Sukhadeva (Silvano Rossato), Vishvashánti (Ole Brekke)

참고 자료: The Electronic Edition of the Works of P.R. Sarkar

그 외 참고 저서들:
<Ananda Katha 지복의 이야기> by Ácárya Naginá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by Devashiish
<내가 아는 대로의 그, 아난다무르띠지> by Ácárya Vijayánanda Avadhúta
<Ashutosh Baba 작은 일에도 만족하는 바바> by Ácárya Rámánanda Avadhúta
<빛의 화환: 타이완을 향한 바바의 사랑> by Avadhútiká Ánanda Lalitá Ácáryá
<Fiesch에서의 바바> by Kusumitá
<Mahárliká에서의 바바> by Diipánvitá
<남미에 대한 바바의 사랑> by 다양한 이들
<Bhagavan Ánandamúrti 바가반 아난다무르띠> by Ácárya Nárada Muni
<신성한 경험들> by Ácárya Parameshvaránanda Avadhúta
<신성한 발자국들: 카히라 섹터에서의 바바> by 다양한 이들
<내 사랑하는 스승과의 경험들> by Ácárya Shiilabhadránanda Avadhúta
<브룩클린에서 베나레스까지, 그리고 다시 브룩클린으로> by Ácárya Vedaprajiṇánanda Avadhúta
<신비와의 일견> by Ácárya Bháskaránanda Avadhúta
<나는 너희들의 것이다> by 다양한 이들
<사랑하는 이를 만나다> by Ácárya Dharmadevánanda Avadhúta
<바바와 살며> by Ácárya Tapeshvaránanda Avadhúta
<내 스승과의 만남들: 한 여성의 경험> by Nancy Niiti Gannon
<Bankipur 감옥에서의 내가 경험한 바바 이야기> by Paráshakti Dwivedi
<바바와의 날들> by Ácárya Sarveshvaránanda Avadhúta
<우리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리> by Ácárya Candranáth Kumár
<바바 회고담> by Ácárya Keshavánanda Avadhúta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 신비의 출현> by Ácárya Prańavátmakánanda Avadhúta
<기이한 경험들> by Shrii Prabhát Raiṇjan Sarkár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의 삶과 가르침들> by Ácárya Vijayánanda Avadhúta
<탄트릭 구루: 그의 생애에서의 매혹적인 이야기들> by Ácárya Mahávirárananda Avadhúta
<풀리지 않는 신비> by Ácárya Amitánanda Avadhúta
<떠도는 고행자의 삶> of Acharya Satyananda Avadhuta
<내 흠모하는 연인과의 이번 생> by Avadhútiká Ánanda Harimayá Ácáryá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사랑하는 바바의 인생으로부터의 향긋한 꽃잎> by Ácárya Shambhúshivánanda Avadhúta
<신비로운 스승과의 여행들> by Ácárya Dharmavedánanda Avadhúta
<나의 스승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와 걸으며> by Francisco Pena De Vera
<때가 되면: Ácáryá Chandranath Kumar와의 대담> by Devashiish
<누가 호랑이를 탈 수 있겠는가? 바바 생애에서의 이야기들> by Avadhútiká Ánanda Ramá Ácáryá
<나의 스승과 함께> by Ácárya Krpánanda Avadhúta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바바가 여기 계시다> by Ácárya Vandanánanda Avadhúta

필체 조사: Káliishauṇkar Mukherjee, Uttpal Banerjee
벵골어 손글씨 번역: Ácárya Priyashivánanda Avadhúta, Káliishauṇkar Mukherjee
프라밧 상기따 번역 출처: Prabháta Saṁgiita: Songs of the New Dawn by Shrii Prabhát Raiṇjan Sarkár, Prabháta Saṁgiita by Shrii Prabhát Raiṇjan Sarkár
프라밧 상기따 추가 번역: Káliishauṇkar Mukherjee, Shravańa Kumára
그림: Avadhútiká Ánanda Cárushiilá Ácáryá, Avadhútiká Ánanda Ramá Ácáryá, Káiṇcan Karmakar, Máńik Bandopádhyáya
추가 사진들: Ácárya Guńamuktánanda Avadhúta, Ácárya Subuddhyánanda Avadhúta, Mahesh Kumár
이미지 편집: Ácárya Guńamuktánanda Avadhúta, Ácárya Nárada Muni, Jagatbandhu (John Gross)
디자인과 배치 설계: Ácárya Guńamuktánanda Avadhúta
디자인 관련 도움 준 이들: Avadhútiká Ánanda Advaeta Ácáryá, Jagadiish (George Azzopardi)
표지 이미지: Ananta (Aaron Staengl)

P..R. Sarkar 기록 보관소와 바바 박물관, 아난다 마르가 구루쿨, 아난다 마르가 프라차라카 상가, 아난다 마르가 출판부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머리말

프라밧 란잔 사카르라고도 알려져 있고 제자들에 의해 정감있게 바바(가장 사랑하는 이)라고 불리는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는 인도 비하르주의 자말뿌르에서 5월 보름날 동이 틀 무렵 태어났다. 그 날짜는 원래 1921년 5월 21일로 생각되어 왔지만, 더 최근에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현재는 1922년 5월 11일일 가능성이 더 크다. 어느 쪽이든, 그의 탄생일은 매년 아난다 뿌르니마(지복의 보름날)로 기념된다.

위계상 가장 높은 구루인 사드 구루로서 바바는 수십만 명의 헌신적인 제자들에게 비할 데 없는 스승이자 다정한 아버지였다. 그는 개개인과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복지와 영적 진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지도해왔다. 그리고 스승으로서의 역할 안에서 그는 철학자, 저자, 과학자, 심리학자, 언어학자, 치유자, 인도주의자, 사회 개혁가, 혁명가 등 수많은 다른 역할도 수행했다. 아난다 마르가('지복의 길')라는 세계적인 영적 조직의 설립자이자 스승인 그는 프라우트(진보적 활용론)라는 사회-경제 개혁 시스템, 네오휴머니즘이라는 사회철학과 마이크로 바이타라는 새로운 과학을 도입했다. 그리고 그는 프라밧 상기타라고 불리는 5,000곡 이상의 곡을 작곡했다. 그의 가르침과 몸소 실천을 통해, 그는 수백만 명에게 삶의 최고 목표를 열망하고 지구 및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 동물, 식물의 복지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 책의 목적은 바바의 생애, 사명 및 가르침에 대해 포괄적이거나 철저한 설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상 이 시점에 지구상에서 타라카 브라마의 놀라운 세계에 대한 무수한 매혹적 통찰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들과 이정표를 포괄적으로 요약하려는 의도이다.

탄트라에서는 창조물 전체를 삼부띠라고 한다. 타라카 브라마가 스스로 5대 기본 요소(지, 수, 화, 풍, 에테르)의 도움을 받을 때, 사구나 브라마의 범위 내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니르구나 브라마이다. 탄트라에 따르면 타라카 브라흐마가 5대 기본 요소의 도움을 받아 모습을 드러내면 이를 마하삼부띠라고 한다. 타라카 브라마는 철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헌신적인 감정의 산물이다.

날짜, 장소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한 주요 세부 사항은 철저히 조사되었으며 발행일까지 최대한 정확하다. 바바 일화 중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중에서 그의 삶과 시대를 잘 느낄 수 있는 일화들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영상은 역사적 서사 뿐만 아니라 시각적 품질과 희귀성 때문에 선정되었다.

편집자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1. 신비의 아기

1971년 어느 겨울 늦은 밤, 바바는 저녁 산책에서 돌아와 다다 아미타난다에게 자신의 태아기와 신생아기에 대한 기억을 몇 가지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 날 밤 바바 말씀에 관한 다다의 회상록'이다.

"나는 내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다. 자궁에서부터 나는 나의 어머니를 보고 있고 아주 잘 알아본다. 나는 아버지, 누이, 다른 친척들도 다 보고 있다. 나는 참으로 그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이름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태어난다. 일반적으로 아이는 출생시 울면서 태어난다. 그러나 나는 울지 않는다. 나는 항상 웃는다. 나는 태어나서 기쁘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그들에게 이름을 말해주고 싶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얼마나 무력한가! 내 성대는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온다."

"그들은 내게 우유를 먹이고 싶어한다. 우유가 들어있는 컵에 천 조각을 적셔 내 입 속에 떨어뜨리려 한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그리 먹이게 될 아기인가? 천 조각이 아니라 나는 컵으로 먹을 것이다. 항의로 내가 손을 들어 컵을 잡자, 내가 한 행동에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나는 이내 내 행동이 그들을 당황케 한 것을 알고는 바로 갓 태어난 여느 신생아로 돌아왔다."

"나는 어머니 옆에서 자고 있다. 밤의 고요 속에, 나는 깨어 보이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내 전 존재, 어머니, 침대, 방, 우주 너머까지 온통 감미로운 광휘로 가득 찼다. 즐기며 보고 있다. 점점 더 매료된다. 어머니에게도 일어났을 법한 이 에워싸는 빛을 어머니도 보았는지 나는 궁금하다."

"밤에 종종 나는 깨어 온갖 종류와 크기의 생물들이 내 왼쪽 귀에서 나와 사방을 걸어 다니며 춤추고 있는 것을 본다. 나는 흥미롭게 이 모든 것을 본다. 그러나 쇼가 끝난 듯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제 이 생물들이 내 오른쪽 귀로 모여 들어간다. 이게 너무 무서워 나는 소리 지르고 어머니에게 달라 붙어 이야기하니 혼란스러워 하신다."

<보디 칼파에서 첫 출판된 '풀리지 않은 신비' (1975년, 1월)>

다섯 살이 되었을 때, 바바는 이른 아침과 저녁에 앉아서 명상하는 평생의 수행을 시작했다. 가족 중 아무도 그가 언제 어떻게 명상을 배웠는지 몰랐고 바바도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 독립적인 아이를 홀로 두어야 함을 알았다. 가족이 엄격히 채식을 하지 않았어도 이 어린 아이가 채식 이외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예사롭진 않았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2. 바바의 이름

바바가 태어나서 사람들이 우유를 먹이려 하자 바바가 직접 손을 뻗어 컵을 잡으려 했을 때, 할머니 비나빠니는 아연실색하며 소리쳤다. "얘는 아기가 아니다. 오래된 영혼(부라)이다!" 그 때부터 그녀는 그를 '부라'라고 불렀다. 가족과 어린 시절 친구들도 '부라'라고 불렀다.
3세에서 5세 사이에 그의 출생명이 아룬(선홍빛 새벽)에서 프라밧 란잔(새벽을 물들이는 자)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그의 갓 태어난 사촌이 벵갈 활동가 데샤본두 칫다 란잔 다스 (출생한 날 사망)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남성들에게 중간 이름이 같도록 이름 짓는 것은 가족의 전통이었다.

어렸을 때 바바는 자말뿌르의 동쪽에 있는 언덕들, 깔리파하르에 있는 오래된 깔리 사원으로의 저녁 산책을 즐기곤 했고 그 당시 낮에도 가기 위험한 곳인 죽음의 계곡으로 밤 나들이 산책을 좋아했다.

편집자

몇 년 후에 바바가 말씀하시길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우 용감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걸 알았고 밤 늦게 호랑이 무덤에 가곤 했다. 9세 때 자정 지나 호랑이 무덤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 하나의 빛 존재가 내게 다가오는 걸 보았다. 나는 그 존재가 두렵지 않았다. 그 빛 존재는 나게로 와서 멈추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내가 물었다. "나를 모르는가? 나는 너 자신이다." 빛 존재는 이렇게 말하고 내게로 와서 나와 합일 되었다. 그 순간에 나는 전 우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우주의 모든 것 속에 편재하는 경험을 하였다."

<누가 호랑이를 탈 수 있겠는가?>





바바의 할머니, 비나빠니 사카르

"사다나를 위해 자말뿌르에 갔다. 특정한 장소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나와 함께 가자. 네게 사다나 하기에 더 좋은 장소를 알려주겠다. 따라 오너라.' 나는 아무도 볼수 없었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목소리를 따라 갔다. 그 목소리는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사다나를 하라고 요청했다. 잠시 후 내게 말하기를 '너 미쳤느냐! 마야 속에 있지 마라. 너는 프라밧 란잔 사카르가 아니냐? 네가 누구인지 보라!' 그리고 내 전생들이 목전에서 선명하게 스쳐갔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

<보디칼파에서 첫 출판된 <풀리지 않은 신비> (1975년 1월)

1959년 초 어느 밤, 나는 늦은 밤마다 바바가 산책 나가는 들판에서 바바와 단둘이 걷고 있었다. 바바는 그 날 매우 충만한 지복의 상태였다. 그는 도중에 멈춰 유년시절의 사건을 설명했다. "언젠가 한 줄기 빛이 눈부신 광채로 온 주변을 에워싸며 내 앞에 나타나자 내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아난다무르띠'라고 답했다. 그 때 나는 그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가 서서히 나와 합일되는 것을 알았다. 그 이후로 나는 지복의 화신, 아난다무르띠가 되었다."

아차리야 하리발랍

쁘라나이는 입문 후 거의 3년 동안, 바바를 구루로서 존경했음에도 형이라는 뜻의 '다다 또는 프라밧 다' 라고 부르며 마치 친구나 동료 대하듯 했다. 어느 날 산책 중, 바바는 쁘라나이에게 구루와 제자 사이에 이런 호칭은 적절치 못하다고 언급했다. 그 때부터 사무실이나 공식 석상을 제외하고 다다가 아니라 바바라고 해야 했다. 바바와 둘만 있을 때만 격 없이 호칭했다. 바바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지시했다. 그래서 곧 찬드라낫과 나기나처럼 바바보다 나이가 많았어도 모두 바바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3. 호랑이를 타는 바바

1932년, 1월, 바바보다 두 살 어리고 두어 집 떨어져 사는 사친드라낫 마릭은 바바 10세 무렵 일어났던 매우 신비한 일을 목격했다. 그는 인터뷰 동안 그 일을 회상했다.

지역 아이들은 저녁에 폴로 그라운드에 놀러 나가곤 했고 부부다(바바의 별명)도 우리와 갔었다. 우리가 놀고 있는 동안 그는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어둑해질 무렵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알 수 어는 곳에서 다시 나타나곤 했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묻곤 했으나 그가 대답을 회피해서 궁금증만 커져갔다. 드디어 어느 날 나와 두 명의 다른 친구들은 그를 면밀히 지켜보기로 했다.

우리는 공터에 도ㅁ착해서 정신없이 놀고 있다가 부부다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가 제방을 지나 죽음의 계곡으로 가고 있었다. 우리는 노는 걸 멈추고 멀리서 조심스럽게 그를따라갔다. 놀랍게도 그는 무서운 계곡에 있는 숲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 곳에 야생동물과 유령들이 다닌다는 온갖 공포스런 괴담을 들어온 터라 감히 따라갈 수 없어, 그가 어두워 지기 전에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멀리서 기다렸다. 그러나 햇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의 기미조차 없자 우리는 그의 안전이 걱정되어 두려워졌다. 그 때 갑자기 우리는 아연실색할 장면을 목격했다. 밀림 사이로 호랑이를 타고 있는 부부다를 본 것이다! 그가 숲 속 끝에서 내려 호랑이를 토닥토닥 쓰다듬자 호랑이는 이내 우거진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그가 다가오더니 우리에게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도무지 제어가 되지 않아 그가 한 것을 다 보았다고 말했다.

"뭘 보았는데?"

"네가 호랑이 타고 있는 거. 네 어머니에게 말하면 넌 호되게 혼날 거야."

"너희 미쳤어? 내가 호랑이를 타?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누가 믿어? 내가 혼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혼날걸."

"우리 모두 보았어. 넌 거짓말 못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부부다가 호랑이 타는 걸 보았다고 믿기지 않는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다가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오히려 조롱거리만 되었다. 우리는 참지 못하고 부부다 어머니께 가서 본 것을 말씀 드렸더니 그녀도 우리를 믿지 않고 부부다를 불러 사실대로 말하라 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믿으셔요? 오늘 저하고 싸워서 복수하려고 꾸며낸 얘기예요."

부부다의 어머니는 돌아서서 우리를 꾸짖었다. "이 장난꾸러기들! 싸웠다고 거짓으로 고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우리는 우리말이 사실이라고 최선을 다해 납득시키려 했지만 소용 없었다.

"호랑이를 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니?" 그녀가 우리에게 물었다. "너희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내가 믿을 거라 생각하니?" 우리는 몇몇 다른 어른들에게도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다음 날 부부다가 내게 물었다. "이봐 사친, 네 말 믿은 사람 있어? 혼나는 건 내가 아니라 너 아니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얘기 하지 마.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그 사건 이후로 부부다는 우리와 함께 폴로 그라운드에 가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그가 해질무렵이면 사람들이 가기 두려워하는 호수 주변과 죽음의 계곡에 혼자 가는 걸 보았다. 몇 번이나 보았지만 나는 무서워서 감히 따라가지 못했다. 나는 항상 궁금했다. 부부다가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지!

몇 년 후, 나는 카락뿌르 언덕에 사는 여성 탄트릭 수행자에 대해 들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초능력을 사용해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도그녀를 방문하러 부부다가 숲 속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훗날에서야 비로소 나는 부부다가 위대한 영적 스승인 아난다무르띠임을 알게 되고, 어리둥절케 했던 어린 시절의 행동도 이해되었고 그 이상한 사건과 그의 고양된 영적 상태를 연관시키기 시작했다.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 신비의 출현>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4. 초기 계획

어린 시절 내내 바바 가족은 여름방학 때 자말뿌르의 끊임없는 무더위를 식혀주고 풍부한 채소와 트인 벌판이 휴식처를 제공하는 바문파라의 아버지 고향에 자주 방문했다.

그는 침대에 몇 시간이고 비스듬히 누워 눈을 뜨고 몇 시간이고 우주를 응시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언젠가 14세 누이, 분별력 있는 히라프라바가 들어와 일곱 살 동생에게 종일 누워서 뭐하고 있냐고 물었다. "우주의 역사에 대해 다시 홅고 있어."라고 답했지만 누이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다음 날 누이가 다시 묻자 이번에는 "천년 후에 이 행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있어." 결국 우히라프라바는 게으른 남동생에게 질려버려 그의 게으름을 타박하기 시작했다. " 너, 아무것도 안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아직도 네 이름도 우리말로 쓸 줄 모르잖아." 바바는 특유의 잔잔한 미소로 누이를 잠시 보다가 서랍으로 가서 종이와 펜을 꺼내 영어, 아랍어, 많은 인도어를 포함해 열 개의 다양한 언어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를 보고 누이는 놀라서 놀란 새처럼 도망가 남은 방학 내내 바바를 피해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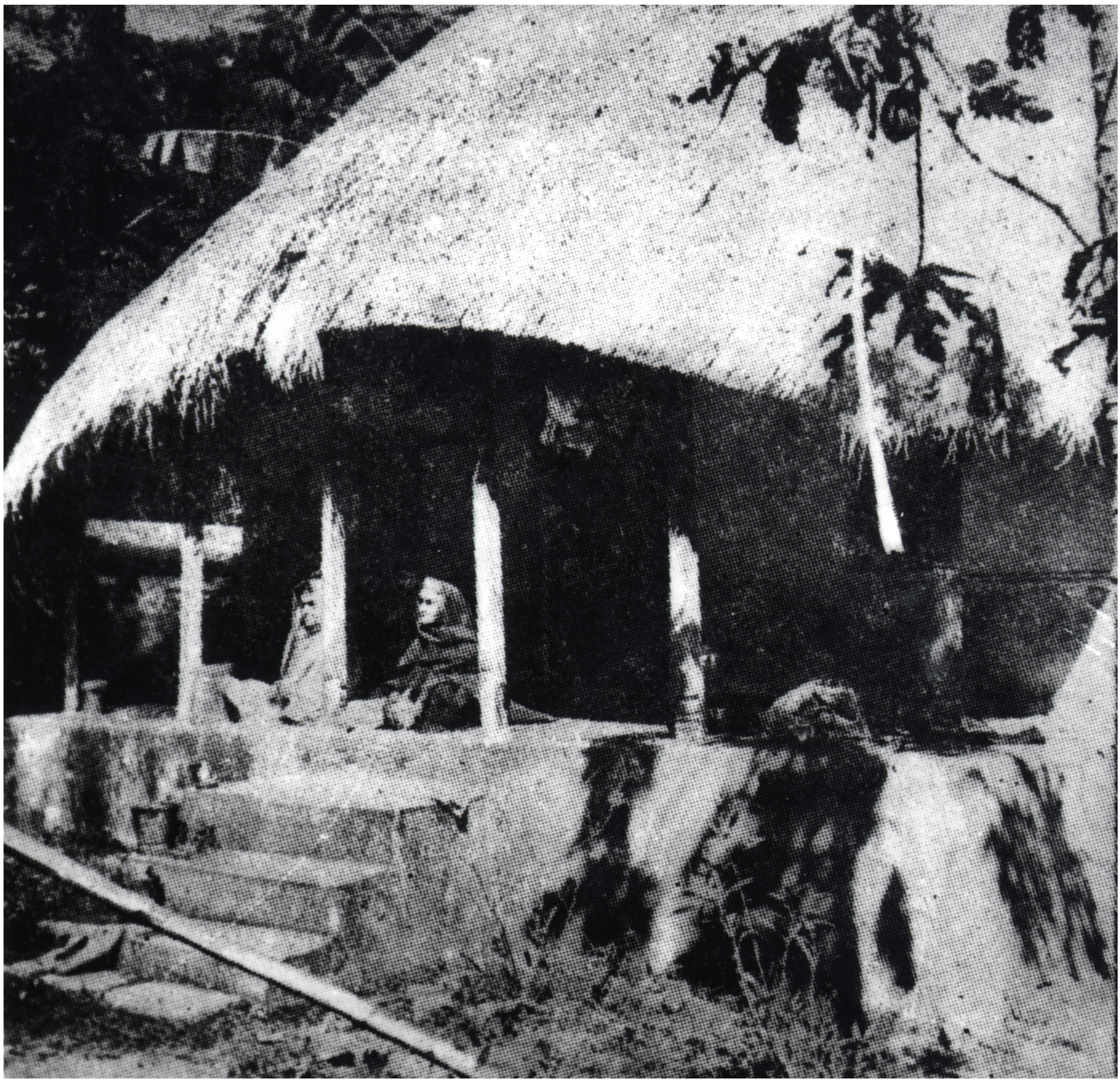
몇 년 후 바바는 다다 비자야난다에게 받아 적게 하면서 바문파라에서 있었던 그 방학 때의 추억담을 나누었다. 침대에 누워 아무 것도 안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바바는 카스트 제도와 다른 사회악들과 맞서 싸울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고 했다. 그가 25년 후 1955년에 창설한 사회적 영적 단체, 아난다 마르가의 미래 조직을 고안해 낸 것도 그 방학 때라고 말하며, 책상 서랍에서 퇴색된 종이 한 장 꺼내 제자 앞 컴퓨터에 부드럽게 펼쳐놓았다. 아직도 또렷한 그 바랜 글 속에는 훗날 창설하게 될 조직의 윤곽이 있었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바바: "너희가 오늘날 보는 것은 모두 내가 일곱 살 때 생각해 낸 결과들이다. 자말뿌르에서 열 두 살까지 내 모든 계획은 끝났다."

출처 미상

바문파라 집, 어머니, 할머니와 베란다에 앉아서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5. 초기 가족사진

이것은 1920년대로 추정되는 가장 초기
바바의 가족 사진이다.



바바 중앙, 누이는 그의 왼쪽, 남동생은 오른쪽



바바 어머니, 아바라니 사카르



바바 아버지, 락스미 나라얀 사카르





1930년경 초기 가족사진. 바바 아래 왼쪽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6. 사랑받는 급우이자 이상적인 학생

바바는 1927년에서 1930년까지 자말뿌르에 있는 케샵뿌르 초등학교에서 공부했고 거기서 그의 지성, 근면, 끈기와 모두에 대한 애정으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과학과 지리에 놀랄만한 광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살아있는 백과사전'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졸업 후 1931년에서 1939년까지 동부 인도 철도 고등학교에 다녔고 수업시간에는 집중력 있고 예의 바르고 밖에선 활동적이고 운동 을 좋아했으며 피리 연주와 시, 단편 소설 쓰기를 즐겼다.

편집자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바바의 명성은 초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녔고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바에게 보내는 게 관례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바바가 친구들과 책상 주변에 앉아 새 지리책을 받고 다른 모든 친구들과 책장을 후다닥 넘기고는 책을 덮고 누구라도 책에 있는 어떠한 질문이라도 도전하라고 말했다. 다른 소년들이 책을 덮고 도전에 뛰어들어 바바가 볼 수 없게 책을 펴고 질문하기 시작했고 바바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맞추었다. 이는 그들에게 인상깊은 일이지만 그들은 전에도 이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동벵골의 실헷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전학 온 비말렌두 차떼르지는 바바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그러자 바바가 그가 살던 마을을 묻고 나서 아주 자세히 그곳 농경지와 우물 위치까지 묘사했다. 바바가 계속 진행할수록 비말렌두는 더욱 놀랐다.

"그러나 네가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니?" 라는 그의 물음에 바바는 "너희는 공부 안 하잖아. 그게 모르는 이유야." 라고 답하였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비말렌두는 바바가 그리 정확하게 묘사했던 정보는 어떠한 책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다.

몇몇 소년들은 방과 후 바바 주변을 따라다니며 들판까지 동행하고 바바가 언덕에서 돌아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마을로 함께 돌아가곤 했다. 한 아이의 부모님이 아이가 밤마다 늦게 귀가하자 바바 따라다니는 것을 혼내고 그만 따라다니라고 했고 아이가 불평하자 무엇이 그렇게 끌리는지 알고 싶어했다.

"그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한번은 프라밧이 길가다 멈추는 걸 보았는데 그가 찬란한 오라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 오라에 싸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일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은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바바의 아버지, 락슈미 나라얀 사카르는 존경받는 동종요법 의사이자 지역 사회의 지도자였다. 1934년, 비하르 지진 후, 바바는 친구들을 동원해 아버지를 도와 구호 활동을 했고 용돈을 구호 기금에 기부하기도 했다.

자말뿌르 철도 고등학교 시절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7. 손금 예언가, 점성가이자 기적의 일꾼

한번은 바문파라에서 온 친척이 바바에게 묻기를 "부부다,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니?" 잠시 멈추었다 바바는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엄숙히 대답했다.

어느 날, 바바 어머니와 친할머니 비나파니 사카르와 몇 년 전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투다가 그들 둘 다 그 날 상황을 기억해내려고 잠시 멈추었을 때, 바바가 도와주어 기억나게 했다. "제가 그 날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나서 그들이 잊어버린 세부적 내용도 상기시켜 주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니?" 깜짝 놀란 할머니께서 물었다. "너는 그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게 모두 사실인 거 알아요" 그의 간소한 답변이었다.

아바라니는 미소만 짓고 있었다. 향후 몇 년 동안 다른 자식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할 때마다 "부부에게 물어봐. 부부는 모르는 게 없어. 내가 모르는 어떠한 것도 다 알아."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바바는 학생일 때도 초능력에 능통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기 전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어머니 아바라니의 허락을 먼저 받아오도록 했다. 가까운 친척이나 사카르 가족은 그의 이 특이한 재능을 알고 있었다. 전쟁으로 해외 소식이 끊기고 많은 친척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 걱정하면서 자기 자식들이 해외에서 살아있는 지 정보를 얻으려 오기도 했다. 또는 누군가를 여의고 이별의 아픔을 지닌 친척이 떠난 사람에 대해 위로 받고자 오기도 했다. 그렇게 불안하고 캐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아들에게 손금 봐 줄 것을 아바라니와 함께 간청했다.

그러면 바바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침실로 데리고 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구석에 중간 크기의 거울이 있는 방 가운데 의자에 앉히고 눈을 깜박이지 않은 채로 거울을 보라고 지시하고 바바도 다른 쪽에 앉아 거울을 응시했다. 몇 분 후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고 이 영상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들이 무사함을 알게 되었다. 거울 시연 후에 항상 바바는 몸이 안 좋았지만 몇 년 동안 그 매직 거울로 많은 부모와 친척들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어머니 아바라니는 아들의 건강이 염려되어 결국 매직 거울을 부숴버렸고, 바바는 이러한 초능력 시연을 그만두게 되었다.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의 생애와 가르침>

바바보다 몇 살 어린 마노란잔 바네르지는 종종 바바가 케삽뿌르에 있는 시바 사원에서 눈 감은 채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걸 보곤 했는데 이 모습이 그에겐 너무 인상적이었다. 어느 날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어느 날, 내가 6교시 수업하고 있을 때 너댓 마리의 황소가 좁은 길로 나를 쫓기 시작했다. 나는 책을 떨어뜨리고 살려고 도망치고 있는데 부부다가 골목 끝에 서서 황소 떼로부터 막아주었다. 황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갑자기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멈추었다. 놀란 나에게 가서 교과서를 주우라고 말했다. 책을 가지러 가려면 황소들이 서 있는 곳을 지나가야 해서 나는 두려웠다. 그러나 부부다는 계속해서 걱정할 거 없다고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 다. 나는 주저했지만 황소들을 지나 가서 책을 주워 부부다에게 돌아왔다. 내가 그러는 동안 황소들은미동도 없었고 내가 돌아온 후에 부부다가 황소들에게 손을 흔들자 그 때 움직여 돌아서 걸어가버렸다. 이 사건으로 부부다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자말뿌르, 죽음의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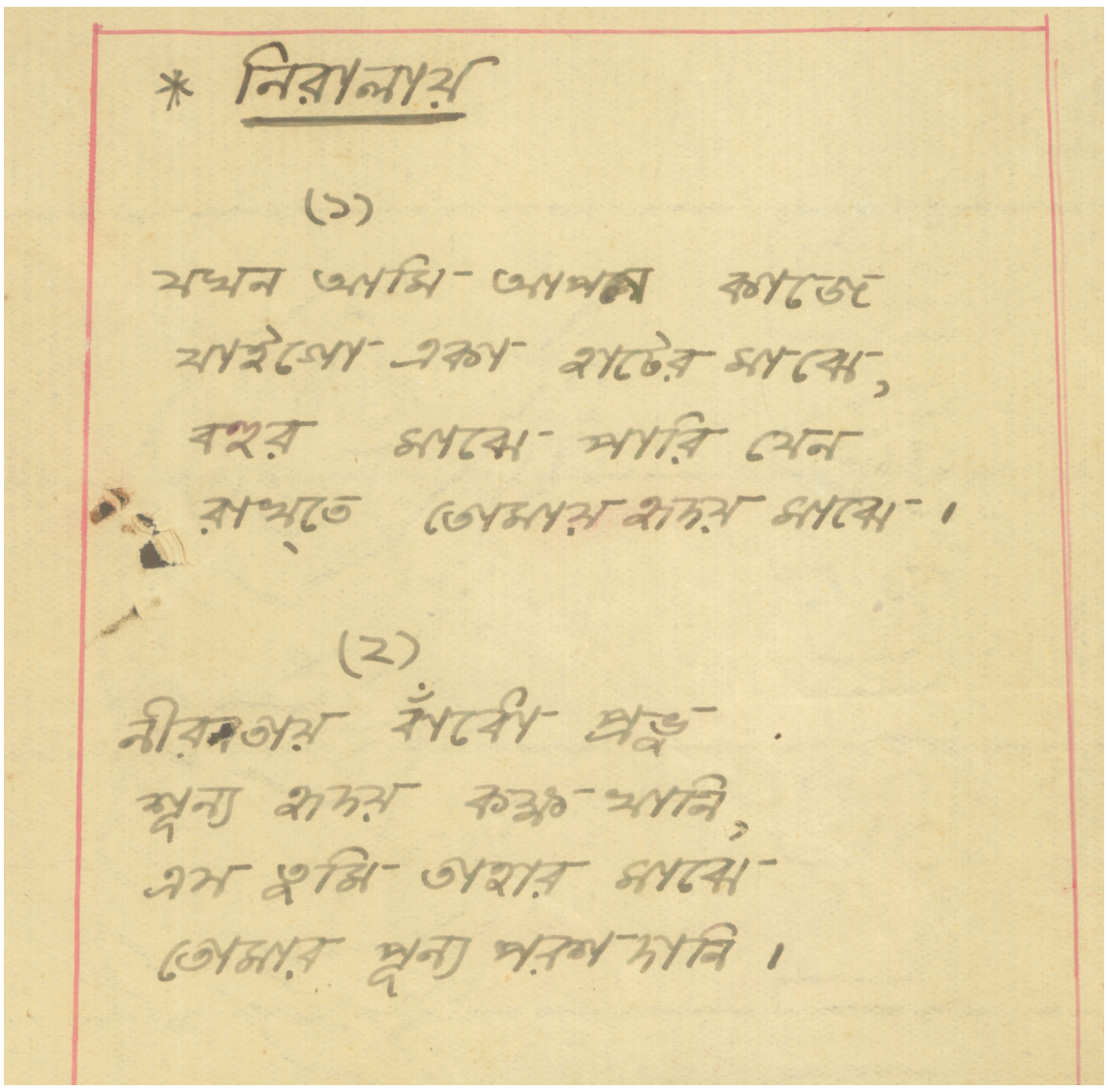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8. 시와 노래와 동화

1946년, 캘커타에 있는 대학에 다닐 때와 자말뿌르 철도역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초창기에 바바는 시, 이야기, 수필과 노래를 많이 지어 당시 유명 잡지에도 기고했지만 계속 연재되지는 못했다. 언젠가 우리가 마르가 구루로부터 중요 사항을 받아 적고 있을 때 갑자기 멈추더니 "글쎄, 내가 20세에서 21세 사이에 150편의 시를 영어로 지었단다." 고 말했다.

출처 미상


* নিরালায়

(১)

যখন আমি- একলা কথাতে
যাইযে- একা- রথের মাঝে,
বধূর মাঝে- আমি যেন
রহিতে তেমনই একা মাঝে- ।

(২)

নীরবতায় বঁধুয়ে প্রভু
শূন্য হাতে কথা- খানি,
এস তুমি- তথায় মাঝে-
তোমার শূন্য করিব- খানি ।

이것은 바바와 동료가 철도청 집무실서 수기로 잡지 편찬할 때 바바가 부르고 동료가 받아 적은시 3 편 중 하나의 원본이다.



고독

(1)

비밀 미션을 위해
이 세상에 홀로 들어와
모든 혼란 가운데
내 당신을 가슴에 품어도 되나요?

(2)

고요와 평온으로
텅 빈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오 신이시여!
그리 오셔서
당신의 신성함으로 물들이소서

23세 때, 바바는 <푸른 바다의 황금빛 연꽃>과 <심연의 푸른 바다 속에서>라는 어린이 책을 썼다. 두 권의 책은 나중에 <하타말라 랜드에서>라는 세 번째 책과 함께 아난다 마르가 출판에서 출간되었다.

<심연의 푸른 바다 속에서>는 저자의 아래 편집노트와 함께 출간되었다.;이 이야기를 쓸 때 작가는 매우 어렸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싫어하는데도 그런 유머 있는 이야기를 출판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발행인에 있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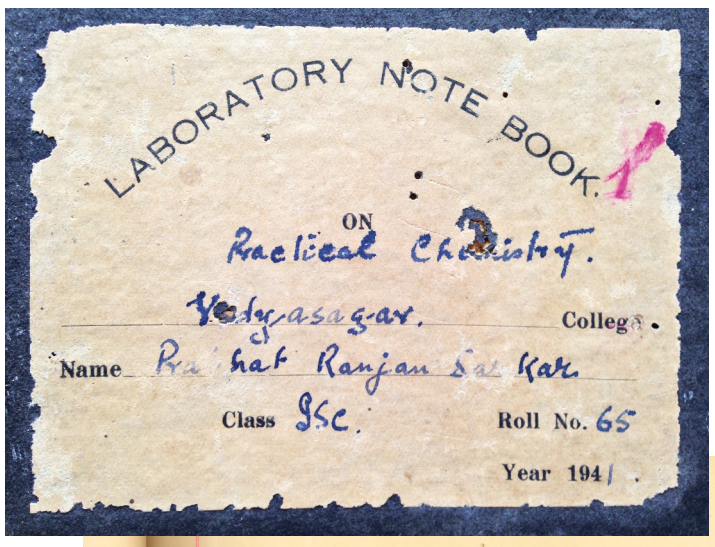
9. 비다사고르 대학

바바가 14세이던 1936년 2월, 아버지 락슈미 나라얀이 흑열병으로 돌아가셨다. 가정의 경제적 곤경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고집으로 바바는 학업을 계속해 193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같은 해 늦게 캘커타에 있는 비다사고르 대학에서 과학 학부에 입학해 어머니의 사촌인 샤랏 찬드라 보세 가족과 함께 지냈다.

바바는 <기이한 경험>이라는 책에서 대학 시절을 언급했다.

"대학 시절 나는 캘커타 북부에 있는 어머니 사촌 집에 지냈는데 집은 강가 강에서 꽤 가까웠다. 근처에 화장터도 있었다. 3층 집이었는데 3층에 방 두 개 중 하나는 어린 크리슈나 모습이 소장되어 있고 나는 다른 방에 묵었다. 앞 방의 구석 한쪽은 빨간 커튼이 쳐져 있었고 거기서 남자 친척 형이 탄트라 사다나를 수행했다. 캘커타 북부는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연이은 지붕을 지나가다 보면 25~30가구는 족히 즐비하다. 만일 누군가 지붕으로 올라가 3층으로 해서 그 집안으로 들어간다면 내 친척은 밤 사다나를 마치고 2층과 3층을 연결해주는 계단으로 가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글 거다. 즉, 나는 밤에는 그 가족 구성원에서 제외되었다. 주야로 시신 운구자들이 집 앞을 지나 화장터로 향했다."

"딥텐, 프라산타와 나는 비다사고르 대학에서 함께 수학했고 우리 셋은 절친이어서 서로 대리 출석도 해주었지. 함께 무단 결석하고 영화도 보고 카페에 앉아서 잡담도 했다. 그리 친했어도 그 가족들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다. 그 행복했던 시절도 목전에서 바로 끝났다. 프라산타와 나는 가정환경이 어려웠고 특히 내가 더 심해서였다. . 헤어지는 날 우리 셋은 극장도 가고 맘껏 먹고 서로의 주소를 적었다. 우리가 보통 때는 편지를 쓰든 말든 상관없지만, 애경사는 분명히 서로 알리자고 약속했다."


LABORATORY NOTE BOOK.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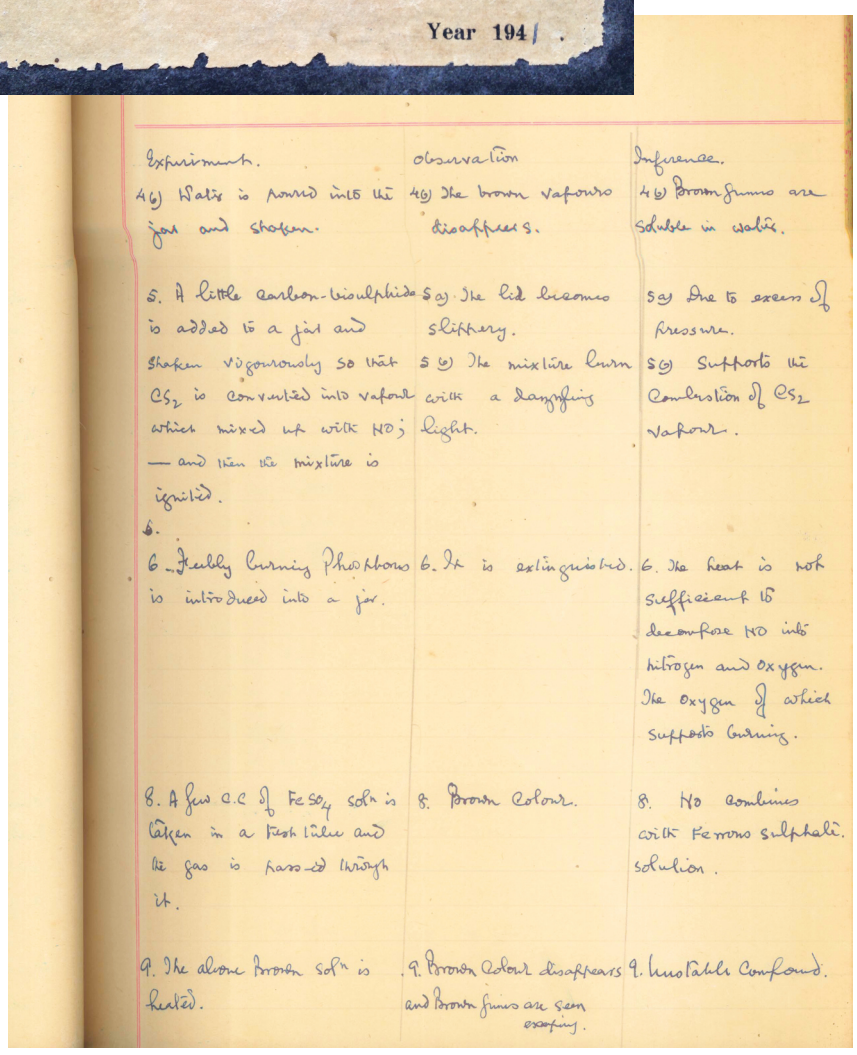
Practical Chemistry.

Vidyasagar. College.

Name Pra[illegible]hat Ranjan Sark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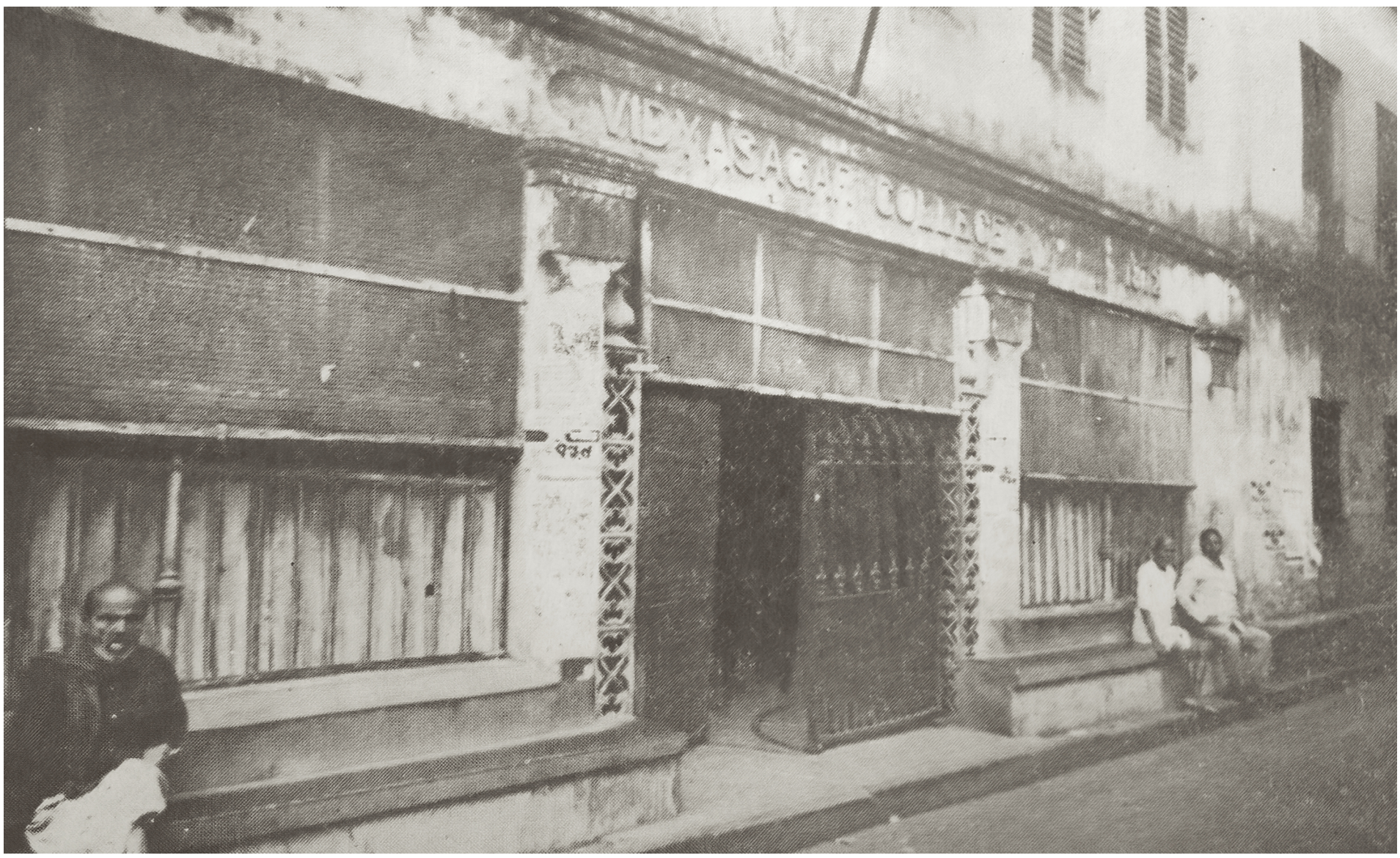
Class Sc. Roll No. 65

Year 194[illegible].


Experiment.	Observation	Inference.
4(a) Water is poured into the jar and shaken.	4(a) The brown vapours disappears.	4(a) Brown fumes are soluble in water.
5. A little carbon-bisulphide is added to a jar and shaken vigorously so that CS_2 is converted into vapour which mixed it with NO; — and then the mixture is ignited.	5(a) The lid becomes slippery. 5(b) The mixture burns with a dazzling light.	5(a) Due to excess of pressure. 5(c) Supports the Combustion of CS_2 vapour.
6. 6. Feebly burning Phosphorus is introduced into a jar.	6. It is extinguished.	6. The heat is not sufficient to decompose NO into Nitrogen and Oxygen. The Oxygen of which supports burning.
8. A few c.c of $FeSO_4$ soln is taken in a test tube and the gas is passed through it.	8. Brown Colour.	8. NO combines with Ferrous sulphate solution.
9. The above Brown soln is heated.	9. Brown Colour disappears and Brown fumes are seen escaping.	9. Unstable Compound.

대학 시절 바바의 실험 노트

그 당시 바바가 다닌 비다사고르 대학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10. 칼리카난다

캘커타에 있는 대학 시절, 바바는 갠지즈강 둑을 따라 저녁 산책을 하곤 했다. 어두워지면 그늘 속에 숨어있던 강도가 나타난다는 위험한 강둑의 카쉬미트리 화장터에 멈추고 앉아 명상을 하곤 했다. 1939년 8월, 17세나 18세인 바바는 그 날 저녁 쉬라바니 보름날에 반사되는 은빛의 보름 달을 감상하며 앉아 있었다. 그 때, 약탈을 목적으로 한 강도가 뒤에서 다가왔고, 바바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거기 칼리차란인가? 와서 앉거라" 칼리차란은 이 젊은이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움 없이 자기 이름 부르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바바는 가진 것 전부를 줄 테니 강에서 목욕하고 와서 더 귀중한 입문을 받으라고 말했다. 젊은이의 두려움없는 모습에 공손해져 이제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칼리차란은 강에서 목욕 하고 입문 받고 새 사람, 칼리카난다 아바두타가 되었다. 곧 그는 바바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고집하였다. 집에 도달했을 때, 바바는 그의 간곡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몇 푼 안되지만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주겠다고 고집했다. 그 날이 쉬라바니 보름날이어서 바바는 쉬라바니 푸르니마라고 그 사건을 경축한다.

몇 년 후, 1980년 8월 25일 쉬라바니 보름에 바바는 그 사건을 회상했다."이 날이 쉬라바니 보름, 중요한 날이다. 그 때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이었다. 어느 날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사악한 사람이 다가와 '사악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은 인간의 영원한 상태가 아니다. 오늘 사악한 사람이 내일 숭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늘 어리석은 사람이 내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는 모두 상대적 구속에 대한 상대적 문제이다. 아무도 영원히 사악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악한 사람의 선함과 정묘함을 항상 발전시키려고 노력 해야 한다. 그날 밤, 어떤 사악한 이가 내게로 왔다. 그가 내게서 무엇을 기대했겠는가? 그러나 내가 그에게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대는 왜 나쁜 길을 선택하는가?" 라고 인간 본연의 심리로 들어가 물으니 대화 속에서 그는 삶을 바꿔야겠다고 깨닫고 입문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내가 여태 누구에게나 주는 최초의 영적 입문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쉬라바니 보름날이 다시 돌아왔다.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게 1939년이었으니 41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11. 철도 공사 사무실

1941년, 바바는 캘커타에서의 학업을 그만두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말뿌르로 돌아가야 했고, 그곳에서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였던 철도청의 회계부에 일자리를 잡았다.

"나는 얼마간 인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후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해 효자처럼 공무원 직장을 다녀야 했다."

<낯선 경험>

바바는 1960년까지 회계감사관으로 일하면서 직장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엄격함과 철저함으로 명성을 떨쳤다. 심지어 고위직 장교들도 그 P.R. 사카르가 사무실 감사하러 온다고 들으면 불안해하곤 했다. 만약 그들의 계좌에 부정행위가 있다면 *P.R.* 사카르는 반드시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흔히 속삭였다. 그의 부하 직원들은 그들이 검사를 받을 때, 바바는 회계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직원을 불러 그들이 방금 전에 잘못 기입한 것에 대해 지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확히 그 해당 장부 페이지로 그들을 안내하곤 했다고 회상했다.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바바가 고위 관리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도 비밀은 아니었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70년대 후반, 바바는 자말뿌르 철도 사무실에서 일했던 시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직무의 일환으로 그는 부서들의 여러 사무실과 상점을 감사하여 그들의 업무와 계좌를 확인해야 했다.

특히 한 번은 점원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을 넌지시 알린 적도 있었다. 부하 직원이 전화를 받았 다.

바바: "본부의 프라밧 란잔 사카르입니다. 내일 당신의 사무실 감사가 있습니다. 담당 책임자에게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바의 말은 그에겐 벼락같은 일이었다. 놀라 주체할 수 없었던 그 부하 직원은 수화기를 통해 "맙소사! 프라밧 란잔 사카르! 사카르가 감사 나온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상관을 부르러 달려갈 때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상사가 전화 받아서 신원을 밝혔다.

바바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제 이름을 듣고 당신 직원은 마치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처럼 겁에 질린 것 같군요. 제가 호랑이라도 됩니까?"

상사는 부하 직원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바바에게 예정대로 오라고 요청했다.

바바는 "다들 알다시피 나는 감사 나갈 때마다 먼저 어떤 특정 파일과 문서를 요청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바로 그 특정 파일과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심각한 모순과 부조리를 찾곤 했다."

"거짓 진술, 사본 문서, 꾸며낸 사건 등으로 나를 오도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비참하게 실패하곤 했다. 게다가,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현금이나 물품도 받지 않았고, 감사 받는 사람들로부터 제공된 어떤 음식도 받지 않았다. 그랬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텐데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럴 때면 그들은 절망 속에서 무너져 자비를 구했다:

"저는 극심한 가난과 환경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제발 날 해고하지 마세요! 제발! 제게는 부양해야 할 대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바바는 계속 하셨다.

"나는 딜레마에 빠지곤 했다. 한편으로는, 잘못한 사람을 봐주는 것은 내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 그럴 수 없었고, 그렇다고 내가 그 불쌍한 사람을 직장에서 내쫓고 그의 가족이 굶어 죽게 만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물론, 그들이 근무 기간 중에 퇴사당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내 책임감에 위배되지 않고 죄인을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나는 한 번도 누군가 직장을 잃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정말로, 나는 이 불쌍한 동료들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해당 부서의 손실없이 체면을 세우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곤 했다."

<바바와 함께한 날들>

1954년1월 7일 찍은 철도 사무실 그룹 사진. 바바는 세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12. 바바의 육군 복무



1943년경 군복 입은 바바(오른쪽에서 두 번째 서있는). 동생 히망슈 란잔(왼쪽에 서있는), 수당슈 란잔(왼쪽에서 두 번째), 마나스 란잔(오른쪽), 누이 히라프라바(오른쪽에 앉아있는), 여동생 비즐리 프라바(왼쪽)와 함께. 비즐리 프라바는 곧 죽었다.

1942년 중반, 영국 정부는 인도 정부 직원들을 영국 육군 부대인 인도영토군(ITF)에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철도, 우정사업부, 공공사업부와 같은 주요 부서에서 일하는 젊은 미혼 공무원들이 채용 대상이었다. 그들은 영국 정부가 전쟁 임무를 위해 정규 보안군을 철수할 경우 각 정부 부서에 보안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도록 되어 있었다. 입대한 사람들은 캘커타 근처의 반델에서 예비 훈련을 받았고 북 벵갈과 아삼에서 한 달간의 연례 훈련을 받았다. 또한 주 2일, 근무 시간 후에 짧은 퍼레이드 훈련이 있었다. 신병들은 그들의 군복을 입고 출근하고 매달 12루피와 8안나의 급여가 주어질 거라고 예상되었다. 추가 수입이 가족의 부양에 도움이 될 터라 바바는 신병으로 입대했다. 그는 적어도 943년 내내 ITF에 있었고, 어쩌면 더 오래 있었을 수도 있다.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 신비의 출현>

바바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종종 말씀하셨듯, 맏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1948년 초 어느 날, 바바 동생 히망슈가 그 이야기를 꺼냈다. "형, 형은 모든 걸 알고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지 가르쳐 줄 수 있어? 나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바바가 얼굴을 찌푸렸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좋지 않아."라고 그가 말했다. "전혀 좋지 않아. 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신의 섭리가 허락되지 않은 건 다 이유가 있어."

며칠 후, 바바의 부모님 댁으로 와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사촌 아짓 비스와스와 함께 바바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바바의 여동생인 비즐리 프라바가 그들에게 간식을 대접하는 동안, 어머니 아바라니는 집안 일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그녀를 꾸짖기 시작했다.

"곧 결혼하게 될 텐데 아직도 요리는 커녕, 손님 접대하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자 어머니가 차분해져서 딸인 비즐리 프라바를 평화롭게 놔둘 때까지 바바가 여동생을 두둔하였다.

자신들만 남겨졌을 때, 바바는 아짓에게 "비즐리가 집안일을 그렇게 잘 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했다. "엄마가 서둘러 주선하는 성급한 결혼은 절대 성사되지 않을 거야."

"프라밧,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멋진 일이야,"라고 아짓은 감탄하며 사촌의 독특한 능력에 고개 저으며 경이로워 했다."

"전혀 아냐."라고 바바가 그에게 말했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야. 알다시피, 내 여동생은 단명할 운a명이야. 그녀는 혼인 날까지 살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난 그 애가 말년에 불필요한 문제를 굳이 겪지 않도록 평화롭게 남겨지기를 바랄 뿐이야. 생각해 보렴. 난 그 애를 볼 때마다, 그녀의 죽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떠올라. 너는 비즐리를 볼 때 건강한 젊은 여자를 보지만, 나는 그녀의 죽음이 보여.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친구나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거나 편안히 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상상해 봐. 인간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하늘의 섭리인 이유야."

다음 날, 바바는 히망슈에게 며칠 캘커타에 동행하자고 부탁했다. 4, 5일 뒤 자말르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늘 태평했던 누이 비즐리 프라바는 임박한 질병의 징후도 없는 흑열병으로 바로 그 전날 사망했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13. 초기 제자들



1939년과 1954년 사이에 바바는 많은 제자들을 입문시키면서 비밀 엄수에 대한 서약을 받았으며, 그들에게 다른 제자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그의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조차도 영적 스승으로서의 바바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했다.

바바는 1954년 11월 7일, 자말뿌르 339번지 람푸르 콜로니에서 제자들을 불러 첫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그들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다수가 동료 제자였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일주일 뒤인 11월 14일 람푸르 콜로니 숙소에서 2차 회의가 열렸을 때 바바는 처음으로 수바쉬 찬드라 보세(네타지)가 살아서 티벳에서 사다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작은 방에는 프라나이, 찬드라낫, 아쉬따나, 나기나, 사찌난단 만달 박사, 라스마이 다스 등 15- 16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짧은 담화 후에, 바바는 크리슈나 찬드라 팔 (별명 케스토팔, 또는 크리스토)에게 죽음을 시연했다. 그는 크리스토의 몸에서 생명력을 빼내고 그의 몸에서 마음을 분리한 다음, 나중에 라히리 마하사이로 확인된 "위대한 성인"의 육체 없는 마음을 대신 넣었다. 육체는 새로운 마음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고, 바바는 그에게 화성, 달, 소련의 크렘린궁 등 여러 곳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라 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바바는 라히리의 마음에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티벳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일단 티벳에서 수도 라사로, 그리고 나서 링포포에 있는 근처 수도원으로, 그리고 나서 근처 동굴로 가서 그가 거기서 본 것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라히리는 매우 광채 나는 사람이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바바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누구인지 보라고 지시했다. 라히리는 네타지 수바쉬 찬드라 보세라고 말했다.

좌중은 흥분으로 떠들석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경이로운 것들을 보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수업이었다.

바바는 라히리에게 네타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인도로 돌아갈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명령했고, 인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네타지의 대답이 왔다. 바바는 라히리에게 돌아와 크리스토의 육체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크리스토의 마음을 다시 그의 육체로 불러들였다. 크리스토a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어떤 부작용도 느지 못한 채 정상적인 의식을 회복했다.

그것은 바바가 행한 가장 경이로운 시연이었다.

다다 쁘라나바뜨마카난다의 노트에서

초기 제자들은 이 곳 베란다에 모여 매일 명상하며 바바가 오기까지 기다렸다. 이후 1956년 바바 쿼터가 너무 작아 사다르 바자르에 있는 한 장소를 임대했다가 1958년 12월 28일 올리간즈에 새로 지은 현재 자그리티로 이전했다.

크리슈나 찬드라 팔 (케스토팔, 크리스토) 1992년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14. 바바와 다다 찬드라낫

다다 찬드라낫은 1950년 또는 1951년에 구루를 찾기 시작했지만 만족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1952년 그는 휴가 때 가도뿌르로 돌아와 인도 전역에서 온 제자들과 함께 유명한 성자가 된 한 마하뜨마(위대한 영혼)를 만나러 갔다. 그는 매우 감명받았고 결국 그에게 입문을 청했다. 그러나 그 마하트마는 그의 입문을 거절하고 보즈뿌리 언어로 "Samaya aya ta mili– 때가 되면 입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년 뒤 동료 직원으로부터 바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그를 찾아갔다. 찬드라낫이 바바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앉아 있던 바바의 형이 그를 앞방으로 안내한 뒤 커튼이 쳐진 문으로 들어가 바바를 모셔왔다. 찬드라낫은 바바가 방에 들어오기 위해 커튼을 통과하기 직전에 벵갈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Ki, samaya hala? – 이제, 그 때가 된 것이냐?"

<때가 되면: 아차리아 찬드라낫 꾸마르와의 대화>

다다 찬드라낫은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으리>라는 그의 책에서 회상했다:

나는 프라남(절)으로 바바에게 인사했고 바바는 나에게 앉으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학식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의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나는 "저는 학식 있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구루를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바바의 태도는 즉시 바뀌었다. 그는 진지해져서 "이 문을 닫고, 저 문도 닫고, 여기 창문 또한 닫고, 이리 와서 앉거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입문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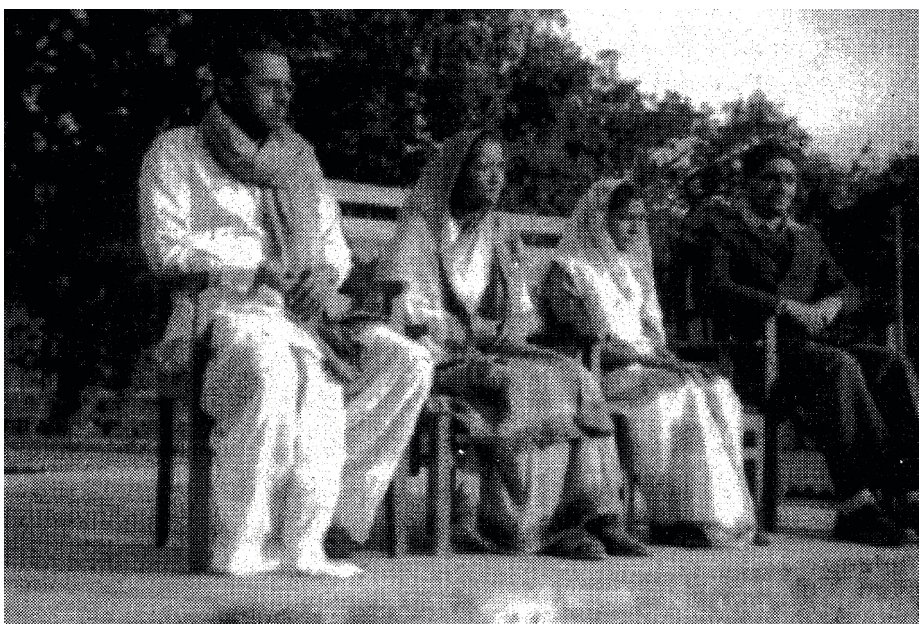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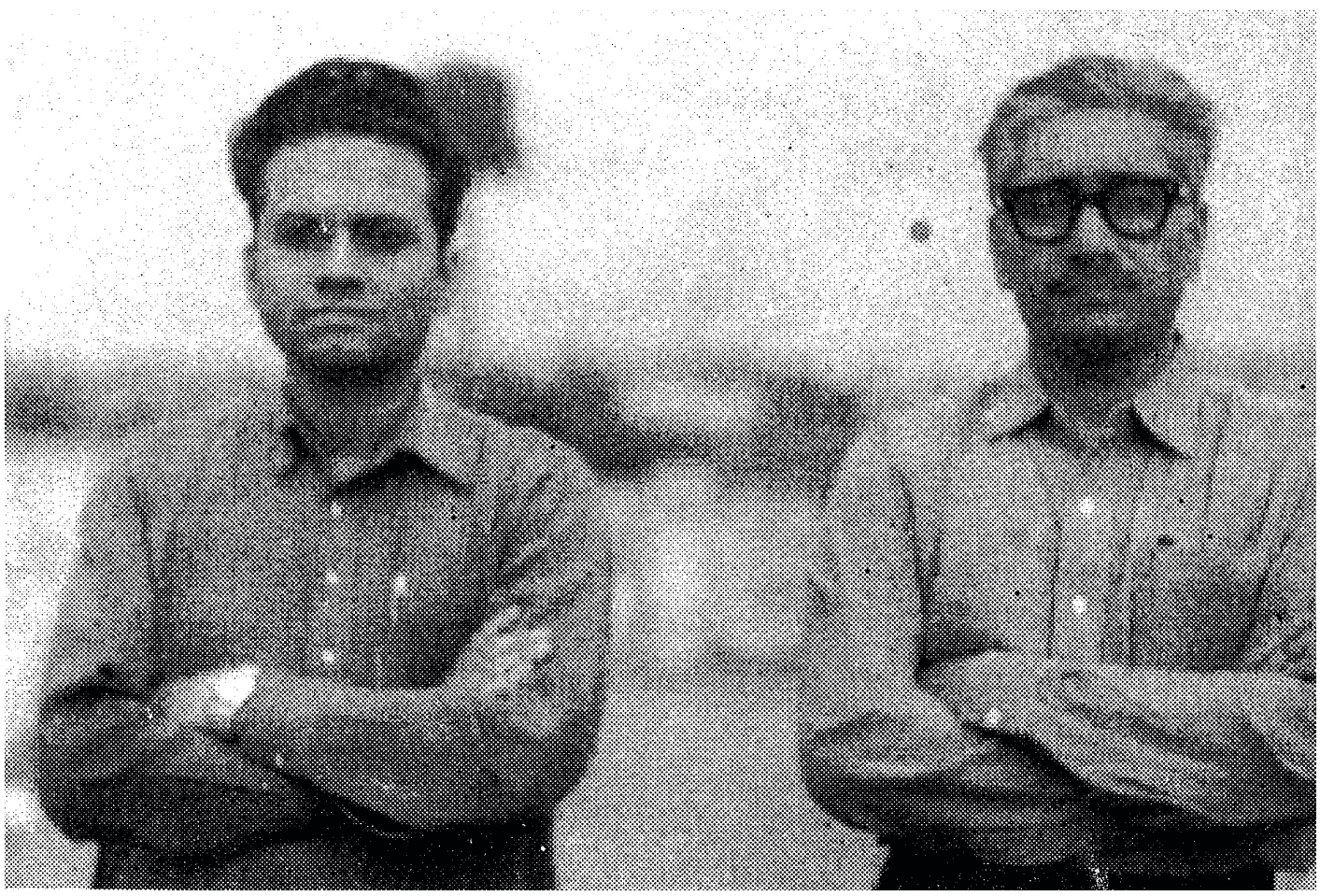
아차리아 찬드라낫 쿠마르와 몇 년 후 아차리아가 된 그의 아내, 아차리아 람파리 데비

아차리아 쉬바 상카르 바네르지, 아차리아 찬드라낫 꾸마르, 아차리아 람찬드라 판데이 (1955년경)



아차리아 쉬바 상카르 바네르지, 아차리아 일라 버네르지, 아차리아 람파리 데비, 아차리아 찬드라낫 쿠마르(1955년경)







말년의 아차리아 찬드라낫 꾸마르와 아차리아 람파리 데비

쁘라나이 쿠마르 차떼르지와 아차리아 찬드라낫 꾸마르 (1955년경)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15. AMPS

1954년 12월 25일, 바바는 새로운 단체를 위한 내규와 법 초안을 만들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1955년 1월 1일, 람푸르 콜로니 쿼터에서 그는 그 조직의 이름에 대한 제안들을 받았다. 첫 번째 것은 푸쉬티 마르가(헌신의 길)였고 두 번째 것은 브라마 이스타 마르가였다. 그리고 나서 바바는 이 조직은 지복의 길, 즉 아난다 마르가 전법을 위한 조직이라는 뜻인 Ánanda Márga Pracáraka Samígha (AMPS)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발족식을 하고 그 날 바 첫 달마 마하 차크라 (DMC) 를 개최했다.

바바는 첫 DMC에서 '사회의 진화'에 관한 강의와 첫 바라바야 무드라를 주었고, 매해 새해 첫 날에 DMC가 개최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실, 조직의 초기 몇 년 동안은 거의 매월 보름달에 가장 가까운 일요일에 DMC가 개최되었다. 모든 강의는 이후 수바쉬타 상그라하 시리즈로 편집되었으며, 이는 아난다 바차나므리땀 시리즈(일반 친견과 DMC 강의)와 나마미 크리슈나 순다람 (1980년 8월과 1981년 4월 사이에 캘커타에서 강의), 그리고 나마 시바야 산타야(1982년 강의)와 함께 아난다 마르가의 달마 샤스트라(영적 논서)를 구성하게 된다.

아난다 마르가 프라차라카 상가는 1955년 1월 9일 문게르 등기소에 사회법에 따라 공식 등록되 었으며, 바바가 대표로, 쁘라나이 꾸마르 차떼르지가 초대 총무가 되었다. 두 번째 DMC는 같은 날 람푸르 콜로니 쿼터 마당에서 열렸다.

제 3차 DMC는 1955년 2월 6일 바갈푸르 경찰서 경내 다다 찬드라낫의 집에서 열렸는데, 이 기간 동안 바바는 상스카라에 따라 아파서 죽기 직전이었던 빈데쉬와리 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바바는 목숨을 구한 후에 그에게 말했다. "가거라! 더 이상 두려워 마라." 빈데쉬와리는 아내에게 "이제 최소한 목숨은 건졌다." 당신은 과부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요게시와르 아난다무르띠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종종 황홀경에 취해 울고 춤추었다.

1955년경 람푸르 콜로니, 쿼터 뒷뜰에 있는 바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16. 탄트릭 구루



아마도 일종의 삼매에 드신 바바

제자들은 바바가 카팔릭 사다나를 가르치기 훨씬 전부터 탄트릭 구루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스승, 헌신적인 구루, 그리고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올바른 길을 벗어나면 벌을 서슴지 않는 엄격한 감독으로서의 스승이자 맹렬한 훈련가 였다. 탄트릭 구루의 이런 면은 수천 년 동안 탄트릭 전통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1960년 DMC 강연에서 바바가 설명하기를, "탄트릭 구루는 제자들에게 영적 수행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길에서 정진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자신의 가르침들을 확실히 제대로 따르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탄트릭 구루는 제자들에게서 어떤 태만한 면을 발견하게 되면, 제자들에게 상황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더 열심히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스승은 또한 벌도 주고 은총도 줄 수 있어야 한다. 처벌만 하거나 은총만 베푸는 스승은 이상적인 스승이 아니다."라고 했다.

탄트릭 전통에서 구루는 종종 제자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정신적 약점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테스트를 하여 그들을 시험한다. 바바의 테스트는 대부분이 제자들의 정상적인 경험 범위 내에서 하였지만, 때때로 이러한 테스트에 약간의 도전들을 더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아비댜의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했다.

바바가 키슌에게 "아비댜 구루는 제자들에게 종종 극복하기 어렵거나 매우 강한 증오와 혐오같은 성향들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탕을 가지고 다니며 가끔 마야의 도움으로 그것을 사람의 시체처럼 보이게 하고 살을 먹으라고 했다. 이는 사드리뿌 (6가지 마음의 적)와 아쉬타파샤 (8가지 마음의 속박)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나중에 맛이 어땠는지 그들에게 물어보면 달콤하다고 대답했다."

아니룻다는 바바를 무서워했다. 그는 바바를 강력한 탄트릭 (여기서는 흑마술사의 뜻)으로 여겼지만, 이 두려움조차 그가 바바를 방문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바바와의 첫 산책에서 있었던 다음의 사건을 설명했다.

바바가 내게 보고 싶은 게 있냐고 묻길래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세요."라고 말했다. 바바가 다시 물었다. 내가 동의했을 때, 그는 내게 눈을 감으라고 하면서, 됐다고 말할 때까지 눈을 뜨지 말라고 했다. 그 후, 그가 손전등을 켜더니 나에게 눈을 뜨라고 했다.
"뭐가 보입니까?" 바바가 물었다.

그 곳에는 약 7피트 키의 사람이 서 있었다. 바바가 손전등을 회전하자 그 사람은 키가 30피트 야자수만큼 자라기 시작했다. 나는 겁에 질려 몸을 굽혀 바바의 발을 잡고는 그에게 만약 나를 살려준다면 십만 루피를 주겠노라고 했다. 설마 혹시 나마저도 야자나무로 만들어 버릴거냐고 겁에 질려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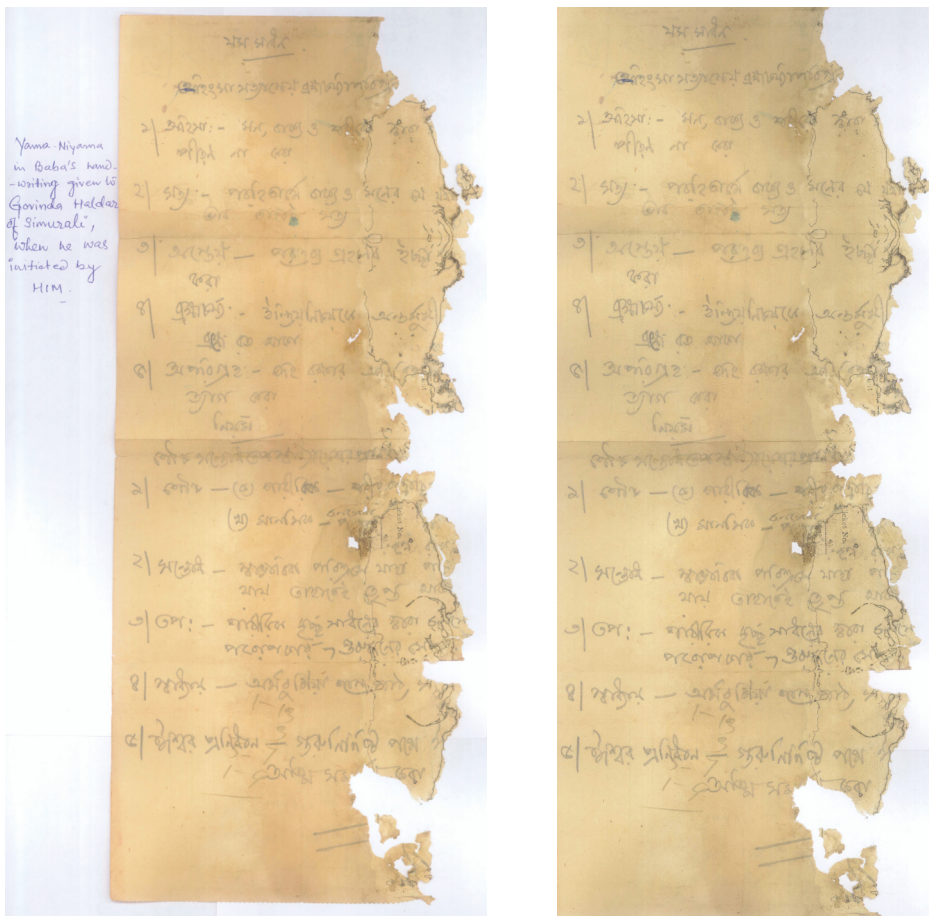
바바는 "걱정 마시오. 당신을 죽이거나 야자나무로 만들지 않을 거요. 내 발만 붙들고 있으세요." 바바는 그 사람을 6피트까지 줄어들게 하고 그에게 오라고 불렀다. 그는 내가 바바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돈을 제안하는 것을 들었을 때 거인처럼 웃었다. 둘 다 웃고 있었고 나는 둘 다 대단한 탄트릭 수행가라 생각했고 바바가 나를 죽이려고 소환한 유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바는 걱정말라고 했다. "그는 칼리카난다이다." 바바가 그에게 가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바바가 말하였다. "늦었으니,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기차를 놓칠 겁니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17. 쟈마와 니야마

초창기부터 바바는 강조했다. "도덕성은 토대이고,
사다나는 수단이며, 신성한 삶이 목표이다."



1950년대 초 바바가 고빈다 할다르의 입문 때
자마와 니야마(요가의 도덕률)에 관해 수기로 적은메모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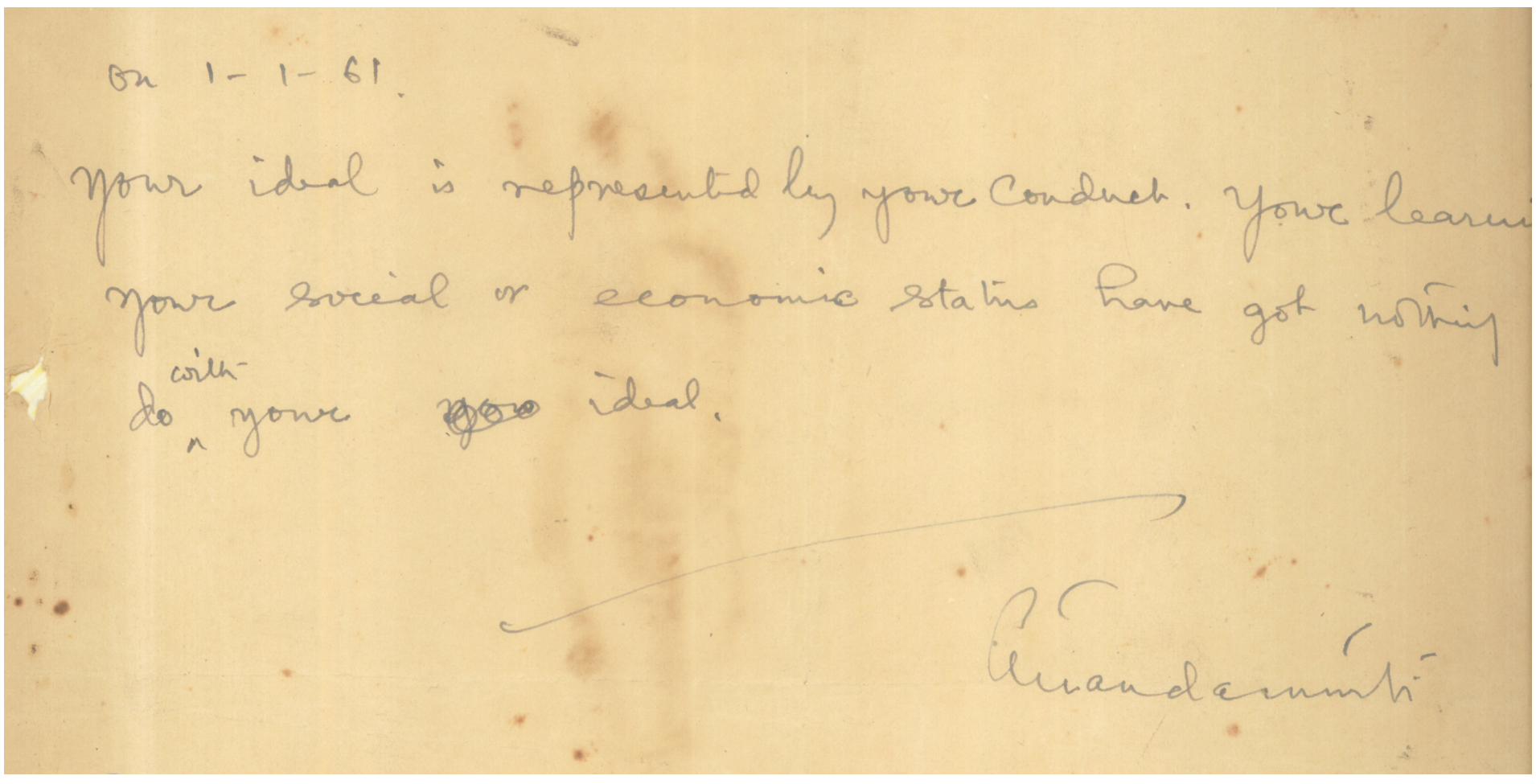
1957년 아난다 뿌르니마(바바 생신)때 자말뿌르에서, 바바는 자마와 니야마에 관한 지침서인 <인간행동의 길잡이>를 발표했다. 서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덕성은 사다나(영적 수행)의 토대이다. 그러나 도덕성이나 품행이 영적 행진의 정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덕가로서 다른 도덕가들에게 이상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다카(영적 열망가)에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 사다나는 첫 시작부터 정신적 평형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신적 균형을 도덕성이라 할 수 있겠다."

"도덕적 이상은 인간에게 사다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영감과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성은 시간,과 공간과 개체 대상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기에 도덕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덕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복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어떤 상대적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난다 마르가의 사다나에서는, 브라마와 하나되는 이상을 갖고 도덕 교육을 한다. 도덕적 관념없이는 사다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다나를 시작하기 전에 도덕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다나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해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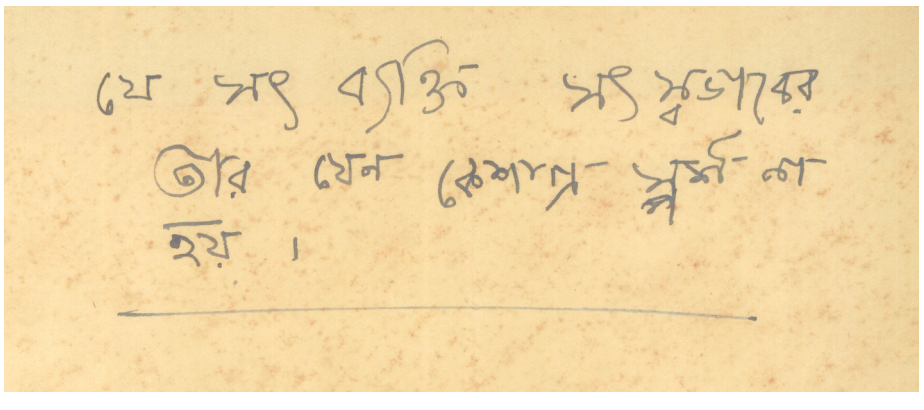


아난다 바니, 1961년 1월 1일, 바바의 자필로: "너의 이상은 너의 행동으로 표현된다. 너의 학식,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너의 이상과 아무 상관 없다."

"내가 농업대 교수이던 시절 바바가 히사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나는 그와 주변을
산책하면서 새 교정의 아름다움에 대해
극찬했다. 바바는 듣고 '한 방울의 비도덕성이
이 아름다운 구조물을 파괴할 수있다'라고
말했다. 오늘 나는 이제서야 그 의미를
이해한다. "

G.D. 샤르마

바바의 필적:
"그 누구도
정직하고 품행이
선한 이들을
해쳐서는
안된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18. 차리야차리야

바바는 아난다 마르가가 설립된 직후인 1955년에 아난다 마르가 차리야차리야 원본을 구술하며 이를 받아 적게 했다. 초판은 1956년 4월 다음과 같은 서문과 함께 벵골어로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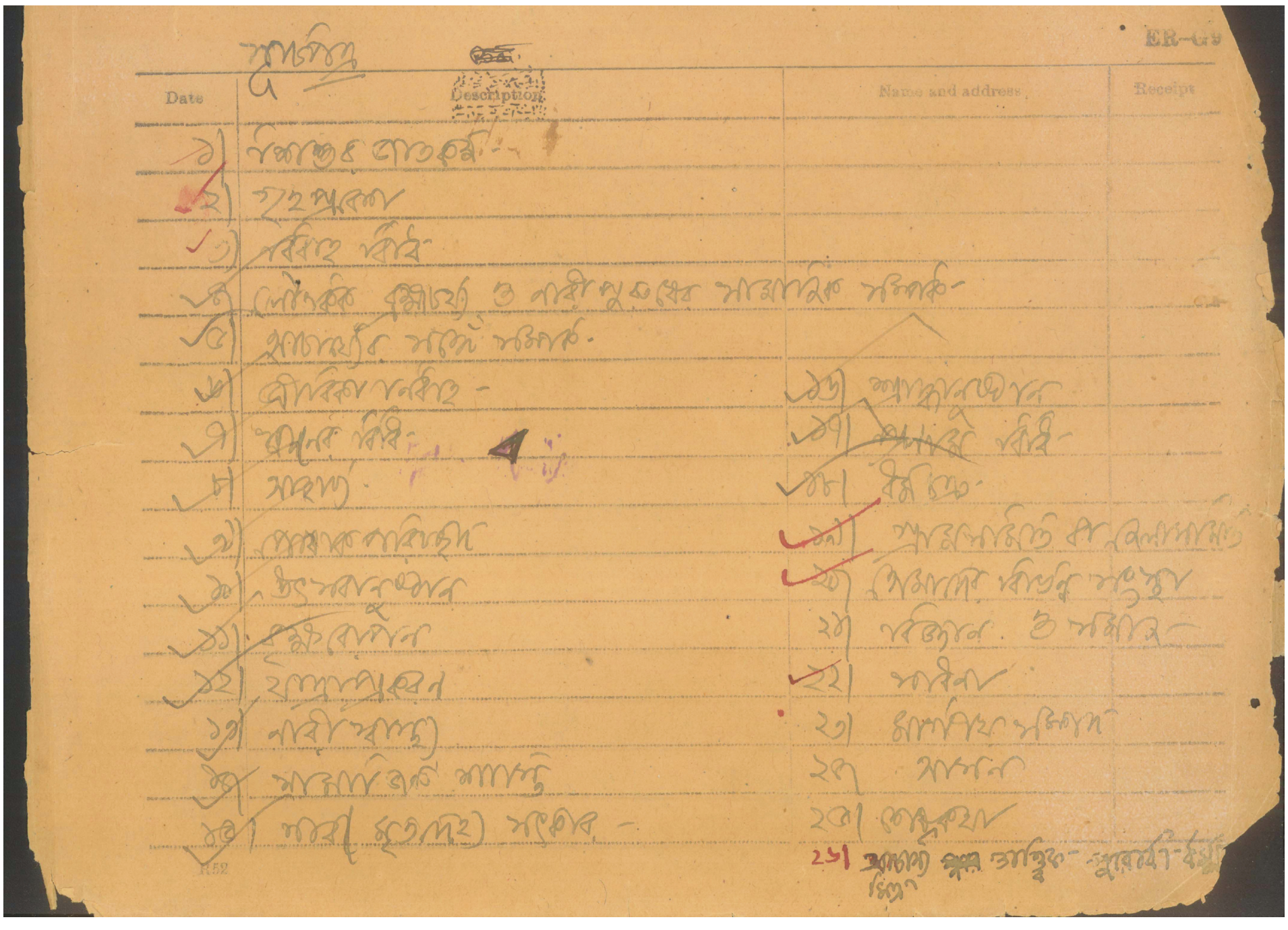
"인류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사회 질서이다. 서민들의 부와 비탄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아난다 마르가는 새로운 사회 질서 확립에 손을 댔다. 무엇이든지 사실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사회 정화의 수단도 제안되었다. 사회적 질병과 정신질환이 거짓 예의 속에 숨겨져 있는데도 사회에 곪아터지는 궤양에 대한 지원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교육받고 분별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주저하지 않고 너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할 것이라는 것이 내 확고한 신념이다. 정말로 그들은 이런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승리는 너의 것이다."

바바는 1960, 1970, 80년대에 새로운 인쇄본이 출판되고 세 부분으로 확장되었을 때 더 많은 지 침을 추가했다. 최초의 영문판은 1962년 아난다 푸르니마에 출판되었다. 이 세 부분은 모두 아난 다 마르가의 사마즈 샤스트라(사회적 논서)를 구성한다. 첫 번째 출판물은 사람들이 쉽게 지니고 다 닐 수 있도록 포켓용 크기였다.

아래는 1955년 바바가 직접 구술, 확인, 교정한 차리야차리야의 첫 번째 자필 원고 목차다.
바바의 교정은 빨간색으로 볼 수 있다. 각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유아 명명식
2. 집들이 의식
3. 결혼식
4. 남녀 간의 사회적 관계
5. 아차리야와의 관계
6. 생계
7. 목욕 절차
8. 아하리야[식사 절차]
9. 복장
10. 사회적 의식 및 축제
11. 식목식
12. 여행 시작
13. 여성 건강
14. 사회적 징계
15. 사체 처리
16. 슈라다 의식
17. 인사 방법
18. 달마차크라
19. 마을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
20. 다양한 조직
21. 과학과 사회
22. 사다나
23. 아난다 마르가의 보물
24. 아사나
25. 맺음말
26. 아차리야, 따뜨빅, 뿌로다, 달마 미트라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19. 깔빠따루 바바



때때로 바바는 소망 충족자인 깔빠따루의 형태와 품위를 갖곤 했다
편집자

여느 때처럼 우리 중 몇 명이 바바의 방에 모여 그를 마사지할 때의 일이다. 우리는 그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변했다. 그는 침대에 한쪽 팔꿈치로 침대를 짚고 머리를 손에 얹은 채 반쯤 누운 자세로 있었다. 그것은 비슈누 무드라로 불린다. 우리는 침묵을 지켰고 계속해서 그의 몸을 마사지했다.

몇 초 후에 그는 소리쳤다. "Eko'hamí bahu syám! 에코항 바후 시얌! 나는 우주에서 혼자였지만 나 자신을 수많은 존재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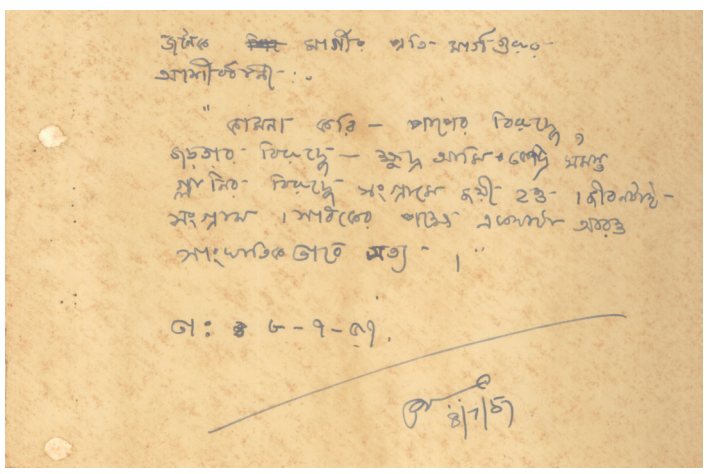
그 후 그는 침묵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바의 몸 다른 부분들을 마사지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바를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바바 몸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충격이었다. 나는 다른 다다들을 보았고 그들 각각 같은 느낌을 조용히 표현했다. 몇 초 동안 모든 사람들은 그가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어떤 단단한 형태도 없는 빛의 존재처럼 보였다. 그 후, 천천히, 그의 육체는 다시 정상으로 만져지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깔빠따루 무드라에 있다. 오직 마하삼부띠만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나한테 요구만 하면 된다. 내가 허락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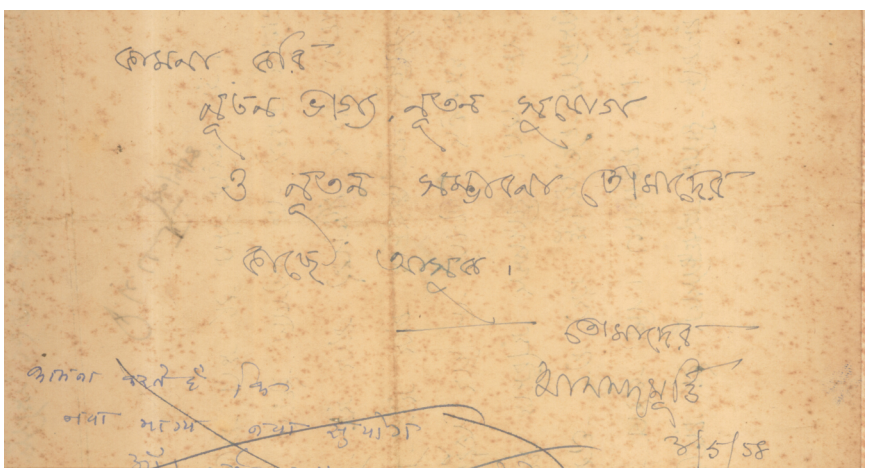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 방은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찼다. 아름답고, 대단히 영적인 분위기였다. 바바는 "너희 모두 옳다. 인간으로서 빠라마 뿌루샤 에게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다 알고 있다. 그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는 줄 것이고 그대는 신의 유희만 보게 될 것이다."

바바는 "그에게 요구할 것은 단 한 가지. 그대가 항상 그분의 발 아래에 머물 수 있도록, 그에게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요청하라. 이것은 빠라마 뿌루샤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대는 모두 빠라마 뿌루샤의 아들과 딸들이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줄 준비가 되어있다. 그는 그대 아버지다. 그대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아무것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바와 살며>



어느 마르기에게 바바가 친필로 써서 보낸 축복의 메시지; "너의 작은 '나'로 인한 모든 죄, 독선, 이탈에 맞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삶 자체가 투쟁이다. 사다카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8/7/57



"새로운 행운, 새로운 영역, 새로운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 그대들의 아난다무르띠, 3/5/58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20. 바바, 프라틱을 디자인하다

1950년대 초에서 중반 사이, 바바는 아난다 마르가 이념의 정수를 나타내는 마르가의 상징인 프라틱을 디자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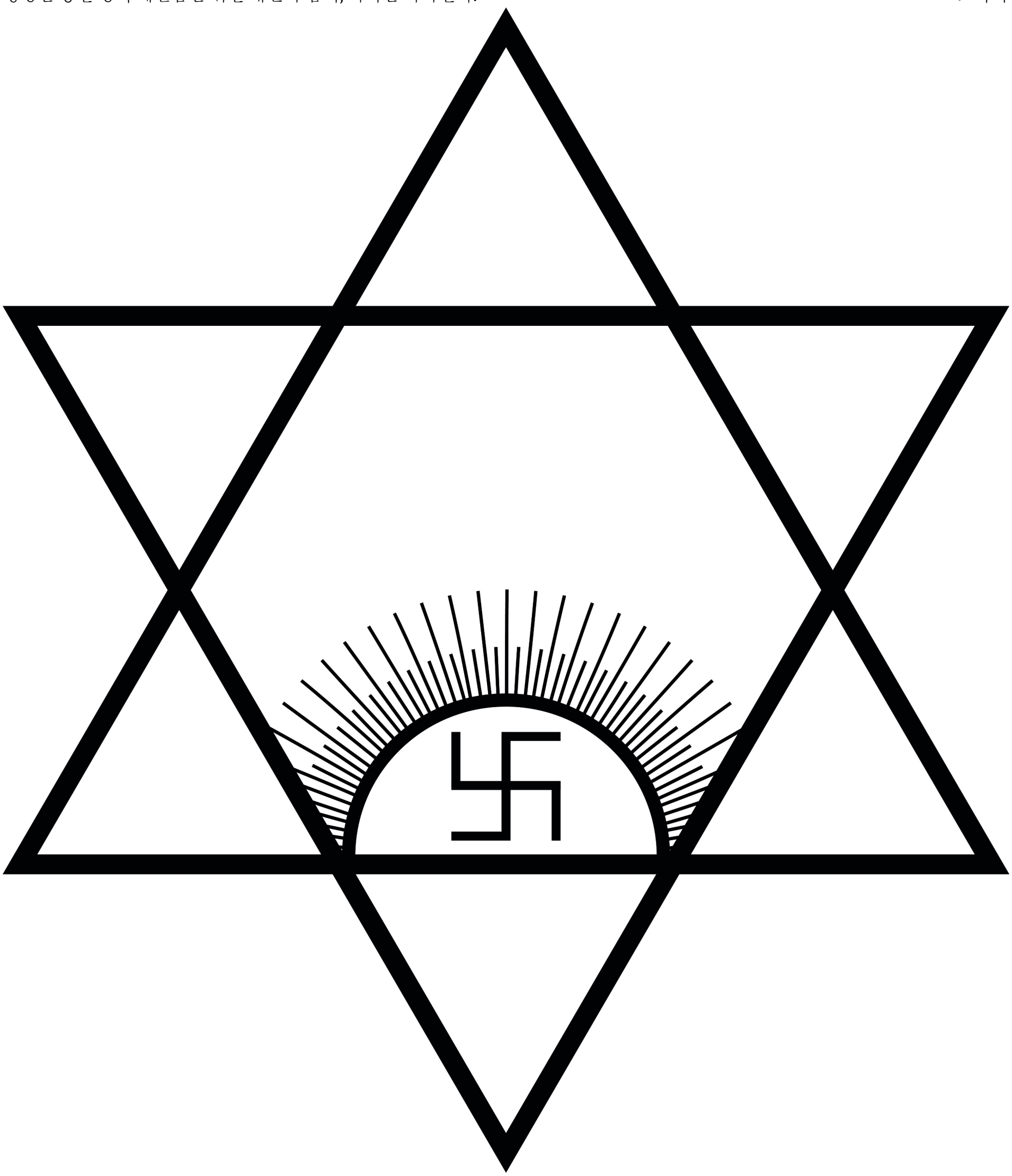
많은 바바의 책머리에 프라틱을 표시하는 아난다 마르가 출판물의 제목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프라틱은 아난다 마르가 이념의 핵심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여섯 점의 별은 두 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쪽을 가리키는 삼각형은 행동, 즉 인류에 대한 사심 없는 봉사를 통한 외적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고, 아래쪽을 가리키는 삼각형은 명상을 통한 영적 깨달음을 위한 내면의 탐색, 지식을 나타낸다. 중앙의 태양은 진보, 다방면의 진보를 나타낸다. 평생 영적 열망가의 행진의 목표는 영적 승리를 뜻하는 스와스티카로 상징된다."

다다 케샤바난다는 바바에게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일 중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것이 무언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바바는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노력한 것은 우리 프라틱의 발명이다. 30분이나 걸렸다."

프라틱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21. 아난다 마르가의 보물

1955년에 구술되고 1956년에 출판된 차리야차리야의 아난다 마르가 보물에 관한 장의 수기 원고를 바바께서 주었다. 아래는 그 원고이다. 그의 교정은 빨간색이다.

이 내용은 1962년에 출판된 차리야차리야 1부 영문판에 처음으로 실렸다.

너희의 보물:

숭고한 이념, 보편적인 사랑, 그리고 너희들간의 흔들리지 않는 단합

너희의 깃발:

안에 하얀 스와스틱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샤프론 깃발

너희의 프라틱[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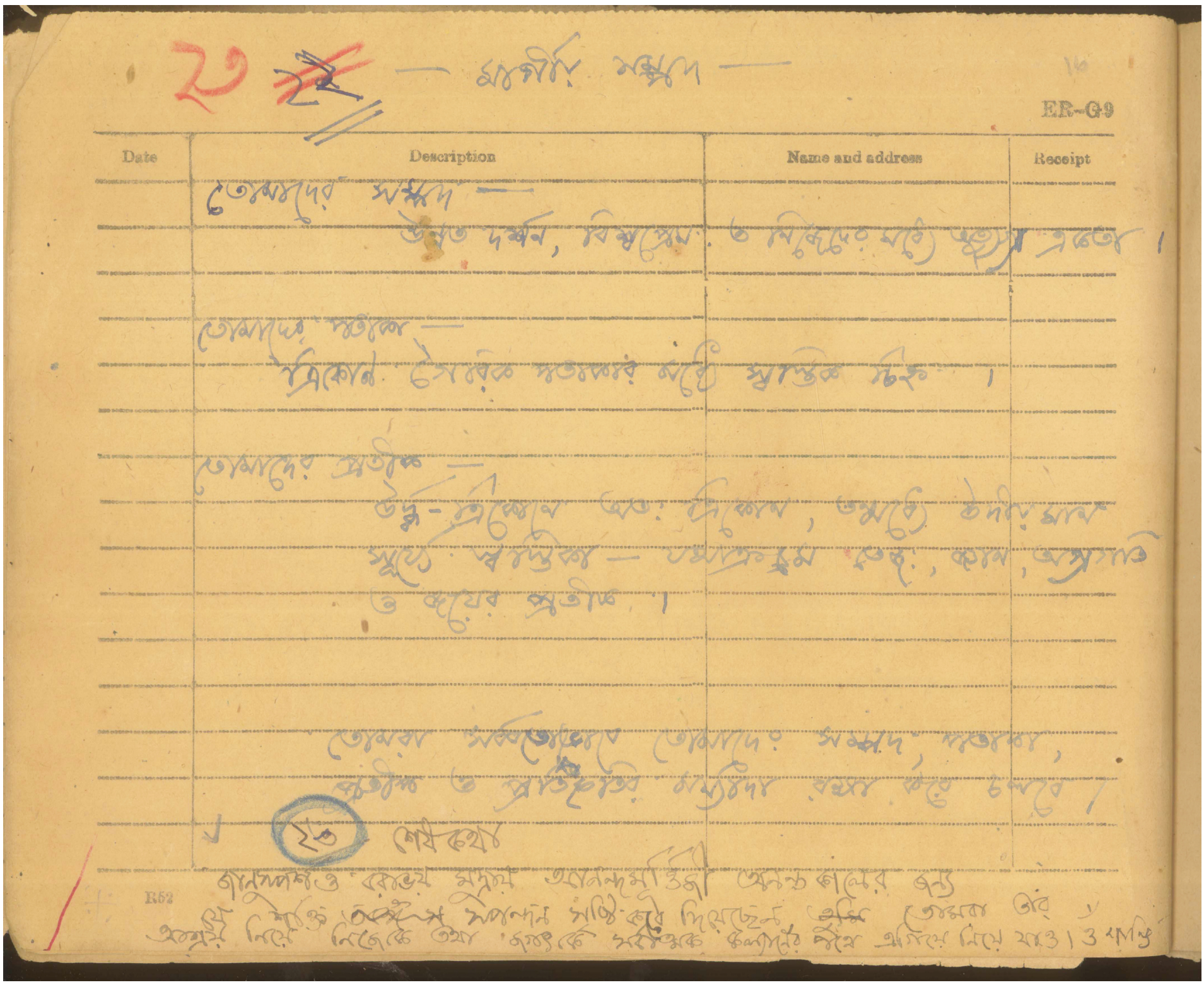
한 정점이 위로 향한 삼각형은 한 정점이 아래로 향한 다른 삼각형 위에 겹쳐져 있고, 떠오르는 태양의 내부에 스와스티카가 있다. 이는 각각 에너지, 지식, 진보,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다.

그대는 반드시 항상 보물의 존엄성과 깃발, 상징, 마르가 구루의 프라티크리티(사진)의 신성함을 지켜야 한다.

1956년, 자말뿌르



이 깃발은 1979년 5월 바바의 유럽 순방 중 그의 차 앞쪽에 달려 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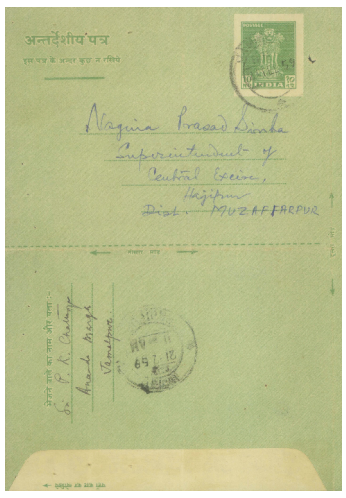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22. 나기나에게 보내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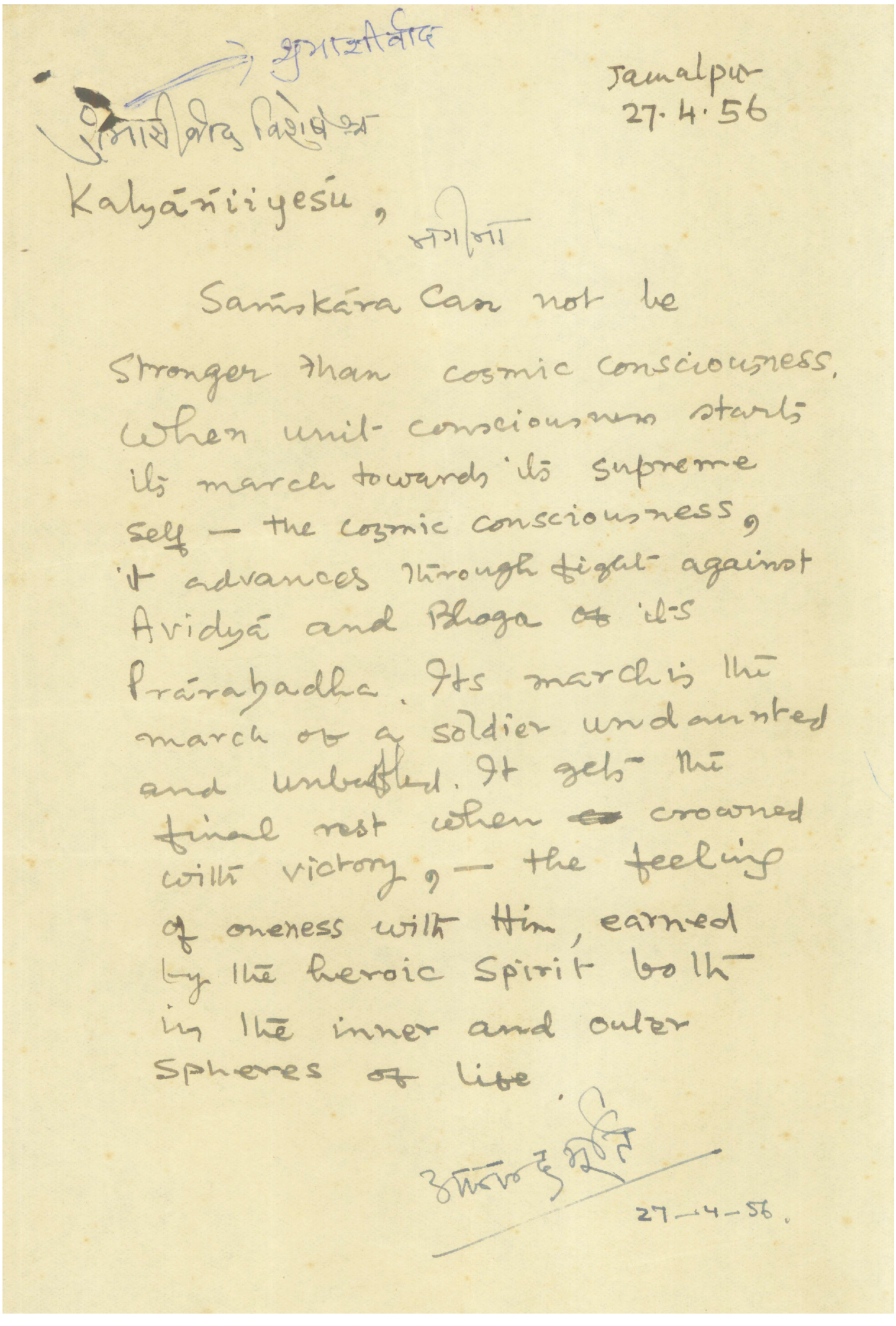
1950년대 제자들이 바바와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절, 바바는 아차리야 나기나 프라사드 등 일부에게 편지를 쓰곤 했다.

1956년 아차리야 나기나에게 쓴 '상스카라'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상스카라는 우주의식보다 강할 수 없다. 개체의식이 우주의식인 지고의 자아를 향한 행진을 시작할 때, 개체의식은 프라라바다의 무지와 욕구에 맞서 싸우면서 진보한다. 그것은 불굴의 용감한 전사의 행진이다. 삶의 내적, 외적 영역에서 영웅정신으로 이룬 지고 존재와의 합일, 그 승리의 왕관을 쓸 때 마지막 안식을 얻는다.'



1959년 바바가 쓰고 쁘라나이가 아차리야 나기나에게 보낸 항공우편의 겉면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23. 호랑이 무덤으로의 산보



카락뿌르 언덕과 죽음의 계곡은 어린 시절 내내 바바가 즐겨 찾은 바바만의 황야였다. 그곳은 그에게 영적 추구에 필요한 은둔을 제공해 주었다. 그가 철도청에 취직하기 전 대학을 마치고 자말뿌르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젊은 시절의 매혹적인 풍경을 거닐며 저녁 산보하는 것을 습관화했다. 목초지와 언덕을 향한 들판을 가로지르고 나서 저수지를 따라 걷고 나서 죽음의 계곡을 지나 되돌아 오는 행로였다. 날씨가 허락하면, 그는 7시나 7시 30분에 집을 나서 10시 전에는 거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가끔, 직장 동료나 어릴 적 친구도 합류하곤 했는데, 이것은 쁘라나이와 다른 사람들이 입문하면서 더 빈번했지만, 그의 고향으로 돌아온 첫 해는 종종 혼자 걸었고, 때로는 그가 소년이었을 때처럼 숲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다. 보통, 산책을 멈추고 호랑이 무덤에 앉아 넓은 밤 하늘을 바라보며 쉬곤 했다.

일단 그가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산보의 중간 거점인 호랑이 무덤에서 멈추는 일이 그에게 영구적인 저녁 일상이 되었다. 그가 앉아서 대화하고,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영적 가르침과 시연을 하고 , 심지어 촛불 아래 구술하여 책으로 받아 적게 하면서 두 시간 정도를 보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바바는 제자들이 상상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은 그것들을 인생에서 가장 친밀한 기억으로 소중히 여겼다.

1960년까지, 매일 바바의 들판 산책에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야 할 정도로 증가했다. 각 그룹에는 최대 4명이었다. 한 무리는 호랑이 무덤까지 동행하고 두 번째 무리는 호랑이 무덤에서 바바를 기다리고. 세 번째 무리는 나중에 와서 바바가 집으로 돌아갈 때 동행 했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호랑이의 무덤, 바바가 산책할 때 즐겨 앉는 장소. 한 영국인이 19세기 후반에 이곳에서 호랑이를 만났고 그들 둘은 계속 싸우다 부상으로 죽었다



호랑이 무덤과 그 뒤에 있는 영국인 무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24. 바바와 네타지

7월 보름인 구루 뿌르니마 때, 바바는 칼리파하르 인근의 수구장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 날은 싱붐에서 온 마르기 헴찬드와 다른 두 명의 마르기도 동행했다. 호랑이의 무덤에 가까워졌을 때 바바는 수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말했다. 호랑이 무덤을 가리키며, "헴찬드, 수 년 전, 바로 오늘 수바쉬 찬드라보세(대중적으로는 네타지로 알려진 위대한 인도 독립 투사)와 M. N. 로이가 이 호랑이 무덤에 나를 보러 왔다."

몇 년 후 바바는 말했다. "수바시는 인도를 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그의 의무를 다했다. 수바쉬의 행동은 인도의 자유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대영제국의 붕괴를 초래한 일련의 사 건들을 촉발시켰다. 인도가 자유를 얻기 위해 나머지 제국주의 열강들도 그들의 식민지에서 철수해야 했다. 그래서 세계의 탈식민지는 수바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널리 보도된 바와 같이 수바쉬 찬드라보세가 1945년 대만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티벳의 한 동굴에서 명상하며 영적 수행에 전념하고 있음을 바바는 여러 차례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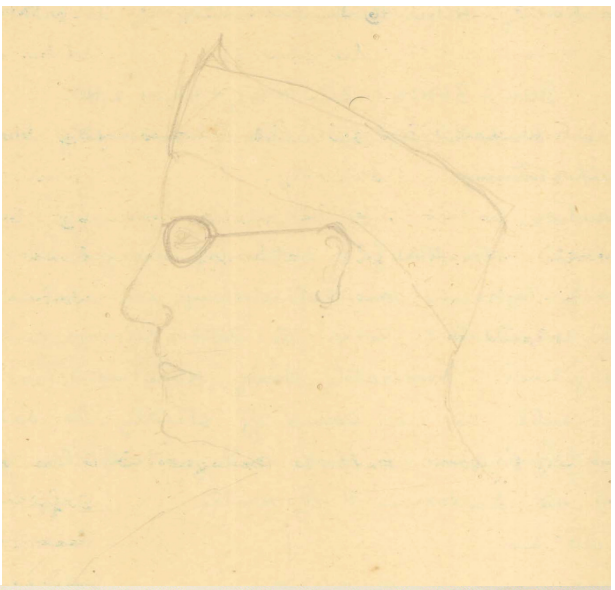
1969년 말이나 1970년 초, 란치에서 산책 하던 중 바바는 긴 수염을 기른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 그가 수바쉬라고 밝혀졌다. 그리고 1970년 말, 1971년 초, 바바는 란치의 경찰 행렬지로 현장 학습을 갔다. 다다 아미타난다와 VSS 보안요원인 고팔 등 2명이 동행했다. 바바는 퍼레이드장을 한 바퀴 돈 뒤 깃대 아래 단상에 앉았다. 바바는 보통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 기하곤 했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앉아 하늘을 응시하였고, 그 사건의 엄숙함을 감지한 그들은 바바를 방해하지 않았다. 10분에서 15분 가량 침묵이 흐른 듯 했다. 갑자기 그는 "브라보, 수바쉬, 브라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일어나서 완전히 침묵한 채 차로 돌아갔다. 바바와 친분이 있는 다다 아미타난다도 대화로 감히 그를 방해하지 못했다.

사나흘 후, 다다 아미타난다가 방에서 바바를 마사지할 때, 바바는 그에게 그 날 산책에서 무엇을 느꼈는지와 자신이 왜 브라보 수바쉬, 브라보!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다. 다다 아미타난다는 정말로 궁금했지만, 분위기상 감히 바바에게 물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바바는 "그날 수바쉬는 자신의 노력으로 니르비칼파 사마디에 도달했다. 사드구루의 도움 없이 니르비칼파 사마디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바쉬의 경우, 내 도움 없이 그 단계에 도달 했다. 아미타난다, 그가 하고 싶었다면 그는 인도의 수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영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가 보여준 포기 수준은 모범적이다. 수바쉬가 한 일은 미래에 모든 인류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관여한 이가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최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 왜 남들은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몇 년 후, 호수 정원(lake garden)에서, 몇 명의 헌신자들이 바바 방 밖에 앉아 있었다. 바바는 갑자기 문을 열고 "수바쉬는 이제 없어"라고 말한 뒤 다시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바가 수바쉬를 언급한 마지막이었다. 언제 어디서 그가 육신을 떠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다 프라나바뜨마카난다의 노트에서

바바의 실험노트에 있는 네타지 그림



네타지 수바쉬 찬드라 보세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25. 훈련자 겸 시험관 바바

1955년 3월, 바바는 최초의 타트비카들과 패밀리 아차리야들을 만들었다: 쁘라나이 꾸마르 차떼르지, 찬드라낫 꾸마르, 그의 아내 람파리 데비, 쉬쉬르 두타, 시바 샹카르 바네르지, 수꾸마르 보세가 그 뒤를 이었다. 그들 교육이 끝나자 바바는 직접 제자들에게 입문 주던 것을 그만두었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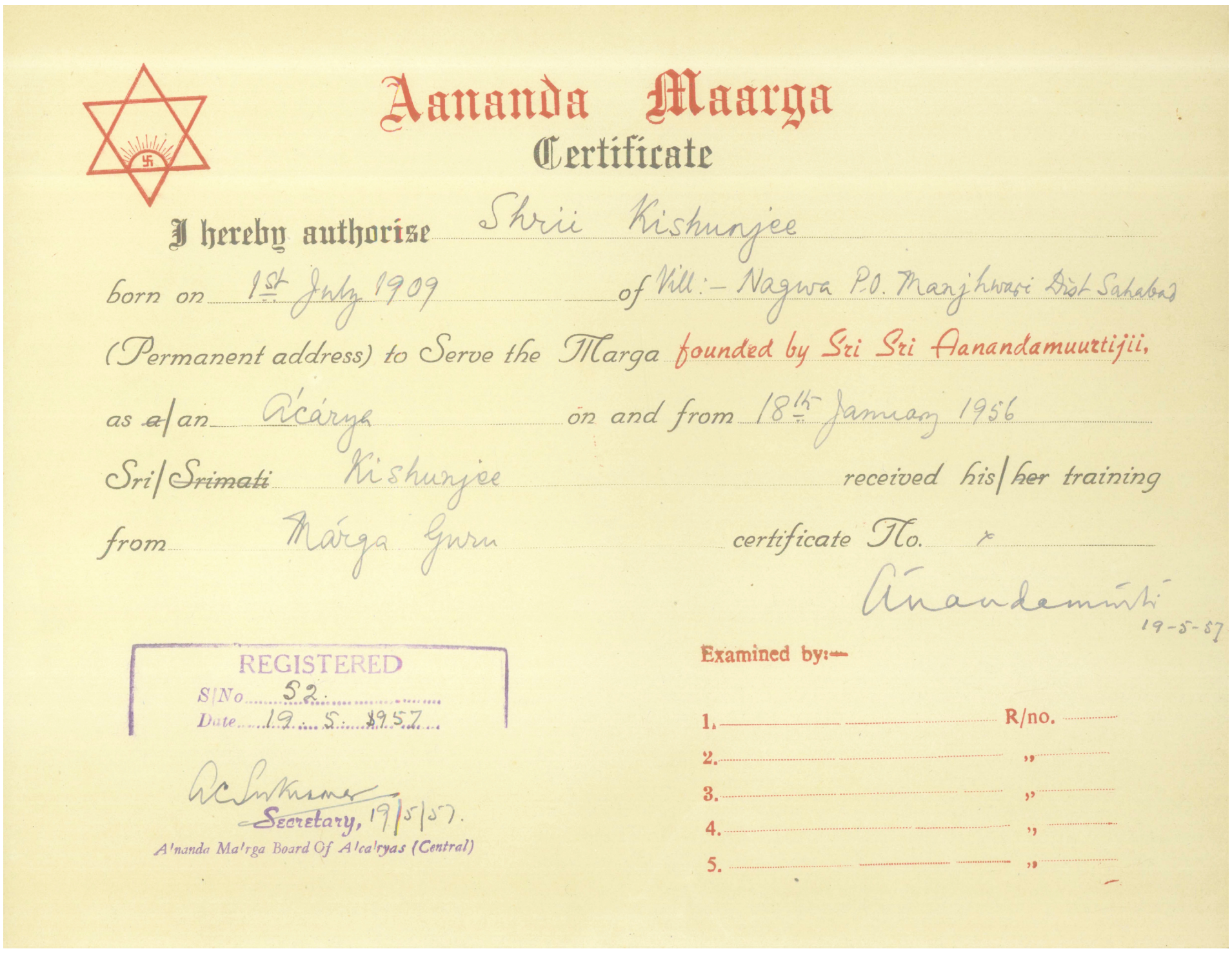
1960년대 들어, 바바는 아난다 마르가의 활동을 빠르게 확장하고 가속화하기 시작했고, 그가 "지적 단계"라고 불렀던 것으로의 전환을 위한 길을 열었다. 이 일을 위한 그의 주요 매개체는 급격히 숫적으로 증가한 아차리야였다. 1960년까지, 그는 거의 100명의 아차리야를 배출해냈다. 그 후 몇 년 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차리야 시험을 통과했다. 바바의 더 많은 시간은 이제 이 아차리야 교육으로 채워졌고 종종 자그리티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그 강의 후에 그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묵티와 목샤는 너희 주먹 안에 있다. 원하면 언제든 손을 펴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금으로 된 요람과 같다. 잠시 쉬기는 하겠지만, 끝없이 흙으로 돌아가 창조물에 봉사해야 한다. 자, 너희 모두, 말해보거라. 무엇을 원하느냐? 해방과 구원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생을 거듭해서 태어나 나와 함께 창조물에 봉사하겠느냐?" 그 곳에 있던 모든 아차리야들이(그 중 많은 이들이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온 창조물에 봉사하기 위해 바바와 함께 돌아오길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바바의 아차리야 시험은 확실히 특이했다. 비록 새로운 후보자들은 때때로 공식적인 구두 시험을 보러 그의 방으로 보내지기도 하지만, 바바는 종종 사전 예고없이 호랑이 무덤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30점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는데 바바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만약 그들의 노력이 바바를 흡족케 할 경우, 점수 차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바바는 "은총의 점수"를 주곤 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 시험은 지적인 앎보다는 성실함과 완전한 내어맡김의 시험이었다. 바바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겨우 1점을 얻고도, 29점의 은총 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새 아차리야의 사례가 없지 않았다.

특히나 바반의 아차리야 시험은 철학과 더더욱 관련이 없었다. 고펜은 바반의 시험을 위해 그를 바바 집으로 데려갔지만, 바바는 그를 들판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언덕으로 올라갔고 바바는 큰 돌 위에 앉았다. "바반, 저 언덕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려라."라고 바바는 그에게 말했다. "걱정마라, 다치지 않을 거다." 바반은 바바가 시킨 대로 뛰어 내렸고, 뛰어내리는 동안 바바의 이름을 외쳤다. 그는 작은 진흙 밭에 떨어졌다. 옷이 더러워진 것 외에는 아무런 탈없이 괜찮았다. 바바는 그를 일으키면서, "너의 아차리야 시험은 이제 끝났다. 합격이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바바께서 서명하신 아차리야 자격증명서



Ananda Maarga

Certificate

I hereby authorise Shrii Kishunjee

born on 1st July 1909 of Vill:- Nagwa P.O. Manjhwari Dist Sahabad

(Permanent address) to Serve the Marga founded by Sri Sri Anandamuurtijii,

as a/an Ácárya on and from 18th January 1956

Sri/Srimati Kishunjee received his/her training

from Márga Guru certificate No. *

Ánandamúrti

19-5-57

REGISTERED

S/No 52

Date 19.5.1957

Secretary, 19/5/57.

Ananda Marga Board Of Acaryas (Central)

Examined by:—

1. ——— R/no. ———

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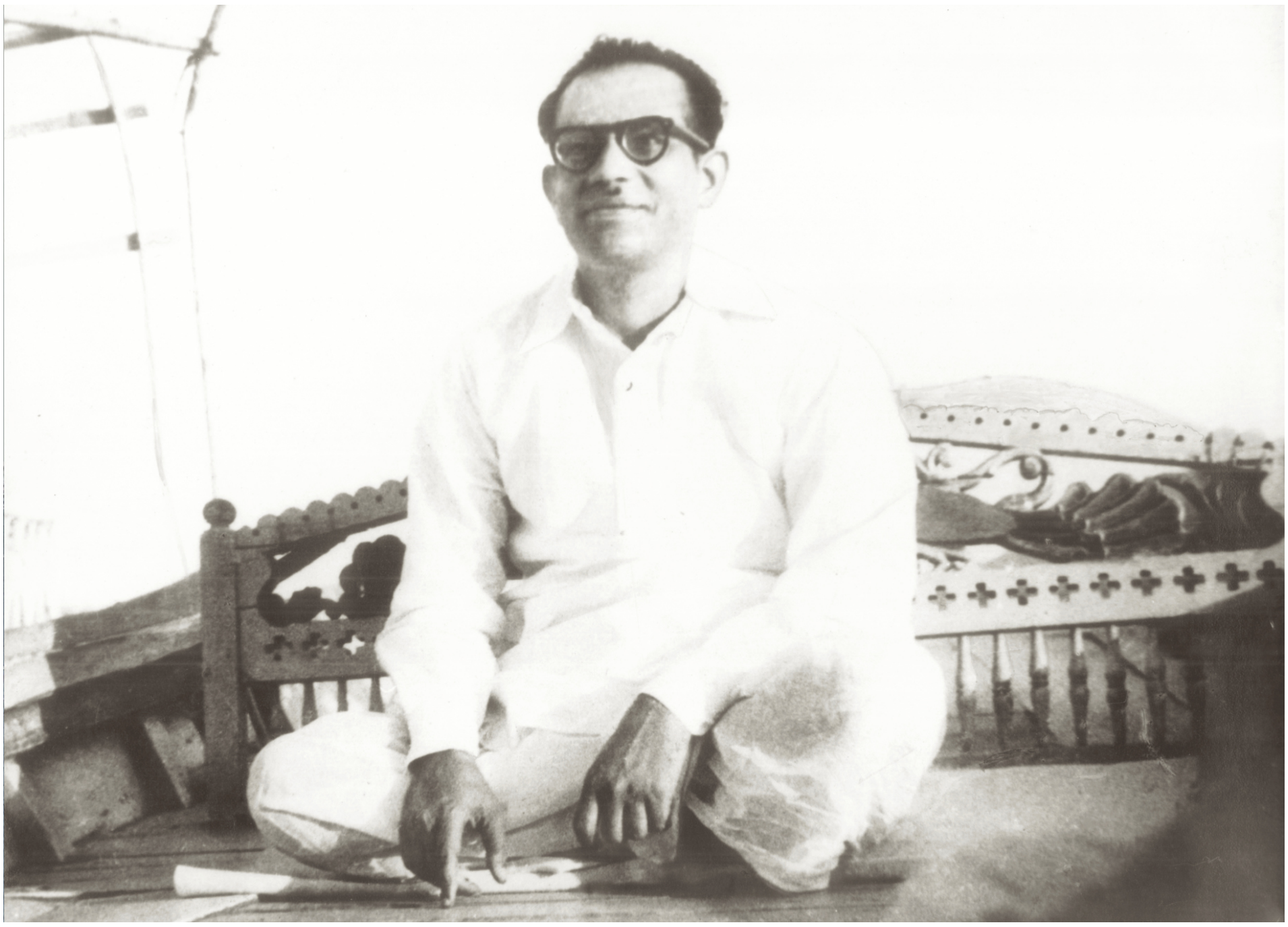
3. ——— ,, ———

4. ——— ,, ———

5. ——— ,, ———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26. RU / RAWA



1958년 1월 25일, 르네상스 유니버설(RU)은 사회의 지적, 문화적 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갈뿌르 뜨리모한 DMC에서 출범했다. 그 다음 날, 후에 <현재의 문제>로 출판된 바바의 취임 연설은 그가 차리야차리야의 달마차크라 장에서 소개한 고대 리그베다 구절에 요약되어 있는 한 목소리로 함께 나아간다는 정신으로 마무리되었다. 그것은 단체 명상 전에 세 번 낭송된다.

Saḿ gacchadhvaḿ saḿ vadadhvaḿ saḿ vo manáḿsi jánatám,
Devá bhágaḿ yathá púrve saḿ jánáná upásate.
Samánii va ákútih samáná hrdayáni vah,
Samánam astu vo mano yathá vah susahásati.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의 정신을 알게 합시다. 과거의 현인처럼 차별없이 부를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주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함께 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조화롭게 살면서 지고존재와 하나가 됩시다.]

RU담론은 이후 DMC의 정규 부분이 되었다.

1958년 2월 2일 일요일 RU 출범 일주일 후, 바바는 문학과 예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르네상스 예술가 및 작가 협회(RAWA)의 설립을 발표하였고, 이 RAWA는 RU(르네상스 유니버설)의 부속 조직이라고 밝혔다.

"문학은 사회와 함께 나아가 사회에 공헌하도록 영감을 주어 진정한 성취와 복지로 사회를 이끄는 것이다. '예술을 위한 예술'은 용납할 수 없고 오히려 '봉사와 축복을 위한 예술'이라고 말해야 한다."

RAWA는 예술의 주요 지부를 다루는 다섯 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예술가와 화가 협회, 극작가와 영화 예술인 협회, 음악가와 무용수 협회, 작가 협회, 그리고 기자 협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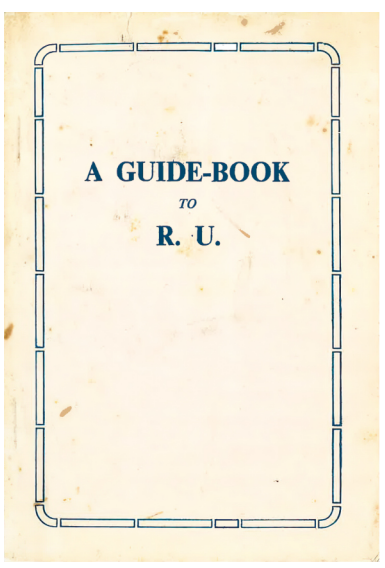
편집자

RAWA를 설립하려는 바바의 목표는 광범위했다. 그는 예술가와 작가들이 보다 높은 인간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의 기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촉매제라고 보았다. 그들의 특별한 재능 덕 분에, 그들은 일반 대중들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견해와 도덕적, 영적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에 대한 갈증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바는 예술가들에게 투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진실을 보여주라고 고무시켰다. 그는 "공공복지에 대한 생각만이 모든 예술과 문학적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그 생각은 오직 예술적인 즐거움으로만 표출될 것이다. 그래야 조잡한 마음에서 정묘한 지성이 깨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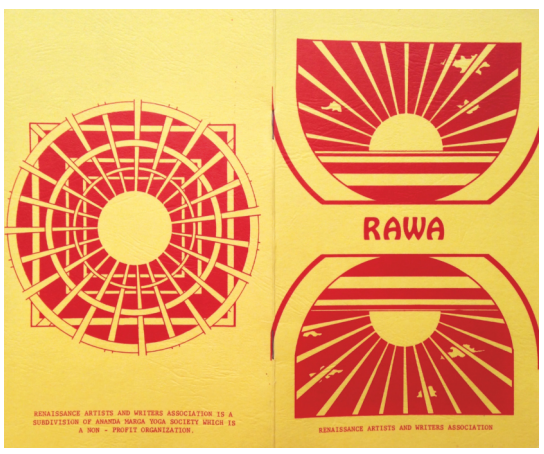
어느 날 산책 도중 바바는 아쉬타나에게 사이비 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력화하는 라와RAWA의 또 다른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미래에는 사이비 문화가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하게 할 것이다. 라와는 모든 사람을 사이비 문화의 타락적인 영향으로부터 구해야 할 것이다.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 신비의 출현>



RU 가이드북

초기 소개 책자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27. 요가 치료법

바바는 1957년 점심시간에 수꾸마르 보세에게 <요가적 치료법과 자연 요법>을 구술하면서 받아 적게 했다. 이 책은 이듬해 1958년 5월에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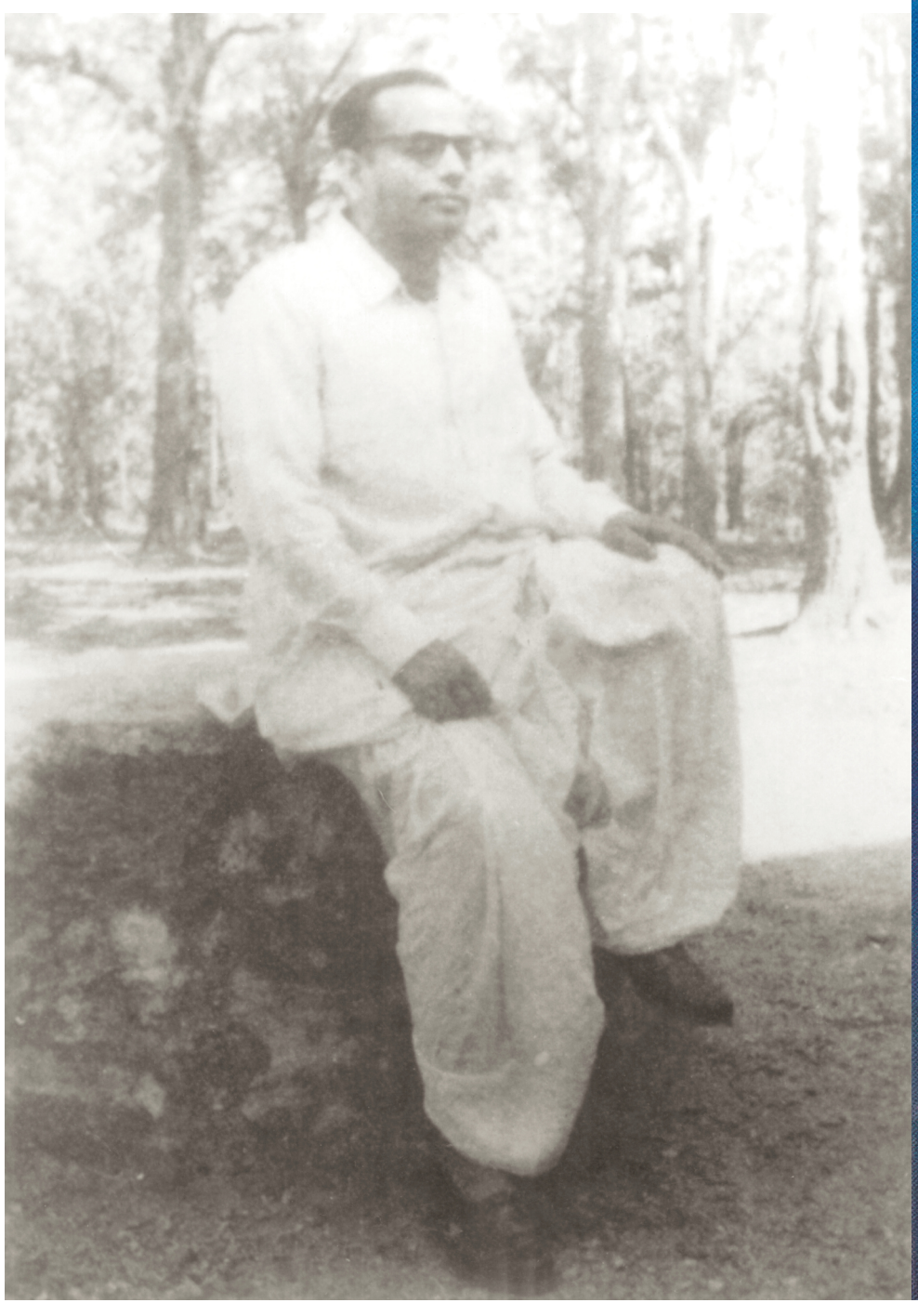
1957년 11월 보름날, <요가 치료법>서문에서 바바는 다음과 같이 썼다:

"치료의 목적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은 특정 학파의 의학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복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부 또는 외부에 약을 투여함으로써 질병 있는 신체 기관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요가 아사나와 무드라의 도움으로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은 다양한 질병에 대한 요가 치료법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책에 묘사된 아사나와 무드라 수련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아사나와 무드라 수행의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아차리야의 지도 하에 행해야 한다. 아난다 마르가 아차리야는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요가적 치료 및 자연 요법>출판 시점의 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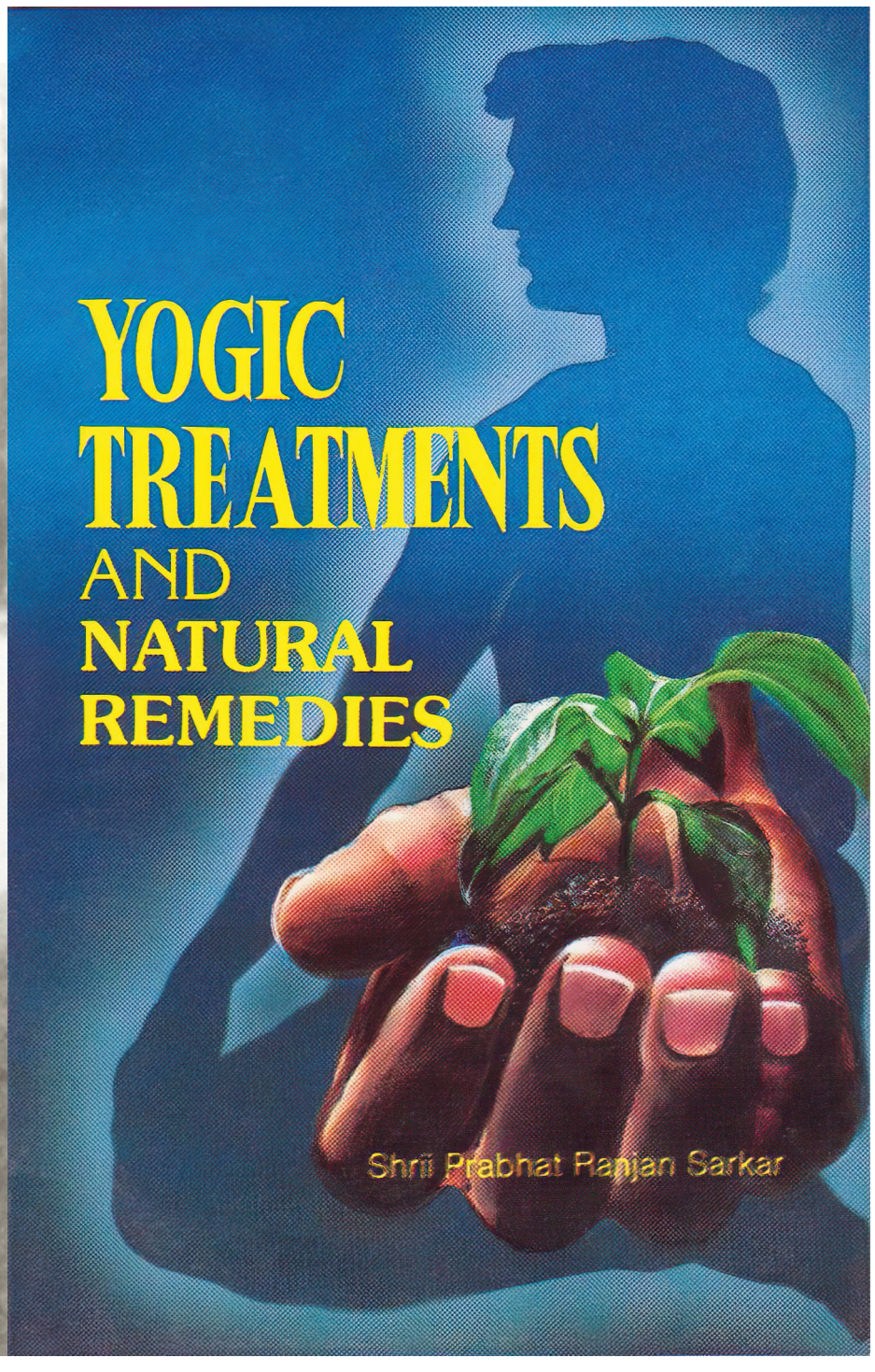


아난다 마르가 차리야차리야 3부에서는 아사나와 무드라, 목욕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독자는 그 책을 참조할 수 있다."

"아사나, 무드라와 함께, 무료 또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입증되고 유용한, 의학적 치료법 목록과, 그 적용 방법이 이 책에 제시되어 있다. 대중은 이러한 적용법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험이 풍부한 아차리야와 상의할 수 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도 개인적인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아사나와 무드라, 그 수련법, 그리고 약과 약의 사용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차리야에게 연락하거나, 아난다 마르가의 중앙 및 각 단위별 지역 위원회 담당 비서와 연락할 수 있다.. 현재로는 이 정도다."

바바는 수꾸마르 보세에게 구술하는 과정에서 칼리카난다가 식물을 채집하고 치료법을a 자신에게 실험하여 연구를 도왔다고 했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28. PROUT(프라우트)

바바가 1958년 1월, 바갈푸르에서 한 첫 RU 연설 <현재의 문제>는 "내가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 위대한 영웅 슈리 수바쉬 찬드라 보세"에게 헌정하는 것이다.

바바의 헌정은 네타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연에 대한 언급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보다는 영성에 기반을 둔 혁명적인 새로운 사회 이론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 해에 획기적인 철학 논서 <Idea & Ideology> (생각과 이념)은 가끔 힌디어로 설명하셨지만, 주로 영어로 주어졌고, 처음에는 1959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 동안 타트비카 교육 수업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호랑이 무덤에서 설한 담화 모음으로 다시 주어졌다.

그 시리즈의 마지막 두 담화에서, 바바는 프라우트(진보적 활용론)의 사회경제 이론을 소개했는데 이는 사마즈 차크라 (그가 그의 첫 번째 DMC 담화 '사회의 진화'에서 소개했던 사회 순환론), 사드비프라(영적 혁명가) 그리고 사드비프라 사회(영적 사회) 등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론은 그 해 후반 <프라우트에 대한 담론들>에서, 1962년에는 <아난다 수트람(지복경)>에서, 1967년에 <인간 사회 2부>에서,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담화들에서 상세히 설명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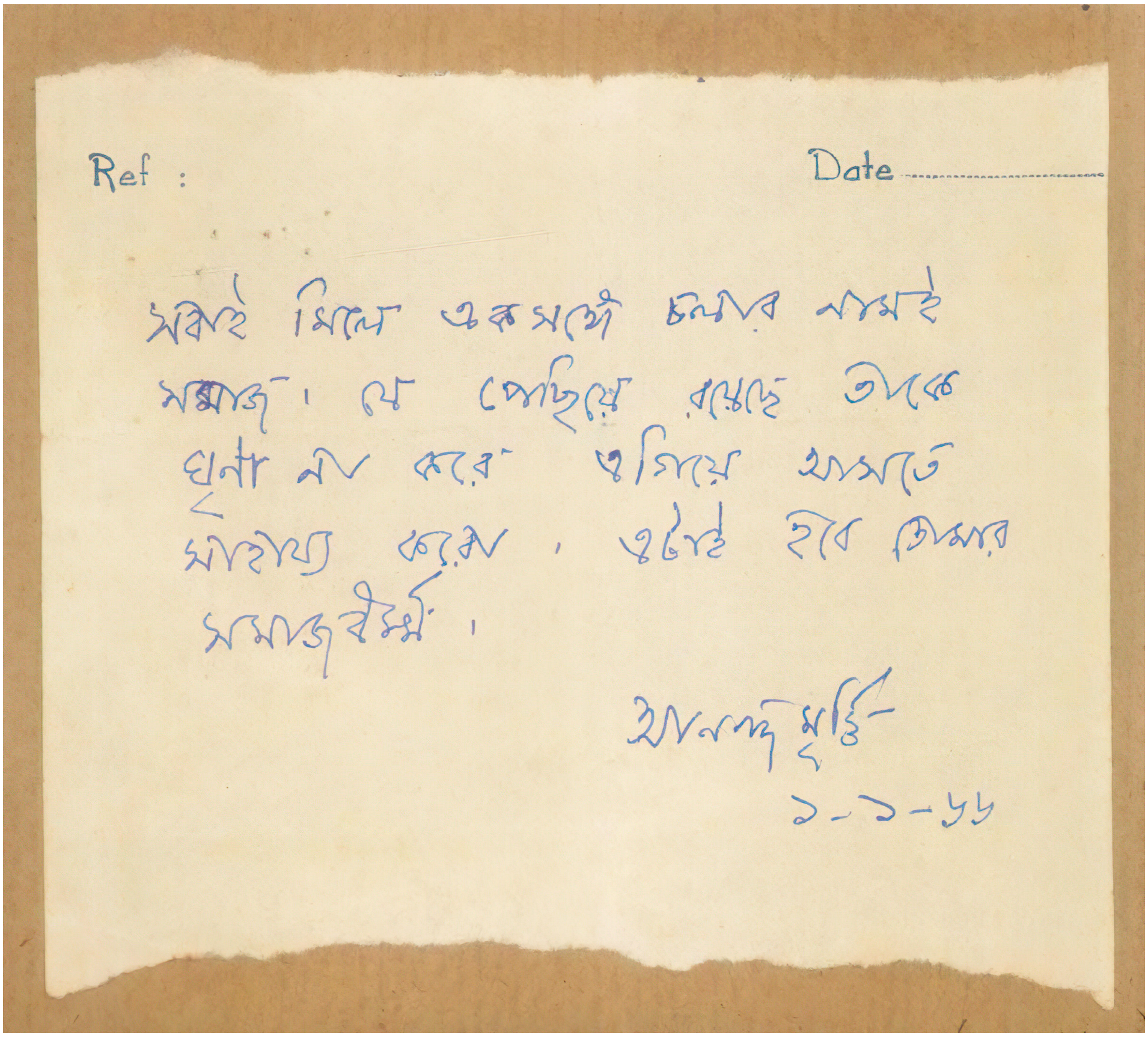
<생각과 이념>의 마지막 담화에서 바바는 말했다.

영성은 유토피아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 일상이 아무리 세속적인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철학이다. 아난다 마르가의 사회 철학은 개인의 통합된 인격의 개발과 인간 심리에 우주적 감성을 주입하여 세계 친목의 확립을 지지한다. 아난다 마르가는 모든 요소들의 진보적 활용을 의미하는 진보적 활용론(Prout)을 옹호한다. 이 원칙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Proutist'라 부를 수 있다."

나중에 1987년에 바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몰락은 내재된 정체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둘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자본주의의 외부와 내부는 보통 가속도가 붙지만 내부와 외부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이기적인 이윤추구의 심리 및 모두의 복지가 아닌 소수만의 이익을 위한 부의 축적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인간 진보의 통합적 성장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폭죽처럼 터져버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난다 바니, 1966년 1월 1일 바바의 자필: "모두 화합하여 행진하는 것을 사회라고 한다. 뒤처진 사람들을 멸시하는 대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것만이 사회적 다르마가 될 것이다."
<아난다무르띠> 1-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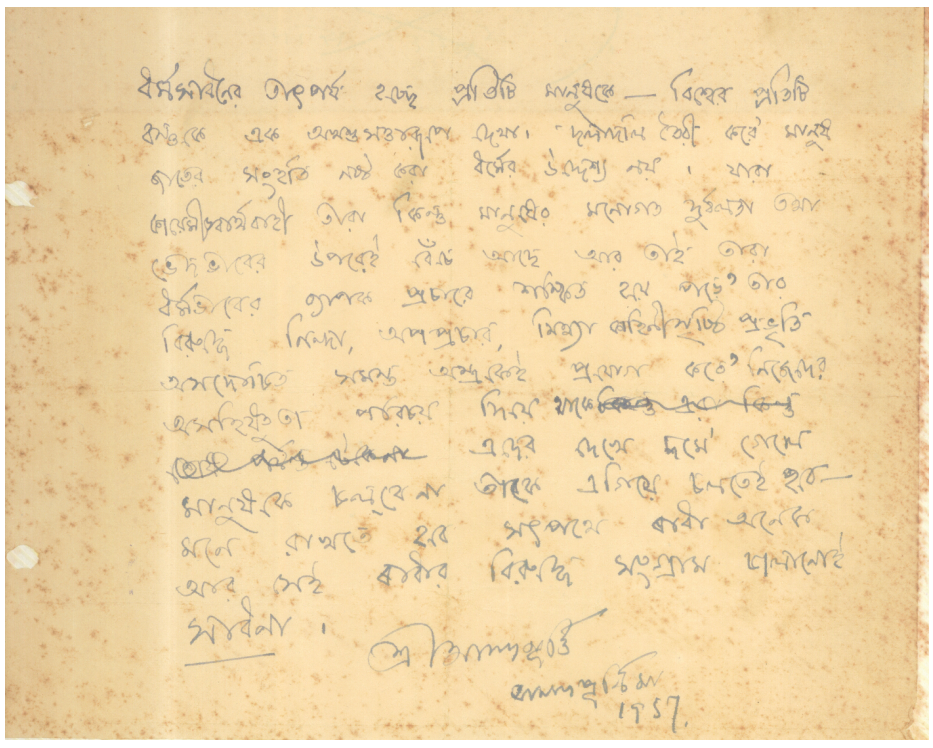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29. 아난다 바니

1956년 1월 1일, 바바는 그의 첫 번째 아난다 바니('지복의 메시지')를 주었다:
"인류 안에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지고한 정신이 오늘 깨어났다. 이러한 자각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추세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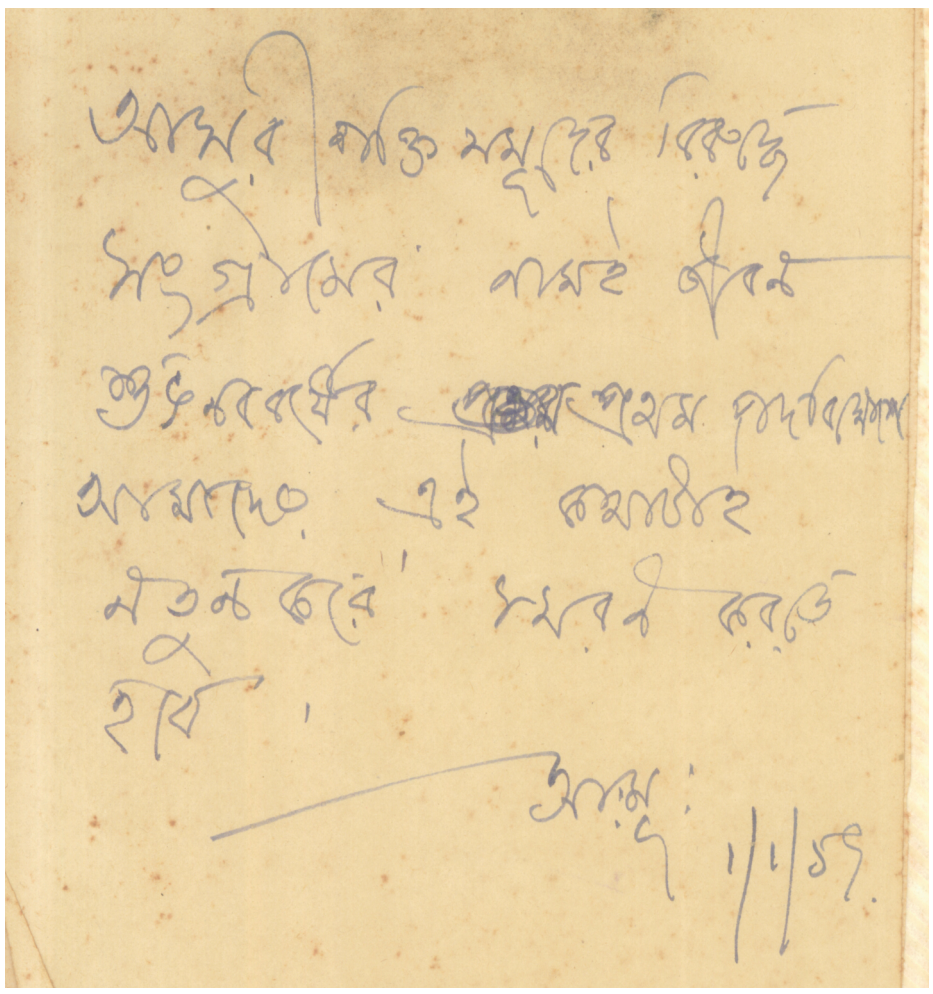
그 후 바니는 매년 새해 첫날과 아난다 푸르니마, 그리고 몇 년 초기에는 쉬라바니 푸르니마, 그리고 1977년 10월 1일에는 감옥에서 추가로 주어졌다.

바바는 다음과 같이 손으로 쓰고 서명했다.



"다르마 사다나의 목적은 이 우주의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을 하나의 통합체로 보는 것이다. 파벌을 만들어서 인류의 통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다르마의 목적이 아니다. 기득권을 조장하는 이들은 정신이 나약하고 분열된 사람들에 기반해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들은 다르마의 이상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학대, 거짓 선전, 거짓말과 같은 모든 부도덕한 방법으로 다르마를 배척한다. 사람들은 이것에 겁먹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앞으로 행해야 한다.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유익하다는 것과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곧 사다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난다 뿌르니마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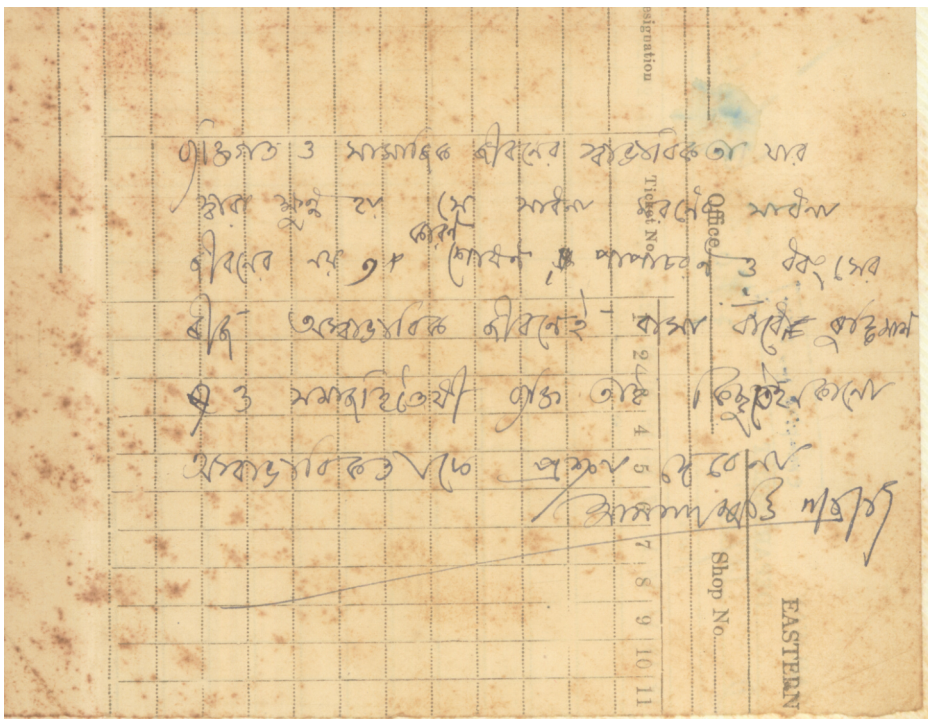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삶이다. 축복의 새해 문턱에서 나희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1959년 1월 1일

바바는 1990년 아난다 뿌르니마에 마지막 바니를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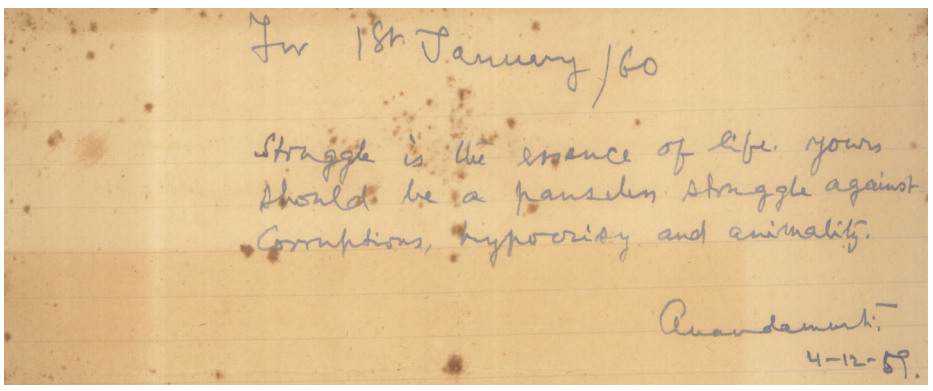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시간, 날, 인간, 별, 행성, 성운 모두 움직이고 있다. 운동은 모든 것에 필수불가결하다. 멈출 여지는 없다. 운동의 길은 항상 평탄하거나 꽃 길도 아니고, 항상 가시덤불이나 격렬한 충돌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다. 그 길의 성격에 따라 인간은 스스로 준비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운동 속에 삶의 본질이 있다."

이후 모든 바니는 <아난다 바니 상그라하>로 묶여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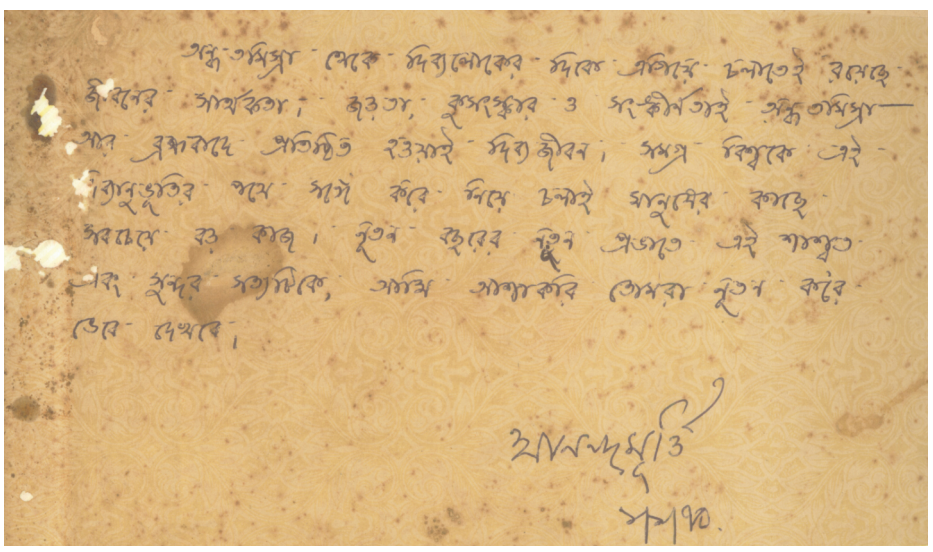
"개인과 사회의 자연스러움을 해치는 것은 죽은 자의 사다나이다. 불의와 부도덕, 파괴의 씨앗이 부자연스러운 삶에만 깃들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사다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과 사회의 복지를 희망하는 자들은 결코 부자연스런 삶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난다 뿌르니마 1959



"투쟁은 삶의 본질이다. 부패와 위선, 동물성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칠흑의 어둠에서 신성한 층까지 행진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정신이다. 정체주의, 미신, 편협함은 칠흑 같은 어둠의 상징이다. 우주적 영혼에 안주하는 것이 신성한 삶이다. 전 우주와 함께 영성의 길을 따라 노력하는 것은 실로 인류에게 가장 큰 과제이다. 새해 첫 새벽에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하고 신성한 진리를 새로이 숙고하기 바란다."

1970년 1월 1일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30. 바바, 우마와 결혼





바바는 1960년 5월 25일, 사하르사에서 열린 DMC의 담화 ''탄트라와 사다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고 스승의 자질은 브리핫 탄트라사라에 개괄되어 있다:

[평온하고, 자제력 있으며, 쿤달리니를 능숙히 올릴 수 있고, 겸손하고, 복장이 단정하고, 행동 모범적이며, 정직한 생계 수단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순수하고, 영성의 실제와 이론에 통달해 있으며, 매우 총명하고, 가정을 가진 자이며, 명상에 확고하고, 탄트라와 만트라의 달인이며, (제자에게) 벌도 주고 은총을 주는 – 그런 사람만 구루라 할 수 있다.]

"스승은 총명함 이상이어야 한다. 그들은 수퍼 총명해야 한다. 탄트릭 법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만이 기혼자의 구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루는 또한 기혼자여야 한다."

1959년 6월 15일 바바는 우마 다따와 결혼했다. 그는 마르기들에게 아내를 마르가 마따마르가의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아난다무르띠 한 분만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아내는 바바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DMC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제2의 실체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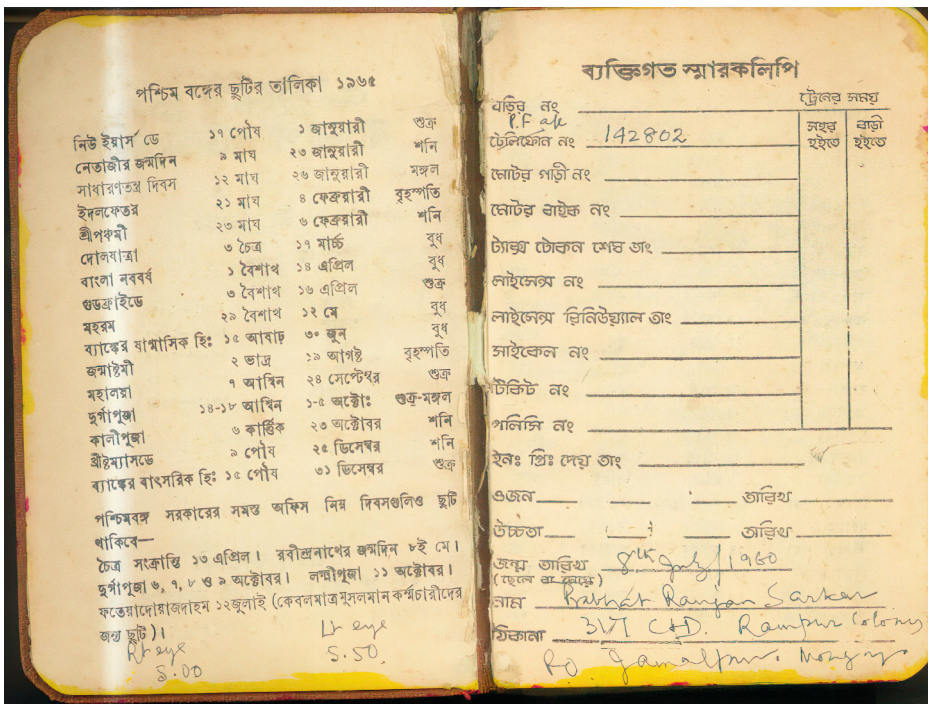
바바는 결혼식 때 우마와 나란히 특별하게 장식된 연단에 앉았다. 쁘라나이는 "그들이 함께 앉아 있을 때 딱 한 번 사진을 찍었는데 보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라며 회상했다

편집자

라마스바랏은 구루의 결혼에 대한 의구심에 여전히 사로잡혀, 바바를 바라보며, 바바가 지금 그의 영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갑자기 그는 강력한 진동이 그의 척추를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황홀감의 물결로 며칠 동안 감싸였다. 그의 몸이 흔들렸고 찬드라낫은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몸을 받쳐야 했다. 그의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사실은, 3~4년 전 차리야차리야를 구술할 때 바바는 "결혼은 다르마 사다나의 장애가 아니라 다르마적인 의식이다." 라고 말했다.


পশ্চিম বঙ্গের ছুটির তালিকা ১৯৬৫

নিউ ইয়ার্স ডে	১৭ পৌষ	১ জানুয়ারী	শুক্র
নেতাজীর জন্মদিন	৯ মাঘ	২৩ জানুয়ারী	শনি
সাধারণতন্ত্র দিবস	১২ মাঘ	২৬ জানুয়ারী	মঙ্গল
ইদলফেতর	২১ মাঘ	৪ ফেব্রুয়ারী	বৃহস্পতি
শ্রীপঞ্চমী	২৩ মাঘ	৬ ফেব্রুয়ারী	শনি
দোলযাত্রা	৩ চৈত্র	১৭ মার্চ্চ	বুধ
বাংলা নববর্ষ	১ বৈশাখ	১৪ এপ্রিল	বুধ
গুডফ্রাইডে	৩ বৈশাখ	১৬ এপ্রিল	শুক্র
মহরম	২৯ বৈশাখ	১২ মে	বুধ
ব্যাঙ্কের ষাণ্মাসিক হিঃ	১৫ আষাঢ়	৩০ জুন	বুধ
জন্মাষ্টমী	২ ভাদ্র	১৯ আগষ্ট	বৃহস্পতি
মহালয়া	৭ আশ্বিন	২৪ সেপ্টেম্বর	শুক্র
দুর্গাপুজা	১৪-১৮ আশ্বিন	১-৫ অক্টোঃ	শুক্র-মঙ্গল
কালীপুজা	৬ কার্ত্তিক	২৩ অক্টোবর	শনি
ক্রীষ্টমাসডে	৯ পৌষ	২৫ ডিসেম্বর	শনি
ব্যাঙ্কের বাৎসরিক হিঃ	১৫ পৌষ	৩১ ডিসেম্বর	শুক্র

পশ্চিমবঙ্গ সরকারের সমস্ত অফিস নিম্ন দিবসগুলিও ছুটি থাকিবে—
চৈত্র সংক্রান্তি ১৩ এপ্রিল। রবীন্দ্রনাথের জন্মদিন ৮ই মে।
দুর্গাপুজা ৬, ৭, ৮ ও ৯ অক্টোবর। লক্ষ্মীপুজা ১১ অক্টোবর।
ফতেয়াদোয়াজদাহম ১২জুলাই (কেবলমাত্রমুসলমান কর্ম্মচারীদের জন্য ছুটি)।

ব্যক্তিগত স্মারকলিপি

ট্রেনের সময়

	সহর হইতে	বাড়ী হইতে
ঘড়ির নং P.F ale		
টেলিফোন নং 142802		
মোটর গাড়ী নং		
মোটর বাইক নং		
ট্যাক্স টোকন শেষ তাং		
লাইসেন্স নং		
লাইসেন্স ফিনিউয়্যাল তাং		
সাইকেল নং		
টিকিট নং		
পলিসি নং		

ইনঃ প্রিঃ দেয় তাং
ওজন ____ ____ ____ তারিখ
উচ্চতা ____ ____ ____ তারিখ
জন্ম তারিখ (ছেলে বা মেয়ে) 8/4/1960
নাম Prabhat Ranjan Sarkar
ঠিকানা 3171 C&D. Ranipur Colony P.O. Jamalpur, Monghyr

1960년 7월 8일, 아들 고땀(별명 랄투)이 태어났다. 이는 1963년과 1965년 바바 일기의 사적인 메모란에 쓰여진 자필로 확인된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31. VSS

사회 운동가로서의 바바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마르기들에게 바바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야외 산책과 DMC에서 경호원으로 활동할 자원 봉사자들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원 봉사자들은 단체 행사 동안 마르기에게 보안을 제공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예기치 않은 소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했다. 그들은 바바에게 이리 제안했고 바바는 마르기의 결정이 자신의 결정이라 고 말했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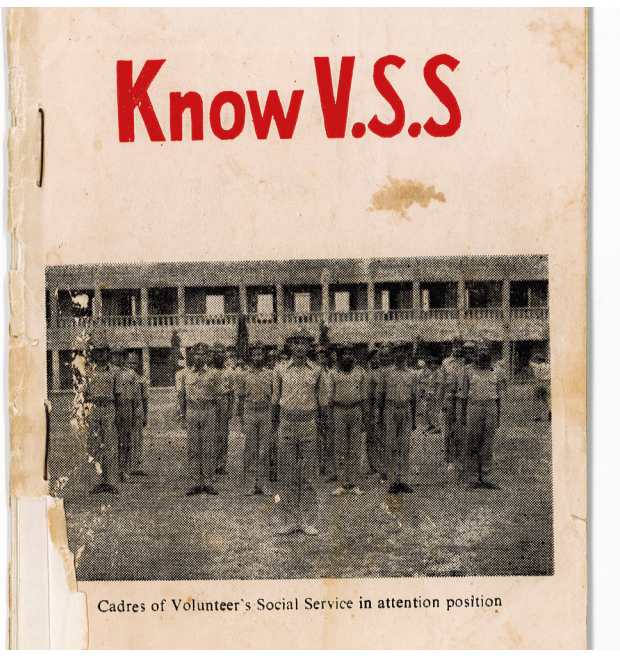
1959년 11월 고락푸르 DMC에서, 바바는 VSS를 마르가 보안 및 서비스 부서로 도입했다. VSS는 처음에는 우주 평화군의 약자였으나 나중에 사회 자원 봉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59년 12월 말, 란치에서 닷새 동안 VSS 캠프가 열려, 비하르 각지에서 온 수십 명의 열성적인 젊은 마르기들이 참여했다. 그것은 더 많은 VSS 캠프가 따를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캠프 첫날 아침, 바바는 방문해서 참가자들에게 용기와 승리에 대해 일깨우a는 이야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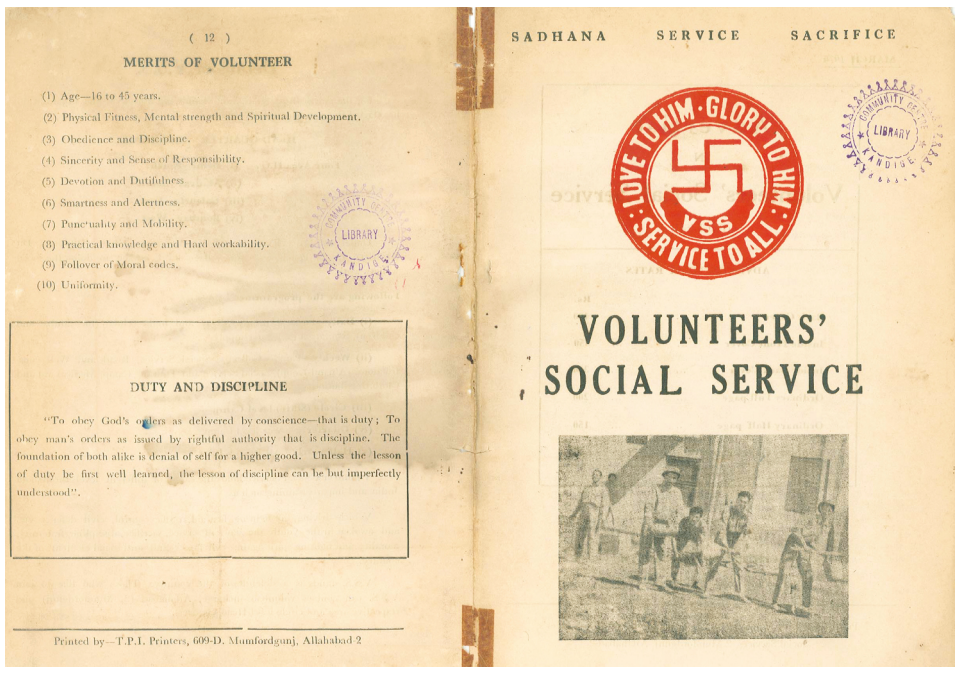
편집자

참석한 한 마르기는 "바바가 말씀하실 때는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았다. 바바가 원하면 가장 높은 나무에서라도 뛰어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 파도가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르마와의 싸움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죽으면 자유를 얻을 것이고, 살아남으면 달마의 승리를 누릴 것이다. 다음 날 란치 들판으로 가서 깃발 아래서 경례를 했다." 그는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안 훈련과 함께 재난 구호 및 기타 사회 봉사 활동 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초기 vss 안내서



바바의 오랜 경호원이자 죽을 때까지 VSS의 책임자인 비슈누데바지는 이후 VSS 열병식을 주도했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32. 바바의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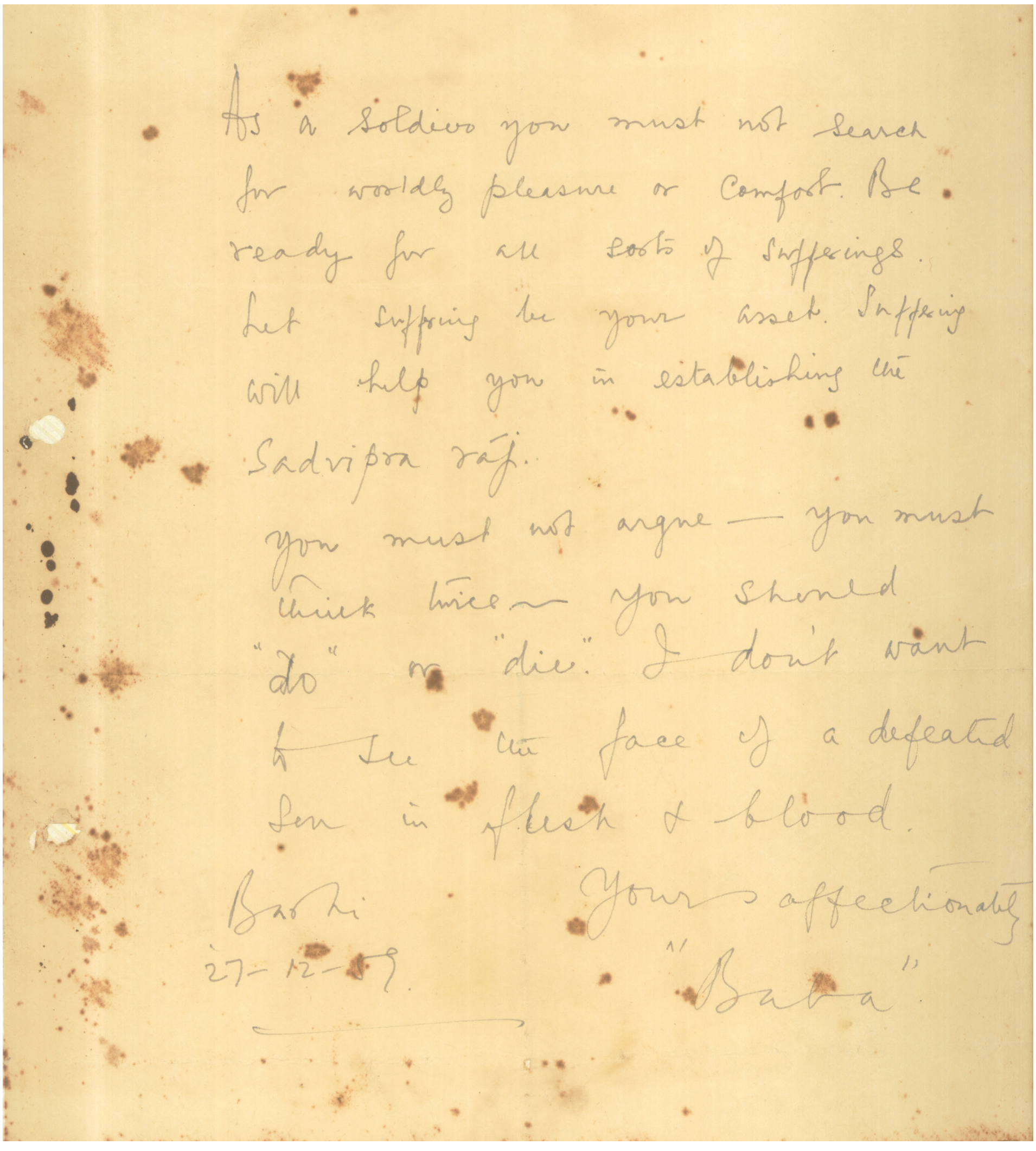
1959년 말 란치의 첫 VSS 캠프를 방문한 바바는 자말뿌르로 떠났다. 가는 길에 바바는 점심 식사하러 바르히 경찰 부총경인 마르기 람 바하두르 집에 들렀다. 바바는 그가 캠프를 방문하여 사관들에게 훈련을 시키도록 고무하였고, 람 바하두르는 바바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부탁했다. 바바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좋아, 종이 한 장을 가져와." 람 바흐두르가 종이를 가지러 달려갔고 바바는 훈련생들을 위해 이 감동적인 글을 썼다.

바바의 메시지는 VSS 정신을 구현하고 있지만, 단지 그 캠프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바바의 음성'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바바는 나중에 "두 번 생각해야 한다"를 "두 번 생각해서는 안 된다"로 바꾸고 (대의 명분을 위해 행동으로 뛰어들기 전에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정신처럼) "말하거나 쓰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패배한 아들"은 "패배한 아들, 딸"로 바꾸고 (남녀 모두 포함), 다른 사소한 구두점 편집도 있었다. 최종 문구는 다음과 같다:

'전사로서 세속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종류의 고통에 대비하라. 고통이 너의 자산이 되게 하라. 고통은 사드비프라 사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쟁하지 말고, 두 번 생각하지 말고, 말하거나 쓰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라. 하던지 아니면 죽던지 하라. 나는 살아있는 내 아들, 딸들의 패배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애정을 담아, 너의 바바가


As a Soldier you must not search for worldly pleasure or Comfort. Be ready for all sorts of sufferings. Let suffering be your asset. Suffering will help you in establishing the Sadvipra raj.

You must not argue — you must think twice — you should "do" or "die". I don't want to see the face of a defeated son in flesh & blood.

Baba

Your affectionately

27-12-59.

"Baba"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33. Wholetime Workers 산야시 아차리야

1961년 바바는 16명의 패밀리 아차리야를 자말뿌르에 불러 그들에게 다음 달 안에 인도의 16개 주 중 한 곳을 다니며 다르마 프라차 (전법)를 하도록 할당했다. 그들은 한 달 후에 보고를 했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 그들 모두가 가족의 의무 때문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바는 점점 더 늘어나는 새로운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마르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산야시 (출가자)로 징집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산야시 아차리야들을 'WT (Wholetime Worker) 모든 시간을 일하는 전업 일꾼'이라 명명하고 1962년에 그들을 아바두타(선임 산야시 아차리야)로 임명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는 패밀리 아차리야들에게 말하기를, WT들이 다르마 전법 일 하는 것을 지원하고 돕는 것은 그들의 의무라고 했다.

편집자





1966년 5월 아난다 뿌르니마 DMC에서 바바는 처음으로 해외에 아바두타를 발령내었다면서 아트마난다의 케냐로의 파견을 발표했다. 그는 아프리카가 가장 착취당하고 방치된 대륙이어서 아난다 마르가가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다다 비자야난다는 <히말라야 스승들과의 생활>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와미 라마의 어릴 적 친구이다. 다다는 나중에 그의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제자 와 아쉬람이 있고,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에는 실패했다고 느낀다. 나는 이제 늙었지만 나의 사후에도 임무를 수행할 강하고 헌신적인 핵심 그룹을 만들지 못했다. 너의 구루 아난다무르띠지는 훌륭한 자질의 헌신적인 제자들을 아주 많이 배출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위대함을 입증해 준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34. 이념

바바는 <생각과 이념>책에서 '이념'을 정신적 차원에서 느끼는 정신적-영적 평행으로 정의했다. "이념은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수반한다; 그것은 영적 실체와 평형하는 영감이다."

후년에 그는 종종 "삶은 이념적 흐름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즉, 인간의 삶은 미션(사명)이고, 삶 자체가 미션이며, 존재 자체가 미션이다. 자,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성취는 무엇에 있는가? 이 흐름의 시작점은 최고 긍정이며, 최고 부정을 통과한 후에는 다시 최고 긍정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 조야한 동물성의 단계에서 정묘한 인간성을 향해 진화하는 것이다. 그대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매우 영광스럽고, 최고의 풍요로움이 넘친다. 그렇다면 어떠한 패배에 두려워할 여지가 어디에 있는가?"

Átmamokśárthaḿ Jagaddhitáya ca (자아실현과 온 우주의 복지)라는 경구는 약 7,000년 전 시바에 의해 12번째 shivokti(시바의 짧은 경구)로 처음 제시되었다. 사다 시바의 다른 많은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바바는 그것을 자신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구에 아난다 마르가의 이념으로써 중요성을 부여했다.

"Átmamokśárthaḿ...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átmamokśa 즉, 자신의 목샤를 위한 것이다. 목샤는 속성없는 궁극적 해방을 뜻한다."

"그리고 Jagadhitáya... 사람은 자신의 해탈을 위해 노력하면서, 전 세계의 발전과 인류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다른 존재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누구나 이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즉,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미션이다."



maḥarlika times

MANILA, PHILIPPINES — AUGUST-SEPTEMBER, 1972 — VOLUME I — NO. 5

Shrii Shrii Anandamurtijii in DMS

SHRII SHRII ANANDAMURTIJII

IDEOLOGY AND G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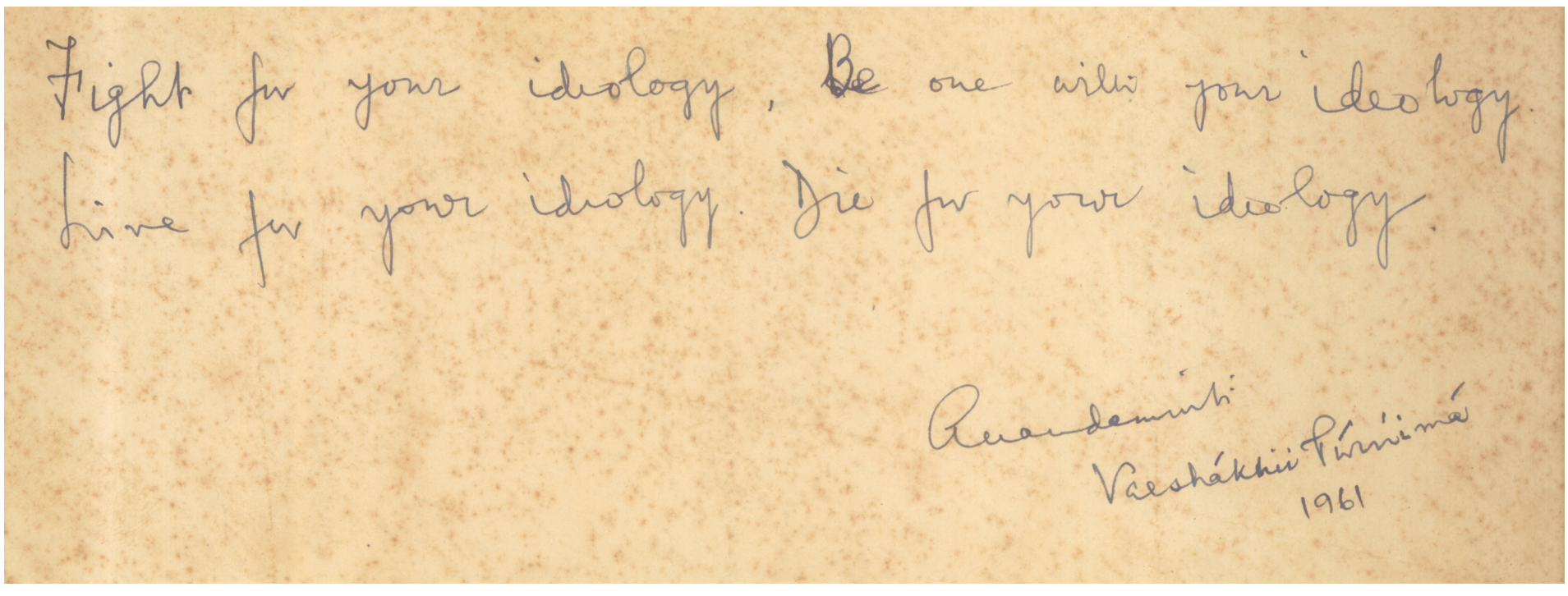
1971년 11월 23일 바바의 DMC 담화 <이념과 목표> (<이념, 목표, 헌신>으로 나중에 개칭)가 마할리카 타임스에 실렸다

(1972년 8월-9월)

바바의 자필로 쓴 아난다 바니, 아난다 르니마 1961년

"그대의 이념을 위해 싸워라.
그대의 이념과 하나가 되고,
그대의 이념을 위해 살고,
그대의 이념을 위해 죽어라."

1962년 1월 1일, 다음 바니에서 바바는 짧게 말했다.
"삶은 이념을 대표한다. 삶은 이념을 위해 희생되어져야 한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35. Ánanda Sútram

바바가 처음에 아난다 마르가에 소개한 영적 사회 철학: <기본 철학 >과 <생각과 이념>은1961년 자말푸르 호랑이 무덤에서 이뤄졌던 일련의 야간 담화에서 아난다 수트람을 기록하면서 통합되었다. 이 책은 촛불 불꽃이 임시 랜턴으로 유리관 속에 보호되어 촛불아래 쓰여져 이듬해인 1962년 6월 6월18일에 출판되었다. 아난다 수트람은 아난다 마르가의 철학 논서를 구성한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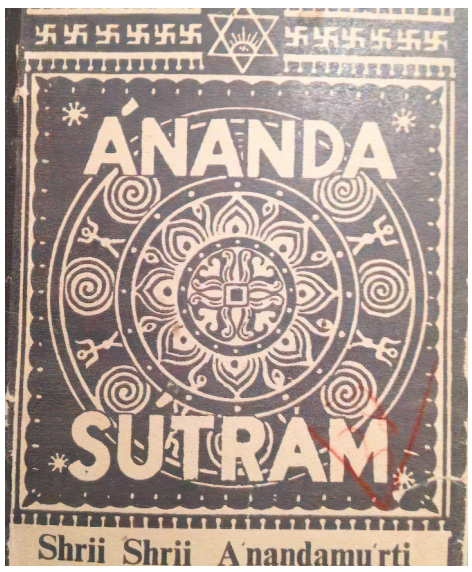
아난다 수트람은 부분적으로 '아난다, 신성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경구들을 의미한다. 수트라 형식 은 수세기에 걸쳐 요약되고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깊은 철학을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가치 있게 여겨져 왔다. 수트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실'이며, 이는 수많은 보석 같은 사상이 하나의 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수트라 문학의 최고의 전통에서 이 책의 85개 수트라는 아주 간결하게 아난다 마르가 철학 전체를 형성한다..
여기서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티는 몇 번의 생생한 필치로 인류에게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 그리고 거시사의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주관적인 접근과 객관적인 적응을 혼합하여, 경제 정의에 기초한 잘 짜여지고 진보적인 사회 시스템을 세계에 제공하는, 유신론적 철학의 견지에서 구상한 사회-경제적 접근방법에 처음으로 착수했다.

<아난다 수트람(1995년 영문판)> 발행인 메모

일부 수트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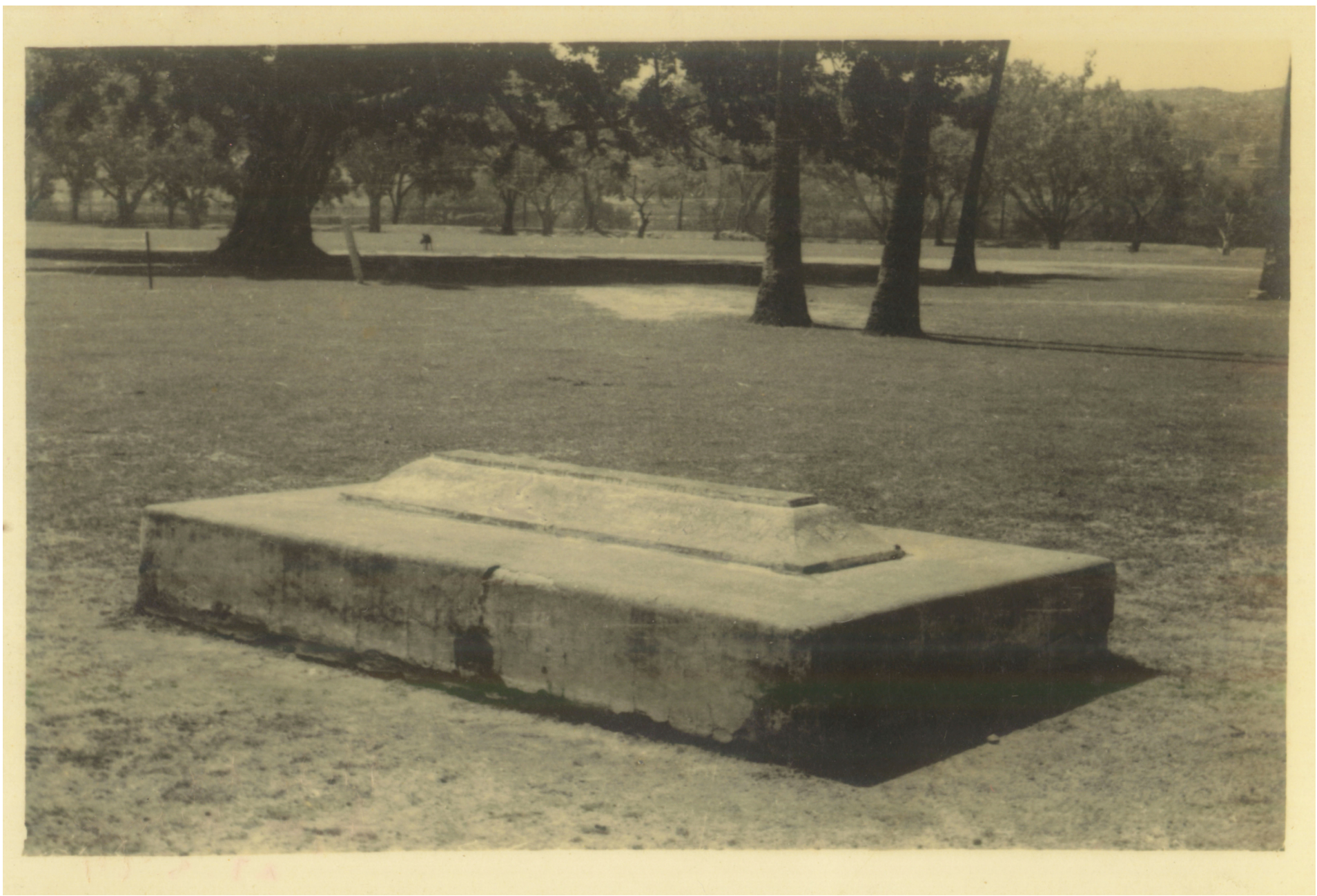
1–1. Shivashaktyátmakamí Brahma [브라마는 쉬바와 샥티로 구성되어 있다.]
1–4. Paramashivah Puruśottamah vishvasya kendram [우주의 핵에 있는 지고 의식은 파라마쉬바 또는 푸루쇼또마로 알려져 있다.]
1–25. Bhávah bhávátiitayoh setuh Tárakabrahma [니르구나 브라마와 사구나 브라마 사이의 다리는 타라카(해방자) 브라마라 불린다.]
2–1. Anukúlavedaniiyamí sukham [마음에 맞는 정신적 감정을 행복이라 부른다]
2–2. Sukhánuraktih paramá jaeviivrttih [행복에 대한 애착은 생명체의 기본적인 성향이다]
2–3. Sukhamanantamánandam [무한한 행복이 아난다 (지복)이다.]
2–4. Ánandamí Brahma ityáhuh [이 아난다를 브라마라 한다]
2–5. Tasminnupalabdhe paramá trśńánivrttih [그것(브라마)이 달성되면 모든 갈증이 영원히 해소된다.]
2–6. Brhadeśańápraṅidhánamí ca dharmah [위대함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마이다.]
2–7. Tasmáddharmah sadákáryah [따라서 다르마를 항상 따라야 한다]
2–14. Brahma Satyamí jagadapi satyamápekśikam [브라마는 절대 진리이다: 우주 또한 진리이지만 상대적 진리이다.
3–1. Paiṇcakośátmiká jaeviisattá kadaliipuśpavat [살아있는 존재는 바나나 꽃처럼 5개의 마음의 층으로 되어있다.]
3–4. Manovikrtih vipákápekśitá samískárah [발현을 기다리는 마음의 왜곡(즉, 잠재적 반작용)을 상스카라 라고 한다.]
3–7. Hitaeśaṅápreśito'pavargah [행위의 업보는 복지에 대한 신성한 갈망에 의해 인도된다.]
3–8. Muktyákáuṇkśayá sadgurupráptih [묵티(해방)에 대한 강한 열망에 의해 사드구루(완벽한 스승)을 얻는다.]
3–9. Brahmaeva gururekah náparah [브라마만이 구루이며, 그외 아무도 없다.]
3–10. Bádhá sá yuśamáná shaktih sevyamí sthápayati lakśye [장애물은 목표에 이르게 하는 조력자이다.]
5–1. Varríapradhánatá cakradhárayám [사회 순환의 과정에서 어느 한 계급이 항상 지배적이다.]
5–2. Cakrakendre sadvipráh cakraniyantrakáh [사회 순환의 중심핵에서, 사드비프라가 사회 순환을 제어한다.]

다섯 번째 장 끝에는 마지막 추가 수트라(번호 없음)가 있다.
Pragatishiila upayogatattvamidamí sarvajanahitárthamí sarvajanasukhárthamí pracáritam [이것은 모두의 행복과 전반적인 복지를 위해 제안된 프라우트(진보적 활용론)이다]



아난다 수트람 1967년
최초 영문판 표지

1960년대 중반 야자수 세 그루를 배경으로 한 호랑이 무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36. 아난다 나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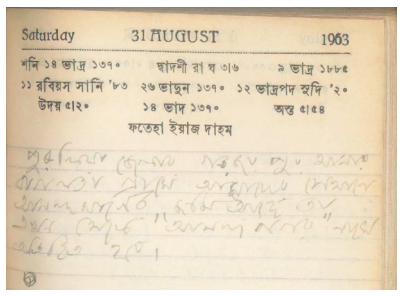
1962년, 바바는 몇몇 마르기에게 마르가의 팽창하는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땅을 찾아 보라고 말했다. 그는 고대 성인의 사다나로 인해 영적 기운이 많은 땅이었던 벵갈과 비하르 국경 근처를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그들 중 란치에 사는 패밀리 아차리야가 있었는데 그는 푸룰리아에 있는 가르자이푸르의 이전 왕자인 라구난단 싱 데오를 아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마르기와 아차리야들을 데리고 그 왕자를 만났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라자(왕)가 말했다., "저는 샤프란 색의 옷을 입은 산야시들이 제게 땅을 기부해 달라고 부탁하는 꿈을 요 며칠 밤 꾸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라자(왕)'라고 부르지만 나는 왕국도 수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졌던 때가 있었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여기서부터 꽤 멀리 떨어져있는 행정구역 바글라타에 아내 명의로 등록된 언덕많고 바위가 많은 땅이 있습니다. 이것 좀 봐 보시죠. 필요하시다면 줄 수 있어요."

그의 아내 라니(여왕)로부터 170에이커의 땅을 기부받은 것은 1962년 8월 말 아난다 마르가 명의로 등록됐다.

1년 뒤인 1963년 8월 31일 바바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푸룰리아 지역의 가르자이푸르 경찰서 아래에 있는 바글라타 마을에 아난다 마르가의 땅이 있다. 이제부터 그 땅은 아난다 나가르로 알려질 것이다."


Saturday 31 AUGUST 1963

শনি ১৪ ভাদ্র ১৩৭০ দ্বাদশী রা ঘ ৩।৬ ৯ ভাদ্র ১৮৮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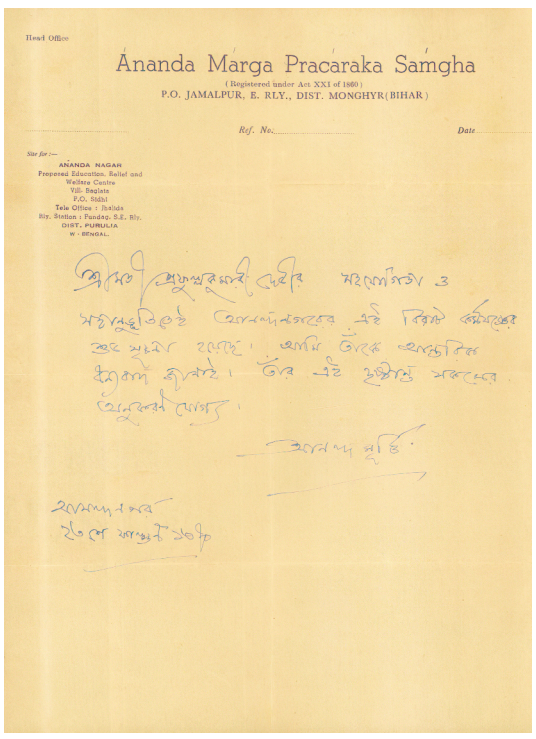
১১ রবিয়স সানি '৮৩ ২৬ ভাদুন ১৩৭০ ১২ ভাদ্রপদ সুদি '২০

উদয় ৫।২০ ১৪ ভাদ্র ১৩৭০ অস্ত ৫।৫৪

ফতেহা ইয়াজ দাহম

이듬해 아난다마르가 본부가 자말뿌르에서 그 땅으로 이전되어 아난다 나가르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라니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슈리 마띠 쁘라풀라 꾸마리 데비지, 당신의 협조와 공감으로 아난다 나가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은 모두가 본받을 만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Head Office

Ananda Marga Pracaraka Samgha

(Registered under Act XXI of 1860)

P.O. JAMALPUR, E. RLY., DIST. MONGHYR(BIHAR)

Ref. No. Date

Site for :—

ANANDA NAGAR

Proposed Education, Relief and Welfare Centre

Vill. Baglata

P.O. Nishi

Tele Office : Jhalida

Rly. Station : Pandra, S.E. Rly.

DIST. PURULIA

W. BENGAL.

<아난다무르띠>
아난다 나가르

23 팔군 1370 [1964년 3월 7일에 해당하는 벵골 달력]

그 첫 3일간의 방문 동안 그는 자말뿌르에서와 같이 마르기와 함께 들판 산책을 나갔고 84개의 탄트라피타 (진보한 사다카가 영적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곳)를 일러주었다.

1966년 12월 31일, 바바는 자말뿌르를 영원히 떠나 그날 저녁 아난다 나가르에 도착했고, "나는 아난다 나가르의 아난다무르띠이다."라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그 방문 동안 그는 그곳의 개발 확장 작업을 가속화했다. 갑작스러운 활동의 급증은 현지 공산 주의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마르기가 마을 사람들의 땅을 훔치기를 원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결국 1967년 3월 5일 아침 수천 명의 무장한 마을 사람들이 아난다 나가르 본부에 있던 WT들을 포함 5명의 일꾼들을 사살한 뒤, 바바가 그들을 대면하러 나왔을 때는 묘하게도 모두 다 도망쳐버렸다. 1979년 10월 그가 '아난다 나가르는 우주의 등불이다'라는 강연을 했을 때 다음 방문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 강연의 일부 발췌:

"오랜만에 다시 아난다 나가르에 왔다. 아난다 나가르는 이 우주의 핵이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아난다 나가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아난다 나가르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아난다 나가르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전 우주에 빛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 신속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 아난다 나가르는 독특한 영광이 있으며, 그 영광은 많은 고귀한 영혼들의 위대한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난다 나가르가 영적 수행, 봉사, 희생, 포기,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 전 우주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다시 이 곳에 모였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아난다 나가르에 들어왔을 때, 나는 기쁨에 겨웠다. 우리가 이곳에 다시 와서 함께 할 수 있어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보다 더 즐거운 게 무엇이 있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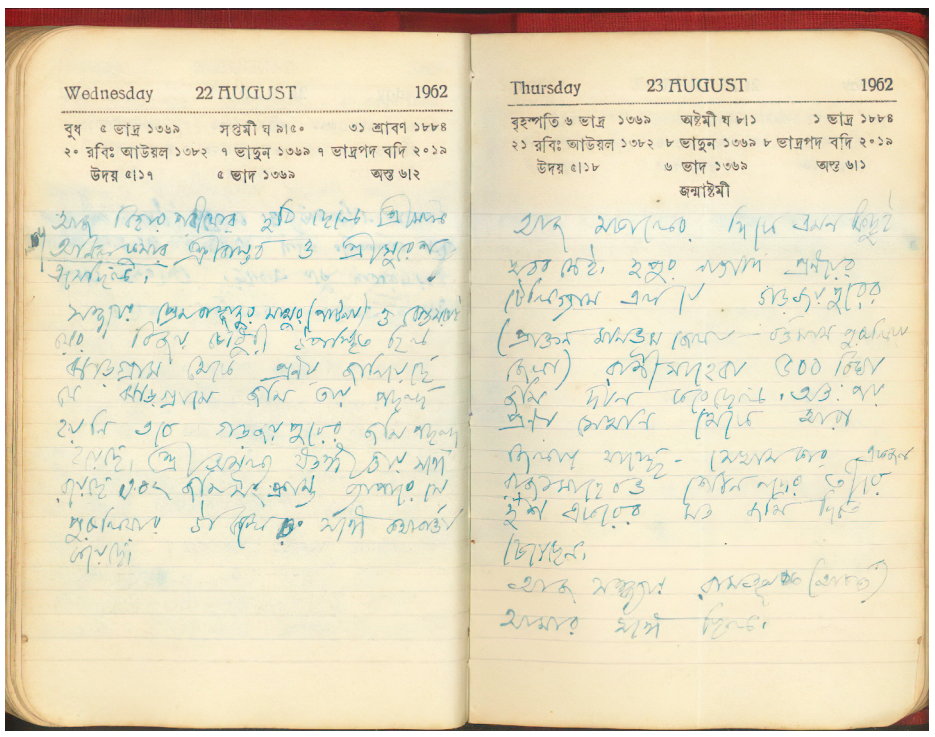

1964년경 아난다 나가르 야외 산보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37. 바바 일기

바바의 1962년, 1963년, 1964년, 1965년 일기 원본은 기록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다.

선택한 일부 페이지:



1962년 8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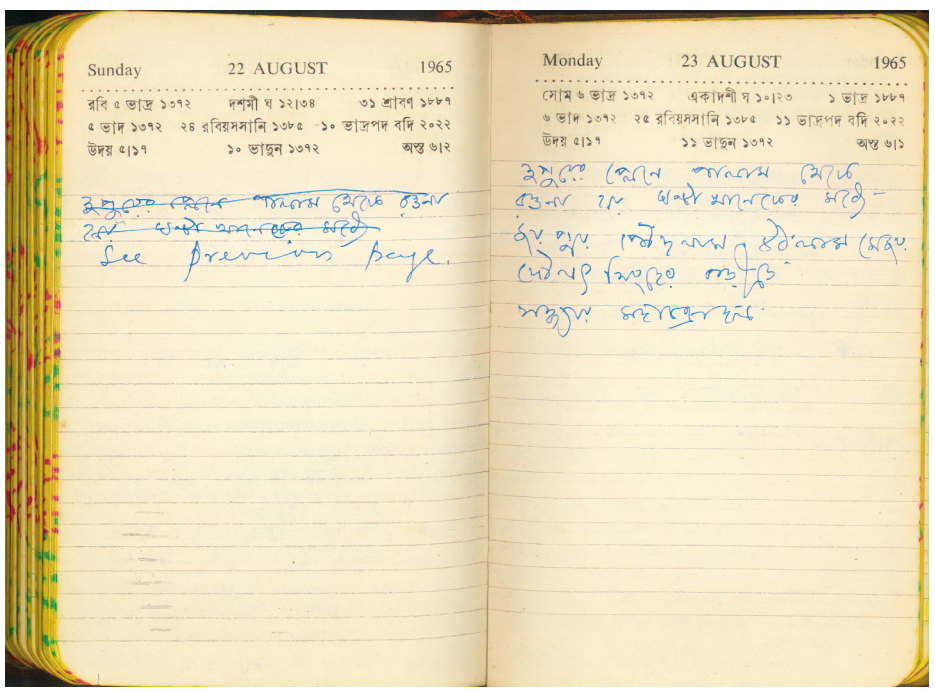
"오늘 비하르 샤리프 출신의 아닐 쿠마르 쉬리바스타바와 수레쉬 두 소년이 방문했다.
저녁에는 프렘바하두르 마투르(파트나)와 비자이 쵸드리(베구사라이)가 참석했다.

[쟈그람에서] 프라나이는 쟈그람 땅이 마음에 안 들고, 가르자이푸르 땅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아물리여러떤 사랑이가 그와 함께 푸룰리아에 있는 변호사와 토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962년 8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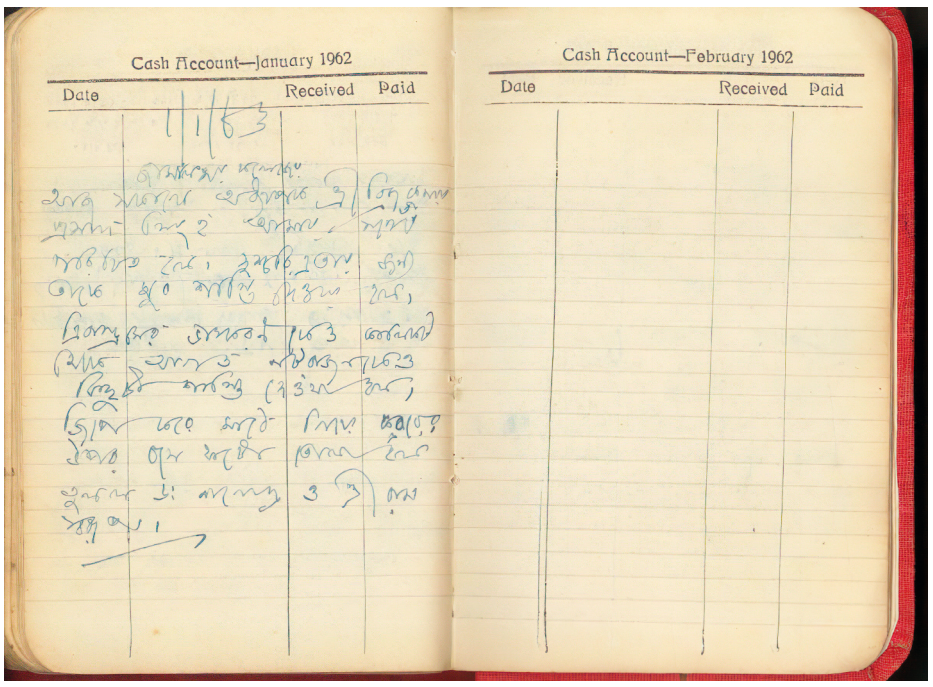
'아침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정오쯤, 프라나이가 보낸 전보는 "가르자이뿌르(옛날엔 만붐 지역, 현 푸룰리아 지역)의 라니사헤바가 500비가 (1비가는 3분의1 에이커) 땅을 기증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라 지구로 갈 것입니다. 그곳의 라자사헵은 쇼네 강둑에 있는 200에이커의 땅을 기증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람타눅(아차리야)이 나와 함께 있었다."



1965년 8월 23일:

"팔람에서 정오 비행기로 자이푸르에 도착. 다울랏 싱 소령의 집에 정착했다. 저녁에는 마하차크라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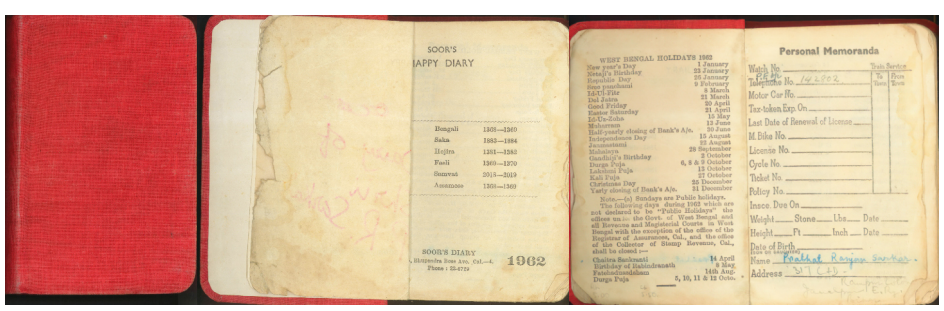


1963년 1월 1일(1962년 일지의 현금 회계 페이지에 기록):

"오늘 아침 자말푸르 대학의 비쟈이쿠마르 프라사드 싱교수를 소개받았다.
그는 타락으로 많은 처벌을 받았다.
트리벤둠의 바스카란과 캘커타의 나타라잔도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다."
"지프차를 타고 들판으로 가서 무덤에 앉아 스냅사진 몇 장을 찍었다.
나겐드라 박사와 슈리 라마스와룹이 찍었다."

아래는 해당 일기에 언급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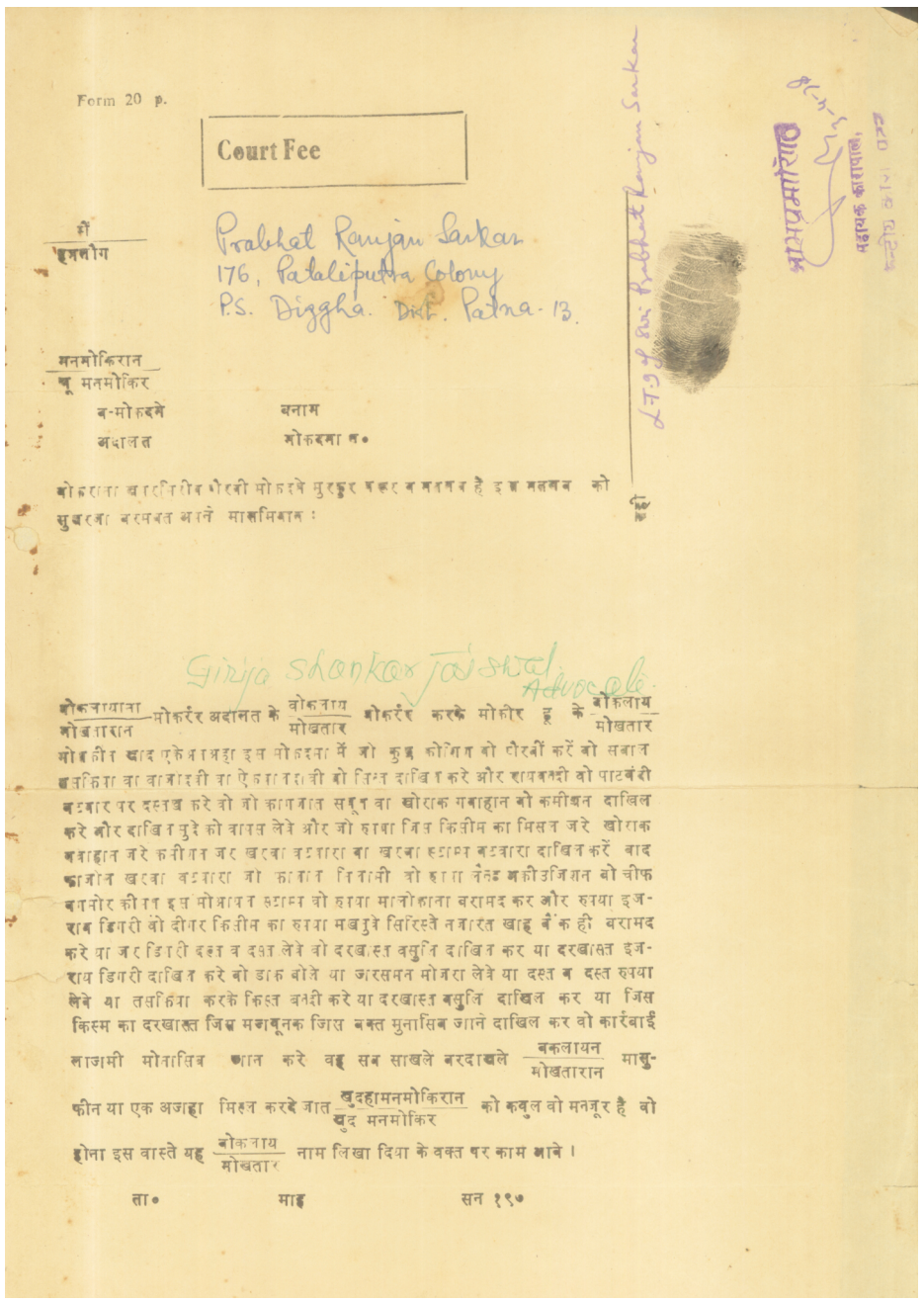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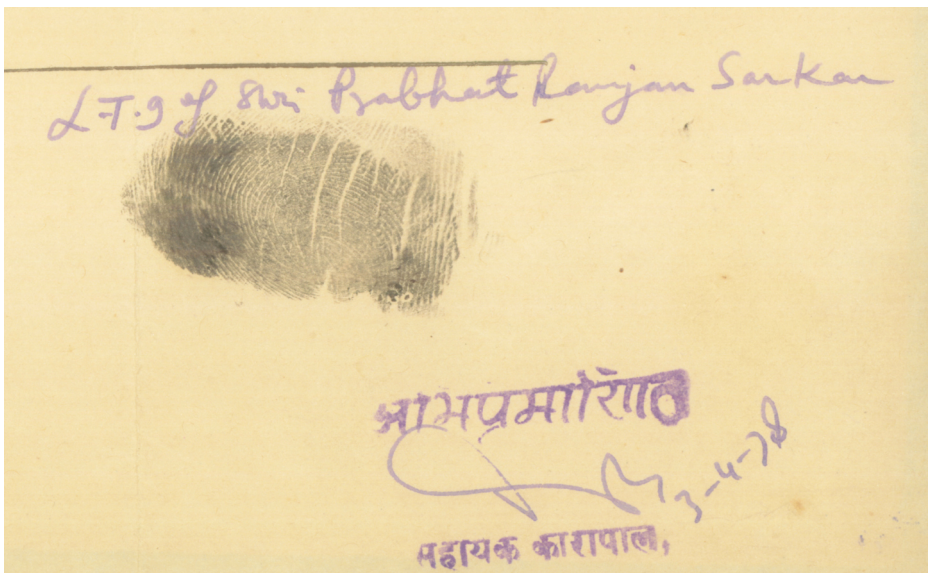


1962년 일기 첫 페이지 내부와 개인 메모 페이지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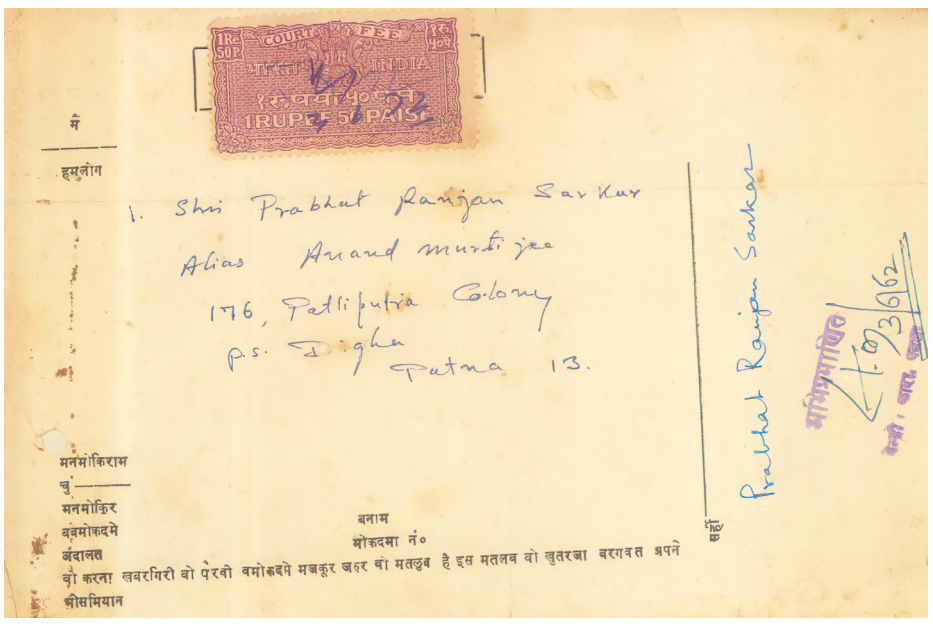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38. 바바의 지문, 서명 및 여권 사진





위임장에 있는 바바 지문과 서명



위임장에 있는 바바 서명

바바 여권사진은 1979년 초 캘커타(현 콜카타) 레이크 가든의 마두말란짜에서 유럽 순방에 앞서 찍은 것이다



샤르마지는 흑백 사진 초기부터 바바의 공식 사진사였다. 그는 캘커타에 있는 사진관에서 일했으며, 그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 바바 석방 이후 해외 출국을 준비할 때 여권용 사진 6장이 필요해 샤르마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레이크 가든에 와서 보고실 옆 바바의 방 바로 앞에 있는 시바릴라 방을 사진 찍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택했다. 그때는 내(다다 라마난다)가 그 방을 쓰고 있었다. 우리는 바바에게 그가 올 것이라고 알렸지만, 그럼에도 바바는 그를 보고 놀란 척했다. "사진사가 어떻게 여기 있는가?" 물었다.

"바바, 그는 바바의 여권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라고 내가 대답했다.

바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빨리 하거라. 산책 가야 하고, 돌아와서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

샤르마지도 웃었다. "바바, 제대로 된 스냅사진을 찍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적절한 조명도 설치해야 하고요. 필름을 몇 장 찍어야겠어요."

바바는 샤르마지가 지시하는 대로 웃으며 앉았다. 샤르마지는 두 다다에게 빛이 바바를 가리도록 정확히 비스듬히 우산 두 개를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들을 올바른 위치에 두고 바바에게 앉는 법과 언제 미소를 지어야 할지 알려주었다: "아주 좋아요, 바바, 하지만 더 좋을 수 있어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조금만 돌리고... 좋아요, 활짝 웃으세요." 바바는 마치 소년처럼 그의 지시에 따랐다. 구식 카메라여서 몇 분 정도 걸렸고 받침대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사진을 잘 찍어서 그 다음날 인화물을 배달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샤르마지가 아프거나 알려진 병을 앓지는 않았지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아침에 바바에게 알렸을 때,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가서 조의를 표하자." 그날 아침 산보에서 우리는 시신을 화장할 준비를 하고 있던 칼리갓의 화장 터로 바바를 모셔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마르기들은 막 장례식을 시작하고 있었다. 바바는 차 에서 내려 떠난 영혼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아슈토쉬 바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39. 조직 바바

아난다 나가르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1963년 4월, 바바는 조직의 사회봉사 프로젝트인 ERAWS, 교육, 구호 및 복지 부문을 감독할 아난다 마르가(AMPS)의 새로운 날개를 결성할 것을 발표했다. 아차리야들과 마르기들은 모두 학교, 어린이 집, 그리고 다른 복지 사업들을 개설하고 재난 구호 활동에 뛰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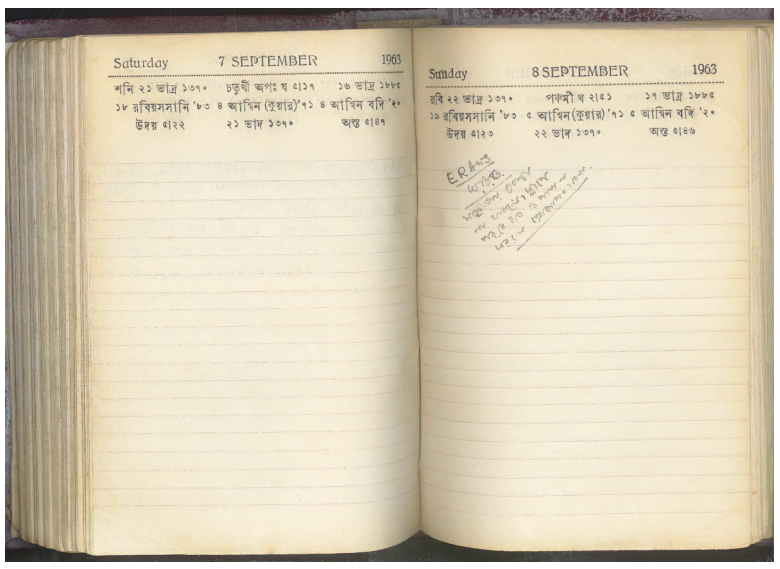
1964년 1월 1일, 자말뿌르 (바바의 아들 고땀이 첫 번째 학생)와 아난다 나가르에 처음 두 초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그 해 바바는 아난다 마르가 교육위원회(AMBE)와 세바 달마 전법회 (SDM)를 설립했고, 첫 아차리야 트레이닝 센터(Prasiks'ana Ma't'ha)를 설립했다.

1965년 5월 23일 아침, 바바는 아난다 마르가의 여성복지부(WWD)의 설립을 발표했다. 그리고 1966년에는 최초로 아바두티카 디디 아난다 바라티(모두에게 이모라고 불렸다)가 아바두티카가 입문을 받았다.

1964년과 1966년 사이에 100개 이상의 자그리티와 2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1968년까지 아난다 나가르에만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위 대학, 어린이 집, 학생 집(호스텔), 병원 (바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아바 세바 사단), 나환자 병원 (새 생명 피난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신체 장애인을 위한 빛의 학교가 있었다.



아난다 마르가의 기술연구소, 인쇄소와 아난다마르가 본부 사무실도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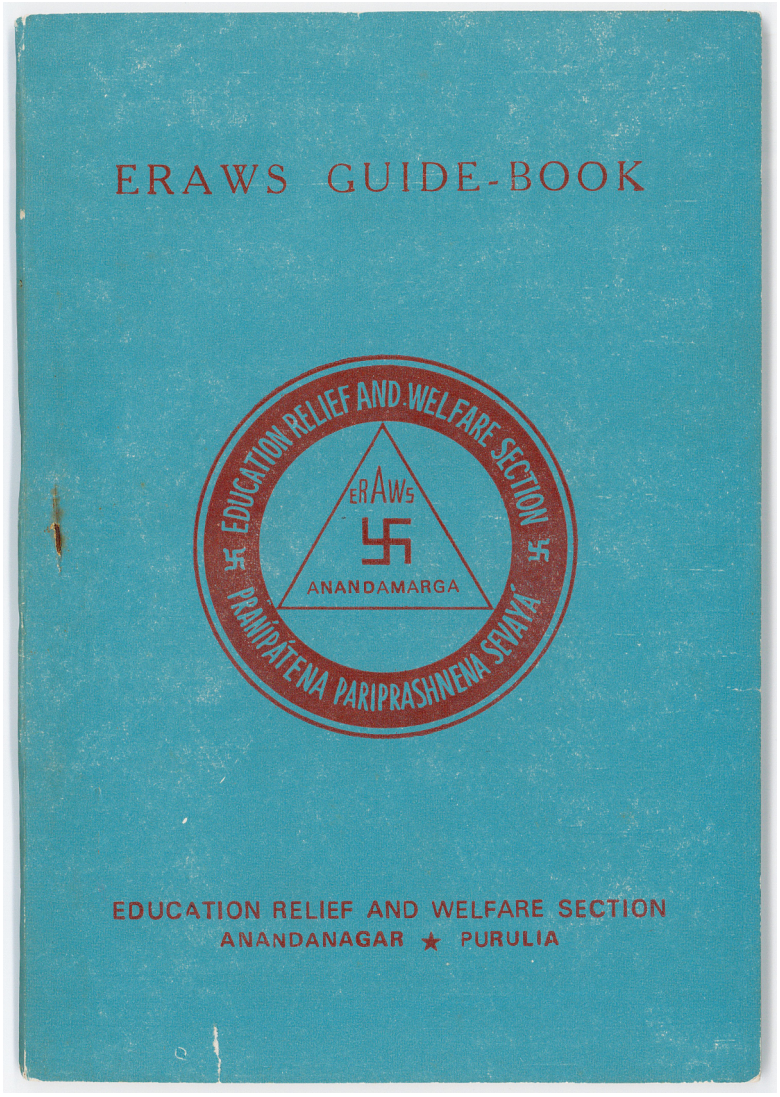

Saturday 7 SEPTEMBER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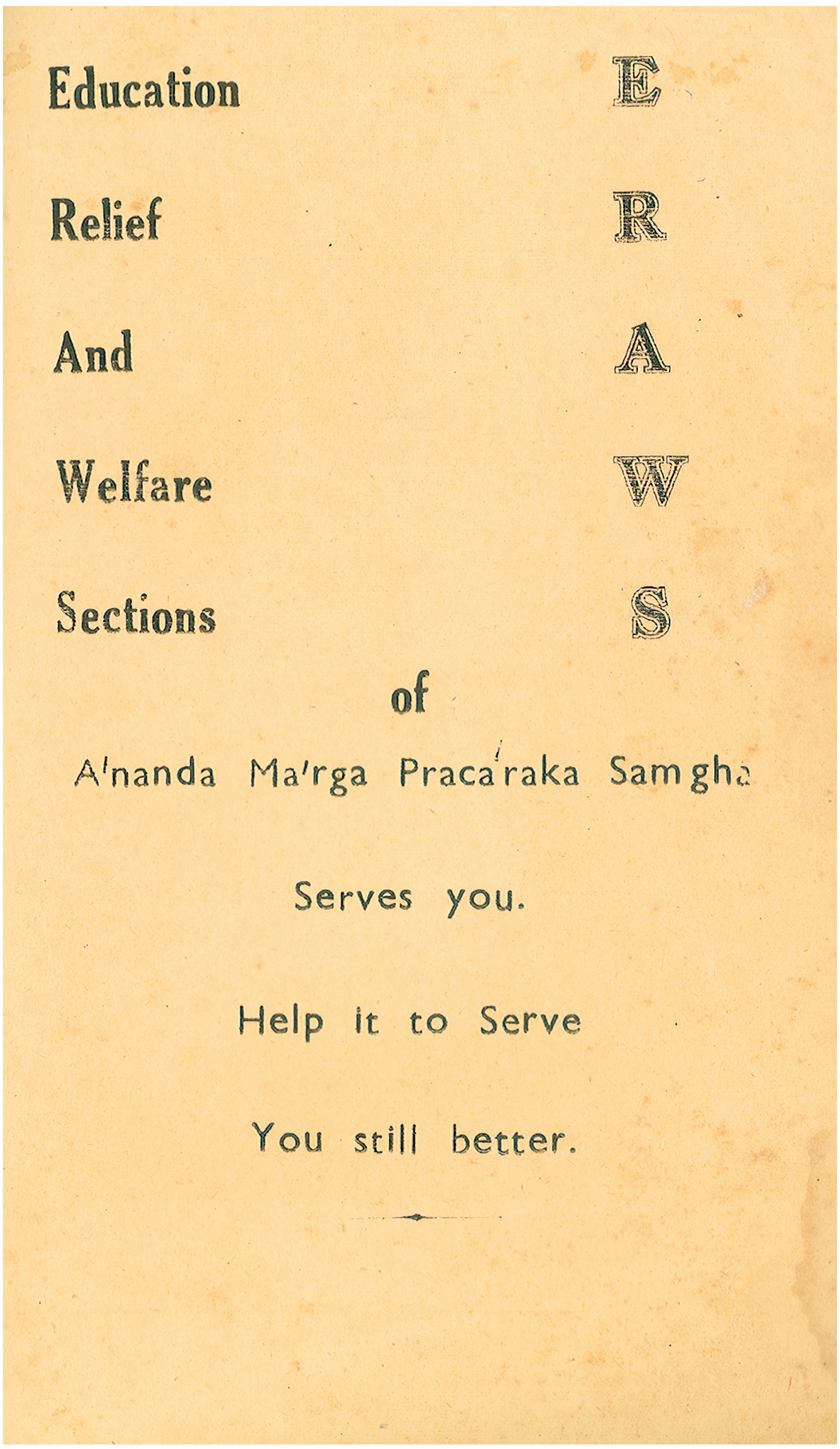
Sunday 8 SEPTEMBER 1963

바바는 1963년 9월 8일자 일기에서 ERAWS를 언급한다

초기 ERAWS 홍보 자료

첫 번째 ERAWS 가이드북 표지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40. 교육, 구제 및 복지

1963년 ERAWS를 설립했을 때 그는 마르기에 말했다. "아난다 마르가 교육은 개인의 전반적인 진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모토는 '교육은 자유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가능한 한 저렴하고, 아이들이 다니기에 멀지 않도록 마을 단위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빈부의 구별은 없을 것이다. 구조대는 자연재해와 인재 발생 시 대응 팀을 구성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다른 구호 기관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모든 의료 전문가들은 이 팀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해야 한다. 재난이 닥쳤을 때, 모든 현지 마르기들은 스스로 이 부서의 회원이라고 생각하고 자원봉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복지 부문은 어린이 집, 병원 등과 같은 영구적인 복지 사업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바바는 각 부서의 세부 활동 사항을 다 설명한 후, 업무를 감독할 총무를 지명해 달라고 요청 했다. 프라나이는 교육부에 아쉬타나, 구호부에 케다르, 복지부에 라메시 박사를 지명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바바는 각각의 새로운 담당자들을 만나 그들의 부서 개발을 위한 지침을 주었다. 그는 라메시 박사를 만나 첫 복지사업으로 어린이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구체적인 운영지시를 했다.

바바는 그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을 절대 고아라고 부르지 않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을 고아원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고아원에서는 구걸하기 위해 아이들을 내보낸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들이 구걸할 것이다. 그들과 지역 마르기는 아이들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 이 아이들의 생활수준은 중산층 마르기와 그 자녀들의 생활수준과 같아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초의 어린이 집이 당시 파트나의 경찰청장인 아코리 히마찰 프라사드, 삼부다난다(이전 이름은 아씸), 란치의 라메쉬 박사의 감독하에 파트나에서 문을 열었다. 그 후 곧 아난다 나가르에 두 번째 집이 문을 열었고, 곧 다른 곳도 잇달아 개원했다.

바바는 교육 단체의 설립에도 같은 자극을 주었다. ERAWS의 출범과 함께, 학교 개교는 조직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아쉬타나의 감독하에 마르기 교육가들은 학교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바를 만났고, 바바는 어린이 집과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과 그들이 사용할 교육 방법에 대한 지침을 주었다. 예상 대로, 바바는 아동 교육의 영적, 윤리적 측면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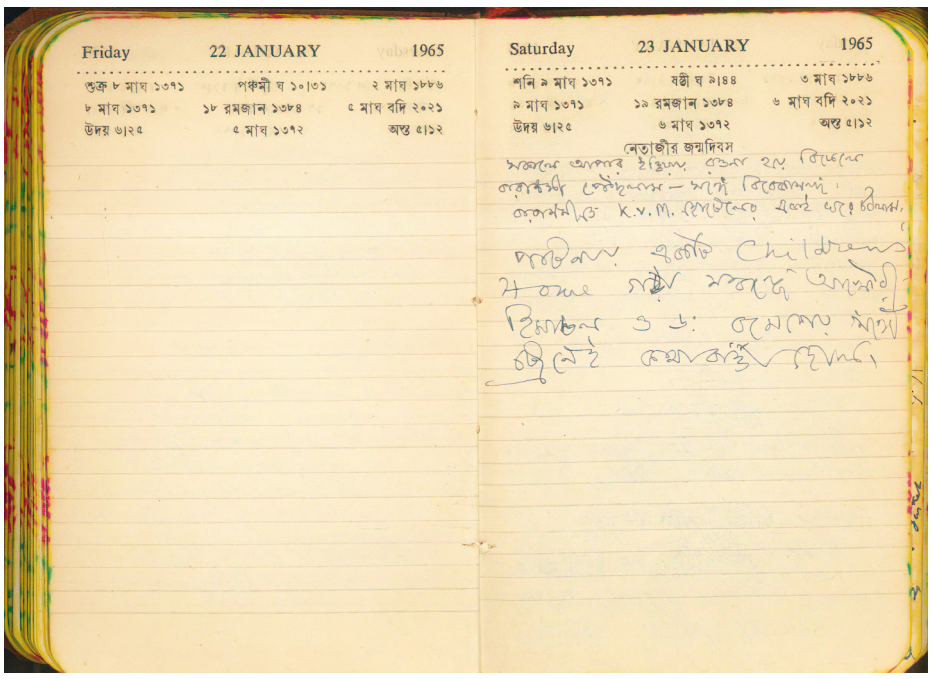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3개 영역의 발전이다. 즉, 인간 존재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영역에서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인성의 통합을 고양시켜야 한다. 이것은 잠자고 있는 인간의 잠재성을 일깨우고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프라우트 교육 시스템에서는 철학과 전통뿐 아니라 도덕 교육과 이상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도덕의 실천은 모든 수준의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어야 한다. 보편주의 의식은 아이에게도 각성되어야 한다. 예절과 세련된 행동은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교육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이어진다."

이후 바바는 DMC 투어를 나갈 때마다 정기적으로 학교와 어린이 집을 방문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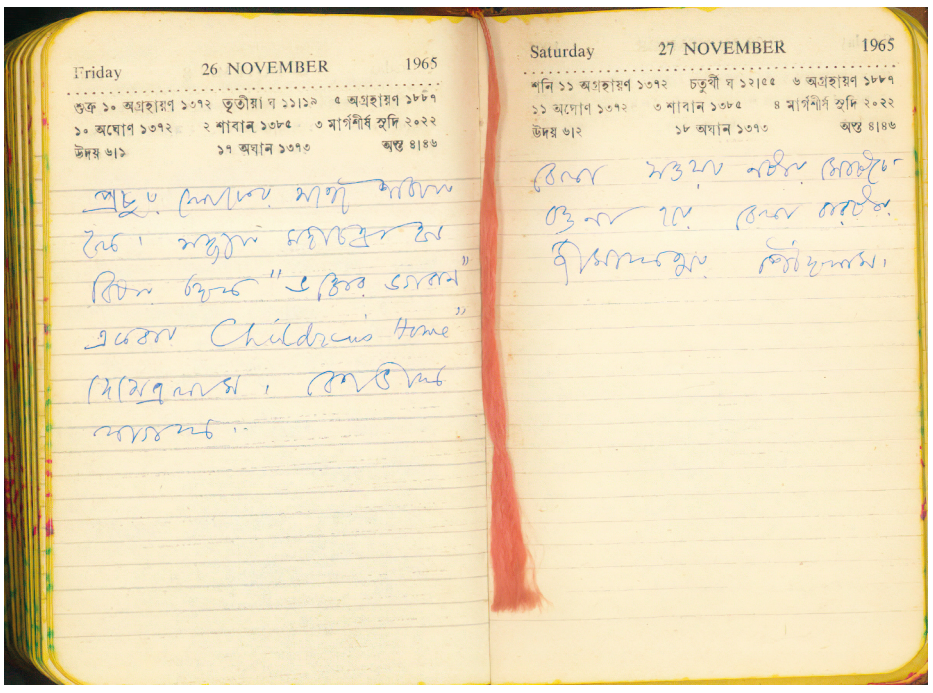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1965년 교육 훈련 캠프(ETC)에서 'EDUCATION'약자가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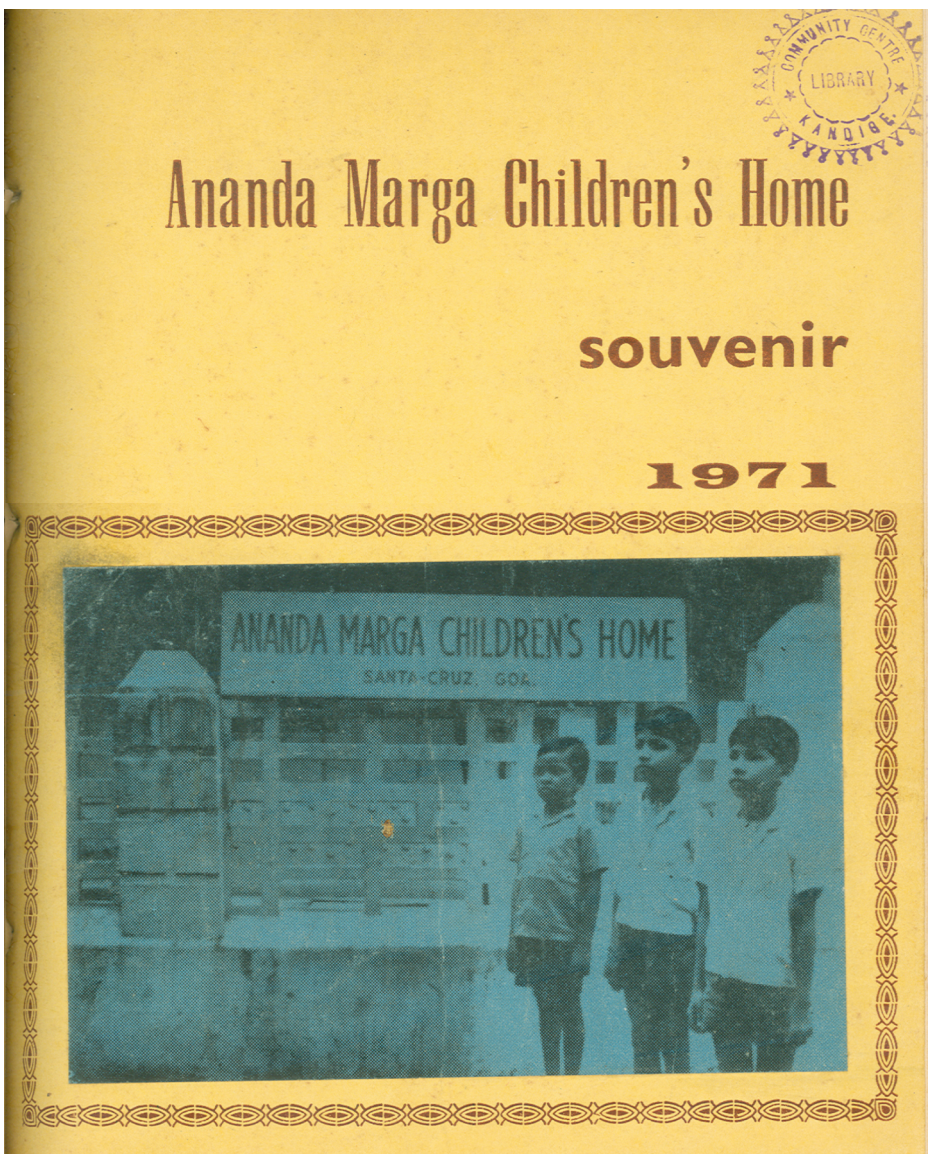
E --- Enlargement of mind, 마음의 확장
D — DESMEP(규율 Discipline, 에티켓 Etiquette, 현명함 Smartness, 기억력 Memory, 영어 English, 발음 Pronunciation)
U – Universial Outlook, 우주적 세계관
C — Character, 인성
A —Active habits, 활동적인 습관
T — Trustworthiness, 신뢰
I — Ideation, 지고 존재에 대한 이념
O — Omniscient grace 전지한 은총
N — Nice temperament 선한 성품



1965년 1월 23일자 일기에서, 바바는 바라나시로 가는 기차에서 라메쉬 박사와 아코리 히마찰 프라사드와 함께 파트나 어린이 집 개소에 대해 논의한 회의에 대해 쓰고 있다.



1965년 11월 26일자 일기에서, 바바는 그날 저녁 열린 DMC(강연 주제는 '헌신자의 신'이었다)와 어린이 집 방문에 대해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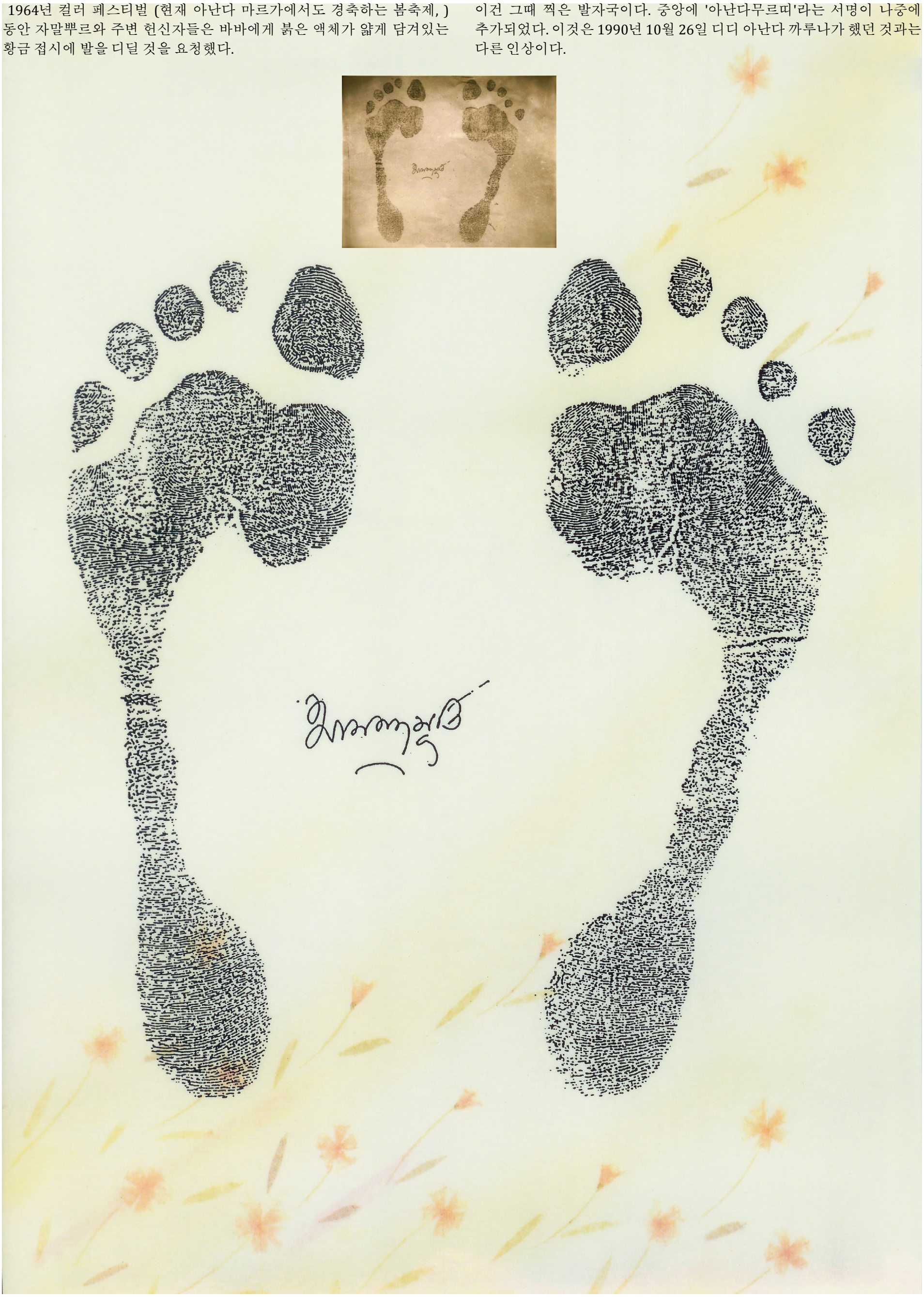
아난다 마르가 어린이 집 기념품 1971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41. 바바의 발

1964년 컬러 페스티벌 (현재 아난다 마르가에서도 경축하는 봄축제,) 동안 자말뿌르와 주변 헌신자들은 바바에게 붉은 액체가 얇게 담겨있는 황금 접시에 발을 디딜 것을 요청했다.

이건 그때 찍은 발자국이다. 중앙에 '아난다무르띠'라는 서명이 나중에 추가되었다. 이것은 1990년 10월 26일 디디 아난다 까루나가 했던 것과는 다른 인상이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42. 후기 가족 사진

이 가족 사진은 1960년대 중반에 찍은 것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사진 후 1, 2년 후에 찍은 것이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앉아있는): 바바, 누이 히라프라바 (조카 사오미트라데바를 안고 있는), 어머니 아바라니 (고땀을 안고 있는), 남동생 수당슈 란잔.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서있는): 아내 우마, 칼리야니 사카르(히망슈 란잔의 아내), 남동생 히망슈 란잔, 아말 꾸마르(히라프라바의 장남), 칫트랄레카 (루비, 히라프라바의 막내딸), 남동생 마나스 란잔, 비카쉬 꾸마르 (히라프라바 막내아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앉아있는): 히망슈 란잔, 바바, 어머니 아바라니, 히라프라바, 수당슈 란잔, 마나스 란잔. 서있는 모습: 비카쉬 꾸마르(오른쪽), 칼리야니 사카르 (오른쪽에서 세 번째, 아들사오미트라데바를안고 있는), 우마 사카르(오른쪽에서 네 번째), 아말 꾸마르(왼쪽에서 세 번째, 고땀을 안고있는) 칫트랄레카 (루비, 왼쪽에서 두 번째)

바바의 일생은 무집착을 보여주는 예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철도청 근무 시절 동생에게 월급을 대신 받아 어머니에게 줄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거나 그녀에게 과일과 꽃을 사주는 데 사용할 소량의 용돈을 그에게 주었다.

바바 어머니 말씀: "그는 집에서는 매우 충실한 아들이며 완벽하게 의무를 다합니다. 심지어 그 나이에, 그보다 더 고분고분한 아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르가 행사에 가기 전에, 심지어 오늘도, 그는 내 허락을 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리에 통증이 심해요. 매일 밤 그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 다리를 마사지합니다. 그가 내 뜻을 거역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또한 우리의 사적인 문제로 그를 방해하지 않아요. 내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문제로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 신비의 출현>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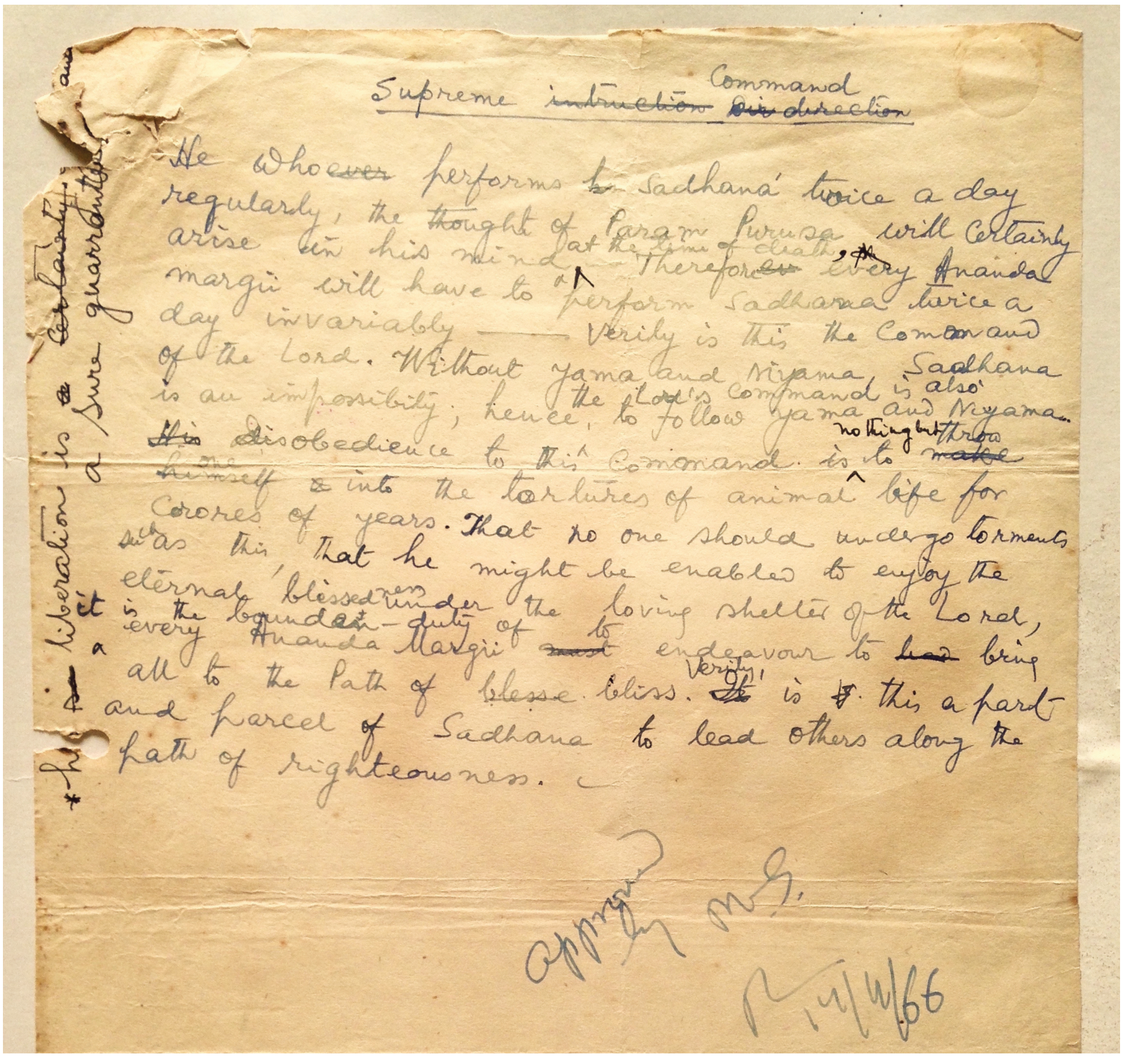
43. 지고의 말씀

1966년 바바는 아난다 마르가의 본질과 의미를 요약한 '지고의 말씀'을 주었다. 이 책은 바바의 저서 공식 출판물 첫 부분에 수록되며 주간 달마크라(DC)에서 단체 명상 후 낭송된다.

1966년에 처음 받았지만 1967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한편 그것은 원래의 벵갈어에서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본은 다다 비자야난다가 번역한 최초의 영어 사본으로 바바가 (14/4/66년)가 승인하고 서명한 것이다.

원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제목은 심사숙고 끝에 '지고의 말씀으'로 번역되었다. 1976년까지 "He who" (그리고 후에 "The man who...")가 첫 단어의 번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시드니(현 수바) 섹터의 마르기들과 아차리야들은 보다 성 중립적인 "Those who"로 단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1976년 11월호 그들의 소식지에 새 버전을 출판했고 그것의 사본이 바바에게 보여졌다. 이후 1978년 8월 석방되면서 초기 번역본은 성서적 영어인 반면 개정본은 현대적이라고 평하며 이를 승인했다. 벵갈판 원본에도 없던 다른 성별 편향 언어도 수정되었다. 그 이후로 원래의 벵갈어의 내용과 의도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훨씬 더 정확한 영어 번역을 위한 제안들이 있어왔다.


Supreme ~~instruction~~ Command ~~Direction~~

He ~~Whoever~~ performs ~~to~~ Sadhana twice a day regularly, the thought of Parama Purusa will certainly arise in his mind at the time of death, ~~So~~ therefore every Ananda margii will have to perform Sadhana twice a day invariably ——— Verily is this the Command of the Lord. Without yama and Niyama Sadhana is an impossibility; hence, the Lord's command is also to follow yama and Niyama. ~~His~~ disobedience to this Command is to nothing but throw himself into the tortures of animal life for Crores of years. That no one should undergo torments as this that he might be enabled to enjoy the eternal blessedness under the loving shelter of the Lord, it is the bounden duty of every Ananda Margii to endeavour to bring all to the Path of blesse bliss. Verily! it is this a part and parcel of Sadhana to lead others along the path of righteousness.

1976년 5월호 시드니 섹터의 (현 수바섹터의)의1976년 11월호 소식지의 장식형태로 첫 글자인 "Those who... "가 영어 번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하루에 두 번씩 일정하게 사다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 그의 마음에 분명히 빠라마 뿌루샤가 떠오를 것이며 해탈을 확실히 얻을 것이다. 따라서 아난다 마르기는 하루에 두 번씩 사다나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는 바로 빠라마 뿌루샤의 말씀이다. 쟈마와 니야마가 없는 사다나는 헛된 수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빠라마 뿌루샤의 말씀은 쟈마와 니야마를 또한 지키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신을 여러 생의 원치 않는 고통 속에 버려두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 같은 고통을 받지 않고 누구나 빠라마 뿌루샤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난다 마르기는 모두를 지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는 아난다 마르기 본연의 의무이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다나의 소중한 일부분이다.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44. 브라자 크리슈나 브린다반을 떠나다



1966년 말에 바바는 마침내 철도청에서의 그의 직업을 포기했다. 그의 어머니는 전에 그에게 말했다. "부부, 언젠가 네가 마르가 일을 하러 집을 떠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부탁이 있다. 루비 [누이 히라프라바의 막내딸– 히라프라바는 1950년에 과부가 됨]가 결혼할 때까지 떠나서는 안되고, 급하게 직장을 그만 두지 마라." 12월 31일, 바바의 조카가 결혼했고 바바는 바로 그날 자말뿌르를 떠나서 (어머니의 요청대로 장기간 휴직하여) 아난다 나가르로 이사했다. 그의 직업을 유지함으로써 그는 가정에 바쁜 사람들이 영적인 성취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차리야들이 바바에게 아난다 마르가에 그의 전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자, 바바는 그들이 그의 속도를 맞추겠다고 약속할 때만 받아들였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활동이 10배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리 슈리 아난다무띠: 신비의 출현>

바바는 자말뿌르를 떠나기 전 1966년 12월 30일 자말뿌르 자그리티에서 DMC를 진행했다. 강연은 '바가바드 다르마'였다. 같은 날 그는 마지막으로 철도청에 가서 그의 동료들을 떠났다. 다음날인 12월 31일, 조카의 결혼식이 끝난 후, 그는 집을 떠나, 그곳에 있는 마르기들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고, 자말푸르 외곽으로 차를 몰고 가서 차를 세우고, 마을 방향으로 마지막 나마스카를 한 다음, 운전사에게 아난다 나가르로 가라고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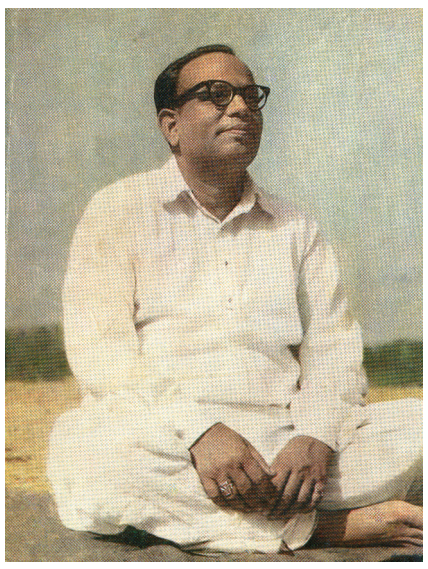
편집자

바바는 1979년 10월 말, 마지막 DMC를 위해 자말뿌르로 13년 만에 돌아왔다. 그는 자그리티에서 가족들의 집까지 1.5km를 걸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다. 너무 아름다웠다. 한 위대한 헌신자 끄란티는 춤을 추다가 사마디에 빠졌는데, 나로서는 이런 현상을 전에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 우리가 그녀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나의 바바가 오셨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바바의 마지막 자말뿌르 방문이었다.

디디 아난다 찬드라셰카라

이건 바바가 자말푸르를 떠날 때 들판에 앉아 있던 사진이랑 아주 다른 두 장의 사진이다. 이는 그가 어떻게 사진의 각도와 조명에 따라 순간순간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 세 번째 이미지와 같이, 당시에는 흔하게 행해지던 원래의 흑백 사진을 손으로 색칠해 덧입혔을 때는 매우 달랐다.







몇 년 후, 끄란티 디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45. 마할리카에서의 바바 (1968)



바기오 파인스호텔에서 바바

1967년 3월 5일 아난다 나가르 사건 이후, 바바는 본부를 란치로 옮겼다. 이듬해 그는 1968년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해 첫 해외 순방이자 인도 밖에서의 첫 DMC가 될 예정 이었다. VIP 접대 후, 그는 마르기들에게 "이 나라의 산스크리트어 이름은 마할리카 (작지만 위대한) 이다."라고 말했다.

마할리카의 첫 시조는 프리메이슨 교단 소속이었으며, 이들은 일원 중 한 명을 인도로 보내 바바를 직접 초청했다. 인도 밖에서 열린 최초의 DMC는 1968년 6월 23일 밤 마닐라 태프트 가에 있는 프리메이슨 사원에서 열렸다. DMC 담론은 '인간의 신'이었다.

일정에 바바가 파인스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바기오 산간마을 여행도 포함됐다.

1968년 6월 27일 바바의 출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나는 이 나라를 떠난다. 육체는 떠나지만 나는 항상 그대들과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아들, 딸들을 떠나지만 잊을 수 없고 정신적으로는 항상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그대 모두가 이상적인 인간이 되길 바란다. 그대들 모두, 그대의 존재가 성공하도록 해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평온함이 함께 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덧붙였다

"내 아들 딸들아,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다. 나는 천국에 있지 않다. 나는 이 사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난 그대들의 것이다."



1968년 6월 25일 밤 바바가 묵었던 바기오의 파인스 호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46. 사다나의 해

1969년 바바는 "올해는 사다나의 해다. 내년에는 세미나의 해가 될 것이다."그리고 나서 그는 "물론 사다나의 해는 무한정 계속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다나는 '자신을 완성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사실 사다나는 아난다 마르기에게 있어 지속적인 수행이다. 바바는 차리야차리야 2부 '사다나(직관적 수행)'장에서 설명했다:

그는 건강하든 아프든, 앉든 눕든, 차 안에 있든, 하루에 두 번 반드시 이슈와라 프라니다나(명상)를 해야 한다. 당장 급한 일이 있든 없든, 마음이 불안정하든, 모든 사다카(영적 수행자)는 처음에는 자파(이스타 만트라 암송)를 80번 하고, 그 다음에는 세지 않고 지시에 따라 원하는만큼 자파를 계속해야 한다.

두 번째 레슨 (구루 만트라) 수행과 함께 이스타의 반복이 계속되면서 모든 순간이 사다나가 된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그를 절대 잊지 마라.
그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면서 일하라, 그를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끝없이 일하라, 축복의 바다를 노닐며."

<'사다나(직관적 수행)', 아난다 마르가 차리야차리야 2부>

그리고 사하자 요가 사다나의 여섯 가지 모든 레슨을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매일 두 번씩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고의 존재에 도달할 것이다.

"형태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한 파라마 브라마(지고 의식)는 살아있는 것들이 도달해야 하는 유일한 실체다. – 그 만이 자갓 구루(지고의 스승)이다. 그만이 아난다무르티라는 이름과 모습으로 직관적 과학을 드러냈다. 개체 존재는 그 위엄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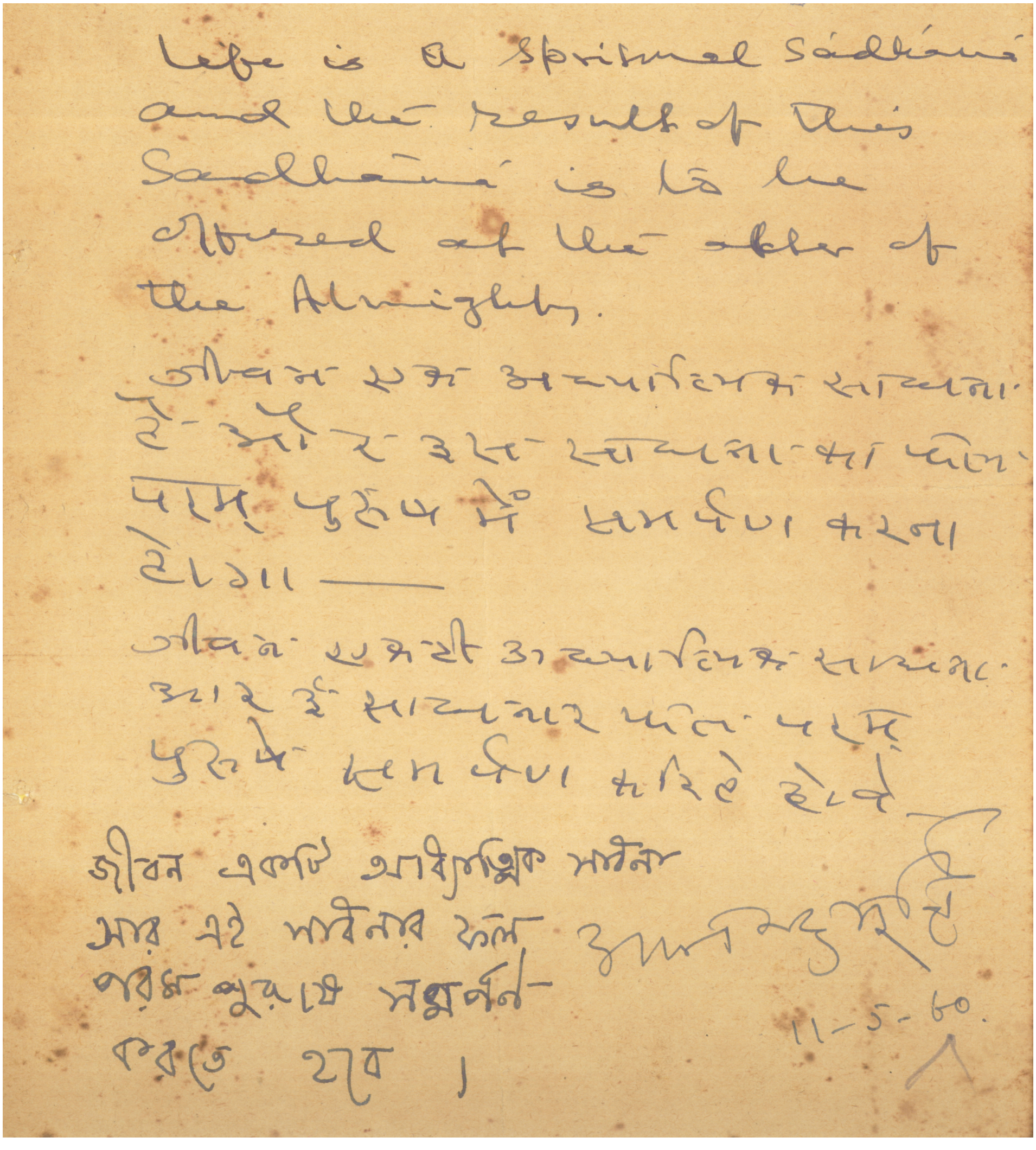
<'사다나(직관적 수행)', 아난다 마르가 차리야차리야 2부>

"그대는 어둠의 해안 너머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려고 사다나의 들녘으로 나왔다.
범천으로 가는 그대의 여행이 영광스러운 큰 승리를 거두리라. 멋진 항해가 되리라."

<베다의 직관적 과학 2>, 바드라 푸르니마 1955 DMC

바바 친필의 아난다 바니, 아난다 푸르니마 1960:

"인생은 영적인 사다나이며, 이 사다나의 결과는 전능한 신의 제단에 드려져야 한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47. 마할리카에서의 바바(1969년)

바바는 1969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마할리카를 두 번째 방문했다. 그것 또한 그의 두 번째 해외 투어이자 두 번째 인도 밖 DMC였다.

4월 23일 수요일 오후, 바바는 일단의 젊은 마르기 집에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담화(나중에 '까울라와 마하까울라'로 출판)에서 설명했다:

"까울라와 마하까울라와의 차이는 까울라는 사다나를 통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쿨라쿤달리니를 일깨워 끌어올려서 근본적 부정성과 긍정성의 결합을 이루는 반면, 마하까울라는 다른 사람의 쿤달리니를 올려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까울라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쿨라쿤달리니를 올릴 수 없고 자신의 것만 끌어올릴 수 있다. 마하까울라는 원하면 다른 이들의 쿨라쿤달리니도 올릴 수 있다."

말을 마친 바바는 앞에 앉아 있는 젊은 남자에게 손을 흔들며 "얘야, 축복을 누려라."라고 말했다. 소년은 천천히 뒤로 쓰러져 축복의 몰입 상태, 사마디에 들었다. 바바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러서 서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바바는 그 젊은이의 쿤달리니를 끌어 올려서 그가 사실 마하까울라임을 분명히 입증하게 되었다.

다음날인 1969년 4월 24일, DMC는 마닐라 소재 필리핀 대학의 한 강당에서 열렸다. DMC의 담론은 '위대한 존재에 대한 갈망'이었다.



마닐라에서 마하까울라 강의



마닐라에서의 산책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48. 시연

1954년 말 죽음에 대한 첫 시연을 시작으로, 바바는 1960년대 후반까지 여러 해 동안 많은 영적인 시연을 했다. 그러나 1967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은 예외적으로 특별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란치 자그리티에서 수백 번의 시연을 보여주었다. 이에는 쿤달리니 끌어 올리는 과정, 다양한 형태의 사마디, 초능력, 우주의 본질, 발광체, 삶과 죽음, 전생, 상스카라가 포함되었다. 그는 또한 네타지 수바쉬 찬드라 보세가 티벳의 한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증명했고 그때 마다 국가의 혁명적 영웅이 돌아와 왕좌에 앉는다면 아난다 마르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마르가의 전법을 돕기 위해 수바쉬를 데려오자는 마르기들의 호소를 바바는 지속적으로 거절했다.

특정 시연에 참석한 다른 제자의 설명:

"시연을 마친 후, 나는 궁금해졌다. 나는 바바가 그런 명석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바로 그 스승인가? 바바는 떠날 것처럼 일어섰다가 갑자기 다시 자리에 앉아 다사랏에게 자신의 전생을 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가 다사랏의 마음을 7천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사랏의 몸이 떨리기 시작 했고, 안색이 변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 그는 '바바, 바바, 바바,'를 반복하기 시작했고 충만한 광채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그 광채 속에 그는 쉬바가 명상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바바가 말했다. '그래?'그리고 나서 그는 다사랏에게 3,5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그가 본 것을 묘사하라고 지시했다. 다사랏은 수려한 외모에 매력적인 인품의 크리슈나가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바바는 그에게 거기서 3,500년 후로 가라고 지시했다. 다사랏은 광채 나는 바바가 보인다고 했다. 바바는 웃으며 말했다. '다사랏, 보거라, 나는 전생에 왕이었지만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다."



1960년대 후반 바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49. 다다 빠라쉬바난다



1969년 바바 시연 중 하나는 다다 빠라쉬바난다의 전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다가 아차리야 키티즈로부터 입문 받은 직후, 초반에 바바는 그의 특이한 전생 이야기를 드러냈다.

1963년 후반, 아차리야 키티즈와 아차리야 케다르낫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고양된 영혼으로 여겨지는 유명한 20대 후반의 존경 받고 잘 교육받은 젊은 란치 출신 청년, 비자이 꾸마르 미슈라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어느 날 오후 그를 방문했고, 대화 하는 동안 그는 그들에게 "제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서 위대한 요기가 사원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요기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그녀에게 축복과 코코넛을 제공했고 코코넛을 먹은 후에 그녀는 아이를 임신할 것이고 그 아이는 훌륭한 성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꿈을 꾸고 바로 임신을 하셨어요."

키티즈는 비자이에게 입문할 것을 권유했고, 자말푸르에서 바바의 법문을 들은 후, 비자이는 그의 아차리야의 발을 만지며 "아차리야지, 당신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온 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신의 도움 덕분에, 저는 올바른 길을 찾았어요. 모든 것을 떠나 바바에게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1964년 4월 9일, 바바는 아난다 나가르에 두 번째 방문차 도착했다. 아차리야 키티즈와 케다르낫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란치에서 비자이를 데려와 바바를 친견하러 갔을 때 비자이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를 불러 오너라."라고 바바가 말했다. "내가 그의 실마리를 잡아 주겠다."

키티즈가 비자이를 부르자 바바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말했다. 비자이의 전생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다.

"300년 전, 르와 외곽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아쉬람에서 살았던 위대한 요기, 깨달은 영혼이 있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영적인 길에 전념하기 위해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아쉬람에 온 유복한 왕실의 젊은 남자였다. 이 소년은 달콤한 과일에 대한 약점 외에는 물질적인 욕구가 거의 없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매우 의식이 고양된 영혼이었다. 어느 날, 구루는 그를 방 으로 불러 며칠 동안 아쉬람을 비울 테니 책임을 맡으라고 했다. 그의 한 가지 훈계는 그가 없는 동안 어떠한 아쉬람 규칙도 위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약속했고 구루는 여행을 떠났다."

"그가 없는 동안, 레와 왕비가 그 당시 왕족들의 관행으로 아쉬람을 방문하였다. 이는 그 당시 왕족들의 관습이었다. 방문 중 그녀는 소년의 영적인 오오라에 매료되어 그녀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를 입양하여 상속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다. 그녀가 그 소년에게 느낀 바를전달했을 때, 그는 '어머니, 저는 왕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스승의 발아래서 명상을 배우기 위해 모든 것을 떠나 여기에 왔습니다. 스승은 저와 함께 행복하기 때문에 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 떠난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왕비는 그의 대답에 슬퍼했지만,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작별 선물로, 그녀는 그에게 아쉬람의 지원을 위한 금과 은 장신구 몇 개를 제공했다. 그러나 스승의 허락 없이는 제자들이 외부로부터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엄격한 규칙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설명했다. 그의 설명을 들은 후에 그녀가 말했다. "얘야, 난 너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을 받는 거란다. 귀중품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적어도 내게서 코코넛이라도 받으렴." 소년은 이미 그녀의 제안을 거절해서 더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코코넛에 약했다. 그것은 단지 코코넛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확실히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여왕은 코코넛을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고, 소년은 그것을 일부 먹고 나머지는 언젠가 돌아올 스승에게 드릴 생각으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나서 여왕은 떠났다."

"다음 날, 스승이 돌아왔다. 그는 아쉬람에 오자마자 제자를 방으로 불렀다. 성난 어조로 그는 말 했다. '이 아쉬람에서는 어떤 제자라도 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원칙 이다. 그리고 너는 단지 코코넛 때문에 이 규칙을 어겼느냐? 이렇게 간단한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게서 요가를 배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소년은 심란함과 우울함을 느끼며 스승을 떠나야 했다. 오랫동안, 자신의 실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는 그 후 곧 죽었다. 그의 실수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의 여파로, 그는 다음 생에 코코넛 야자수로 태어나야 했고, 그는 거의 300년 동안 야자수로 남아 있었다."

이때쯤 비자이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바바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말하거라. 비자이, 네 출생과 코코넛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느냐?"

"네, 바바"

키티즈와 케다르낫도 눈물을 흘렸다. 여태까지 이야기가 비자이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나서 바바가 말했다. "너는 야자수로서의 상스카라를 다 끝냈다. 너의 어머니가 그 코코넛을 되가져가서 그녀 자신의 상스카라도 끝냈다. 빠라마 뿌루샤가 너의 모든 것을 돌볼 것이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비자이는 바바에게 사스탕아 프라남(오체투지)을 하고 말했다. "바바, 제가 죽는 날까지 당신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도 원치 않습니다."

바바는 몸을 숙여 그의 아갸 차크라를 터치했다. 비자이는 쓰러져 사마디에 들었고 바바는 그가 강렬한 지복의 상태에 있으니 그를 방해하지 말고 담요로 덮어주라고 이 두 패밀리 아차리야에게 말했다.

나중에, 키티즈는 그 이야기에 대해 바바에게 질문할 기회를 가졌다. "왜 그렇게 사소한 죄 때문에 제자가 그렇게 큰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에게 그것은 적지 않은 위반이었다,"라고 바바는 말했다. "영성의 사다리에 올라갈수록, 어떤 결점에 대한 영향은 더 커진다. 만약 아차리야와 일반 마르기가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아차리야 책임이 더 커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제자는 훌륭한 요기였지만 스승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그에겐 엄한 벌이 내려졌다. 이것이 빠라마 뿌루샤의 릴라(신의 유희)이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과 <바바와 살며>에서 발췌

다다 빠라쉬바난다는 1984년 6월 29일 육체를 떠났다. 사망 당일, 바바는 아차리야 빠라쉬바난다 아바두타에게 인간 삶의 최고 목표, 즉 목샤(영원한 해탈, 열반)를 부여해 생사 윤회에서 영원히 해방시켰다고 말했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50. 아무르트/아무르텔

1963년 ERAWS의 설립과 그에 따른 교육, 구호 및 복지 활동의 관련 급증에 따라, 바바는 1964년 1월 1일 그의 아난다 바니에서 마르기에게 권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행동이다. 그대의 사다나, 그대의 봉사, 그대의 희생으로 위대해져라."

3년 후, 1966-67년의 비하르 가뭄과 기근 그리고 1967년 12월의 코이나나가르 지진에 대응하여, 그는 아난다 마르가 구호 위원회를 만들었고 구호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대가 가져온 물질의 양은 너희들이 도와주려 왔다는 것을 보고 느끼는 위로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지 않았다면 죽었을 사람도 너희들을 보게 되어 느끼는 행복과 만족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

1970년 4월, 아난다 마르가 구호 위원회는 아난다 마르가 구호 팀(AMURT)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난 구호 및 장기 구호 프로젝트 모두를 위해 ERAWS의 구호 부서의 지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르트의 여성 관리 팀은 나중에 아무르텔 (아난다 마르가 유니버설 구원팀 - 레이디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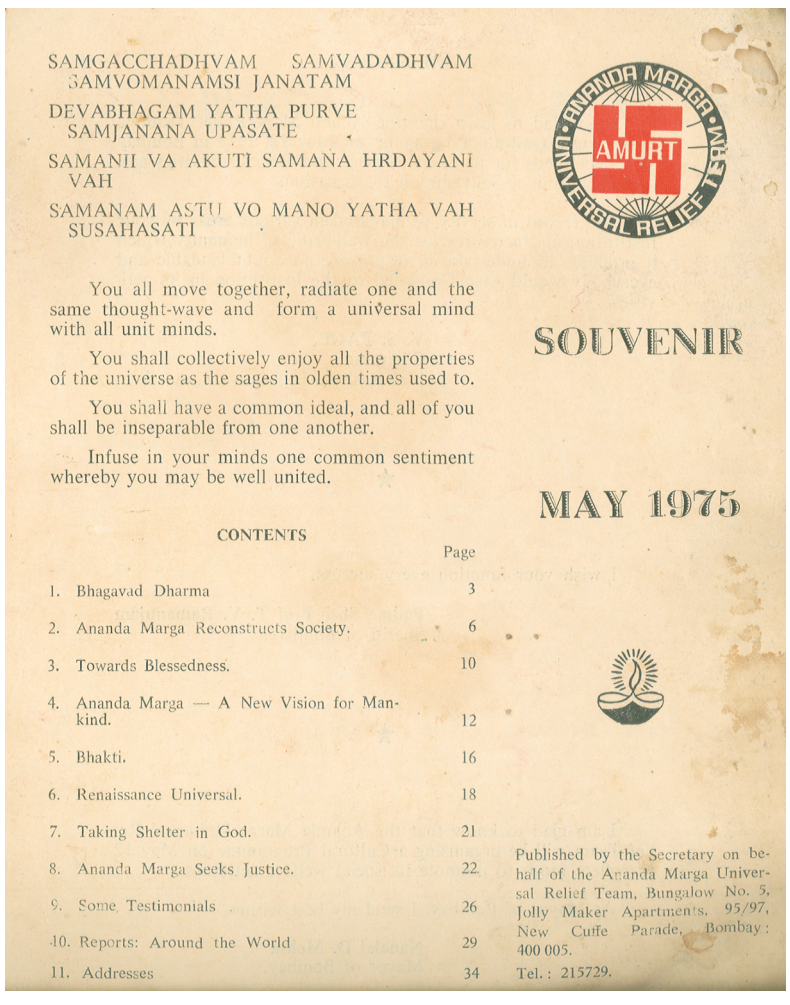
'인류에 대한 봉사는 신에 대한 봉사이다'라는 경구는 이후 아무르트/아무르텔의 이름과 정신과 관련이 있다.

1990년 6월 2일 아난다 나가르에서 열린 특별 AMURT 회의에서 바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세계에는 수억 명의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르트는 나서서 구체적인 것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상당한 양의 음식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양실조로 고통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구체적인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이 사람들의 굶주림은 전 세계의 평화와 평온을 파괴할 것이다. 여러분이 전 세계를 책임질 때, 이것 또한 여러분의 신성한 의무이다.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적인 분배 때문이다. 프라우트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이지만,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여러분은 이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린다. 이것은 아무르트와 아무르텔의 신성한 책임이다. 그들이 책임을 짊어지게 하라."

다른 영광들 중에서 1988년, 아무르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피해자들에게 전년에 제공한 구호 활동으로 인권상을 받았고, 1991년에 아무르트는 UN에서 NGO로 인정받았다.

'사회 봉사의 아난다 마르가 1970-1971' - AMURT의 첫 연례 보고서



SAMGACCHADHVAM SAMVADADHVAM
SAMVOMANAMSI JANATAM
DEVABHAGAM YATHA PURVE
SAMJANANA UPASATE
SAMANII VA AKUTI SAMANA HRDAYANI
VAH
SAMANAM ASTU VO MANO YATHA VAH
SUSAHASATI

AMURT

You all move together, radiate one and the same thought-wave and form a universal mind with all unit minds.

You shall collectively enjoy all the properties of the universe as the sages in olden times used to.

You shall have a common ideal, and all of you shall be inseparable from one another.

Infuse in your minds one common sentiment whereby you may be well un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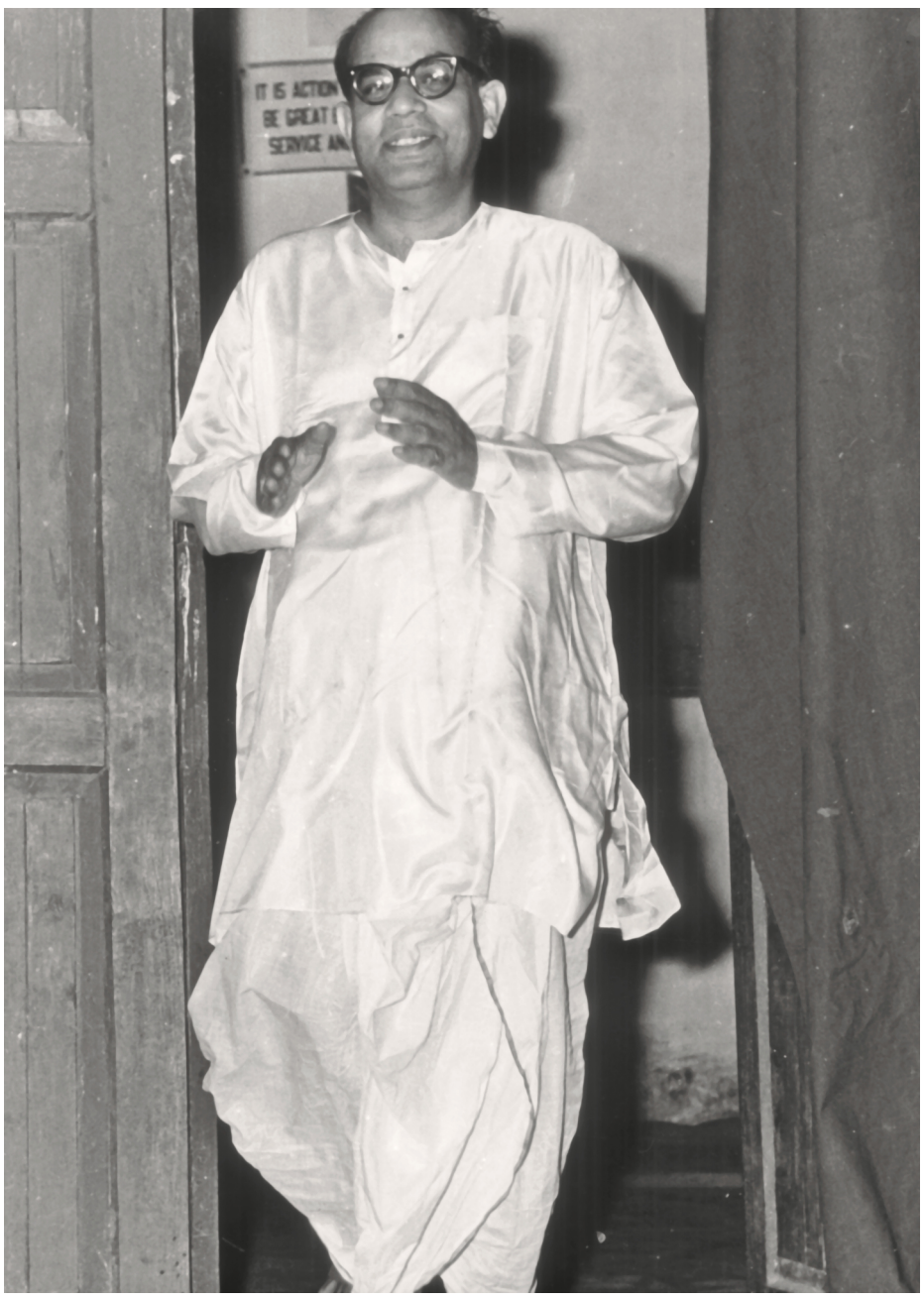
SOUVENIR

MAY 1975

CONTENTS

		Page
1.	Bhagavad Dharma	3
2.	Ananda Marga Reconstructs Society.	6
3.	Towards Blessedness.	10
4.	Ananda Marga — A New Vision for Mankind.	12
5.	Bhakti.	16
6.	Renaissance Universal.	18
7.	Taking Shelter in God.	21
8.	Ananda Marga Seeks Justice.	22
9.	Some Testimonials	26
10.	Reports: Around the World	29
11.	Addresses	34

Published by the Secretary on behalf of the Ananda Marga Universal Relief Team, Bungalow No. 5, Jolly Maker Apartments, 95/97, New Cuffe Parade, Bombay: 400 005.
Tel.: 215729.





아무르트 기념품, 1975년 5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51. 바바남케발람

1970년 10월초에 바바는 란치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며칠간 자연의 고요함속에서 조용히 지내고싶다는 바램을 표현했다. 그는 란치와 달통간지 사이 언덕에 있는 역, 암자리아로 이동하기로 결정했고, 바바의 요리사와 그의 담당 경호원 비슈누데바 등 마르기 몇 명과, 아내 우마, 아들 가우땀과 함께 일주일간 휴양림 숙소에서 머물기로 했다. 10월 6일 정부 보건부 소속 마르기가 콜레라 퇴치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위해 암자리아를 방문했고 바바가 휴양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지 마르기들에게 알려 그들은 다음날 모두 나타났다.

다음날인 10월 8일, 바바는 베란다에서 브라마데바와 라즈모한이라는 두 명의 현지 패밀리 아차리야와 함께 앉아 먼 곳을 바라보다가 브라마데바에게 디얀(명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바바가 말하였다. "잘 들어 보아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브라마데바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바바는 계속해서 "좀 더 잘 들어보아라. 음악 소리만 들리느냐, 아니면 가사도 함께 있느냐?"

"네, 바바, 거기에 가사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잘 들어 보아라."

"바바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거라."

"바바남 입니다."

"더 자세히"

"바바남 케발람 같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바바는 확인시켜 주었다.

라즈모한도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 때 바바는 그들에게 빛 존재가 만트라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르기도 그것을 들었다고 보고했고, 바바의 지시에 따라 브라마데바가 그들을 불러 왔다. 이어 바바남 케발람이라는 마하 만트라를 정식으로 소개하며 이 순간부터 키르탄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키르탄 부르는 법을 보여주고 랄리타 마르미카 춤을 따라 하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바바는 그 날 저녁에 단체 키르탄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브라마데바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주변 마을로 갔고 아칸다 키르탄은 자정 무렵 시작되었다. 프로그램 도중 당시 10살이었던 고땀은 숙소에서 나와 발코니에 섰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바바의 차로 쏠렸는데 차가 키르탄 대열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차가 움직인다!"고 외치자 모인 사람들이 차를 막으려고 몰려 들었다. 바바는 "키르탄의 영향이 너무 강해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끌어당긴다"고 말했다.

바바는 며칠 뒤인 10월 14일(그 해 디파발리 날), 란치 쟈그리티에서 바바남 케발람을 싯다 만트라로 성스럽게 했다.

1982년 5월 16일 캘커타의 아난다 푸르니마 DMC에서 바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미 말한 적 있지만 다시 언급한다. 이제 키르탄의 영광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리고 사다나에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키르탄을 해야 할 것이다. 키르탄으로 마음이 정화되고, 이 정화된 마음으로 사다나를 할 수 있다. 만약 5분만 키르탄으로 마음을 정화한 후, 5분만 사다나(명상)를 해도, 사다나는 매우 잘 될 것이다. 그대는 분명 영적인 진보를 이룰 것이다. 그 영적 진보 때문에, 그대는 지고의식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지고 의식의 영적 파장에 닿게 된다. 그러면 그대는 인간, 동물, 식물에 훨씬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대들 모두 축복 받기를 바란다.

바바남 케발람 만트라가 주어진 9년 후, 자메이카 킹스턴 DMC 때 바바 앞에서 키르탄 춤이 행해졌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52. 탄다바 부활

탄다바는 용기와 남자다움을 증가시키는 격렬한 운동이다. 1971년 바바는 그것을 남성들이 매일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부활시켰고, 7년 후에 주어진 카오시키 춤과 함께 DMC와 다른 아난다 마르가 행사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바바는 탄다바에 대해 인용한다:

"탄다바 춤은 뇌와 신경 세포마저 강화되는 전신 운동이다."

"쉬바는 당대 사람들의 영적인 충동을 일깨웠다. 그는 그들에게 영적 수행을 가르쳤다. 알다시피, 영성의 실질적인 측면인 탄트라 수행을 가르쳤다. 또한 영적 춤, 즉 탄다바를 가르쳤다."

"7000년 전 사다쉬바는 처음 탄다바 춤을 선보였고 파르바티는 랄리타 마르미카 춤을 선보였다. 아난다 마르가는 랄리타 마르미카 춤 (두 손을 위로 뻗고, 발을 번갈아 가면서 바닥에 찍으면서 리듬 있게 추는 춤)과 키르탄을 결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키르탄에 랄리타마르미카를 사용해야 한다. 랄리타 마르미카는 키르탄을 위한 최고의 춤으로 널리 인정받는 유일한 춤이다."고 말했다.

"탄다바 춤의 발명 이면의 개념은 불변의 진리이다: '나는 투쟁 그 자체를 통해 파멸에 맞서 계속 싸워야 한다.' 한 손은 해골을 들고 다른 손은 칼을 들고 있다. 해골은 파멸의 상징이고 칼은 투쟁의 상징이다. '아니, 나는 시간, 죽음, 파멸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검의 도움으로 이것들과 싸우고 있다.'"

"탄다바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인간은 죽음과, 파멸, 부패에 맞서 싸운다. 죽음은 해골로 표현되고 인간의 투혼은 칼로 표현된다. 인간 표현의 전 영역에서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간의 투쟁 (장점과 단점, 삶과 죽음)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탄다바의 내적 동기는 다음과 같다: '파멸은 불가피하지만, 나는 투쟁을 통해 파멸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다.' 해골은 파멸을 나타내고 단검은 투쟁을 나타낸다.그 함축적 의미는 '나는 파멸이나 죽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단검으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탄다바는 강인한 정신을 표현한다. 그대의 팔은 힘과 활력을 표현한다. 팔을 쭉 뻗는 것은 죽음과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손은 죽음을 상징하는 두개골이나 불, 뱀을 들고, 다른 손은 단도를 드는데 이는 죽음에 맞서 싸우는 정신을 상징한다."

자메이카 킹스턴 DMC에서 바바 앞에서 탄다바가 행해졌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53. 16 포인트

1971년 7월 바바는 신체 건강, 정신 발달 및 영적 고양를 위한 아난다 마르가 실천요강의 기본 지침으로 16 포인트를 가르쳐 주었다.

1. 배뇨 후에는 요도를 물로 씻는다.
2. 남성은 포경수술을 하거나 항상 음경 표피를 잡아당겨야 한다 (자연적/ 인위적/ 스스로 관리).
3. 절대로 관절, 겨드랑이, 음부의 털을 제거하지 않는다.
4. 남성은 항상 랑고타(카우삐나)를 착용해야 한다.
5. 지시대로 반목욕을 한다.
6. 규정된 시스템에 따라 목욕한다.
7. 사뜨빅 채식을 한다.
8. 규정 대로 단식한다 .
9. 규칙적으로 사다나를 한다.
10. 이스타(목표)의 신성함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엄격함과 믿음을 지킨다.
11. 아다르샤(이념)의 신성함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엄격함과 믿음을 지킨다.
12. '지고의 말씀'의 신성함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엄격함과 믿음을 지킨다.
13. '행동 규범'의 신성함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엄격성과 믿음을 지킨다.
14.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서약의 내용을 항상 기억한다.
15. 지역 자그리티에서 열리는 매주 달마차크라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필수이다.
16. C.S.D.K.(행동 규범, 세미나 참석, 임무봉사, 키르탄)를 준수한다.

1976년 1월 1일 아난다 바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6포인트를 확실히 지켜라. 모든 의로운 세력들을 통합하라. 사악한 세력들의 장황한 이야기는 모두 침묵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1976년 아난다 푸르니마의 바니는 다음과 같이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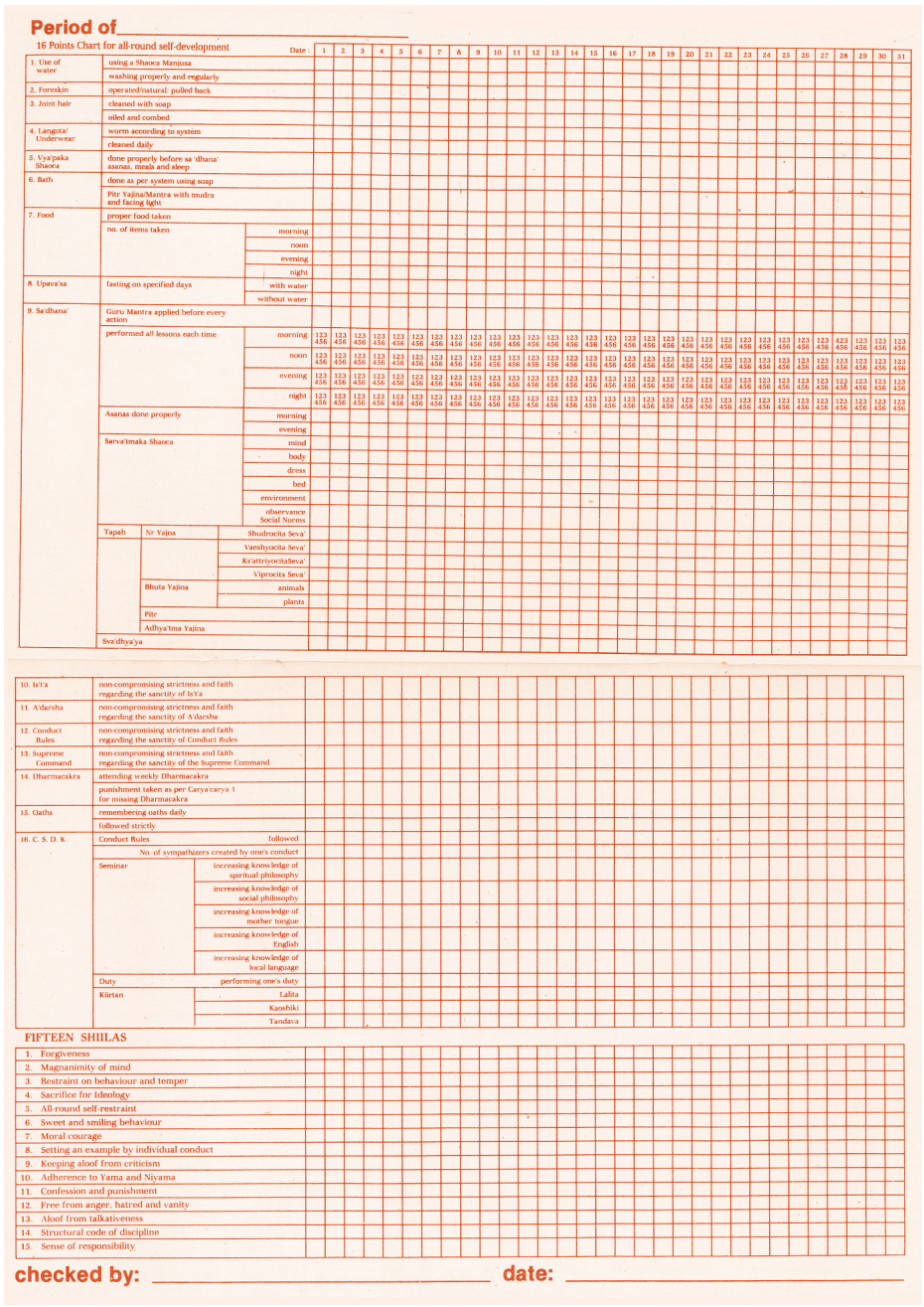
"인류복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굳건히 해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영적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복지의 씨앗은 16 포인트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16포인트를 확고히 지켜라."

편집자

그 다음 해 바바는 마르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비록 내 아들 딸들이 아직 '16 포인트'를 완벽하게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부도덕한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한다. 말 그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하지만 아들 딸들이 진실로 '16 포인트'를 지킬 때, 부도덕주의자들의 뼈가 떨릴 것이다. 알겠느냐?"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탁 치며 활짝 웃으며 "뼈가 떨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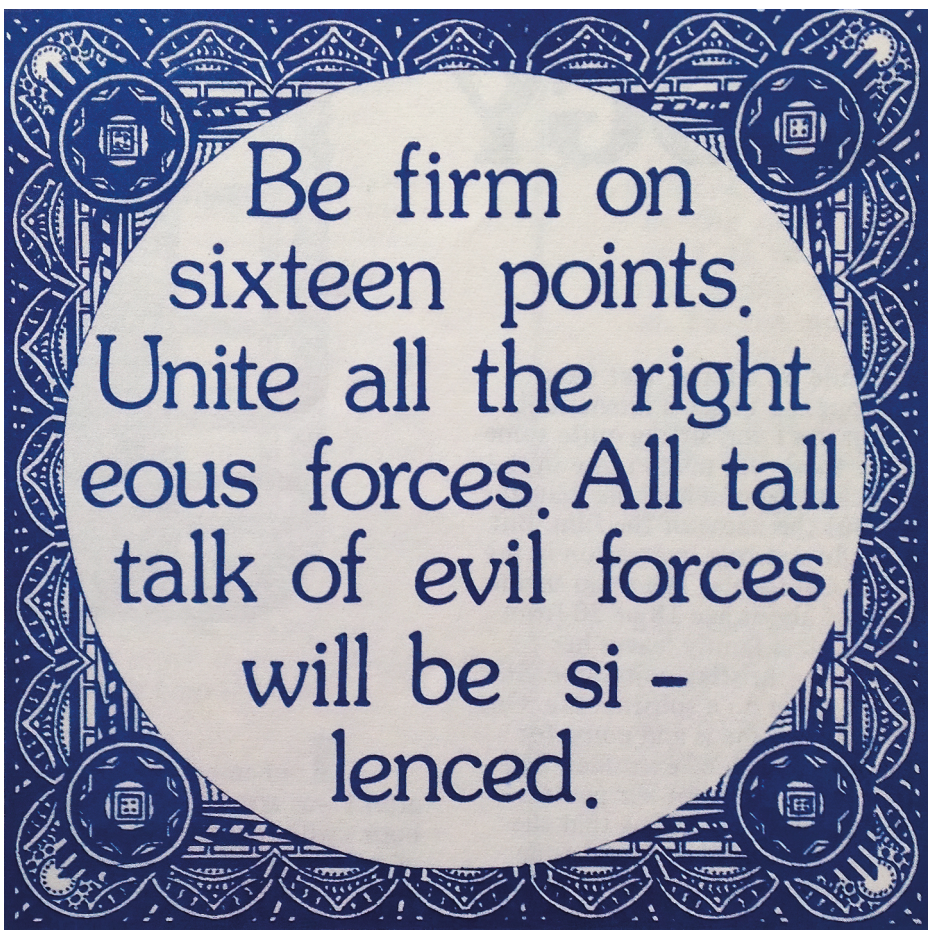
<신비의 스승과 여행>



소책자<기본 의무 사항>의 16포인트 차트

수다르샨 차크라는 크리슈나의 특별한 원형 무기였다. 1978년 7월, 바바는 자신의 수다르샨 차크라에 대해3인칭어로 다다 바스카라난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구루와 달리, 그는 활과 화살도 없고 트리슐라(삼지창) 같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정신과 엄격한 규율 의식이 결합된 그의 울림있는 철학이 그의 수다르샨 차크라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그는 그의 아들 딸들의 도움으로 이 차크라를 운영한다. 그런 점에서 아들 딸들이 그를 도울 내면의 힘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16포인트를 엄격히 준수하면 이런 내면의 힘이 생긴다."



1976년 1월 1일 아난다 바니의 앞 부분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54. 바바, 반대와 배신을 겪다

부패에 맞서는 바바의 비타협적인 도덕적 태도, 카스트와 지참금 제도같은 억압적인 도그마에 대한 반대와, 인도와 해외에서 사회 경제적 착취에 반대하는 프라우트의 입장 때문에 기득권층의 아난다 마르가에 대한 반감은 수년간 꾸준히 커져 왔다. 그러한 반감은 특히 힌두교 근본주의 단체, 인도 공산당, 중앙수사국(CBI)과 수상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고위층으로부터 나왔다.

아난다 나가르에 첫 공격에 잇따라1967년 아난다 푸르니마에 바바는 다음의 아난다 바니를 주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악한 세력과 자비로운 세력의 암울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사악한 세력에 맞서 싸울 도덕적 용기를 가진 자만이 투쟁에 시달리는 지구를 평화의 향기로 진정시킬 수 있다. 기억하라, 그대는 영적인 열망가이다. 그러므로 그대만이 지구를 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한
다."

1969년 정부는 아난다 마르가가 정치 조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과 정부 관료의 아난다 마르가 참여를 금지하는 금지령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이 더 많았고, 이로 인해 WT(산야시 다다들과 디디들)들과 마르기들이 더 많이 죽었다. 놀랍게도, 1971년 말 그와 일부 일꾼들에 대한 조작된 살인 혐의로 CBI와 경찰의 괴롭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바는 결국 이러한 죽음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

한편, 1971년 9월, 바바는 그의 개인 비서인 비쇼카난다를 전임시켰다. 바바의 부인인 우마는 그를 대신해서 개입하여, 그의 개인 비서직을 유지해 달라고 바바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바바는 이를 거절하고, 지금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마와 비쇼카난다는 다른 WT들과 마르기를 데리고 바바와 마르가를 떠났다. 모든 설명에 따르면, 바바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는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미션을 계속했다. 다다 라마난다가 이제 새로운 개인 비서였다.

다다 라마난다는 그의 회고록, <아슈토쉬 바바>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바바)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971년 5월 란치에서 DMC가 있은 지 며칠 후, 우리는 지역 폭력배들과 충돌이 있었고 바바를 파트나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동 후 나는 벵골로 가서 동파키스탄에서 벵골로 밀려들어온 난민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시작했고 곧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가 되었다. 나는 모두 21개의 난민 센터를 열기 시작해, 이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3개월 이상 바바를 보러 갈 기회가 없었다. 그 동안 나는 그 조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또는 전혀 몰랐다. 마다바난다가 정부밀고자로 돌아섰다는 사실, 계속되는 조직 탈퇴, 조직의 분열이 임박했다는 사실로부터, 감사하게도, 바바는 나를 멀리 있게 했다.

우마와 비쇼카난다가 떠난 후, 10월 1일 캘커타 DMC가 예정대로 내가 바바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이루어졌지만, 모든 WT들이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우마는 동시에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많은 WT들이 그녀의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그 조직은 혼란에 빠졌고 나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 기억난다. 모두 37명의 WT들이 그녀와 함께 변절했다. 나는 사티야난다가 매우 반대했던 것을 기억한다; DMC가 끝난 후, 우마는 WT들이 머물고 있는 다람살라로 가서 바바를 비난하고 자기들과 함께 떠나도록 설득했다. 사티야난다는 바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달려왔다. "저는 이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바바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걱정할 것 없다고 그를 달래 주었다. "조용, 조용! 곧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며칠 후 나(라마난다)는 바바와 함께 캘커타를 떠났고 우리는 인도의 여러 지역으로 3개월간의 DMC 투어를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우마 사카르가 푸리로 가서 CBI의 보호를 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직을 떠난 WT들과 함께 그녀 자신의 조직을 만들려 했지만 그 조직은 단명했고 곧 많은 WT들이 바바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나 비쇼카난다는 정부 밀고자가 되었다.





이 두 사진은 1960년대 후반 바바와 우마, 마르기가 함께 외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967년 아난다 나가르에서의 우마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55. 자이푸르 공항





이 사진들은 1971년 바바의 DMC 투어에서 찍은 것이다. 그 해 10월 18일 아침에 그는 봄베이로 가는 길에 뉴델리에서 자이푸르로 날아갔다. 중간기착 동안 마르기는 그의 다르샨에 참여하려고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자이푸르 공항 입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찍은 이 사진들은 이 즐거운 행사의 헌신적 열정과 마르기가 그 당시 바바와 즐거웠던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바바는 전날 뉴델리에서 열린 DMC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빠라마뿌루샤와 개체 존재의 관계는 달콤하고 친숙한 관계이다.

것이며 빠라마뿌루샤도 자신의 것이라고 명확히 선언한다. 빠라마뿌루샤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중하다. 그래서 인간은 그를 바바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물은 빠라마뿌루샤에게 소중하며, 따라서 빠라마뿌루샤에게 있어서 창조된 모든 실체는 바바이다. 헌신자가 바바남 케발람 노래할 때, 빠라마뿌루샤도 바바남 케발람을 부른다."

다음 날 봄베이에서 열린 DMC 강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강화했다:

"빠라마뿌루샤가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모두 또한 빠라마뿌루샤의 사랑을 받는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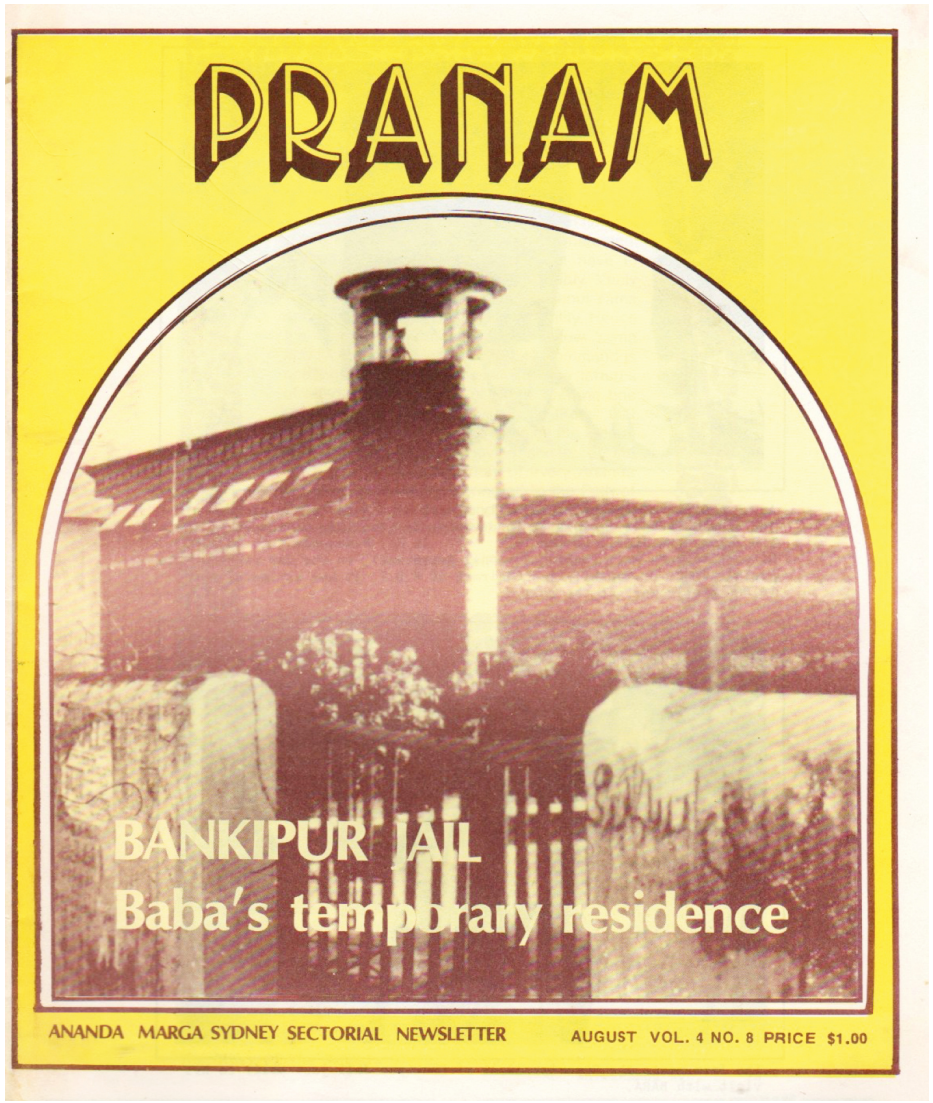
56. 바바의 체포

바바는 1971년 12월 29일 동트기 전에 체포되었다. 그는 파트나와 바라나시 사이에 있는 북사르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살인 공모 혐의로 수감되었다.

미국의 기리다라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우리는 27일 밤 파트나에 도착했고 다음날 아침 바바는 파탈리푸트라 콜로니에 있는 자그리티에 왔다. 그날 그는 다르샨을 주고 밤에 사무실에 앉아 그 앞에서 탄다바가 행해졌다. 그날은 28일이었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그를 갠지스 강둑에 있는 북사르 감옥으로 데려갔다. 파트나에서 열차로 네다섯 시간 거리에 있었다. 35명 정도의 마르기 일행이 그를 보기 위해 파트나에서 북사르까지 기차를 탔다. 그 35명 중 많은 이들은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이었다. 바바는 우리에게 와서 말하는 것을 허락 받았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너희 의무를 다해라.' 너희 모두 그게 뭔지 알고 있다. 틈만 나면 키르탄을 해라.'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시 걸어 들어갔다."



달마베다난다는 회고록 <신비의 스승과의 여행>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2월이었다. 위치타에 있는 우리 본부로부터 마음을 아프게 하는 회람 편지가 도착했다. 바바는 인도의 감옥에 있었다. 회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바바는 12월 29일에 체포되었지만, 곧 석방되기를 바라는 희망 속에서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명의 헌신자와 함께 그는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CBI가 아난다 마르가를 부수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아난다 마르가의 이상과 활동은 사회의 이익에 관심 없이 개인의 권력을 갈망하는 공공 인사들에게 항상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유일한 직접적인 목격자는 살인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전직 다다 비쇼카난다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는 대신, 그는 자유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의 증거는 범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도 법률의 요행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는 공범 고발자라고 불립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범 고발자는 석방될 수 있고 그의 협력에 대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2년 초, 바바는 수감생활이 좋지 않아 건강이 나빠져 파트나 의과 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한 달 이상이 지난 후 그는 파트나에 있는 반키푸르 중앙 교도소로 옮겨져 13번 감방에 수감되었다. 이 감방은 영국 식민지 시절 사형수들에게 사용되었다. 창문이나 환기가 없는 비좁은 콘크리트 방이어서 겨울에는 냉장고, 여름에는 오븐처럼 느껴졌다.


The Chief of the Army Staff, General S.H.F.J. Manekshaw, being greeted by young boys in Dacca on Dec. 27.

ANAND MARG CHIEF HELD ON MURDER CHARGE

(By Our Staff Reporter)
PATNA, Dec. 29:
MR. Prabhat Ranjan Sarkar, spiritual head of Anand Marg, was arrested today at his Patliputra residence under Sec. 302 I. P. C. (murder).

The arrest was made by the Patna police on a complaint lodged by the C.B.I. which was investigating into a number of allegations against the Anand Marg including the murder of about 18 to 20 Avadhoots (Sanyasis of the Marg who have dedicated their lives to it).

Acharya Sarbeshwaranand Avadhoot, General Secretary of the Marg, was also arrested along with his Guru, Mr. Sarkar popularly known as Anand Muriji, who was to go to Varanasi today to address a Dharm Chkr.

The police later produced them before the S.D.O. Patna Sadar, Miss Radha Singh who rejected their bail petitions. They were forwarded to Buxar Central Jail where they will be lodged.

It is learnt that the C.B.I. has established prima facie case of movement of Anand Murtiji in the murder of some Avadhoots who had voiced their feelings against some of the actions of their Guru. These murders, according to the C.B.I. took place in a planned manner in Singhbhum district.

The C.B.I. is believed to have established the clue of murder of Avadhoot Sadanand and two others near Chandil. Their bodies

7-Man Body To Probe Killing Of Intellectuals

DACCA, Dec. 29:

Yet Another Evidence Of Genocide

KHULNA, Dec. 29:
Yet another evidence of genocide by the Pakistani occupation forces has come to light with the discovery of an execution ground at Goljapara near Radio Station here from where a large number of bodies and human skulls have been exhumed.

Though no immediate estimate of the killings at

nection with some disturbances that took place at Ranchi. The police had raided the Anand Marg office there and at other places and had recovered human skulls, which according to the Marg, were kept for "tantra sadhana".

The C.B.I. had raided the Anand Marg headquarters at Patalliputra Colony and seized some papers and unaccounted money amounting to over Rs. 80,000.

The alleged murder of some Avadhoots by their own colleagues caused a serious split in the Anand Marg. Vishokanand Avadhoot, who was the private secretary to Mr. Sarkar, spear-headed the revolt which was later joined by Mr. Sarkar's wife, Mrs. Uma Sarkar.

Mrs. Sarkar deserted the Anand Marg camp and went underground along with her 12-year-old son. Vishokanand and many others also joined them later.

Recently, Mrs. Sarkar had circulated a letter from Calcutta alleging involvement of her husband in the murders. She also alleged that her husband, Anand Murtiji indulged in homo-sexuality.

An inquiry into all these allegations had been entrusted to the C.B.I. by the Union Government which received a number of complaints against the activities of Anand Marg. A team of C.B.I. officials headed by a D.I.G. camped at Patna for months together to complete the investigations.

1971년 12월 30일, <Indian Nation> 신문에 실린 바바 체포에 대한 리포트


파트나 주 반키푸르 중앙 교도소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57. 바바 독살시도와 단식

1973년 2월 12일 바바는 암살 시도 대상이었다. 그날 이 교도소 의사는 바바의 좋지 않은 건강상 이유로 호출되었고 CBI의 비밀 지시에 따라 파트나 공공의가 처방한 약이라며 전신마취 유도에 쓰이는 바르비투르산염을, 그것도 보통 치사량이라 알려진 양을 투여했다. 바바는 경련과 혼수상태에 빠졌고, 의식을 회복했을 때 앞을 볼 수 없었고 격렬한 두통에 시달렸다. 며칠 후에 그의 시력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지만 평생 손상된 채로 남게 되었다.

FOR IMMEDIATE RELEASE

NEW YORK, New York, February 28, 1972 -- An assasination attempt has been made on the life of P. R. Sarkar, spiritual head of the largest yoga society in the world. His followers, numbering some eight million, are located in thirty different countries of the world. His personal secretary, Ac. Pranavananda Avadhuta, reported that he was poisoned by food sent through the jail guards and left to die in his small cell at Bankipur Jail, Pantna, India. He was under protection of the C.B.I. (Central Bureau of Intelligence). Jail authorities refused a request by Sarkar for medical assistance, Pranavanananda reported. For five days he remained near death in a semi-concious state; to this date he has received no medical treatment.

P. R. Sarkar's socio-spiritual organization, Ananda Marga, has organized large-scale disaster relief operations and opened over 500 orphanages, hospitals, and schools throughout India. His followers claim he is being held on "concocted" murder charges, "instigated by vested interest groups who view his outspoken ideals and growing support as a threat to their interests. This arrest is the latest in a stormy history of harassment and persecution of his organization." Of the 200 charges which have been filed against him, all but one have been thrown out by the courts.

"We have now abandoned our hope for justice;" said Mr. Paul Fahnestock here today at a news conference, "our peaceful efforts have been met with increasingly brutal rejoinders. We now appeal to the American news media, in its love for Truth, to make an immediate inquiry and investigation into this flagrant oppression. It is our greatest desire that the truth of the matter be revealed to the world community."

전 세계 미디어에 보도 자료 제공

그 해 3월 바바는 그의 독살에 대한 사법적 수사를 요구하면서 비하르 주지사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게 했다. 그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

바바가 비하르 주지사에게 보낸 편지 모음집

To,
The Governor of Bihar,
INDIA

Through Distric Magistrate, Patna.

Sir,

With due respect and humble submission I would like to bring to your kind notice the following facts along with tales of harassment, torture, mal-treatment, poisoning and other inhuman activities done by different agencies of the Government.

1. That I was arrested by C.B.I. (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 on 29th December 1971 at 6:00 in morning on some charges concocted by C.B.I. with certain malafide and political motive. 28th Dec. 71 being Ekadasi (11th moon) was my fasting day. On the 29th morning after I was arrested by C.B.I. they did not allow me to do my morning duties throughout the day. They did not allow me to do my daily spiritual practice. They did not allow me even to take a single drop of water. They produced me before S.D.O., Patna in the afternoon. My remand order to jail was kept ready in S.D.O.'s office before I was produced in S.D.O.'s chamber (not court). This shows that the S.D.O. decided to send me to jail even before she (the S.D.O. was lady) saw the arrested person. She did not ask me a single question and so I did not get the scope to narrate the tales of torture. I was brought to Buxar Jail (it is in another district) at about 11:00 pm i.e. I had to remain without food and water for about sixty hours at a stretch.

2. Due to unhygienic condition prevailing in jail I became sick and on Feb. 72 I was sent to P.M.C.H. (Patna Medical College Hospital) for treatment. There I was kept under inhuman torture by C.B.I., State C.I.D. and State Police for all the 24 hours upto 3rd April 72. The motive was clear and simple; they wanted to kill me as per secret instruction of C.B.I. In the P.M.C.H. room on. 17 I was forced to remain within four walls of the room for the entire period up to 3rd April. I was not allowed to peep through the window nor to raise the curtain of the door to see the sky. They did not allow me to read news-paper coming from my house. They did not allow me to take food coming from my house and forced me to take unhygienic food prepared by the men of their choice. They did not allow any of my friends and relatives to see me even from a long distance. They created disturbance even in my spiritual practice.

On 14th morning I felt the sixth reaction and that is I was unable to see anything clearly even from a short distance. I became almost blind. A few days after that an eye specialist came and said that I was suffering from conjecitivities. On 15th night two more specialists came At time my blood pressure was 160/100. On 16th morning my urine was examined, the sugar was +++ (plus). I have got no doubt I was poisoned on 12th night and all these are reactions of the poison On 19th Feb. 73 a first class Magistrate was deputed by District Magistrate to record my statement. I have stated that in case of medical treatment the faith of a patien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and as I have lost faith in these Government Doctors and as a strong suspicion has been created in my mind that they have poisoned me as per direction of C.B.I, I don't like to be treated by any Doctor selected by Government I want to be treated by my private Doctor.

In the night of 21 Feb. 73 I requested the jail authority verbally and on 27th Feb. 73 in writing to request the District Magistrate, Patna to depute a 1st Class Magistrate to record my statement demanding a judicial probe. I further told them that I want in that Judicial Commission there may be any Judge of Supreme Court or of any other High Court excepting that of Patna High court (because Patna is the place of occurrence). But as ill luck would have it, I have not yet been favoured with the presence of a 1st Class Magistrate to record my statement.

In view of the foregoing I would request you to please favour me by appointing a Judicial Commission to go through all the above mentioned complaints and other relevant matters at an early date. I have got strong suspicion that certain black hands are working against me from behind the curtain and some of them are important persons. I want to disclose the names of those important persons before the Judicial Commission.

Yours faithfully
Sd/ - Prabhat Ranjan Sarkar
5 March 1973
Bankipur Central Jail, Patna.

1. Copy to President of India for information and necessary action.
2. Copy to Secretary General, UN.O. for information

SD/ - Prabhat Ranjan Sarkar
5 March 1973

3. I was sent to Bankipur Central Jail in the first week of April 72. Just a few days after my coming here the authorities stopped my interview with my relations and friends. Even now nobody can see me without a written order from the Court of Law.

4. In the first week of June 72 my mother died. I am her first son. As per usage of India the first son is to do the Spiritual observance of the parent. But the cruel and inhuman authorities of Government did neither allow me to see her in her death bed nor did they allow me to do her last rites.

5. In Bankipur Central Jail also authorities stopped my food continuously for fifty hours with the only intention of killing me as per verbal instruction of C.B.I.

6. I am an aged man of above fifty but because of my regulated and routined life I used to maintain a good health. But due to continuous torture by Government authorities in general and Jail Department in particular my health has been ruined. Four persons who used to look after me became eye-sore of the jail authorities. Two of them have been transferred to Daltenganj Jail and two to Buxar Jail, although none of them has got any court case in Daltonganj and Buxar. The only intention of transfer is to keep me alone and kill me conveniently.

7. In the first portion of 1973 they have posted several Sipahis just on the gate of my cell just prevent others to see me. It is clear that they want to kill me secretly and shift the dead body silently with the help of those Sipahis.

8. On 12 Feb. 73 I felt very much unwell in the afternoon. The Jail Doctor came and prescribed certain medicine for Diarrhoea and Dysentry. On the same day at 9:00 pm I again felt unwell. The Doctor was informed and he came at about 10:30. He said that he will be informing the Civil Surgeon, Patna. I requested him to please inform my men also and gave him my residential address and phone number. The Doctor came again at about 11:00 and told me that he has informed the Jailor to send the news to the address of my men. Afterwards I came to know that the jailor did not convey the news to my men and suppressed the fact for reason best known to him.

9. At about 11:00 pm on 12th Feb 73 the Jail Doctor said the Civil Surgeon is not to come to see you but he has prescribed a medicine for you. He administered that so called medicine which was actually a poison. Just after taking the medicine I became sense-less. I came back to senses at about 7:00 am on 13th Feb 73. At that time I was undergoing the following five reactions of that poison. They were:-

i. Extreme weakness throughout the body.
ii. Nervous reaction throughout the body.
iii. Profuse watering from both the eyes.
iv. Extreme pain in brain.
v. Inertness of brain.

ANANDAMURTIJI
SUFFERING
FROM THE
REACTIONS OF POISONING.

To
The Governor of Bihar,
Patna (India)

Sir,

I would like to bring to your kind notice the fact that from about 9 O'clock yesterwight I am suffering from extreme pain in lower portion of my body along with burning sensation but the jail authorities have done no arrangement for my nursing and medical treatment. If such a state of affairs continues and if the jail authorities want to kill me like this, I will have no other alternative but to resort to some other step for which the Government will be solely responsible because of their not doing the needful in response to my timely request.

This is for your kind information and necessary action please.

It may please be added that since 13.2.73 I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reaction of poisoning which was done on 12.2.73 night and I have not been served with a single drop of medicine since 16.2.73.

Yours faithfully,

Sd/-
(Prabhat Ranjan Sarkar)
12/3/73 (12 hours)
Bankipore Central Jail, Patna.

The Governor of Bihar,
Patna, India.

Sir,

As I am a sick man and there is nobody to look after me and at the same time the oppression of the Jail Department has reached its zenity point, I find no other alternative but to stop taking food for an indefinite period.

This is for your information please.

Yours faithfully,
Sd/Prabhat Ranjan Sarkar,
1-4-73.
Bankipore Central Jail,
Patna.

//True Copy//

그래서 바바는 인도 대통령과 정부의 다른 관료들에게 알리기를, 항의를 위한 단식 투쟁을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였다. 그의 단식은 1973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1978년 8월 2일 감옥에서 석방될 때까지 5년 4개월 이틀 동안 지속되었다.

We have just received a telegram from the Central Office in India (March 7)

"FROM CENTRAL OFFICE:

BABA UNCONSCIOUS LOWER PORTION PARALYSED - HANDS INACTIVE - VOICE INAUDIBLE - EYES CLOSED - PUBLICIZE COMMUNICATE EVERYONE
- GIRIJANANDA "

Our Bábá has been in jail for over two years now. He has been fasting for almost an entire year. The news we have been receiving from India about His condition and case has been scanty. Today (March 7) we received the above telegram.

About one week ago, we received a newsletter from the Central Office in India. We have been requested to reprint the newsletter and to send it to all sectors. The newsletter will be sent twice a month to keep us up to date on events and to vibrate us with wonderful Bábá stories.

A Bábá story appeared in the newsletter which vibrated us all so much when we read it. I really feel that, in light of Bábá's condition at the present time, the story has taken on even deeper significance. HIS LOVE IS ALL
- Lilá

바바의 독살을 알리는 전보 내용

그 기간 동안 바바는 매일 두 번씩 그의 개인 비서 다다 라마난다가 감옥으로 가지고 온 액체 한 컵으로 연명했다. (지시대로 대개 요거트와 물을 1:3의 비율로 섞음) 오랜 단식을 하고도 어떻게 버텨냈느냐는 질문에는 "부자연스러운 게 없다. 유일한 차이점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섭취하지만, 나는 태양빛에서 에너지를 직접 추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바에게 요거트물이 필요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소화기관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교도소 당국이 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The Washington Star
SATURDAY,
DECEMBER 27, 1975

Leader Enters 1,001st Day of Protest Fast

Prabhat Rainjan Sarkar, author, philosopher, and spiritual leader of Ananda Marga, an international religious and humanitarian organization, today began fasting for the 1001st consecutive day in the the Bankipur jail in Patna, India.

Sarkar, also known by his spiritual name, Shrii Shrii Anandamurti, has been a political prisoner of the Gandhi regime for the last four years, since December 1971.

YESTERDAY his followers here and in hundreds of other cities fasted and held commemorative meditation meetings, marking the 1,000 days of his fast and to draw further attention to what they feel are injustices toward him and toward their organization.

The 54-year-old spiritual leader has abstained from all solid food since April 1973, after an attempt to poison him while in the jail. He is protesting the denial of basic human rights to himself and to other members of his outlawed religious and humanitarian organization.

He alleges that he and they have been harassed, arrested on false charges, and often tortured by the India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extended fast and poor jail conditions, Sarkar's health continues to deteriorate. He is now unable to sit up and his voice is barely audible.



PRABHAT SABHAR
Trial begins Jan. 4

OLAF OFTEDAL, nutrition expert from Cornell University, said that "it is medically impossible for Mr. Sarkar to still be alive after 1,000 days of fasting on the small quantities of Horlicks (malted milk in water) that he has been taking each day." The profound metabolic changes that could have enabled this unprecedented fast seem to be a product of Sarkar's proficiency in yoga and meditation, his followers say.

After four years of legal maneuvering and numerous delays, his trial is scheduled for Jan. 4 in Patna.

The case, which has been front-page news in India since his arrest, is expected to last several months. Spokesmen here for Ananda Marga feel that, given the current repressive environment in India and in light of the banning of Ananda Marga last summer, "there is little hope that justice will be available."

They cite the numerous irregularities in the proceedings, denial of bail, repeated violations of his rights to see his lawyers, substandard jail conditions, and "the vociferous attacks made in the government-controlled media" as giving faint hope for a fair trial.

THE CASE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Particularly Amnesty International,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Division,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and the International League for the Rights of Man have been following the case closely for the last three years. Letters from concerned people all over the world prompted the interest.

Ananda Marga emphasizes social service, and is somewhat distinct from other yoga-inspired groups in this respect.

In the Washington area, the organization operates a clothing distribution program, the Emergency Pantry and Canned Food Program, providing food for families and senior citizens in need, and literacy training. A spiritually-based primary school is being opened in Northern Virginia.

A branch of the Ananda Marga Universal Relief Team is active with the local Red Cross, providing first aid and disaster services. Members offer free classes in meditation and relaxation throughout the area.

Headquarters here are at 1354 Montague St. NW.

1975년 12월 27일 바바의 <워싱턴 스타>지에 단식 보도

1973년 4월 둘째 주 즈음, 그의 누이, 히라프라바는 그에게 고형식을 먹으라고 설득하려 했다. 바바는 "나는 결코 누님의 소망을 거스른 적이 없지만, 나는 다짐을 했고 그 다짐을 깨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는 꼭 출소할테고, 꼭 누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 단식을 풀거예요."

6년 후인 1979년 2월 12일 아침(출소 후 독살시도 1주년되는 날) 바바는 이날 일반 다르샨(친견)을 위해 모인 마르기들에게 말했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검은 손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고 인도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매년 그의 독살시도 기념일을 기념해야 하고 – 그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기념해야 하며 – 그것은 '닐라깐타 디바스(푸른 목구멍의 날)'로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 목구멍'은 시바 이름 중 하나이다.


MAHARLIKA TIMES
Margiis undertake large scale international protest against GURU's persecution
Anandamurti-on 88th day of fasting
Two Deciding Paras

Márga 간행물
Maharlika Times,
1973년


MAHARLIKA TIMES
Central Committee appeals to all Margiis, moralists
Ananda Marga Guru tortured in jail
Worldwide protest against Anandamurtiji's imprisonment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58. 감옥에서의 바바



바바는 독중독의 여파 때문에 몇 달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필기판에 써서 의사소통을 했다. 1972년 6월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장남으로서 마지막 의식을 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바바가 갖은 공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지 않자 상황은 암담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다르마가 승리할 것이라고 마르기와 헌신자들에게 계속해서 확신시켰다.

다른 죄수들과 달리 도덕적 강인함과 훌륭한 인품 때문에 바바는 교도관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권력을 남용할 때마다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그들 우위에 있었다. 그들 중 다수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향한 존경심이 간수로서의 의무와 충돌하게 되면서 그들이 교체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얼마 후 바바는 소그룹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마르기는 바바를 친견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몰려들었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그와의 만남에 가득하다. 심지어 교도소 직원들도 그들 나름의 스토리들이 있었다. 독약을 투여했던 교도소 의사는 곧 다르마 다스 칼와르 박사로 교체되었다. 다음은 많은 스토리 중 하나이다.

"바바의 감방에 다가가자 방에서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내가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바바가 명상을 하며 천장 근처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광채가 그의 몸에서 나오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순간 바바가 다시 침상 위에 명상 자세로 돌아 왔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고 깜박였다. 내가 깜짝 놀라 무언가를 불쑥 말하자 바바는 내게 "조용!" 하라고 말했다."

어느 날 밤 교도소장은 바바가 감방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확인했는데 감방은 비어 있었다. 그때 바로 밖에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바의 감방에 내려 앉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시 확인했고 바바는 그곳에 있었다. 바바는 그에게 말했다. "한밤중에 내 감방에 오지 마시오. 나는 매우 바쁜 사람이오."

1974년 3월 정부에 반대하는 저명한 정치인들이 바바를 방문했다. 입문하지 않은 일반인을 만나지 않는 것이 바바의 방침이었지만 이번엔 예외로 했다. 그들은 바바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식을 깨도록 설득하려 했지만, 바바는 그의 이상을 위해 단식을 하고 있으며 그의 이상이 목숨 보다 더 중요하다고 확고히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날 때 덧붙였다. "민주주의는 도덕성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도덕성은 인디라 간디 정권의 희생양이 되었다."

1974년 말, 차크라보티 독립 조사 위원회는 교도소 의사가 고의적으로 바바에게 바르비투르산염 복용량을 과다 투여했다고 결론 내렸고, 파트나 공공 의사는 약을 처방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975년 1월 바바는 마르기에게 6개월 후 비상사태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들에게 쌀, 콩, 기름 및 기타 생필품 2년 분량을 비축할 것을 권고했다. 1971년에 그는 어느 날 화장실에서 태연하게 "1975년에 우리 조직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비록 수 마일을 가도 가도, 너희는 마르기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조직의 가장 큰 시험 기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1975년 6월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인디라 간디 수상이 1971년 선거에서 비롯된 부정선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과 야당 지도자들 모두 그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불안이 일어났다. 그러나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기 전에, 1975년 7월 4일 그녀는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24개의 반정부 집단이 금지되었으며, 그 중 14개는 아난다 마르가와 프라우티스트 유니버설 (세계영적 혁명가) 소속이다. 수천 명의 WT들과 마르기는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야만 했다. 다행히도 수감자들의 가족들은 6개월 전 식량과 생필품을 비축하라는 바바의 지시로 21개월 동안 과도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

비상 사태 동안 네팔 카트만두의 한 작은 아파트에 '캠프 사무실'이 마련되었는데, 바바는 정기적으로 숨어있는 WT들을 통해 지시를 보냈고, 그곳에서 전세계 모든 섹터 사무실과 통신하는 덴버 '주니어 캠프 사무실'로 그의 지시들이 전달되었다.


REGD. NO. H/SD-23

INDIAN HERALD

NATIONAL ENGLISH DAILY

Founder & Editor: THAKUR V. HARI PRASAD

SPECIAL SUPPLEMENT

2 Pages — HYDERABAD, Thursday, June 26, 1975 — PRICE 15 Paise

EMERGENCY DECLARED

JP, Morarji, Advani, Asoka Mehta & Vajpayee arrested

Raj Narain, Mody & Chandra Sekhar held

그 동안 바바의 단식투쟁은 굴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어둡고 축축하고 환기가 되지 않은 감방의 비위생적인 상태 때문에 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단식을 깰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59. 다디치(순교자들)

마하리쉬 다디치는 시바의 불가사의한 무기인 바즈라(낙뢰)가 당대의 아리안 탄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의 뼈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의 목숨을 바쳤다고 전해진다.

1967년 3월 5일 첫 번째 아난다 나가르 공격 이후 바바는 말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위해 죽을 때 순교자라고 불리고,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교를 위해 죽을 때 샤히드라고 불리고, 내 자식들이 바가바드 다르마의 이상을 위해 목숨을 바칠 때, 나는 그들을 다디치라고 부른다."

현재 아난다 나가르, 다디치 언덕에서 살해된 첫 번째 다디치는 다다 아베다난다, 다다 삿치다난다, 아바다 쿠마르, 프라바사 쿠마르, 그리고 바랏 쿠마르였다. 그들이 살해된 날인 매년 3월 5일은 '다디치 날'로 기념된다.

그 이후로, 다른 마르기들도 몇 년 동안 다르마를 위해 싸우다 죽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다디치들은, 쉬바에 대한 아버지의 굴욕에 항거하기 위해 스스로 분신했던 파르바티의 전통에서, 바바의 투옥에 항의해 스스로 분신한 이들이다.

다다 디비야난다는 1973년 4월 9일 새벽 4시 파트나의 비하르 국회 앞에서 첫 번째로 분신했 다. 마르기들은 그날 늦게 파트나에서 항의 집회를 소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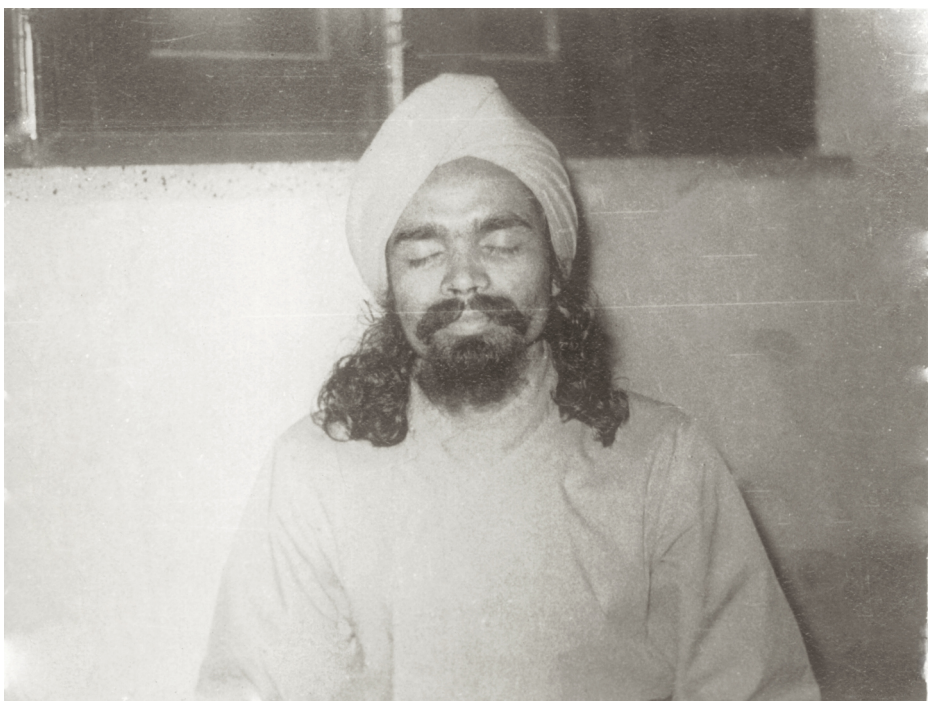
다다 디네쉬와라난다

1973년 4월 23일, 델리 보트 클럽에서 열린 시위 집회에서 수백 명이 체포된 날, 델리의 올드 포트에서 다다 디네쉬와라난다가 스스로 분신했다.

1974년 9월 11일, 바바와 함께 수감되어 비서로 활동하고 있던 다다 아뚤라난다는 교도관들이 바바의 감방에 침입하여 바바에 대해 가해졌던 학대에 항의하며 스스로 분신했다. 그는 감옥에서 그나마 접근 가능했던 스토브의 등유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즉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나중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다다 아툴라난다





다다 디비야난다

1975년 초 다다 샤게쉬와라난다는 바갈푸르 감옥에 수감 중 경찰에 구타에 의해 사망했다.

비상사태가 끝난 후, 바바의 석방을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1978년 마지막 분신이 한바탕 있었다: 2월 8일 베를린에서 디디 우마와 다다 로케쉬, 2월 17일 달라스에서 다다 가간, 6월 14일 마닐라에서 디디 아시띠마, 그리고 10월 2일 제네바에서 샨티.

1982년 4월 30일, 캘커타 발리간지의 비존 세투 다리는 공포의 대학살의 현장이었다. 15명의 다다 (다다 바베쉬와라난다, 다다 끄리빠쉬바난다, 다다 카말레샤난다, 다다 프라쉬바난다, 다다 기리샤난다, 다다 수트레슈와라난다, 다다 아르타세바난다, 다다 아디쉬바난다, 다다 벵카테슈와라난다, 다다 비렌드라, 다다 수브랏, 다다 무쿨, 다다 소마낫, 다다 발라바드라와 다다 브라자고팔), 그리고 한 명의 디디인 아난다 프라체따, 한 형제 마르기인 람라구바라는교육 회의하러 가는 길에 CBI-M(중앙 수사국)에 의해 밝은 대낮에 무참히 살해됐다. 그들은 우리 학교들의 교사들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납치해 왔다고 거짓 주장함으로써 공격을 부추겼다. 오늘날까지 체포된 적이 없다.

1988년 1월 24일 다다 아지따난다는 실리구리 교도소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허위 사건을 협조하지 않아 구타당해 사망했다.

다다 아씨마난다는 1990년 4월 2일 아난다 나가르의 딤디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한 마을 주민들에 의해 4명의 마르기 형제들과 함께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다다 카루나케탄은 1990년 6월 4일 아난다 나가르에서, 해외 마르기들에 대한 경찰의 학대에 항의 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4명의 마르기들도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죽음과 부상들이 마르가의 이상에 반대하는 무리들의 손에 의해 자행되었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60. 바바 석방 운동

바바가 수감된 직후 그의 투옥의 부당함에 관심을 끌기 위해 전세계에서 바바 석방 운동이 시작되었다. 가장 활동적인 두 나라는 호주와 미국이었다. 마르기와 섹터의 WT들에 의해 채택된 시드니 섹터(현 수바섹터)의 선서는 석방 운동의 정신을 사로잡았다:

"나는 빠라마 브라마와 마르가 구루데바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우리가 바바를 감옥에서 구하기 전까지 나는 쉬지도 않고 내 욕구를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편집자

워싱턴 DC에서 열린 바바 석방운동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위를 조직하고, 미 의회에 로비를 벌여, 몇몇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특히 바바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박해받고 있다고 말했을 때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말만 꺼내도 귀를 쫑긋하던 때다.)







웰스 보고서는 영국 변호사이자 여왕의 고문인 윌리엄 웰스에 의해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티를 위한 정의 획득을 위한 국제 위원회를 위해 작성되었다. 그리고 국제법률가위원회와 국제인권연맹의 의뢰를 받은 쉐퍼드 보고서는 캐나다 변호사단의 클로드 아만드 셰퍼드에 의해 미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인권위원회에 전달되었다.

인도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바바의 수감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1975년 여름, 바바 석방운동으로 워싱턴 DC에서 세계자유행진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도덕주의자들이 조직되었다. 수백 명의 마르기가 바바의 곤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었 다.

찬드라쉐카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 자유의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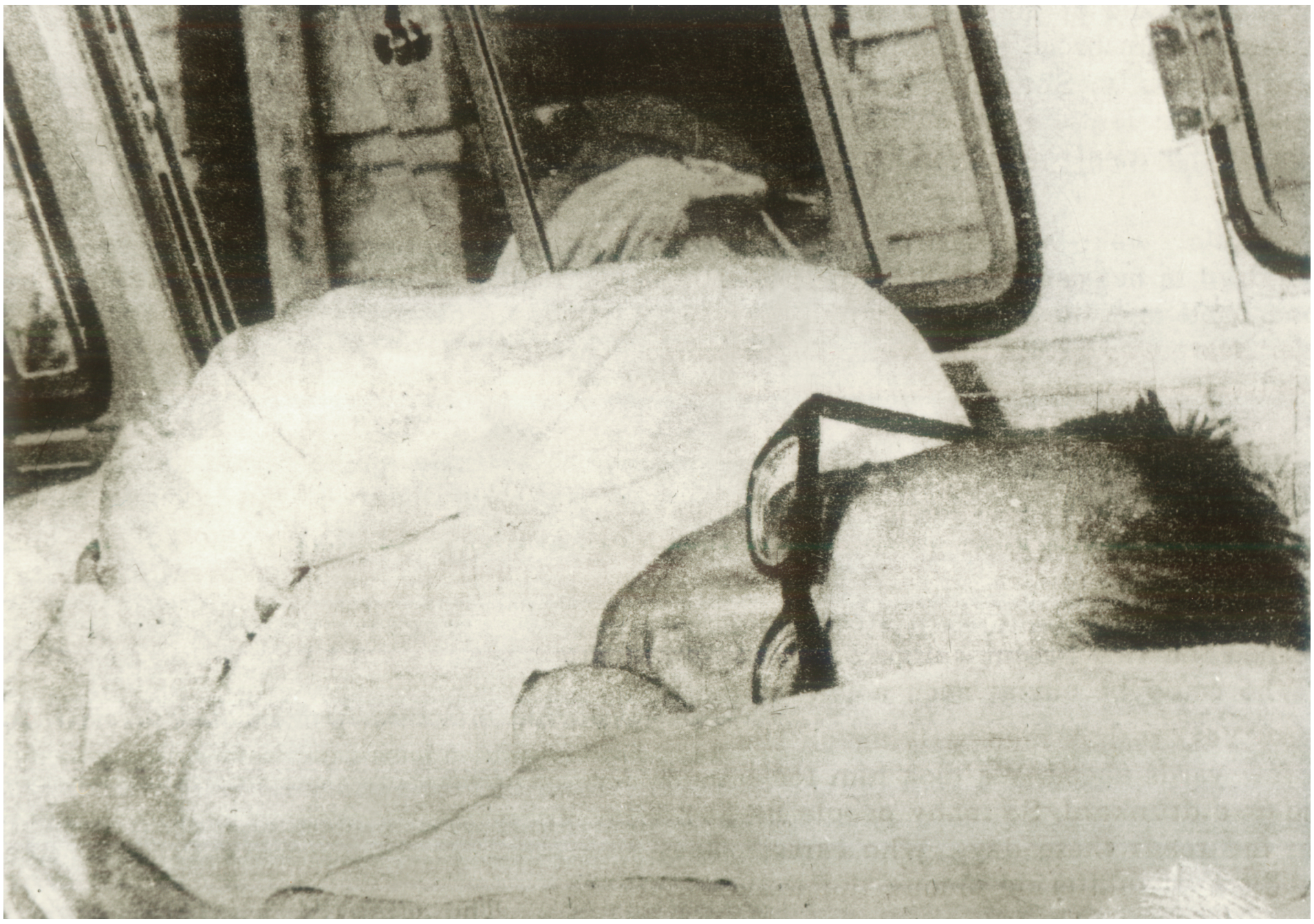




세계 연합의 도덕론자들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열었다. 2년 반만에 다다가간은 군중들에게 연설하고, 텍사스 달라스에서 스스로 분신했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61. 바바의 재판



이 사진은 1972년 7월부터 진술을 위해 구급차에 실려 법정으로 가는 바바 사진이다. 1976년 11월 재판에서도 그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정으로 이송되었다.

바바와 함께 기소된 4명의 재판은 인도에서 비상사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이미 정의를 희롱하던 이 소송은 완전히 웃음거리가 된 상태였다. 공포와 협박의 분위기 속에서 피고측은 증인을 세워 대신 증언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 판결은 기정사실이었다. 1976년 11월 26일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날은 금요일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 선고가 있을 예정으로 바바의 변호사 나게쉬와르 프라사드는 그의 전략을 신중히 하기 위해 주말 동안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았다. 월요일, 그는 사람 심 리를 이용한 고무적인 책략으로 사형선고를 청원하면서, 판사에게 교수형이 훌륭한 순교자로서 바바의 위치를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책략이 효과가 있어 바바와 그의 동료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가장 암울해 보이는 그 순간, 바바는 변호사를 향해 웃으며 "이제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형세가 역전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듬해 초,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자, 인디라 간디는 총선을 치르기로 동의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엄령 하에서 끔찍하게 고통 받았기 때문에, 일련의 반대 여론이 그녀를 권좌에서 몰아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어 거의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수천 명의 마르기와 WT들이 석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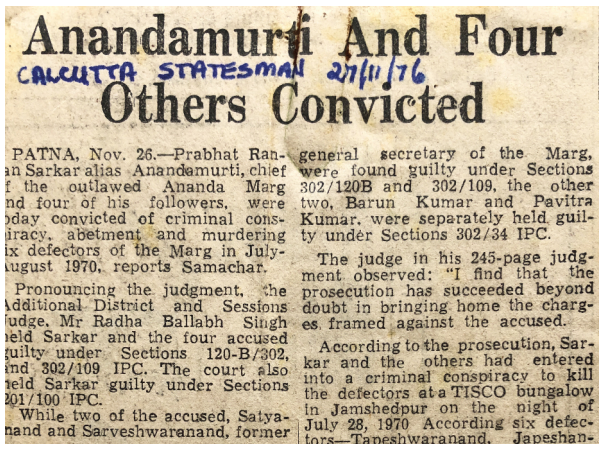
1978년 7월 4일 바바와 그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그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파트나 고등법원에 의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바바가 말하였다. `전차의 줄을 당겨 오직 전진하라. 그러면 승리가 네 뒤를 쫓아올 것이다. 승리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 코끼리는 절대로 길거리 개 짖는 소리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르기들은 승리의 행렬을 이끌고 감옥 문으로 갔고 바바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대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틀 전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바바는 말했다. "견고한 건물을 지으려면 비와 뙤약볕 속에서 다져져야 한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구조물은 튼튼하고 내구성이 강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실망했을 수도 있다."



Anandamurti And Four Others Convicted

CALCUTTA STATESMAN 27/1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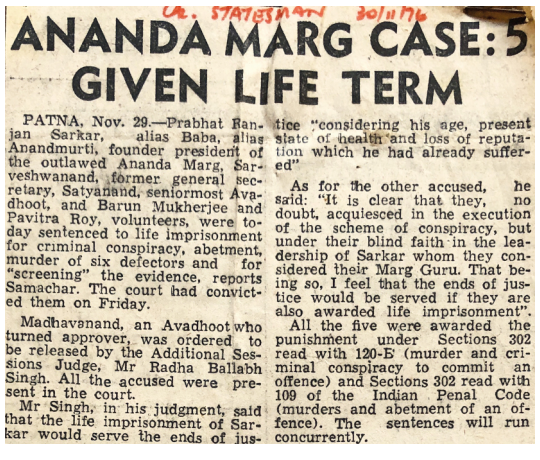
PATNA, Nov. 26.—Prabhat Ranjan Sarkar alias Anandamurti, chief of the outlawed Ananda Marga and four of his followers, were today convicted of criminal conspiracy, abetment and murdering six defectors of the Marg in July-August 1970, reports Samachar.

Pronouncing the judgment, the Additional District and Sessions Judge, Mr Radha Ballabh Singh held Sarkar and the four accused guilty under Sections 120-B/302, and 302/109 IPC. The court also held Sarkar guilty under Sections 201/100 IPC.

While two of the accused, Satyanand and Sarveshwaranand, former general secretary of the Marg, were found guilty under Sections 302/120B and 302/109, the other two, Barun Kumar and Pavitra Kumar, were separately held guilty under Sections 302/34 IPC.

The judge in his 245-page judgment observed: "I find that the prosecution has succeeded beyond doubt in bringing home the charges framed against the accused.

According to the prosecution, Sarkar and the others had entered into a criminal conspiracy to kill the defectors at a TISCO bungalow in Jamshedpur on the night of July 28, 1970 According six defectors—Tapeshwaranand, Japeshan-



ANANDA MARG CASE: 5 GIVEN LIFE TERM

CAL. STATESMAN 30/11/76

PATNA, Nov. 29.—Prabhat Ranjan Sarkar, alias Baba, alias Anandmurti, founder president of the outlawed Ananda Marg, Sarveshwanand, former general secretary, Satyanand, seniormost Avadhoot, and Barun Mukherjee and Pavitra Roy, volunteers, were today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for criminal conspiracy, abetment, murder of six defectors and for "screening" the evidence, reports Samachar. The court had convicted them on Friday.

Madhavanand, an Avadhoot who turned approver, was ordered to be released by the Additional Sessions Judge, Mr Radha Ballabh Singh. All the accused were present in the court.

Mr Singh, in his judgment, said that the life imprisonment of Sarkar would serve the ends of justice "considering his age, present state of health and loss of reputation which he had already suffered"

As for the other accused, he said: "It is clear that they, no doubt, acquiesced in the execution of the scheme of conspiracy, but under their blind faith in the leadership of Sarkar whom they considered their Marg Guru. That being so, I feel that the ends of justice would be served if they are also awarded life imprisonment".

All the five were awarded the punishment under Sections 302 read with 120-B (murder and criminal conspiracy to commit an offence) and Sections 302 read with 109 of the Indian Penal Code (murders and abetment of an offence). The sentences will run concurrently.



THE INDIAN NATIC

AN INDEPENDENT DAILY

A, WEDNESDAY, JULY 5, 1978 ASHADH KRISHNA, 15 SHAKE1900

Anand Murti, 4 others acquitted by Patna High Court

PATNA, July 4:

THE 24-year-old socio-spiritual organisation Ananda Marga with international followings today got a boost when the Patna High Court acquitted its spiritual head Prabhat Ranjan Sarkar alias Anand Murti and four of his followers of charges of criminal conspiracy and murders of six defectors.

The morale-boosting judgement for the Margis world over was delivered coinciding with the date when four years ago on July 4 the organisation with all its offshoots was banned in 1975, reports UNI.

Their Lordships Mr Justice Sarkaria and Mr Justice Chaudhary Sha Saran while allowing the criminal appeals against the orders of the Sessions court convicting Anand Murti and four others-Sarveshwaranand Avadhoot, Satyanand Avadhoot, Barun Kumar and Pabitra Kumar, however, ordered that the appellants be set at liberty forthwith unless they are required to be detained in any other case.

Their Lordships, in separate judgements, delivered in a packed courtroom observed that the prosecution had failed beyond reasonable doubts to substantiate the charges including murders against the appellants.

Of the two honourable judges who heard the appeal Mr Justice Chaudhary, however, found the appellants entitled to "benefit of doubt". The judgement was delivered by Mr Justice SibeshWar Prasad counts Clerk in the railway workshop there and founded this 'socio-spiritual' organisation Anand Marga Pracharak Samgh in 1954-55.

Mr Sarkar after establishing his organisation with good following shifted the headquarters from Jamalpur to Bagiata in the district of Purulia in West Bengal in 1966 and set up a complex named Anandnagar.

According to the prosecution on March 5,1967 there was a fierce fight between the followers of Anand Marga and the villagers in which five follo-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62. 미스터리 맨



이 사진은 1960년대에 지면 인터뷰 기사에 싣기 위해 찍은 바바 사진이다

1978년 격주로 나오는 잡지 '인디아 투데이'의 특파원이 바바와의 인터뷰를 계속 요청했다. 다다 라마난다가 결국 바바에게 일련의 질문지를 제시하기로 했고, 바바에게 질문을 보낸 뒤 "바바는 절대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분이시며, 게다가 당신의 질문지는 가장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그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파원의 질문에 대한 바바의 답변은 1978년 7월 무죄 선고 이후 나왔다. 그것들은 그가 감옥에서 나오기 며칠 전에 '아난다무르띠'라는 제목의 기사에 실렸다. '미스터리 맨'은 1978년 8월 11일자 <인디아 투데이>에 실렸다.

질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추종자들이 이 날을 '다르마의 승리'라고 축하하지만, 당신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당신의 추종자 중 한 명은 당신이 니르비카(집착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냉정하게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고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답: 다르마의 승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모든 것은 보통 냉정하게 받아들여야한다.

질문: 당신의 조직을 파괴하기 위한 특정 기관의 계산된 악의적 선전에 당신과 조직의 헌신자 들이 희생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감옥에 수감된 지난 7년 동안 조직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재정립하기 위해 대중의 마음에서 오해를 없앨 계획입니까?

답: 우리는 주관적인 접근 (지고 의식을 목표로 하는 삶)과 객관적인 적응 (창조된 세계에 대한 봉사)을 통해 인도주의적 의무를 수행할 것이다.

질문: 과거에는 당신과 일반 대중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대중과 당신이 접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왜 은둔 생활을 하셨습니까?

답: 실제 사회봉사는 조직의 일꾼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공개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저 그들을 도울 뿐이다.

질문: 아난다 마르가가 서양으로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속도는 일부 해외 기관의 지원이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CIA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KGB와 CBI를 공격한 것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CIA가 아난다 마르가에 해를 끼쳤는지 모르겠다. 만약 내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같은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그들을 비난할 것이다. 나는 어떤 조직에도 약점이 없다. 선량한 사람
들은 항상 지지 받아야 하고 악한 이들은 단호히 비난받아야 한다.

질문: 당신이 정치 권력을 잡고 세계 사드비프라 (영적 혁명가) 정부를 세우고 싶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반박된 것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재판에서 언급된 책들은 당신이 "폭력은 삶의 본질이다."라고 말해온 이 관점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답: 법정에서 내가 한 말은 궁극적인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사드비프라 사회' ('Sadvipra Samáj') 이지 '사드비프라 정부' (Sadvipra Ráj)가 아니다. 정부는 사회의 극히 일부이다. 폭력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미 나에 의해 명확해졌다. 항상 힘의 사용이 항상 Him'sa(폭력)인 것은 아니다. 폭력에 대한 나의 해석은 Ahim'sa(비폭력)과 공존할 수 있다.

질문: 정치적 야망이 있으십니까? 부패가 없어지지 않으면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러한 사회를 어떻게 건설하고 싶습니까? 정치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답: 나는 정치적 야망이 없다. 나는 인류사회의 복지를 위해 프라우트 (진보적 활용론)을 제안했다. 이 이론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실현될 것이다.

질문: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민주주의는 적어도 유권자의 51%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필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도덕성, 식자율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및 사회-경제-정치적 의식이 그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대중을 속이는 수단이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63. 바바의 석방

1978년 8월 2일, 거의 7년간의 수감 생활 후, 다른 사람이라면 죽었을 지도 모르는 독 주입과 5년 간의 단식 기간 동안, 모든 마르기가 갈망하던 날이 드디어 왔다. 수천 명의 마르기와 대중들이 바바가 감옥에서 석방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였다. 들어오는 기차들은 너무 붐벼서 헌신자들을 열차 안만이 아니라 열차 위까지 가득 싣고 굴러 들어왔다. 어떤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함께 오기도 하였다. 경찰은 기차역에서 교도소 문까지의 도로를 봉쇄했다. 상점과 사무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감옥에서 자그리티까지 이어지는 거리 전부에 가득 줄지어 있었다.

오후 한 시에, 바바는 매우 북받치는 감정과 떠들썩한 환영을 받으며 석방되었다. 사람들은 매우 많은 방법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몇몇은 기쁨에 겨워 코끼리를 타기도 했다. 바바 차가 감옥에서 파탈리푸트라 콜로니의 바바 쿼터로 장엄하게 갈 때 대부분은 기뻐서 바바 차를 따라 달려가면서 꽃을 던지고 "빠람삐따 바바끼 자이! (지고의 아버지에게 승리)"를 외쳤다.

그날 오후 바바는 1973년 그의 단식을 깨도록 누이가 설득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누이 히라프라바가 준 음식을 먹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단식을 풀었다.

다음 날, 바바는 눈물 흘리는 마르기들로 가득 찬 대형 천막에서 감옥 후 첫 담화인 '두려움 없이 살아라'를 설하였고, 이후 그는 이를 DMC 담화라고 선언했다.

그 달 말 바바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몇몇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비방에 무관심했고, 이제는 그들의 지나친 칭찬을 원치 않는다."

출소 10주년인 1988년 8월 2일, 그는 그 때를 회상하는 특별한 다르샨(친견)을 주었다. 다음은 그 다르샨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무력을 행사할 때는 정당방위를 해야 한다.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자기방어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갔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한 여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때, 죄인들은 더 많은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권력을 얻는다는 것이 그들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옷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인도 세탁부처럼, 그들은 너무 높이 올라가서 결국 곤두박질치게 된다."

"3천 5백 명의 마르기와 WT들이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모두 무죄였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내가 석방되었을 때, 아주 긴 행렬이 있었다. 기억하는가? 교도소 당국은 군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만약 그러한 행렬이 자신들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면 자신들도 기꺼이 투옥될 의사 가 있다고 내게 말했다."

"감옥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석방되었을 때, 나는 걸을 수 없었다.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다. 누구도 내가 당한 고충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 하지만 다르마를 위한 투쟁에서, 문제가 생기면, 받아들여야 한다. 꽃을 꺾으면 가시에 찔릴 수도 있다. 그대의 위안은 그대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처음에는 문제가 있지만, 결국엔 문제가 없다."

"다르마는 승리의 원동력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르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대가 자무에 가고 싶다면, 자무행 고속 열차에 앉아야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르마의 길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64.바바, 카오시키를 주다

1978년 9월 6일, 바바는 카오시키 춤('마음의 확장을 위한 춤') 을 도입했다. 이것은 특히 여성에게 이로운 운동이자 약이고 또한 남성에게도 좋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춤의 신비주의적인 내적 정신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는 이 춤이 소우주와 대우주와의 연결, 빠라마뿌루샤와의 연결을 확립하려는 관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22가지 이점을 열거했다. 이후 카오시키는 DMC 및 기타 아난다 마르가 행사 중에 수행되었으며, 아사나(요가 자세)를 하고 나서도 해야 한다.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랄리따 마미카를 추면서 키르탄,, 사다나, 아사나, 카오시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의 탄다바이다."

카오시키에 대한 바바의 인용문:

"사다바가 최초로 탄다바를 선보였고 카오시키 춤에 관해서는 내가 1978년 9월 6일에 처음 선보였다. 사실, 탄다바와 카오시키 둘 다 춤이라기 보다는 몸에 더 유용한 신체운동이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탄다바와 비슷한 춤이 필요했고, 카오시키 춤이 그 목적에 부합했다. 그대들 대부분이 이미 그것을 배웠기를 바란다. 신체, 정신, 영혼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탄다바 수행은 특정한 생리적 제약 때문에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뭔가가 필요하다. 파트나에 있을 때, 나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댄스 운동을 발명했고, 그것을 카오시키라고 불렀다. 효용성에서는, 카오시키도 탄다바만큼 중요하다."

"나는 1978년 9월 6일에 카오시키를 발명했다. 이 춤은 22가지 질병을 위한 운동이자 치료약이다. 그것은 거의 모든 여성 질환들과 많은 남성질환에 만병통치약이다. 대부분의 간 질환에 특효약이다. 카오시키는 또한 여성들의 안전한 출산과 함께 또 노후의 건강을 보장한다. 그것은 약이다.

"카오시키는 개인의 가장 깊은 내면의 자아와 관련이 있다. 춤과 키르탄을 통해서 내면의 자아를 밖으로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 즉, 내적 자아를 적절히 표현해 주는 특성이 있는, 키르탄과 함께 하는 이 춤을 카오시키라고 한다. 꼬샤(kos'a)는 '내적 자아'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춤은 인간의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키르탄 할 때 손을 위로 올리고 발을 번갈아 바닥에 찍는 것은 순전히 영적인 춤이고, 카오시키는 정신적-영적인 춤이다. 정신적 차원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차원의 정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탄다바는 육체적-정신적-영적이다."



자메이카 킹스턴 DMC에서 바바 앞에서 카오시키 춤을 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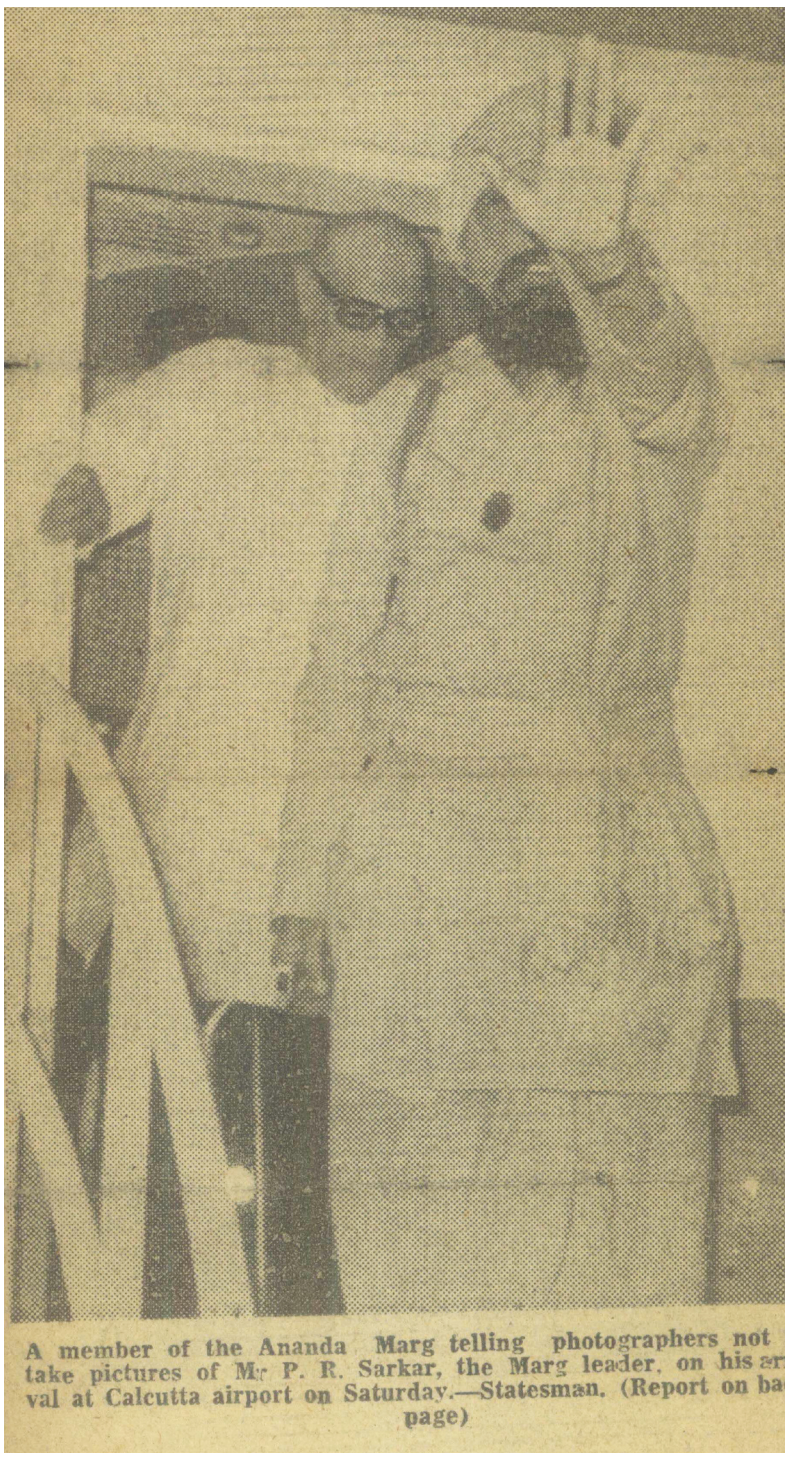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65. 일반 다르샨(친견)

바바는 감옥에서 석방된 뒤 파트나의 파탈리푸트라 콜로니 244번지에 3개월 가까이 머물렀다. 단식과 수감생활로 몸이 쇠약해졌지만 지난 7년은 산책에 불과했던 것처럼 곧바로 일을 시작다. 파트나에서 그는 1978년 10월 말 그의 본부를 캘커타로 옮기기 전에 거의 100번의 다르샨을 부산히 주었다. 그는 1990년까지 거의 700번의 일반 다르샨을 더 주었는데, 대부분은 캘커타에서였고, 인도의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세 번의 월드 투어에서도 많이 주었다. 대다수 청중들의 모국어에 따라, 대부분의 일반 다르샨 담론은 벵갈어나 힌디어로 주어졌다. 일부는 영어로 주어졌다. 어떤 경우든, 그는 종종 중요한 생각들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처음이나 중간에서 영어로 담화의 핵심을 전달하곤 했다. 이 담화들의 대부분은 녹음된 것이고 우리는 기록 보관소에 그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다. 그것들은 <아난다 바차나므리땀>시리즈로 편찬되었다.



캘커타에 도착하는 바바



A member of the Ananda Marg telling photographers not take pictures of Mr P. R. Sarkar, the Marg leader, on his arval at Calcutta airport on Saturday.—Statesman. (Report on ba page)



일반 다르샨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66. 월드 투어

1979년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두 번의 마할리카 투어에 이어 세 번째 해외 투어인 바바의 첫 월드 투어가 진행되었다. 한 달 동안 그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를 방문했다. 그가 1주일 넘게 머물렀던 스위스 피에쉬의 고산마을에서 아난다 푸르니마의 기념으로 세 번째 DMC가 열렸다. 그리고 독일의 티머른에서 그는 DMS (Dharma Mahsammelan)를 선언했는데, 이것은 그가 참석한 세 번의 DMS 중 한 번이었습니다.

그 해 말, 8월에 그는 태국과 대만을 방문했다. 3차 마할리카 방문을 계획했지만 마르코스 정부에 의해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자 마르기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대신, 그는 태국의 방콕에서 며칠 더 머물다가 2주 동안 대만을 여행했고, 그곳에서 그는 인도 밖에서의 네 번째 DMC를 했다.

그리고 9월에 그는 마지막 월드 투어를 위해 떠났다: 그리스,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독일, 자메이카, 베네수엘라로 가는 동안 하이파, 레이캬비크, 킹스턴, 카라카스에서 DMC를 주었다.

편집자

"바바가 유럽에 오신다. 바바가 유럽에 오신다!"라는 말이 떠돌았다. 그것은 마치 은밀한 속삭임과 같았다. 누군가 들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크게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마치 비밀이 누설되면 흥분이 사라지는 것처럼. "정말 그럴까요? 가능할까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1979년 5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바바는 드디어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다. 대륙 전역에서 온 거의700명의 마르기가 이 성스러운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당초 예정보다 여러 가지 문제로 2시간 연착됐다. 헌신자들은 이 때를 위해 키르탄을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혁명을 가져온 스승의 출현을 기다리며 충만한 표정으로 노래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가 시야에 들어오자, 마치 시간이 갑자기 멈춰버린 듯 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없었다. 바바만 있었고, 헌신자들은 제자와 구루 사이에 일대일 개인적 관계만 느꼈다.

많은 마르기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구루를 보았고, 7년 만에 보는 이들도 있었다. 하나됨의 기쁨의 눈물과 그 간의 이별로 인한 고통의 눈물로 가득 찼다. 어떤 이들은 바바의 이름을 크게 불렀고 어떤 이들은 내면의 고요를 지켰다. 바바가 두 줄의 헌신자들 사이로 통과하여 환한 미소로 들어왔을 때 황홀감이 방 가득 했다. 그때 그는 말했다. "보다시피, 나는 약속을 지켰다. 2년 전에 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에 스위스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이제 나는 왔다. 나는 약속을 꼭 지킨다."

<피에쉬에서의 바바>

제네바 공항에서의 바바 환대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67. 피에쉬에서의 바바



차에 다가 가는 바바

바바의 스위스 피에쉬 방문은 그 축복의 날에 거기에 가는 특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특별한 시간이었다. 1979년 5월 초 일주일 이상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스위스 알프스의 아름다움은 유럽과 전 세계에서 온 마르기들의 즐거운 모임의 배경이 되었고, 바바는 그 모든 것의 핵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었다. 오직 하나의 흐름, 하나의 리듬, 하나의 느낌만이 있었다: "바바가오셨다. 바바가여기에 오셨다. 바바가 우리와 함께 있다!"

매일 일반 다르샨과 담화, 산길 따라서 하는 야외 산책, 개인적인 만남(PC)과 결혼 축복 등이 있었다. 아난다 푸르니마가 인도 밖에서 처음으로 기념되었고 피에쉬에서 아주 특별한 것은 케이블카로 근처 산비탈 위 빙하로 가는 나들이였다.그 곳에서 바바는 알프스를 이 행성의 생명의 탄생지로 언급했다. 그리고 바바가 머무시던 샬레 밖에서는 바바남 케발람을 부르는 마르기들이 항상 몰려 있는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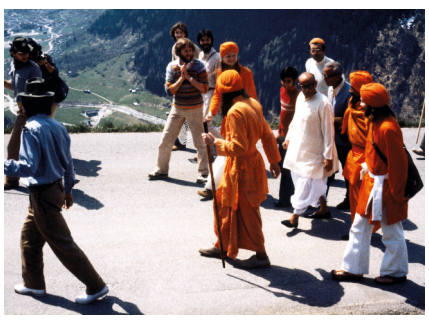
앉을 수 있도록 프라틱으로 장식된 바바의 차 내부

1979년 5월 12일 바바의 DMC 담화(인도 밖에서 하는 세 번째 DMC 담화)는 '마이크로코즘 (개체존재)과 그가 관상할 대상'이었으며, 피에쉬에서의 마지막 날인 그 다음 날, 그는 다음의 말로 저녁 일반 다르샨을 마무리했다:

"작금처럼 이 사회가 타락하거나 부패한 상태여서 분열 성향과 정체적 원리가 지배적일 때, 빠라마 뿌루샤는 인간의 감정과 절규, 인간의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방해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비로소 그 때에만 그는 타라카 브라마의 형태로 온다. 타라카는 '해방시키는 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타라카는 창조된 세계의 바바이다. 그를 위해 헌신자들은 바바남 케발람을 노래한다."

* 바바의 인도 귀국과 함께 캘커타에서 열린 DMC가 그 해 공식 아난다 푸르니마 DMC로 선언됨.







야외 산책 장면



헌신자로 둘러싸인 산 위에서의 바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68. 티머른과 베를린 장벽에서의 바바

4박 동안(1979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 마지막 밤에 하노버 인근 도시로의 주간 여행(그리고 저녁에는 다르샨)을 포함 – 바바는 독일 티머른에 있는 PMSA(진보적 남성들의 영적 협회) 글로벌 본부에 머물렀다. 1974년에 구입했을 때 그는 그곳을 비댜사고르(지식의 대양)라고 이름 지었고, 그것은 바바가 직접 생전에 발을 디뎠던 곳들 중 우리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인도 밖에 남아있는 유일한 부동산이다. 그가 인도 밖에서 아바두타 입문을 준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4번의 일반 다르샨을 주는 것 외에도, 그는 또한 DMS를 선언했는데, 이것은 그가 직접 참석한 매우 드문 일이었다(역주: 보통은 그의 현존 상태에서의 대법회는 DMC로 선언되었음).

티머른에서 바바는 "나는 성층권에 특별한 영적 에너지를 방출했다. 이 영적 에너지는 지금 물, 토양, 식물로 내려가고 있고 결국 인간의 몸과 마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다 디비야로케샤난다

몇 년 후인 1985년 12월 22일, <샵다 차야니카>시리즈로 엮이게 되는 일요 다르샨에서 바바는 말했다:

"나는 서독의 티머른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그 시절은 행복했다. 이런 황금시대는 지나가고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 때의 황금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다. 동독 국경은 그 외로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쪽으로는 텅 비어 있었다. 탁 트인 들판과 나무 몇 그루가 있었다. 저녁 산책 후, 나는 나무 아래에 앉았다. 해가 저물었지만 황혼이 약간 남아 있었다. 나는 사슴들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자유롭게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누구도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들(사슴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사슴들은 비자나 여권의 벌들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아무도 속일 줄 몰랐고 가상의 국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이들의 생각으로 서둘러서 산만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여권이나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티머른에서 바바와 산책

1979년 5월 17일 티머른 방문 며칠 전, 마르기들은 바바를 모시고 서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에 있는 장벽을 보여주었다. "이 벽은 파괴적인 전쟁에서 만들어졌고 활기찬 사회를 둘로 나누는 인간이 만든 장벽이다. 이 나라의 분열은 또한 인간이 만들었다.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곧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것이다"라고 바바는 말했다.

1979년 5월 20일 바바의 DMS 담론은 '본질(누메논)적 근원과 인격적인 신'으로, 특히 행사 장소를 고려하는 적절한 주제였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누메논(물자체)은 유럽의 주요 철학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저녁 바바는 시바의 7가지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편집자

여섯 번째 성공 비결은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 그는 특히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바바는 이 7가지 비밀에 대한 강연을 한 후 그의 방으로 돌아왔다. 일찍부터 업무에 집중하느라 식사가 늦은 많은 아차리야들이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시간이 매우 늦었으므로, 당연히 그들은 음식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 문간에 서 있는 바바와 마주쳤다.. 그는 활짝 웃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잠시 멈추자 장난스럽게 말했다.

"앞으로는 여섯 번째 성공 비결을 잊지 마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피에쉬에서의 바바>

바바는 티머른을 떠날 때 눈물을 글썽였다. (붓다의 강철 같은 결의를 칭찬하면서 분명 눈물을흘리셨던 또 다른 유일한 곳이 보드가야이다.) 그는 "빠라마뿌루샤조차도 때로는 한 곳을 떠나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다다 디비야로케샤난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69. 로테르담에서의 바바

바바의 비행기를 맞이하기 위해 로테르담으로 가는 길에, 환상적으로 완전한 무지개가 일곱 색깔의 스펙트럼을 진동시키며 하늘을 가득 메웠다. 마치 바바가 환영의 의미로 태양의 비밀을 여 는 것 같았다. 바바가 로테르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허리케인의 눈처럼100명의 사람들이도시의 중심부 안에 있는 가장 독특한 집에 몰려들면서 모든 것이 혼돈스럽게 붐볐다. 두 개의매우 비좁은 나선형 계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기들 주위를 돌고 다른 하나는 바바의숙소로 내려 가는 나선형식이었다. 계단은 너무 좁고 끝이 없어서 한 사람, 아주 조심한다면 두 사람만이 동시에 계단을 지나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믿지 못하고 웃었다. 잠시 후에 모든 것이 조정되어 협력과 수용을 통해 아름다운 감정과 친밀함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 올랐다.

<피에쉬에서의 바바>

1979년 5월, 바바는 유럽 순방 중에 있었고 네덜란드로 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로테르담의 옛 자그리티에 그가 머물기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그를 위한 개인 화장실 시설이 없었고 다르샨 방 바로 아래에 주크박스에서 시끄러운 팝 음악이 나오는 술집(pub)이 있었다.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을 개조하고 샤워기를 설치하면서 해결하기로 했다. 보수작업을 맡은 LFT 형제들은 시간과 노하우가 부족해 샤워기의 수도관과 주 배수 시스템을 연결하는 일을 엉망으로 하게 됐다. 바바는 체류 첫날부터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사용된 물이 자그리티 아래 술집 천장을 통해 새어 나왔다.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고 화가 난 얼굴의 펍 주인은 내게 한번 보라고 가리켰다. 놀랍게도 나는 천장에서 주크박스로 물이 쏟아져 완전 망가진 것을 보았다."

"그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그리티에 대한 수도 공급을 중단했다. 큰일났군! 바바가 사용할 물은 물론, 1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쓸 물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일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나는 배관공을 불러올 수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났고, 그래서 우리는 바바를 지나 화장실로 갈 때 술 냄새를 감추기 위해 양쪽에 향을 한 개씩 들고 가야했다."

"실망스럽게도 배관공은 바닥을 깨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이 매우 늦었고, 그는 술 취한 데다 적절한 도구도 없어서 가버렸다. 다행히도 영국에서 온 한 형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소방용 주요 수도꼭지가 있 던 지하실로 사라져 자그리티의 물줄기에 간신히 연결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술적 인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다음날 배관공이 바닥에 있는 파이프를 연결하러 왔고 바바는 시끄러운 팝 음악에 방해받지 않고 그의 다르샨을 줄 수 있었다."

"드라마를 즐겼던 바바가 체류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한 것이 가장 좋았다. 이보다 더 좋은 운이 어디 있겠는가?"

마다비 (네덜란드인)

약 15명의 헌신자들이 바바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바바는 거의 3,000년 전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네덜란드의 조상에 대해 말했다. 그는 또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물과 매우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순간 바바는 멈춰서 벤치에 앉아 "공포증이 있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질문에 대답했다. "어떠한 컴플렉스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자매에게 노래를 부르고 싶은지 물었다. 바바는 공포 콤플렉스를 갖지 말라, 사실 전혀 콤플렉스를 갖지 말라며 거듭 말했다. 나중에 디디 아난다 사다나가 된 또 다른 자매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콤플렉스가 너무 많습니다, 바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자 바바가 대답하였다. "내가 비결을 말해 줄까?"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키르탄"이라고 말했다.

<피에쉬에서의 바바>

" 또 다른 산책 때 바바는 멈춰 돌아서서 내 눈을 바라보았는데 내게는 마치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몇 초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런 후 그가 말했다.

'알다시피, 나는 하나하나 모든 존재를 사랑한다.'

그의 광휘와 사랑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인간에 대한 그의 자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답이었다."

고빈다 (영국인)

바바, 로테르담 자그리티 외곽에서 마르기들과 함께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70. 훈련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1976년 2월 스웨덴 트레이닝 센터가 설립됐으며 1979년 5월 바바가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훈련생들은 스톡홀름으로 와서 바바를 접견했다.

바바는 그들에게 다음의 메시지를 주었다:

"그대는 그대가 건설하고 있는 이 길의 개척자이다.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길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이 길을 즐길 것이고 어려움 없이 그 길을 걸을 것이다. 개척자가 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준비 되었는가?"

"네, 바바!"라고 그들 모두 대답했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쉽지만 위대하고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은 도덕적 힘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힘도 필요하다. 훈련 받을 때 도덕적, 영적 힘을 길러야 한다. 너희는 개인의 안락과 욕구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의 의무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대들 모두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스톡홀름에서 두 번의 다르샨 자리를 꾸민 프라틱으로 장식된 천:5월 27일 저녁 '그와 하나 되는 기회'와 5월 28일 저녁 '현현된 모든 존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바바의 스톡홀름 공항 도착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71. 이베리아 서부, 아틀란티스

1979년 5월 말 바바는 이틀간 스페인 발렌시아를 방문했다. 다다 달마베다난다는 그 당시 바바의 말을 기록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다음은 다다의 책 <신비의 스승과 여행>에서 발췌한 것이다:

해질녘, 우리는 도시 외곽의 해변을 걷고 있었다. 바바는 "이 고대아틀란티스 문명은 현재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바닷속에 잠겨 있다"고 말했다.

발렌시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여전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바바는 말했다. "바스크만은 원래 아틀란티스 섬의 일부여서 이렇게 얕다. 바다가 얕으면 어디든 큰 파도가 친다. 태평양은 매우 깊고, 어떤 곳에서는 깊이가 6마일 이상이어서 파도 크기가 작다. ('조금 아는 사람이 큰소리 친다.'는 격이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베리아 해안 주변에 문화, 지질, 동물학 및 다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육신으로는 여기에 처음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와 본 적이 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이베리아는 과거에 밝았고 현재는 흐리고 미래는 햇살로 가득하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매우 사랑한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옛 혼합어 이름은 이베리아어라고 불렸다. 오늘날까지도, 몇몇 스페인 방언들은 포르투갈어보다 오히려 표준 스페인어와 더 다르다. 유럽공동시장 체제가 유럽의 모든 국가로 확대된다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다."

바바가 이 문장을 말했을 때, 나는 내 공책에 '유익하다'라고 썼다.

비록 그는 내가 쓴 것을 볼 수 없었지만, "달마베다난다, 유익하다 'benefited'의 철자가 뭐지?"라고 물었다.

"B-E-N-E-F-I-T-T-E-D"라고 나는 말했다.

"아니다. 단음에는 이중 자음이 붙는다는 규칙이지만 이것은 예외여서 't'가 한 개만 있느니라."

그 후 나는 공책을 훑어 보았고 이것이 나의 20페이지 분량의 메모에서 부주의하게 잘못 쓴 유일한 철자라는 것을 알았다. 바바가 얼마나 친절하게 철자 오류를 바로 잡아주었는지!

<피에쉬에서의 바바> 에서 발췌:

바바는 여러 번 아틀란티스의 멋진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틀란티스가 매우 광대한 대륙이었으며, 그것이 이베리아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지브롤터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와 연결되어 있었다. 아주 큰 지진 때문에 아틀란티스가 사라지고 사하라 사막이 나타났다. 사하라 사막은 전에 물속에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서 석유를 찾을 수 있는 이유다. 그리고 나서 바바는 아틀란티스가 고도로 발달된 문화라고 덧붙였다.

[스톡홀롬에서] 바바는 오래된 공항 활주로에서 매우 늦은 산책을 했다. 바바가 스칸디나비아의 고대 문화가 아틀란티스 문화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바바는 그의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다 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스칸디나비아 지역이 한때 더운 기후였다고 말했다. 사실 그것은 적도 근처에 위치했지만 그 이후로 북극과 남극이 이동했다. 바바는 또한 한때 그들이 걷고 있던 바로 그 땅에 살았던굴 같은 동물들에 대해서도 말했다. (옛날에는 이곳이 바다였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발렌시아에서의 바바 산책 녹음 테잎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중세 유럽에는 세 가지의 독특한 혼합문화가 있었다. 하나는 프러시아 문화, 다른 하나는 라틴 문화, 다른 하나는 이베리아 문화였다. 이베리아 문화는 스페인, 포르투갈 및 바스크(일부는 프랑스에 속하고, 일부는 스페인에 속하고) 문화를 포괄한다. 이제, 그 이베리아 서쪽에는 아틀란티스라는 거대한 대륙이 있었다. 아틀란티스는 이베리아 반도의 연속체이다."

[누군가 묻습니다. "바바, 아틀란티스 대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달했었나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인 것도 있고 상상인 것도 있으니 적절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묻는다. "바바, 아틀란티스와 이집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요?"]

"고대 세계에는 드라비다-인도 문화, 중국 문화, 이집트 문화, 아틀란티스 문화의 네 가지 뚜렷한 문화가 있었다.인류 문화는 하나다. 음식과 춤에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오직 표현 방식만 다르다. 지금도 인류 문화는 하나다. 붉은 혈통의 같은 문화다"

발렌시아에서의 바바(나마스카 하며 바바를 마주하고 있는, 왼쪽에 있는 형제가 나중에 다다 디비야로케샤난다가 되었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72. 리옹에서의 바바

바바가 프랑스 리옹의 자그리티에 도착하기 전 (다다 베다프라갸난다가 말한다.) 그가 주말 동안 머물 방을 들여다보았다. 모든 것이 제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의 침대, 책상, 벽에 붙어있는 프라틱. 이상하게도, 나는 전기처럼 찌릿한 진동이 온 방안에 퍼져있는 것을 느꼈다.

바바가 도착했고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안내했다. 프랑스와 유럽에서 온 100여 명의 헌신자들이 그가 다르샨을 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막후에서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회의를 위해 아차리야들을 불러 우리가 그의 작은 방으로 몰려들자, 그는 마치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처럼 슬픈 얼굴로 말했다. "나는 파리에서 일하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 않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다르샨이 없었다.

내일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이 날을 구하는 것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아차리야인 내게 달려있었다. 나는 프랑스에서 수행된 만족스런 업무를 보고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 할 거라고 바바를 확신시켜야 했다. 그 보고서의 핵심 항목 중 하나는 북띠 쁘라단[북티장]의 명단이었다. 우리 섹터의 SS인, 다다 까루나난다의 지시에 따라 이 지역 32개 각 구역마다 완전한 기능을 갖춘 북띠 프라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명단을 부풀렸다.

내가 부풀린 보고서를 중앙 ERAWS 총무에게 제출하자 그것을 훑어보고 나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더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나는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보고서를 이미 그에게 주었기때문에 속으로 웃어야 했다.

어쨌든, 효과가 있었다. 다음날 바바는 다르샨과 세 번의 담화 중 첫 번째 담화를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의 방으로 몰려들어 아차리야 회의에서 또 업무보고를 해야 했다.

그는 다다 달마베다난다에게 파리 지역에 사무실을 몇 개나 차렸느냐고 물었다.

"세 개입니다, 바바."라고 다다가 대답했다. "뭐? 딱 3개? 북띠 프라단의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는 눈을 반짝이는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 북띠프라단들 중 몇몇은 별로 활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안그런가?"

그날 밤 우리는 바바를 모시고론 강둑을 따라 산책 했다. 분위기는 영적으로 강렬하게 충만했고, 신성한 사랑이 그에게서 우리에게로, 또 우리에게서 그에게로 발산되었다.

바바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웃을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미소 같았다.

바바는 마치 영원을 바라보듯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를 향해 돌아서서 우리는 표현 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인간 사회의 "목소리가 높지 않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룩클린에서 베나레스로, 그리고 돌아오는 길>

다음날 아침 바바는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매우 일찍 떠나고 있었다. 계단으로 내려가던 어느헌신자는 바바에게 다시 올 수 있냐고 물었다. "또 올 것 같다. 또 올까?" 바바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외쳤다. "네, 바바!" 바바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마. 허나 알다시피 그대들 모두에게 너무 폐끼치는구나."

<피에쉬에서의 바바>

바바와 행복한 주말을 보낸 그는 수행원들과 함께 이탈리아 밀라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떠났다. 나는 LFT들과 함께 부엌에 있었다. 우리는 바바, 아차리야들과 100명의 마르기 방문을 주최하고 지쳤다. 그 장소는 마치 파티가 끝난 후처럼 어수선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바바가 다시 오신다!" 두 번 생각도 않고, 우리는 행동개시하고, 차에 올라탄 뒤, 바바와 수행원들을 자그리티로 모셔와, 하루 더 행복한 시간을보냈다.

<브룩클린에서 베나레스로, 그리고 돌아오는 길>

리옹에서, 바바는 밀라노로 날아갔다. 하지만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행 전체가 이탈리아 입국을 거부당하고 리옹으로 추방되었다. 리옹에서 바바는 다다 달마베다난다에게 물었다.

편집자

"달마베다난다, 이 추방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 무엇인지 말해 보거라." 나는 그의 질문에 놀랐다. 잠시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바바! 하지만 제 생각에 밀라노 공항에서 바바를 기다리던 수백 명의 헌신자들이 지금 좌절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국정부에 대해 매우 원통해 할 것이고, 그들의 제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인 도덕성에 의해 인도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 받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구나, 조금은 이해했구나."라고 말했다.

<신비로운 스승과의 여행>

다음날 아침 우리는 바바의 인도 귀국 비행을 위해 공항으로 다시 모셔갔다. 그가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고 'P. R. Sarkar'라고 표시되어 있는 가방을 들고서 한 사람이 따라가는 걸 보면서, 나는 소박한 복장의 이 작은 한 남자가 세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새삼 경이로움을 느꼈다.

자그리티로 돌아와 남은 마르기들 몇 명이 방으로 들어가 명상을 했다. 나는 바바가 머무는 동안 개인 비서, 다다 라마난다를 위한 숙소로 썼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다다달마베다난다는 지난달 바바의 안전과 산책을 준비하며 바바 가는 곳마다 동행한 뒤 녹초가 된 채 바닥에서 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지난 며칠간의 행사에 몰입돼 있었다. 그는 잠꼬대를 하며 소리쳤다. "오늘 밤 바바 산책을 어디로 모셔갈 수 있을까?"

그냥 재미로 나는 대답하기로 결심하고 "론 강을 따라 모셔가지."라고 말했다. 아직 자고 있는 달마베다난다가 대꾸했다. "아니, 우리는 그를 그곳에 모셔갈 수 없어. 어제 다녀오셨거든."

<브룩클린에서 베나레스로, 그리고 돌아오는 길>

바바는 파리 공항에서 환승하여 사진을 찍은 뒤 모스크바를 쳐 봄베이로 향했다.

편집자

2주 후. 서독 마인츠. 이탈리아에서 온 뉴스: 마르칸데이와 몇몇 다른 이탈리아 마르기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바바 여행단을 추방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마쳤다. 조사 초기, 그들은 추방 요청이 '바바'라는 이름의 종교 기관 내부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정부에 요청을 전달한 그 기관 관계자는 본연의 임무만 수행했을 뿐 그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그는 고위 종교 관계자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명령 받았다. 그는 추방 명령을 요청한 고위 관료에게 마르기들을 안내했다.

이 상승 릴레이는 그들이 최고 권력자 주변의 내부로 이끌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그들은 최고관료를 만나 사과를 받았지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본인은 이 과정의 출처나 이면의 이유에 대해 더 이상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스승과의 여행>

리옹에서 다르샨을 주는 바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73. 방콕에서의 바바

바바는 태국 방콕에서 두 번째 월드 투어를 시작했다.

"저는 운 좋게도 바바가 태국에 왔을 때 그의 운전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제가 방콕에서 유일하게 차를 가지고 있던 마르기였으니까요.그 당시 CIA는 그를 인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여겼는데 제가 공항에서 뵈었을 때, 그는 매우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인도의 전통 의상, 하얀 도띠와 꾸르따를 입고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회사에 다니는 인도 마르기, 쉬얌방의 차를 타고 수쿰빗으로 갈 때, 저는 그가 태국어로 간판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태국어도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국어를 이해하는 바바의 기발한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는 제게 "그대는 태국의 원래 이름을 아는가?" "시암입니다, 바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저는 "모릅니다, 바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깊은 녹색'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입국이 금지된 이유를 묻자 바바는 저를 보고 "CIA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사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

1979년 8월 9일 아침, 바바가 말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다. 그리고 나는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설하고 있다. 인간 사회는 하나라는 것이다. 사람을 존경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같은 계급, 같은 신념, 같은 공동체, 같은 종교, 같은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서로 이 지고의 가족으로 묶여있다. 아무도 그대보다 우월하지 않고 열등하지도 않다. 그대는 모두에게 존경을 표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지고 존재의 현현이기 때문이다. 이해 되는가? 생각 잘했다. 따라서 인간사회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자 바램이다: 모두는 빠라마 뿌루샤가 현현한 모습이고, 감미로운 현현이므로, 그대는 항상 모두에게 나마스카로 존경을 표해야 한다.

편집자

[8월 13일 늦은 밤(탄트릭 진동이 가득한 어두운 밤) 산책 도중 바바는 왜 다른 나라에 입국하지 못하고 추방되었는지를 설명했다:]

"내가 위험한 사람이라고들 말한다.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상상해 보거라, 그들은 키가 5피트 2인치밖에 되지 않는 나를 두려워한다! 생선 가게 냄새가 어떤지 아는가? 으악!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비린내를 좋아한다. 비린내 나는 이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나를 두려워한다. 이기심은 정신질환이고 그들은 프라우트(진보적 활용론)에서는 이기심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산책 도중] 음악가인 태국의 젊은 마르기는 미래의 음악이 어떨지 물었다. 바바는 모든 나라의 포크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고 듣기 쉽다고 설명하면서 시작했다. 민속음악보다 높은 것은 세련된 음악을 뜻하는 클래식인데, 그는 서양 고전 음악, 인도 고전 음악, 중국 고전음악을 언급했다. 영적 또는 헌신적인 노래인 바잔은 고전음악의 높은 형태이다. 클래식보다 더 높은 것은 키르탄이다. 키르탄은 그대를 그것에 빠져들게 하는 음악이다.

키르탄을 들으면 시간을 잊게 되고, 밥을 먹었는지 잊게 되고 잠도 잊게 된다. 그것은 당신을 음악에 빠져들게 한다. 그는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오로지 신 뿐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잔 후에 그대 마음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어하지 않고, 키르탄 후에는 더 이상 바잔을 듣고 싶어하지 않고 명상만 하고 싶은 것이다. 만약 그대가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고 싶다면, 명상 후에 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다다 마헤쉬와라난다

바바, 방콕 시얌 방의 집에서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74. 타이완에서의 바바

피에쉬에서 야외 산책을 하던 중, 옴프라카쉬는 바바에게 언제 대만에 올 것인지 물었다. 바바는 오겠다고 했지만 언제 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해 말 1979년 8월 15일 대만 정부의 명예로운 손님으로 타이페이에 도착함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이행했다. 전례 없는 2주 동안 마르기들은 그를 대접했는데, 이것은 그가 인도 이외의 어느 나라에서도 보내지 않은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타이베이에서만 10번 이상의 일반 다르샨을 주었고, 타이중과 가오슝에서도 각각 한 번씩 주었다. 그리고 1979년 8월 17일 타이베이에서 DMC를 지휘하면서 DMC 담화 '인간과 이념적 진리'를 설하였다. 일부 발췌:

"모든 인간은 같은 아버지, 즉 우주 의식의 자녀이다. 그래서 이 점에서 어떤 차별성도 없어야 한다. 인간의 삶은 동물의 삶과 달리 이념적 흐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각자 인간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임무이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 이념적 흐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 빠라마뿌루샤는 인간 삶의 지고한 욕구, 지고한 목표이다. 그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빠라마뿌루샤를 사랑할 때, 마음의 그 모든 흐름이 헌신이다. 헌신으로 지고상태에 도달하고 빠라마뿌루샤를 얻게 된다. 영적인 길에서 최고 목표는 모든 인간의 진리를 향한 이념적 흐름이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8월 20일 아침 타이중(太中)에서 바바는 마르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는 빠라마뿌루샤(지고 의식)의 자녀이며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대의 생득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의 무릎에 앉는 것은 그대의 타고난 권리이다. 아무도 그대의 이 생득권을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두 그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류의 길이며,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대의 길은 영성의 길이다. 인간의 몸으로 축복받았을 때, 100 퍼센트의 인간이 되고, 빠라마뿌루샤와의 거리를 줄여라. 그리하여 마침내, 지고 의식과 하나가 되어라."

그날 오후 타이중을 떠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오랜 영예의 땅의 미래는 밝다. 그대들은 위대한 문화 유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땅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한다."

바바가 이리 말할 때 마르기들은 울었다.



바바는 대만 투어 동안 발에 종기가 진전해서, 의자에서 모시고 갈 가마가 만들어졌다.





타이베이에서 VIP 접대 후 공항 VIP실에서 바바와 수행원

타이베이 DMC의 바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75. 카히라 섹터에서의 바바

1979년 9월, 바바는 그의 마지막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그리스, 이스라엘, 터키를 방문했다. 그는 아테네에 하루 동안 휘몰이 같은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일반 다르샨 한 번, 하이파에서 두번, 이스탄불에서 세 번 주었다. 그리고 9월 14일 하이파에서 DMC를 선언하고 DMC 담화 '주관적 접근과 객관적 적응'을 발표했다.

"모든 각각의 개체는 지고 의식의 변형된 형태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지고 존재의 변형된 형태일 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적이고,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은 없다고 느낄 것이다. 또 그렇게 느껴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 의식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 만연한 진실성의 기준인 지고의 진실, 우주 의식을 깨닫게 되면, 완전한 평정을 얻고, 지고의 축복, 아난다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해탈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은 영원한 본성의 해방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따라서 그대 인생은 헌신의 순간에서 출발해서 헌신의순간에 정점에 도달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마두르 사다나의 개념이 거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솔로몬 왕 시대에 사람들은 언덕에서 명상하곤 했다고 바바는 반복해서 언급했다. 바바는 이제 마두르 사다나의 체계를 공식화했고 탄트라 또는 샤이바 탄트라(쉬바의 탄트라)의 주요 중심지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말했다.

<바바와 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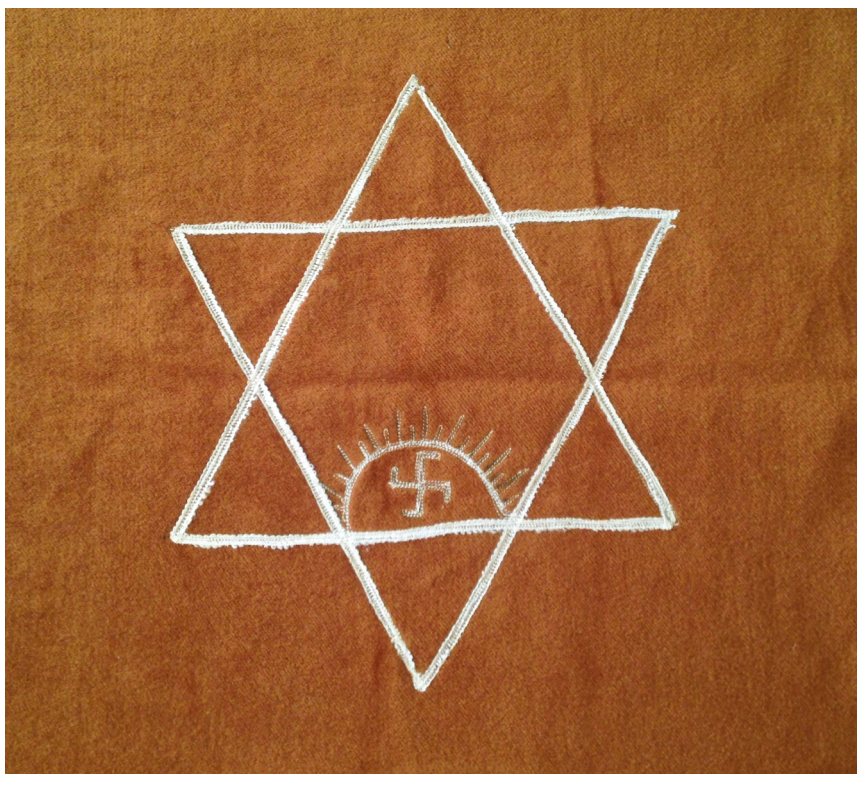
"하이파, 카르멜 산에서 바바는 아파트에 머물렀다. 바바를 위한 화장실이 하나, 다다용 화장실 하나, 그러나 디디용 화장실은 없었다. 그래서 디디는 옆집 이웃의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그 이웃은 이디시어가 모국어인 나이든 유태인 여성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디디들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갔고 그녀는 디디에게 특별한 것을 말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로 불렀다. 바바가 직접 찾아와 디디에게 화장실을 쓰게 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디시어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바바의 방은 계속 감시 중이었고, 바바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깔리야니 (이스탄불)

하이파에서의 바바



바바는 하이파에서 이 프라틱에 앉았다



이스탄불 베식타스 공원의 산책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76. 아이슬랜드에서의 바바

1977년 1월 24일, 아이슬란드의 안잘리 데비는 감옥에서 바바를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아이슬란드에 오십니까?" 바바의 대답은 "물론 가야지. 그들은 모두 내 자녀들이다. 그는 아이슬란드를 방문했고 도중에 그는 또한 오슬로에서 하룻밤을 아바니쉬의 집에서 머물렀다. 바바 말씀이 "아이슬란드는 얼음도 없고 그린랜드도 녹색이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굳은 용암으로 형성되어 척박하고 그린란드는 온 누리가 눈으로 덮여 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바바는 이번 투어에서 아이슬란드를 유럽 유일의 DMC 프로그램 개최지로 확정했다. 아이슬란드는 확실히 유럽 마르기가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 휴양지로 여겨지지 않았다. 게다가, 아이슬란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마르기가 더 적었다. 비록 그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분명히 한밤중에 이 태양의 섬에는 뭔가 독특한 것이 있었다. 몇몇 신비주의자들은 아이슬란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중심지라고 썼다. 나는 그들이 옳다고 느끼지만,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바바는 이 아이스란드는 아직 물 위에 솟아 있는 고대 아틀란티스 땅의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특정한 날에 십여 명의 WT들이 바바의 침실에서 그의 농담에 배꼽을 잡고 웃었다. 어느 순간 프랑스인 다다 루드레쉬와라난다를 보고 모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루드레쉬와라난다는 바바의 흥에 넘치는 프랑스어에 너무 기뻐서 웃느라 그대로 바닥을 굴렀다. 나중에 나는 바바가 그 방에 있는 물건과 사람들을 터무니없이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프랑스어 농담은 약 1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 후 나는 루드레쉬와라난다에게 "바바의 프랑스어 발음은 어땠나요?"라고 물었다.

"나보다 나아요. 바바는 완벽하게 파리 억양으로 말했지만, 나는 파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랐어요. 그의 어휘력도 나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바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프랑스어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비밀스런 우주의 유머감각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라고 루드레쉬와라난다는 대답했다.

<신비로운 스승과의 여행>

1979년 9월 18일 레이캬빅에서 바바의 DMC 담론은 '인간의 삶과 목표'였다. 그는 말했다:

"내가 'desideratum' (절실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단어는 항상 단수로 유지되어야 하며 절대 'desiderata'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desideratum'의 복수형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대의 접근 방식이 헌신적이어야 한다. 책을 많이 읽거나 책벌레가 되어서는 그를 얻을 수 없다."

그는 다음의 말로 끝마쳤다:

"우주적 '나'가 지고의 창조자이듯,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의 자손이다. 그는 자손의 창조주이고, 지고의 아버지이다. 그대는 그 지고의식과 가족 관계이고, 외부 형식적 관계가 아니다. 그는 그대의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외적인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그대는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은 그 안에 있고, 그분 밖에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그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안에 다 있다. 그리고 그는 그대의 지고 목표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대는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를 위해특별한 교육, 철학 지식 및 기타 외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우주적 실체에 대한 지고한 사랑이 그대를 그와 하나 되게 할 것이다."

레이캬빅DMC에서 바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77. 자메이카에서의 바바



DMC의 바바

희망식물원 산책

바바는 그의 마지막 월드 투어가 끝날 때쯤 미국 투어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미국 비자가 거부되었고 대신 자메이카에서 DMC가 준비되었다. 그는 1979년 9월 20일 킹스턴으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그는 르네상스 유니버설 연설인 세 번의 다르샨을 주었고 '프란시스 수녀들의 원죄없는 잉태 수도원'에서 DMC를 열었다. 그리고 Hope(희망) 식물원과 서인도 대학교 등에서의 산책에서 그는 카리브해의 섬들,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식물군과 동물군에 대해 이야기했다.







9월 22일 킹스턴에서 열린 바바의 RU 연설 'Dogma and Human Intellect' (도그마와 인간의 지성)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다:

"지적으로 발달했거나 지적 발전을 원하는 내 아들 딸들이 인간 사회의 모든 진보에 도움이 되는 지적 진보를 장려하기를 바란다. 그대 모두 지적 진보의 효용성을 느끼고 깨닫고, 나아가 전 세계 의 모든 큰 도시와 마을에서 RU(르네상스 유니버셜) 클럽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다음날 아침 그는 말했다:

"아들 딸들, 영적 열망자들이여! 그대들은 항상 도그마 앞에서 절대 항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 도그마들이 너무도 많은 성가신 일을 저질렀고, 인간 사회에 매우 많은 분열적 성향을 낳았다. 그대의 슬로건은 '도그마, 이제 그만!', '도그마, 이제 그만!' 이어야 한다. 교리의 경계에서 벗어나 탁월한 인간의 영광에 확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DMC 담화 '위대한 빠라마 뿌루샤'를 주셨다.

"빠라마뿌루샤는 지고의 은신처이다. 우리는 그에 의해, 그 안에 은신하여 결국, 그 지고의 핵에 은신할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그래서 영적인 길, 즉 최고 부정성에서 지고의 주체ㅈ로 나아감은 지식인, 지적인 사람, 교활한 사람, 영리한 사람을 위한 길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주에서 가장 영리하다고들 한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78. 베네수엘라에서의 바바



마지막 월드 투어에서 바바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일반 다르샨 세 번과 DMC를 선물했다.

아차리야 비슈와미트라는 식물원으로의 산책을 회상한다:

다다 라마난다는 바바가 정원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갈 때 그를 도와주고 있었다. 바바는 반쯤 내려가다 멈춰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옥에 서 나를 독살하려 했고 그것은 내 시력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 못했다, 그렇지? "우리 모두 '네, 바바, 그들은 성공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동물원 산보에서의 일을 아차리야
비슈와미트라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바바가 발산하는 사랑과 애정의 파장은 압도적이었다. 우리는 악어 옆을 걷고 있었고, 백로 한 마리가 악어의 이빨에서 고기를 뜯어내고 있었다. 바바는 '새와 악어는 조약을 맺는다: 새는 고기를 가져가고 악어는 이빨을 닦는다. 이것은 상호 협력의 좋은 예다.' 나는 바바에게 흰수염고래가곧 멸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바는 '아들아, 푸른 눈에 금발인 사람들은 언젠가는 멸종될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 문명의 폐허를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이들이 한때 매우 높은 건물을 짓고 첨단 기술을 가진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였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없었다' 라고. 아들아, 그대는 역사가 이렇게 쓰이기를 바라는가?' 나는 '아닙니다, 바바, 저희가 바바의 미션을 수행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아주 좋구나,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

1979년 9월 26일 '해탈의 길'이라는 제목의 그의 DMC 강연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영적 열망가들이여! 그대는 빠라마 뿌루샤가 항상 그대와 함께 있고, 그의 은총이 항상 그대와 함께 하며, 모두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는 지고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떠한 두려움 콤플렉스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가 지고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항상 그대를 부르고 있고, 그대는 항상 적절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날, 마지막 일반 다르샨에서 그는 말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과거의 모든 실수를 잊고 빠라마뿌루샤의 이상적인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그대의 삶은 지고의 목표를 향한 영광스러운 행진이어야 한다. 전 인류 사회가 그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대는 인류 문명의 횃불을 밝히는 선구자이다. 그대는 개척자이며, 새로운 문명의 선봉자이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79. 마르가 구루쿼터

바바는 어디에 머물든, 그의 거주지는 MG쿼터 (마르가 구루 쿼터)라고 알려져 있다. 바바는 그 각각의 MG 쿼터에 마두(감미로운)로 시작되는 산스크리트어 이름을 주었다. 그는 삶의 후반부는 대부분 캘커타에서 보냈고, 주로 머문 곳은 마두 말란짜, 레이크 가든(호수정원)과 틸잘라의 마두꼬락이었다. 그는 또한 DMC가 열릴 때 아난다 나가르에 있는 마두 카르니카에 머물렀고 투어 중일 때는 다른 MG 쿼터에도 머물렀다.

1979년 3월 4일, 바바는 새로 구입한 레이크 가든으로 이사하여 마두 말란짜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곳에서 3749곡의 프라밧 상기타 노래를 작곡했고, 147명의 사다카들(명상가)에게 마이크로 바이타 사다나를, 570명의 헌신자들에게 아바두타 딕샤(입문)를 주었고, 수천 명에게 개인 면담(PC)을 주셨다. 당시 본부는 레이크 가든에서 조금 떨어진 조드푸르 공원에 있었고 그는 매일 아침 10시에 그곳에 가곤 했다.

편집자

"수년 동안 바바는 마두 말란차 (향기로운 꽃 정원) 호숫가에 있는 그의 집에 머물렀다. 바바가 소중히 여겼던 세계 각국의 식물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이 곳에는 많은 헌신자들이 그의 발 밑에 누워 있었다. 많은 그들은 비가 오나 뜨거운 날이나, 노래 부르며 바바가 아침 저녁 산책 나오기를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단 한 마디 혹은 한 번의 눈길로, 너무나 많은 헌신자들은 그의 압도적인 부드러움을 경험하고 기쁨에 겨워 흐느껴 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이 곳에서는, 많은 헌신자들이 그와 함께 있다는 은총만으로도 가장 어려운 영적 상태를 성취했다. 여기, 너무나 많은 헌신자들이 그에게 진심으로 화환을 바치고,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으로 '이거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오, 네, 바바,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바가 황홀감과 생각에 잠겨 안 길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보며 말했다."

가야뜨리

마두 꼬락은 틸잘라의 새로운 중앙 사무실 및 WWD 사무실와 동일한 단지로 건설되었으며 바바는 1981년 5월 17일 처음으로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그곳에서 602곡의 프라밧 상기타를 작곡했고, 8명의 사다카에게 마이크로바이타 사다나를, 215명의 WT들에게 아바두타 딕샤를 주고 그리고 많은 마르기와 헌신자들과 개인 면담을 했다.

바바는 DMC를 위해 아난다 나가르에 머무는 동안 마두카르니카에 머물면서 142개의 프라밧 상기타를 작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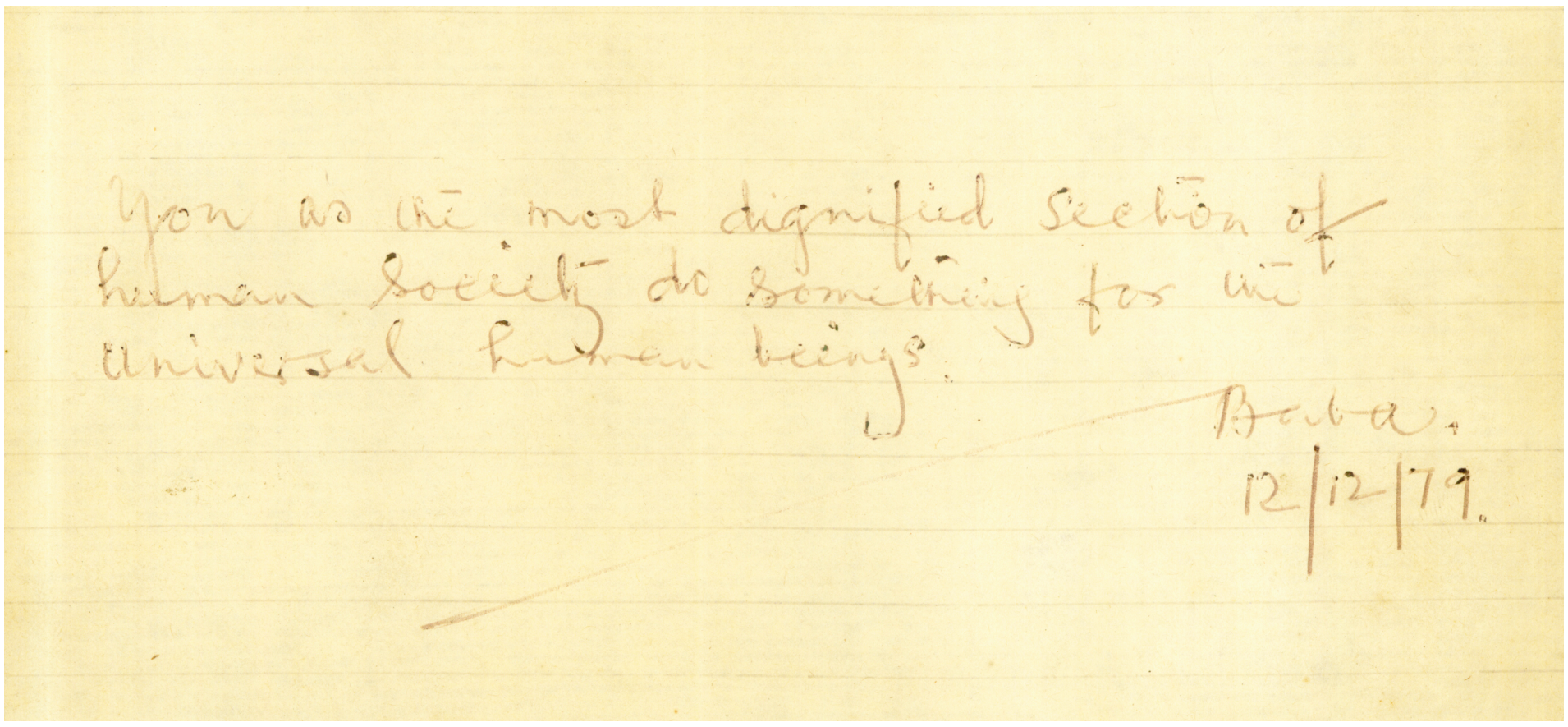
1989년 초에 '마두 마다비' 라고 불리는 MG쿼터가 비슈누뿌르(아난다 나가르와 캘커타 사이의 중간 지점)에 건설되어 바바가 두 목적지 사이에서 하룻밤 동안 머물 수 있었다. 그는 1989년 5월 26일과 6월 5일, 그리고 1990년 5월 30일과 6월 5일에 그곳에 머물렀다.

틸잘라, 마두 꼬락에서 걷는 바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80.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1979년 12월 12일, 바바는 캘커타 사우쓰 엔드 공원에 있는 여성 복지부 본부를 방문했고, 방문록에 이 메모를 썼다.

그 날 늦게 그는 말했다:

"내가 WWD 오피스를 방문했을 때, 내가 뭐라고 썼는가? 누가 읽어보거라."

누군가 읽는다: "인간 사회의 가장 존엄한 부분인 그대들은 보편적 인류를 위해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하거라."

바바는 계속한다: "왜 존엄한가? 모든 것을 적절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겠다. 모든 인간은 다른 판, 다른 거울에 똑같이 반영된 작은 투영체이다. 그리고 저 거울들은 무엇인가? 개체 마음이다. 개체 마음은 매우 다양하며, 각 개체에 반영된 지고 존재가 지바트마(개체 의식)이다. 개체 마음이 거울이고 개체에 반영된 빠라마뿌루샤가 개체의식이다. 그런 점에서 그대들 모두 존엄하고 성스러운 존재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화 또는 고귀함은 영적인 차원에 있다. 따라서 세속적 차원에서 존엄은 성화와 봉사에 달려있고, 신성함은 다른 것에 달려 있다. 지고 존재를 향한 삶으로, 의식이 고양 된 특정 인간과 접촉할 때, 사람들은 그를 성스러운 존재로 여긴다. 무엇이라 한다고? 성스러운 존재.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스러운 실체 또는 성스러운 존재로부터 사심 없는 봉사를 받게 되면, 그 성스러운 존재는 성스러울 뿐만 존엄하게 된다."

"나는 내 딸들인 그대들을 인간 사회의 존엄한 부분이라고 말했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100%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인간 사회의 존엄한 부분, 이 작은 고귀한 존재들이 더욱 더 존엄해지기를 기대한다. 고통받는 인류에게 이기심 없는 봉사를 함으로써, 사명을 다 함으로써 더욱 더 존엄해져야 한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썼다."

홀을 떠나면서 바바는 덧붙였다: "내 딸들이 이해하고 만족하기를 바란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81. 식물 프로그램 및 가든 투어

바바는 호수 정원(Lake garden)에 있는 마두 말란짜로 이사한 직후부터 박물관 소장뿐만 아니라 독특한 식물과 나무 소장도 시작했는데, 이후 틸잘라의 마두 꼬라커와 아난다 나가르에 있는 마두 까르니카까지 확장되었다. 그는 식물 관리를 감독하고 재배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식물의 기원과 역사, 약용과 다른 용도를 밝히고, 식물 이름 외에 산스크리트어 이름을 붙이고, 1980년에 그는 매달 2회의 정원과 박물관 투어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각 투어 그룹은 10– 2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으로 제한되었는데, 때때로 바바는 그룹별로 마르기와 WT들을 포함하여 마르기 아닌 일반인도 함께 승인을 해주었다.

1981년에 세계 식물 교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WT들과 마르기들은 캘커타에 올 때마다, 자신이 있던 지역에서 식물들을 가져와야만 바바를 만날 수 있었다. 인도 밖 8개 섹터와 델리 섹터 내의 10개 지역은 각각 매월 약 600종의 식물을 본부에 예치해야 했다. 게다가, 헌신자들이 캘커타에 보고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많은 추가 식물을 전달해야 했다.

총13,000여종의 식물이 매달 반입되었다.

편집자

마르가 구루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어느 날 그는 커다란 목화 나무를 지나쳤다. 그것은 그의 관심을 끌었다. 이 나무는 꽃이 보통 붉은색 대신 황금색이라는 점에서 특이했다. 마르가 구루는 이 특이한 종에 관심이 있었고 아바두티카 아난다 까루나 아차리야에게 씨앗을 입수하라고 했다. 그녀는 인도로 돌아오는 여행에서 씨앗 몇 개를 가지고 왔다. 11개의 식물이 발아했고 마르가 구루는 직접 그들 중 하나를 마두 말란짜에 심었다. 정원에 방문하면 집 오른쪽에 커다란 나무가 보인다. 그것은 무성한 정원에 어렴풋이 보이며 이웃하는 것 중 가장 높은 나무이다.

<내가 아는 대로의 아난다무르띠>











마두 말란짜에서
정원 투어를 하는
바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82. 바바 박물관

호수 정원 내 마두 말란짜에 있는 바바 박물관은 수년 동안 전 세계 헌신자들이 바바에게 선물해 준 현지 예술 작품과 문화로 격찬받은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아난다 나가르와 세계 각지의 화석뿐만 아니라 두 개의 위탁 예술 작품인 시바 릴라(시바의 삶을 그린 그림) 시리즈와 크리슈나 릴라 디오라마 시리즈도 있다.

1980년 바바는 시바 릴라 시리즈를 산티니케탄 비슈와 바라티대 미술교수였던 마닉 반도파댜에게 의뢰했다. 이 22점의 그림은 1층 박물관 전시실 벽에 다른 전시품들 위에 전시되어 있다. 이 세 점의 그림들은 디디 아난다 라마에 의해 디지털 방식으로 복원되었다.

정원 순회가 끝나면, 바바는 브라마 카말과 함께 다른 혹한기 식물이 있는 온실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사람을 옥상으로 안내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가장 흥미로운 화석을 포함한 대부분의 박물관 물품들이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는 1층 전시실로 내려오곤 했다. 그때 바바는 앉아서 코코넛 물 한 잔을 받곤 했다. 그는 손님들과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여행을 즐겼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쉬바 릴라 와크리슈나 릴라 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내게 요청했다. 그는 두 릴라에 대해 몇 가지 말씀하곤 했다. "이제 너희는 시바와 크리슈나의 삶과는 다른 사건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쉬바 릴라와 크리슈나 릴라를 투어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어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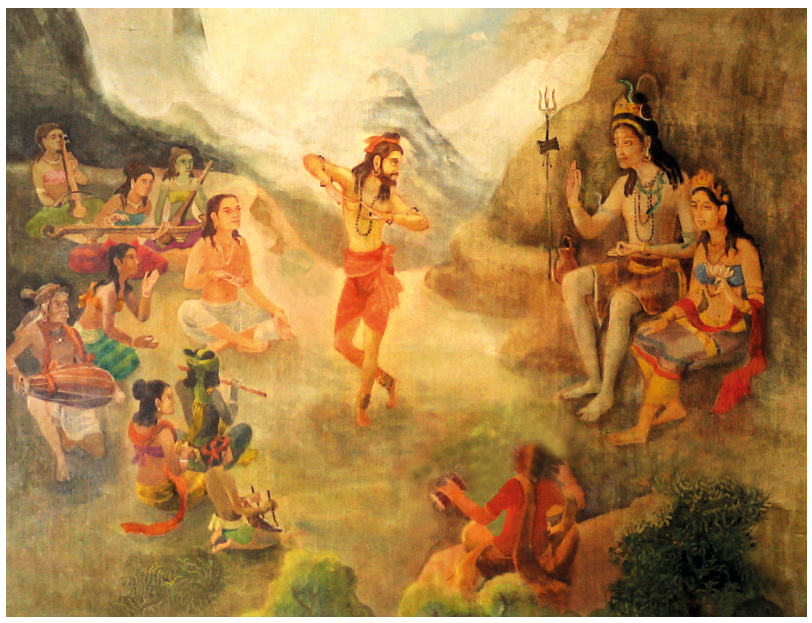
<아슈토시 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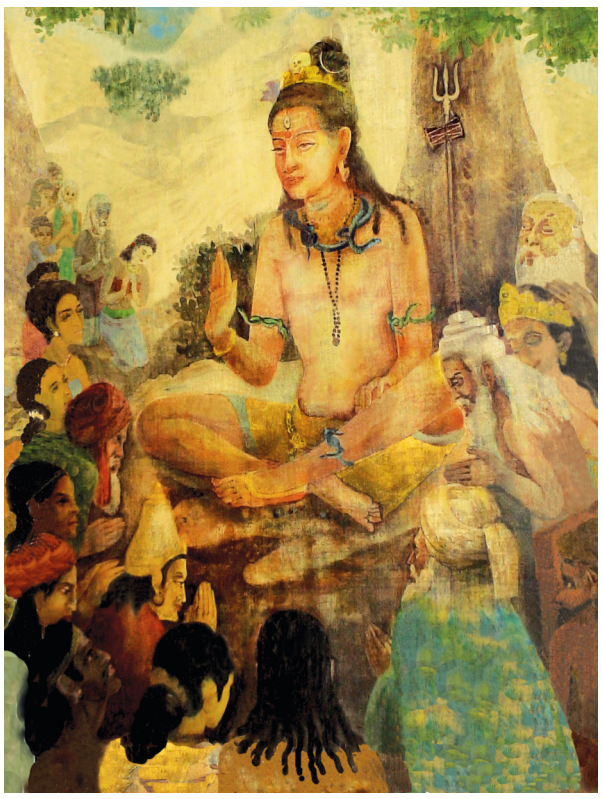
원래 캡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9. অষ্টাবক্রকে যোগ শিক্ষাদান ('아쉬따바끄라에게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시바')
11. ভরতমুনিকে সঙ্গীত শিক্ষাদানরত শিব ('바라타 무니에게 노래와 리듬의 기술을 가르치는 시바')
16. ধর্মপ্রচাররত শিব ('다르마 프라차를 하고 있는 시바')

편집자







위 쉬바 릴라 9, 11, 16

아래: 일부 소장품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83. 달마 사믹샤

1981년 여름, 5월부터 7월까지, 바바는 달마사믹샤라고 불리는 전례없는 영적 점검을 위해 전세계의 마르기와 WT들을 불렀다. 그들은 그룹별로 들어가 한 명씩, 그의 앞에 서고, 그러면 바바는 그들의 과거 행적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의 상스카라를 보여주며, 그들 미래의 영적 진보를 위해 교정 조치를 적한다.

편집자

영적 열망가는 가서 오체투지 하기 전에 그 앞에 선다. 마치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삶 전체를 완전히 스캔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결함을 지적하고, 때때로 상스카라를 제거하기 위해 약간의 가벼운 체벌을 가했으며, 개인 아사나를 처방하고, 다른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보통 아차리야 비자야난다가 메모를 하고 나중에 관련 사다카에게 전해주곤 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

1981년 7월 25일, 바바는 다음과 같이 달마 사믹샤에 대한 말했는데 이하는 그 일부이다:

"달마 사믹샤의 주된 목적은 개체 존재를 닥다비자(타버린 씨앗, 즉 상스카라가 완전히 소멸됨)로 만드는 것이다. 인류 역사의 15,000년 동안 이와 같은 달마 사믹샤는 없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분명 좋은 사람들이다. 너희들 중 몇몇은 5천 마일이나 1만마일 떨어진 곳에서 왔고, 근처에서 온 사람도 있다. 너희들이 여기에 모인 배경에는 분명 정묘한 이유가 있다. 너희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온 것이다. 근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오지 않는다. 내 생각에, 빠라마 뿌루샤는 이 좋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따라서 빠라마 뿌루샤가 죄의 일부를 없애 준다면, 무거운 짐을 덜고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죄와 상스카라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은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들 공동의 노력으로 그들은 이 지상에 천국을 가져 올 것이다. 그러므로 달마 사믹샤는 지난 만 오천 년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일이다."

스웨덴 북부 출신 마르기 자매 아루나가 바바 앞에 섰다. 그녀의 이름, 직책 등의 형식적인 것들을 거친 후, GS 다다(총비서)는 그녀에게 16포인트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바바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막았다.

우리 모두 놀랐다. 이것은 마르기가 흠잡을 데 없다고 선고한 첫 사례였다.

나는 아루나의 얼굴을 보았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런 평가에 에고가 커졌을 텐데, 대신 그녀는 자의식이 없어 보였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다. 그녀는 바바와 함께 있는 황홀경에 빠졌다.

<신비로운 스승과의 여행>

달마 사믹샤는 죠드푸르 공원에 있는 1층 캘커타 사무실에서 행해졌다. 이 사진은 그 즈음의 이 건물의 외부 전경이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84. 네오휴머니즘 (신인도주의)

1981년 12월 31일, 바바는 아난다 나가르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회 평등 원리의 개념에 대해 설했으며, 이 개념은 획기적인 저서 <지성의 해방: 네오휴머니즘>에 일부 수록되었다.

이듬해 초 그는 1982년 2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거의 일요 다르샨 담화 시리즈를 책의 나머지 부분으로 실으면서 네오휴머니즘 사회 이론을 계속 제시하였다.

편집자

그러나 사실 그는 그 이전에 적어도 10년 동안 "Nayá Mánavatávád 또는 Navyamánavatávád" (네오휴머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지성의 해방: 네오휴머니즘 >이 발행된 지 6년 후, 그는 그의 다른 네오휴머니즘 관련 담화들을 담기 위해 고안된 시리즈의 시작을 승인했다: 이는 <지성의 해방> 이전에 나왔던 담화들, <지성의 해방> 이후에 나왔던 담화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담화들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 시리즈의 두 부분인 <Neohumanism in a Nutshell>의 1권과 2권은 바바 생전에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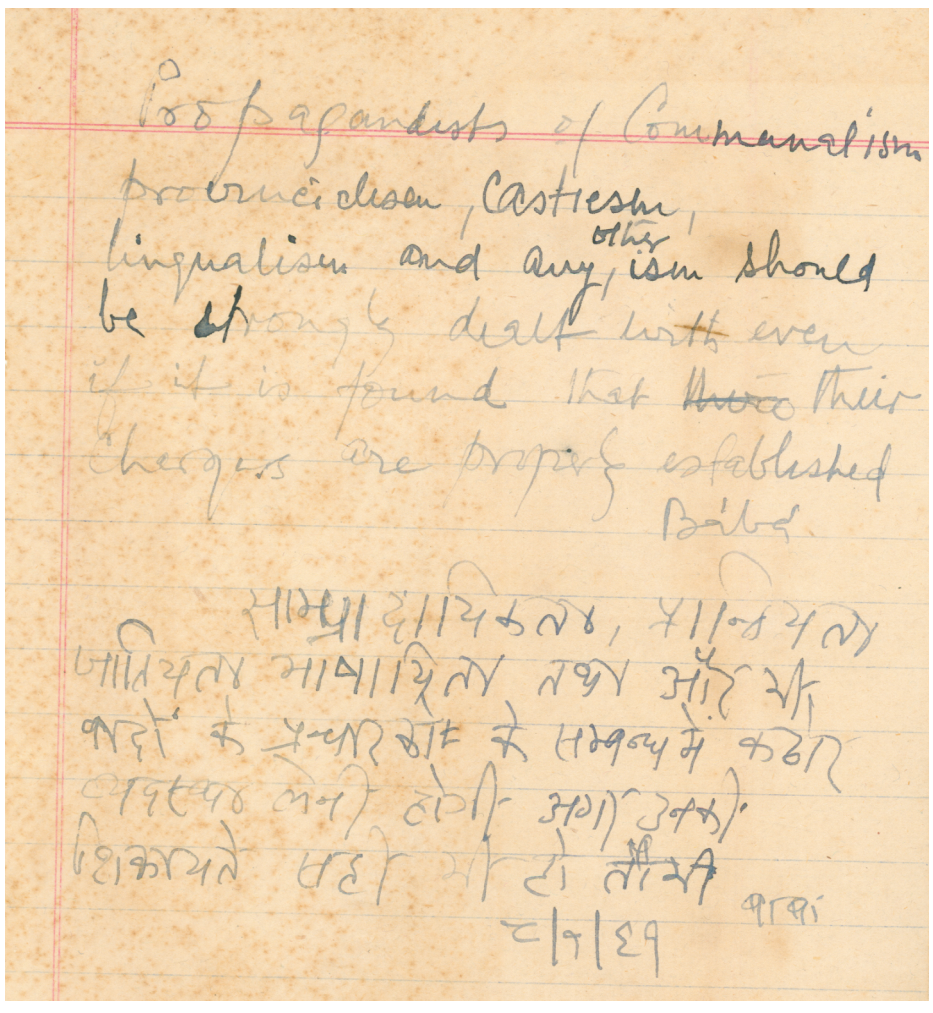
<Neohumanism in a Nutshell>발행인 후기

일부 인용문 <지성의 해방: 네오휴머니즘>:

"네오휴머니즘의 기본 정신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확장될 때, 나는 이것을 '네오휴머니즘'으로 칭한다. 이 네오휴머니즘은 인도주의를 이 우주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사랑인 보편주의로 격상시킬 것이다."

1982년 2월 21일 캘커타

바바의 자필로 1961년 1월 8일에 쓰여진 이것은 바바가 공식적으로 이 용어를 소개하기 전에 네오휴머니즘의 개념을 표현한 초기 사례이다



"[휴머니즘]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영감의 원천에 의해 동기 부여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네오휴머니즘이라고 부른다."

1982년 2월 28일 캘커타

"인류가 네오휴머니즘에 더 많이 확립될수록, 그들은 외부 세계의 색깔 대신 내면의 색깔에 더 많이 몰입될 것이다."

1982년 3월 9일 캘커타

"네오휴머니즘이란? 네오휴머니즘은 과거의 휴머니즘, 현재의 휴머니즘, 그리고 새롭게 설명되는 미래의 휴머니즘이다. 네오휴머니즘은 인간 존재에 대한 바로 그 개념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새로운 해석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창조된 우주에서 가장 사려 깊고 지적인 존재로서 전 우주를 돌봐야 한다는 큰 책임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우주 전체에 대한 커다란 책임이 인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1982년 3월 29일 캘커타

"네오휴머니즘에 따르면, 궁극의 최고 목표는 개체의식의 핵을 우주의식의 핵과 합일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주 질서 내 모든 개체의식은 우주의식의 통제 핵과 하나가 되며, 그것은 네오휴머니즘의 최고의 표현이 된다."

1982년 3월 29일 캘커타

수 년 후 1988년 4월 13일 바바는 이와 같이 말했다:

"모든 편협한 '사상'은 보편적인 우주관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 '사상' 주변으로부터 모든 물리적 장벽, 정신적 장애, 영적 장애가 제거되었을 때만 모든 사람들에 의해 보편적 우주관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지성의 해방: 네오휴머니즘>에서 설명한 새로운 생각이다. 이 새로운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네오휴머니즘이라는 용어를 이 책에썼다."

바바는 아침 산책 후에 호수 정원의 계단을 오르던 중 멈춰 서서 물었다. 네오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답이 없자 그는 이와 같이 말했다: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생명체나 비생명체 모두 전체를 포용하는 것으로 확장될 때, 그것이 바로 네오휴머니즘이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85. 프라밧 상기따

1982년 9월 14일 비하르에서 바바는 그의 첫 번째 프라밧 상기타('신새벽의 노래')를 작곡했다. '상기타'는 보컬, 기악, 춤의 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작곡가의 이름을 따서 음악학교의 이름을 짓는 전통에서 프라밧으로 접두사를 붙였다. 또한, 프라밧은 새벽을 의미하기 때문에, 프라밧 상기타는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의미한다. 바바는 3개월 만에 150곡 이상을 작곡했고, 이후 8년 동안 총 5000곡 이상을 작곡해 이전의 유명 작곡가들을 능가했다.

편집자

대부분의 곡들은 벵골어로 작곡되었지만 40곡 이상이 다른 언어로 되어 있다: 영어, 산스크리트어, 힌디어, 우르두어, 마가히, 마이틸리 그리고 앙기카 언어이다. 프라밧 상기타는 대부분 인도의 중요한 고전과 민속풍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러한 스타일과 페르시아, 스칸디나비아, 중동, 중국 그리고 세계의 다른 중요한 음악풍을 혼합한다. 이 작품 속에서 우리는 헌신의 노래, 신비적 갈망에 대한 노래, 본성에 대한 영적인 각성의 노래, 자연의 노래, 사회적 부활의 노래, 민요, 동요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결혼식, 생일, 공공 축제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위한 노래 또한 찾을 수 있다.

프라밧 상기타의 공연은 종종 춤과 함께 부르는 노래로 빠르게 거의 모든 아난다 마르가 행사의 특색이 되었다. 만약 그 행사가 DMC로 알려진 주요한 영적 모임이라면, 벵골어 가사가 영어와 힌디어로 번역되어 낭독되기를 작곡가는 바랐다. 아차리야 바자야난다 아바두타는 행사에 앞서 영어 번역본을 준비해서 읽는 일을 맡았고, 아차리냐 찬드라낫은 힌디어로 읽었다.

해마다 프라밧 상기타는 새로운 수준의 인기를 얻었고, 이제 음악계의 많은 유명인들이 녹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프라밧 상기따> 발행인 글

바바가 육체를 떠나기 며칠 전, 바바에게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무 작업도 하지 말라고 자신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계속 프라밧 상기타의 노래를 작곡하고 있다고 의사들이 항의했다고 다다 케샤바난다는 말했다. 하루 동안에만, 그는 13곡을 썼다. 한 의사가 거세게 항의하자 바바는 프라밧 상기타를 작곡하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샵다 차야니카(바바가 쓰신 말의 백과 사전)을 쓰는 것도 즉흥적인 표현이다. 이런 과정을 나의 '일' 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나의 '즐거움'이라 칭해야 한다.

케샤바난다는 바바에게 있어 무엇이 "일'인지 물었다. 바바는 "내가 아난다 마르가, 프라우트, 마이크로바이타, 네오휴머니즘에 대한 생각을 개념화했을 때, 이 독창적인 혁명적 창조물들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대답했다.

<신비로운 스승과의 여행>

그때 다다 케샤바난다가 또 다른 질문을 했다. "바바, 어떤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으셨습니까?" 바바는 프라틱을 디자인하는 데 가장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20. 바바, 프라틱을 디자인 하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걸렸는지.

1990년 10월 20일, 틸잘라에서 바바가 마지막 노래(구루쿨 노래)를 만드심으로써 총 5,018곡의 노래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기타 다른 노래도 발견되었다고 하며, 그래서 총 5,019 곡이라도 말한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노래들은 라빈드라 상기따 수의 두 배이다. 이는 바바가 프라밧상기따 작곡을 시작한 초기에, "나는 라빈드라낫 [타고르]보다 더 많은 노래들을 쓰겠다"라고 편하게 장담했던 것을 이룬 셈이다.

인도식 풍금인 하모늄에 맞춰 프라밧 상기타를 부르고 있는 마르기들. 다다 다사랏은 오른쪽에.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86. 역사 탐방

수년 간 DMC 투어를 하는 동안, 바바는 종종 역사 유적지와 고고학적 유적지를 방문하곤 했다. 1962년 2월에 그는 불교와 자이나교의 고고학적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2주 동안 란치에 머물렀고 1966년 인도 순방 동안 종종 고대 사원들과 다른 유적지들을 그의 야외 산책의 일부로 포함시키곤 했다. 아난다 나가르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아스티 파하르(화석 동산)와 나바차크라 구하 (9개 차크라 동굴)와 같은 역사 유적지를 알려주었다. 그는 아난다 나가르가 위치한 '라르'의 고대 땅에 대해 "바다 위에 남아 있는 이 곤드와날랜드의 가장 오래된 지역인 '라르'는 인류의 탄생지였으며, '라르'에 있는 아난다 나가르 언덕도 최소 3억 년 이상 되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히말라야가 없었고 적어도 그 언덕들 중 하나는 한때 히말라야보다 높았다고도 말했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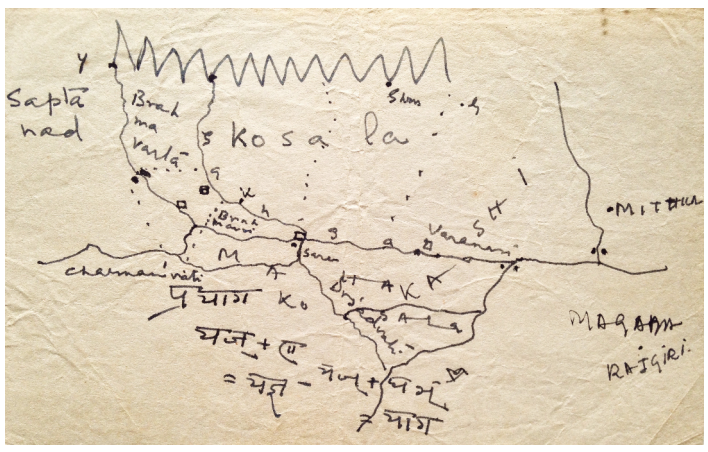
특히 1979년부터 수년간, 영적 모임이 그의 주된 여행 목표가 아니었을 당시에는, 바바는 수행원들과 종종 외딴 지역을 지나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다. 그런 때 그는 동료들에게 그 장소와 사람들의 역사, 즉 현존하는 역사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사를 설명하곤 했다. 1984년 주목할 만한 투어를 마친 후, 그는 이러한 투어를 "역사 탐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길 따라 역사>발행인 글

1984년 첫 4개월 동안 북인도를 방문하면서 바바는 많은 유적지를 방문했고 각 지역의 잊혀진 역사와 현지인들의 문화유산에 대해 폭넓게 말했다. 역사학 교수, 아차리야 라구낫이 동행하여 1994년 출판된<피.알.사카르 사학>의 관찰 내용을 기록해두는 임무를 맡았다.



1960년 9월 29일 쿠시나가르에 있는 파리니르바나 사원 앞에 서 있는 바바



바바가 그린 아리안 침공 경로 지도

1987년 바바는 <Varńa Vijiṇána(문자학)>, <Varńa Vicitrá(다양한 문자 사용법)>과 <Shabda Cayaniká(단어 모음집)>의 역사적인 구절이 <길 따라 역사>라는 제목의 새 책으로 엮어지도록 지시했다. 같은 해에 다음과 같은 헌정의 글을 담아 출판되었다:

"길 따라 가다 마주쳤지만 자비롭게 보지 못했거나, 사려 깊은 시선을 보내지 못했거나,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자신이 알려지지 않은 혈통이라고 생각하거나 추방자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나는 그 존재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몇 자 적었다. 나는 인간, 동물, 새, 나무, 덩굴식물, 꽃, 열매와 함께 진동하며 생명으로 박동하는 이 우주의 창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글을 썼다. 나는 어떤 지리적 거리나 장벽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모두 내 핏줄이다. 내 존재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웃으면서 받아주면 기쁠 것 같다."

1966년
마드라스 산책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87. 바바의 일상

바바의 일상은 그의 다양한 삶의 국면에 따라 수년간 변화했다.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매일 아침 2~3시간 그리고 저녁 1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영적 수행;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들판 산책 (종종 말년에 두 번), 각 단계와 지역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조직 업무, 그리고 그가 투어 중이거나 아니었거나 항상; 보고서와 좋은 소식 보고 받기; 개별 면담; 일반 다르샨, 일반다르샨 담화 내용에 대해 상술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구술하고 받아쓰게 하는 일; 물론 프라밧상기따: 그리고 물론 목욕, 식사, 휴식, 수면과 같은 일상은 되도록 최소화되거나, 저서를 위해 구술하기와 프라밧 상기타를 주시는 일 등 다른 일과 병행되었다. 바바 자신이 마사지를 받는 시간 동안에도 헌신자들에게 개인적인 조언과 관심을 기울이는 일들을 병행했던 것처럼 말이다. 한편, 바바를 마사지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탐내는 일이었다.

바바는 "시스템이 없는 속도는 위험하고, 속도가 없는 시스템은 무용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모든 것은 시스템에 따라 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맨발로 눈밭에 있을 때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발은 뜨거웠다. 시스템을 만들어라. 나는 5년 4개월 2일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델리에서 특수 의료팀이 왔을 때, 의사는 '바바의 심장은 우리 심장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기억력도 부족하지 않았고 두뇌에도 문제가 없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였을 때부터 나의 기억력은 완벽하다. 다 기억한다." 라고 하였다.

바바가 캘커타에 살았던 몇 년 동안, 식물원이나 순다르반과 같이 우리가 그를 야외 산책으로 모 시는 몇몇 빈번한 목적지가 있었다. 예를 들어, 바바가 배 타고 앉아있는 방 안의 파란 사진은 식물원 가는 길에 후글리강을 건너는 동안 찍은 것이다. 순다르반처럼 조금 멀었다면 하루전에 바바에게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빈번한 행선지는 그늘진 산책로로 둘러싸인 골파크 근처의 큰 호수인 라빈드라 사로바였다. 그곳은 레익 가든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고 걷기 좋은 곳이었다. 특히 밤에 우리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근처로만 그를 모시고 갈 수 있을 때에 적격이었다.

<아슈토시 바바>



식물원 산책 가는 길에 후글리강을 건너는 나룻배에서 찍은 '파란 사진'

아난다 나가르, 마두 카르니카의 옥상을 걷는 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88. 개별 접견(PC)

바바와 개별 접견은 제자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경험은 아니더라도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제약과 예절 때문에 바바는 남성 제자들에게만 개별 면담을 허락할 수 있었다. 그 개별 만남에서 제자의 상스카라를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이라면 다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제자의 마음을 고양시켜 엄청난 영적 동력을 주었다. 애정어린 아버지의 사랑으로 쓰다듬든, 무릎에 앉히든, 아니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아들아, 인류에 봉사해라"고 말하든, 제자는 새로운 사람, 새롭게 영감 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수많은 개별 접견 사례에서 일련의 공통적인 일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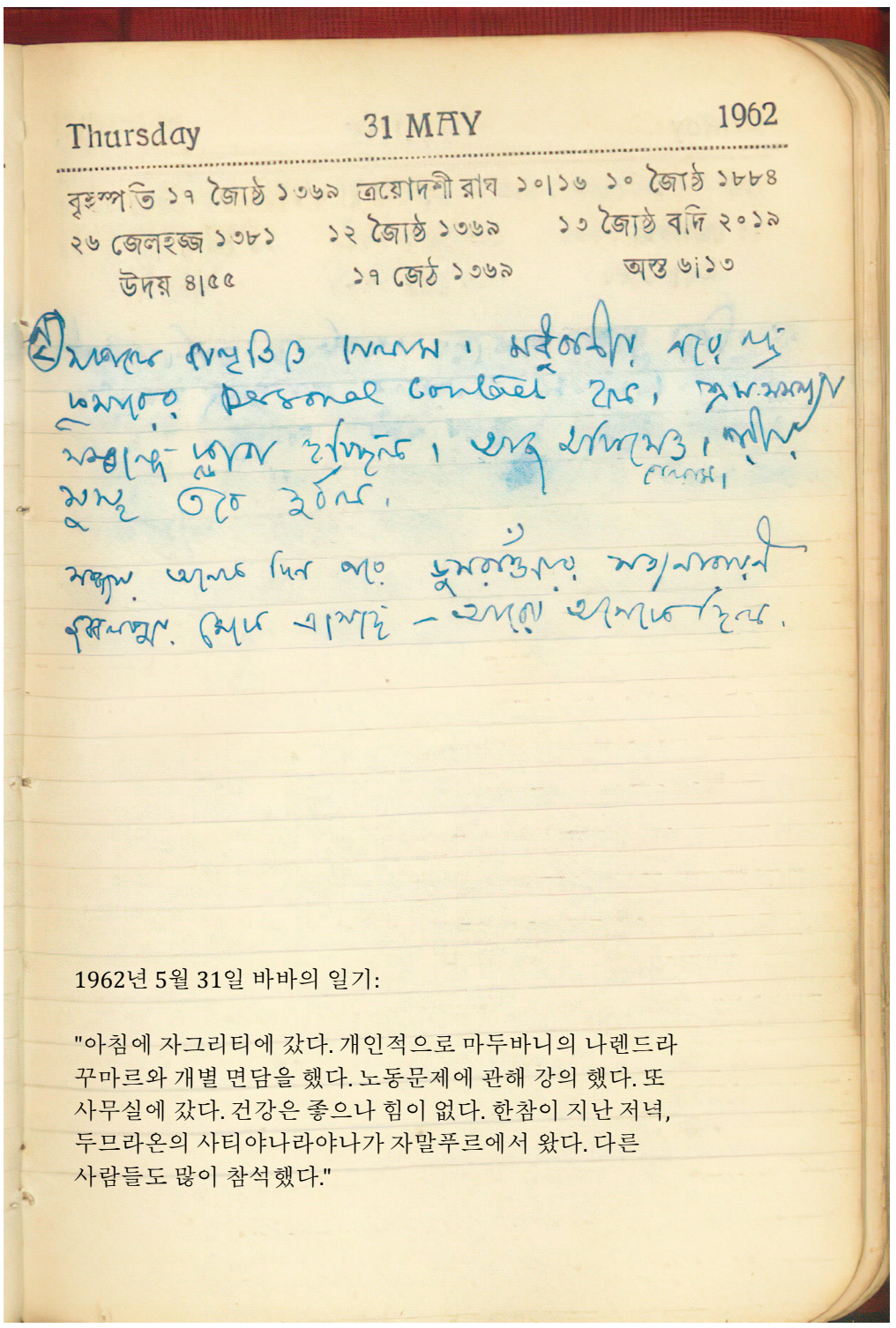
접견받을 이가 바바의 방에 들어가서 사스탕가 프라남(오체투지)을 하고 그 앞에 앉는다. 바바는 그의 이름, 출신지, 직책, 의무 등을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바는 그의 전지전능한 비전으로 이 헌신자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그의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캐내곤 한다. 바바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잊었을지도 모르는 것까지도. 그에게 숨겨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는 그가 집중하기로 선택한 제자의 모든 악행을 꾸짖고, 심지어 그의 지팡이로 벌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바바는 이 헌신자가 자신을 개선하고,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의무를 맡고, 고통받는 인류에게 봉사하겠다는 어떤 약속을 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나서 바바는 어떤 세속적인 사랑이나 애정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애정을 그에게 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아갸 차크라에 엄지 손가락을 대고 사하스라 차크라에 나머지 손가락을 올려 축복을 준다.

편집자

1960년 바바의 고락푸르 방문 중 프라타파디탸는 바바에게 어떻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는지 물었다. 바바가 대답했다:

"프라타파디타, 만약 네가 네 의식층의 마음을 인과의 마음(초의식층의 마음)처럼 정묘하게 만든다면, 너는 누구의 마음 깊은 곳에도 침투하여 그 마음의 시초부터 겪었던 모든 경험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인과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 마음을 정묘하게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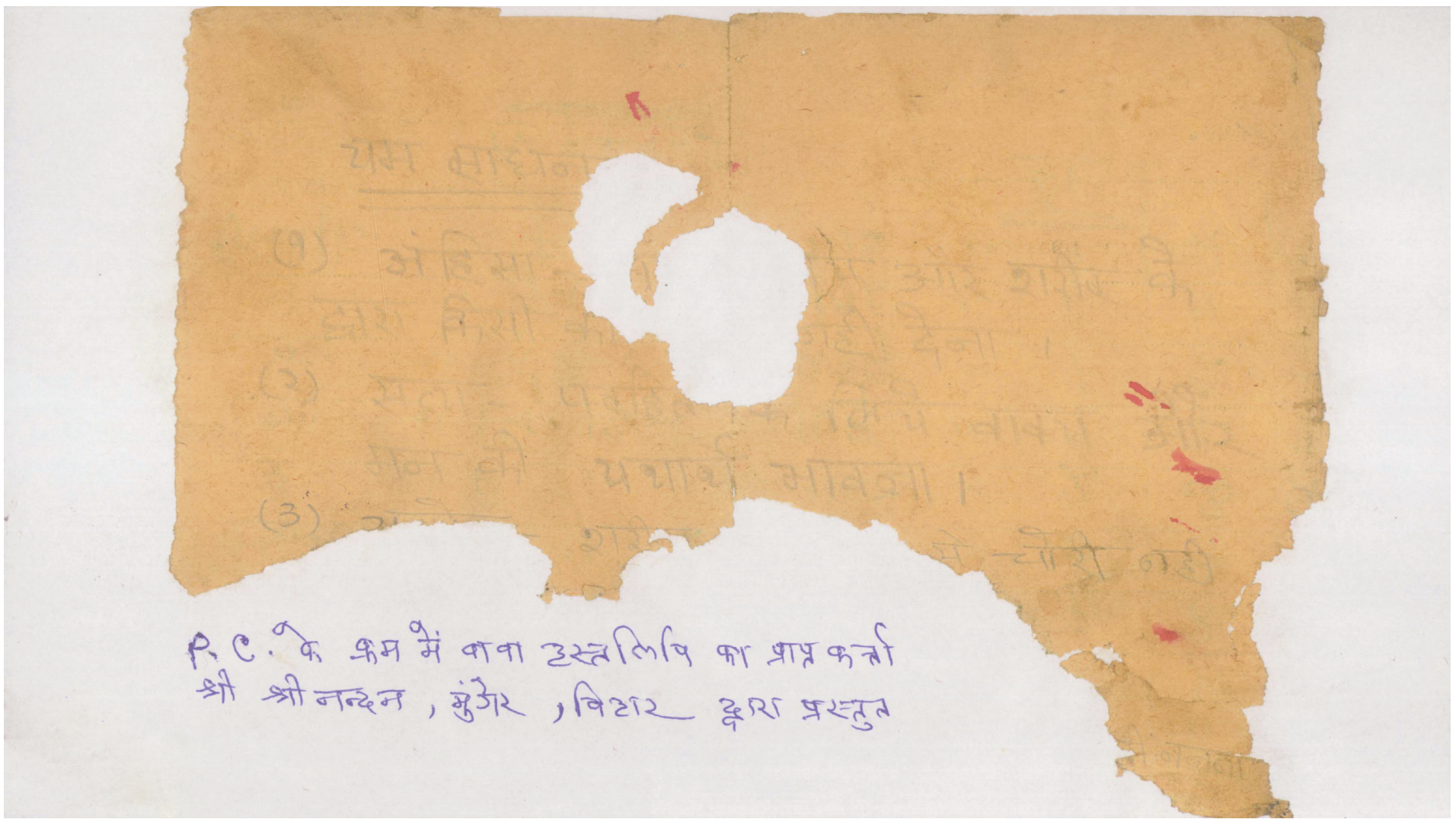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Thursday 31 MAY 1962

1962년 5월 31일 바바의 일기:

"아침에 자그리티에 갔다. 개인적으로 마두바니의 나렌드라 꾸마르와 개별 면담을 했다. 노동문제에 관해 강의 했다. 또 사무실에 갔다. 건강은 좋으나 힘이 없다. 한참이 지난 저녁, 두므라온의 사티야나라야나가 자말푸르에서 왔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참석했다."

바바가 개별 면담 후 제자에게 쓴 친필 편지의 단편. 하단에 있는 메모에는 '개별 면담 후 슈리난단에게 전해 주라고 지시'라고 적혀 있다.


P.C. के क्रम में बाबा हस्तलिपि का प्राप्त कर्ता
श्री श्रीनन्दन, मुंगेर, बिहार द्वारा प्रस्तु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89. 혁명적 결혼(RM)

바바는 혁명적 결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를 분리하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다른 인종과 문화간의 결혼을 통해서이다. 다른 카스트 출신의 소년소녀가 결혼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것은 그들 자신의 카스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들의 아이들은 카스트가 없을 것이다. 이 땅의 소년이 영국에서 온 소녀와 결혼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영국이 망하는 것을 절대 보고 싶지 않을 것이고 그 반대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도 반영국나 반인도적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혁명적 결혼이 이런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1957년 자말뿌르에서 바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난다마르가 단체 행사에서는 모든 인종, 카스트 또는 종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지역 사회나 카스트, 인종 또는 국가는 종종 결혼을 주선할 때 주된 고려사항이다. 마르가에는 그러한 고려사항이 없다. 마르가에서는 사람 간의 이런 사소한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아난다 마르가에서는 남녀 모두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다. 마르가에서는 결혼에 대해 규정된 방식으로 남녀 모두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성과 남성은 같은 입장이라고 여겨져야 하며, 남성들이 스스로가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여지도 없다."

1959년 10월 17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성들에게 경제적 독립을 허용하고 카스트간 및 국제결혼을 장려함으로써 지참금 제도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부당성을 없앨 수 있다. 그런 움직임이 현재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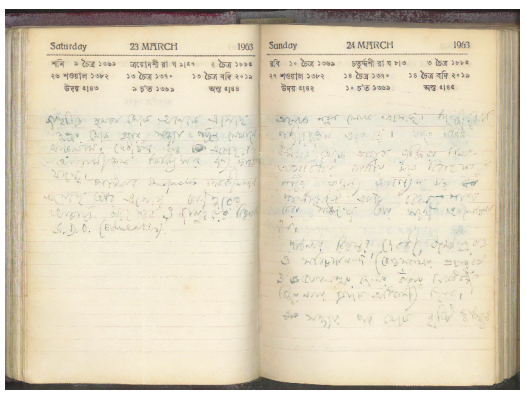
그리고 1978년 10월 15일 파트나에서 그는 말했다:

"비록 이것이 행동강령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혁명적 결혼' 방식에 따라 형제, 자매, 아들 또는 딸의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하거나 결혼을 주선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아차 리야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고려하는 바이다. 이렇게 하면 아차리야가 되어서 권리를 누릴 기회의 문이 닫힐 것이다. 혁명적 결혼 시스템에 따라 결혼한 사람과 결혼 후 아난다 마르가에 합류한 사람은 형제자매의 혁명적 결혼을 주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형제 자매가 이미 결혼했다면, 적어도 그들은 아들과 딸의 혁명적인 결혼을 주선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정말 논리적인 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직에는 위선자가 설 자리가 없다."

1990년 8월 말, 바바는 다다 케샤바난다에게 "아난다 마르가의 실질적인 가장 큰 공헌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다다는 서로 다른 것들(Prout, Microvita, AMURT 등)을 생각해냈지만 바바는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혁명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바바는 "그렇다. 혁명적 결혼은 아난다 마르가의 실질적인 가장 큰 공헌이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종, 카스트, 종교 그리고 다른 분열된 사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바바는 아난다 마르가가 다양하게 아무르트, 바바남 케발람 키르탄과 혁명적인 결혼을 통해 알려질 것이라고 한 번 이상 언급했다."

바바의 일기장 1963년 3월 24일:

"샤쉬란잔이 델리에서 왔다.
나는 그와 함께,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 장애없이
마르가의 원칙대로 결혼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1987년 12월 14일, 바바는 1966년부터 1974년까지 아난다 나가르에서 학교를 다닌 란치 출신의 좋은 마르기 가정의 킹슉을 입양했다(그의 예전 이름은 라잣두따였다). 아차리야 킹슉은 1989년 12월 12일 아차리야 하라 프라사드의 막내딸 타누카와 결혼했다. 바바는 결혼식에 참석했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90. DMC (대법회)

달마 마하차크라(DMC)는 바바가 마르가 구루로서 설법하는 가장 공식적인 영적 모임이었다. 그것들은 그가 몸소 참석할 때만 개최되었고 그가 그의 바라바야 무드라를 주어야만 DMC로 간주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달마 마하삼멜란 (DMS)으로 공표되었는데, 이 중 그가 직접 참석한 것은 단 세 번 이었다: 독일 티머른에서 한 번과 인도에서 두 번 이었다.

1980년대까지 DMC의 이벤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대법회가 열리는 대형 천막(판달)에 바바의 도착, 바바에게의 화환식, 프라밧상기타의 노래, 결혼 축복을 주는 바바, 상을 주는 바바, 바바 앞에서 카오시키, 탄다바 춤 진행, 바바의 DMC 담화, 바바의 바라바야 무드라, 구루 푸자, 바바의 축복과 마지막으로 아바타 키르탄 하는 동안 바바가 떠났다.

바바는 1966년 1년 동안 39회를 개최하였고, 그의 일생 동안 약 350회의 DMC를 개최했다. 우리는 현재 215회의 DMC 담화 기록이 있다. 다른 것들은 기록되지 않았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후에 분실된 것들이다.

1989년 1월 1일 아난다 나가르에서 바바의 DMC 담론은 '정신적 변형과 관련된 생물학적 변화와 그 역인 생물학적 변화와 관련된 정신적 변형'이었다. 이 강연은 다음으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그대들의 미래는 밝을 뿐만 아니라 보장된 것이다. 모든 종류의 도그마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영적 삶이 가까운 미래에 올 것이다. 이 내향적 단계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실체가 모두 전진하는 이 영원한 Parama Puruśa의 유희에서, 언젠가는 정신 영역이 영적으로 올라가고, 개체의식이 우주의식과 하나될 것이다. 빠라마 뿌루샤 또한 그 상서로운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그대와 함께 한다. — 그는 그대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우주의 창조물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 그저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일을 계속하고, 그가 하는 말을 열심히 지켜라. 그대들의 고귀한 행동과 영적 추구에 의해 그를 향한 내면의 속도를 가속화하라. 그 황금같은 날이 빨리 오도록 하고 인생을 찬란히 빛나게 하라."

1989년 6월 4일 아난다 나가르 DMC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91. 바라바야 무드라

용감함과 축복을 주는 몸짓인 바라바야 무드라는 바라무드라와 아바야 무드라의 합성어이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고 바깥쪽을 향하도록 왼쪽 허벅지에 놓이고(바라 무드라), 오른손은 바깥쪽을 향하도록 손바닥을 올린다(아바야 무드라).

바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바야'는 '두려움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창조와 파멸의 환상에 직면했을 때, 지고의 실체는 우리에게 '긴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창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만약 사람이 마음을 바라바야 무드라에 집중한다면, 청각세포나 다른 신경세포에 대한 양성 마이크로바이타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떠한 것도 보지 말고 이 두 가지 무드라만을 바라 보거라. 마이크로바이타는 이 두 무드라를 통해 방사된다. 이것이 내적인 비결이다."

바바는 각각의 DMC 담화 후에 바라바야 무드라를 주었는데 대개는다음의 특별한 축복을 주기 전, 때로는 후에 주곤 했다.

Sarve'tra sukhinah bhavantu sarve santu nirámayáh;
Sarve bhadráńi pashyantu na kashcid duhkham ápnuyát.
Oṇ́m shántih oṇ́m shántih oṇ́m shántih.

1989년 6월 4일아난다 나가르에서 열린 '열의, 유추 및 성향' 강연 후 그는 축복의 번역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의 바라바야 무드라 관련 사진이 촬영되었다]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도록 하라; 모든 이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라; 모두가 모든 것의 밝은 면을 보게 하라; 환경적 압박으로 인해 어떤 곤란에 처하는 이가 없도록 하라. 옴 샨띠 옴 샨띠 옴 샨띠."

바라바야 무드라를 줄 때 바바는 나마스까로 시작해서 왼손은 왼쪽 무릎까지 내려오고 손바닥은 위로 오게하고 살짝 바깥쪽으로 틀고, 오른손은 오른쪽 어깨 가까이, 손바닥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했다.

이 설명은 무드라를 받은 많은 유사한 경험 중 하나이다:

"갑자기 큰 파도가 내 몸을 스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마음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바바가 작은 코너의 무한함을 여는 것 같았고 그것은 내 온 몸에 쏟아지고 있었다. 온 몸의 모든 세포가 축복으로 진동했다. 은총이란 무엇인지 처음 느껴보며 울고 또 울었다."



여섯 번째 레슨 바라바야 무드라 사진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1940년대 초중반 아짓비스 와스(바바의 사촌 난꾸)의 집에서 찍은 것과 두 번째는 1960년대 캘커타에 있는 라탄앤 코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다. 두 차례 모두 자누스파르샤 무드라(양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무릎 위에 올려놓음)를 했다. 바바의 출판 서적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유명한 '신사 사진'도 두 번째(1960년대) 기간에 촬영되었다. 바바 자신이 '신사 사진'이라고 이름 붙였다.

바바는 1988년 1월 1일 아난다 나가르에서 열린 DMC에서 바라바야 무드라 주기 직전(왼쪽), 직후(오른쪽), 무드라 사진은 보는 것에 제약 있어서 싣지 않았다. 90년도의 DMC 사진도 참조하라. 바라바야 무드라 주기 전후의 바바를 보여준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92. 보고

조직이 수년간 성장함에 따라, 바바는 점차 보고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처음에는 전 아차리 야들로부터, 그리고 나중에는 북띠프라단(지역장)과 LFT(local full timer)처럼 상당한 책임을 맡은 일반 마르기에 의해서도 조직 업무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결국 보고 시간을 RDS(검토해서, 결함 찾고, 해결책 제시)라고 명명했다.

편집자

바바가 보고를 받기 위해 올 때, 일꾼들은 일어서서 보고 시간 내내 서 있었다. 가끔 너무 오래 걸리면 바바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했다. 바바는 통상 GS(사무총장)에게 그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다음 섹터 보고인 경우에는 SS 마닐라 섹타, 북띠 쁘라단 보고인 경우에는 BP 후글리 등의 이름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ERAWS, 그 다음에는 SDM, PU, 세바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부서 순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바바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잡아서 대중 앞에 드러내 벌을 주거나, 내가 그의 지시에 따라 벌을 주었다. 모든 사람들은 몇 가지 결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악행에 대해 벌 받는 사람이 있었다. 일을 끝내지 못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며칠) 내에 일을 마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바바는 이야기하는 동안 특이한 예절이 있었다. 예를 하나 들면 바바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칙이 있다. 그가 말하라고 지시할 경우에만 말해야 한다. 바바는 밀가루와 물을 섞어 차파띠(이스트를 넣지 않은 인도식 납작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준비할 때 쓰는 영어 동사를 해외에 있는 어떤 다다에게 물은 적이 있다. 바바는 그에게 여러 번 물었지만 이 다다는 그 단어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자 한 인도 다다가 자진해서 그 말을 했다. "바바, 그 단어는 '치대다'입니다." 바바는 즉시 화를 냈다. "네게 안 물었다. 이 다다에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었다. 그것은 그의 언어이다. 그는 그 단어를 알지만 기억할 수 없었다.

네가 왜 끼어 들었느냐?" 바바는 그 제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꽤 오랫동안 그를 벌 주도록 했다. "그를 더 세게 쳐라."라고 그가 내게 말했다. "더 세게."

<아슈토시 바바>

바바:

"우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이다. 우리는 아무도 괴롭히고 싶지 않다. 일단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나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나는 강하고 엄격하지만,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나는 깊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엄격하다."

출처 알 수 없음

나중에 나는 고위직 직원 한 명에게 모두가 바바의 학대를 어떻게 참았는지 물어볼 기회를 얻었다. 그는 "우리는 탄트라의 오랜 전통을 통해 구루가 그의 제자를 동물생에서 전사의 삶으로, 전사의 삶에서 신성한 삶으로 끌어올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을 이루기 해서, 구루의 행동은 극도로 매섭고 한없이 부드러운 사이를 오락가락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마다 다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차리야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는 점이다.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엄격함의 10가지 부분마다 최소한 11가지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경우에는, 그가 하는 모든 엄격함은 그의 무한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 바바의 존재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바바에 대해 옳고 그름을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매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가혹하게 대해도 그와의 관계가 흔들릴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몇 년 동안 나는 어떤 다다는 바바에게 종종 심하게 야단맞는 반면, 어떤 다다는 단 한 번도 야단맞지 않았고 대부분은 그 중간이었다. 그가 디디를 대할 때는, 체벌이 없었다. 그들 손바닥에 그의 지팡이만 대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은 미미했지만, 그것은 어떻게든 다다만큼 마음을 열고, 항복하고, 변하게 만들었다.

<신비로운 스승과의 여행>

1986년 6월 틸잘라에서의 보고 시간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93. 살아있는 백과사전, 언어학자, 선견지명자

바바는 유년기에 '살아있는 백과사전'으로 알려져 있었다. 말년에, 마르가 구루라는 다른 모든 책임들 중에서, 그는 말 그대로 백과사전을 썼다. 일요 다르샨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1980년 <나마미 크리슈나순다람>, 그 후 1982년 <지성의 해방: 네오휴머니즘>과 <나마 쉬바야 샨타야>, 1985년 9월 8일 향후 5년에 걸쳐 26권의 <샵다 차야니카(단어모음집)>로 구성된 엄청난 시리즈의 일요 다르샨을 시작했다.

편집자

표면적으로는 샵다 차야니카는 벵골어의 언어학과 철학을 다룬 시리즈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저자는 이 책을 출발점으로 삼아 독자들이 역사, 지리, 의학, 과학, 예술, 종교, 철학 등 인간 지식의 다양한 풍경을 여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지혜를 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인류 유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대부분의 위대한 작가들처럼, 그는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인간 지식의 정원으로 쉽게 이끌기 위해 겉보기에는 무진장한 일화,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들을 사용하는 완벽한 이야기꾼이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자 위대한 고전 조상인 산스크리트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를 다듬고 발전시킨다.

<샵다 차야니카>발행인 노트

<샵다 차야니카> 담화에 앞서 바바는 1983년 6월부터 11월까지 <바르냐비쟈나나(문자학)> 를 주었고, 이어 1984 – 1985년에는 8권으로 구성된 <바르나 비치트라(문자의 다양한 사용)>시리즈를 출간했다. 벵골의 한 저명한 학자는 <바르나 비치트라>의 몇 장을 읽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나는 놀라웠다. 그것은 책 같은 지식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폭로이다."

1979년 독일 하노버에서 바바는 1980년 이후부터는 집단심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2000년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4년 5월 26일 그는 말했다: "인류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있다." 그리고 1987년 10월, 북 띠 프라단의 보고에서, 그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때 바로 앞에 앉아 있던 기리다라는 회상한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상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다다 프라나바트마카난다에 따르면 바바는 수바쉬 나익에게 "우주심이 신-중심 철학을 확립할 때가 왔다고 생각할 때, 모든 개체심도 그에 따라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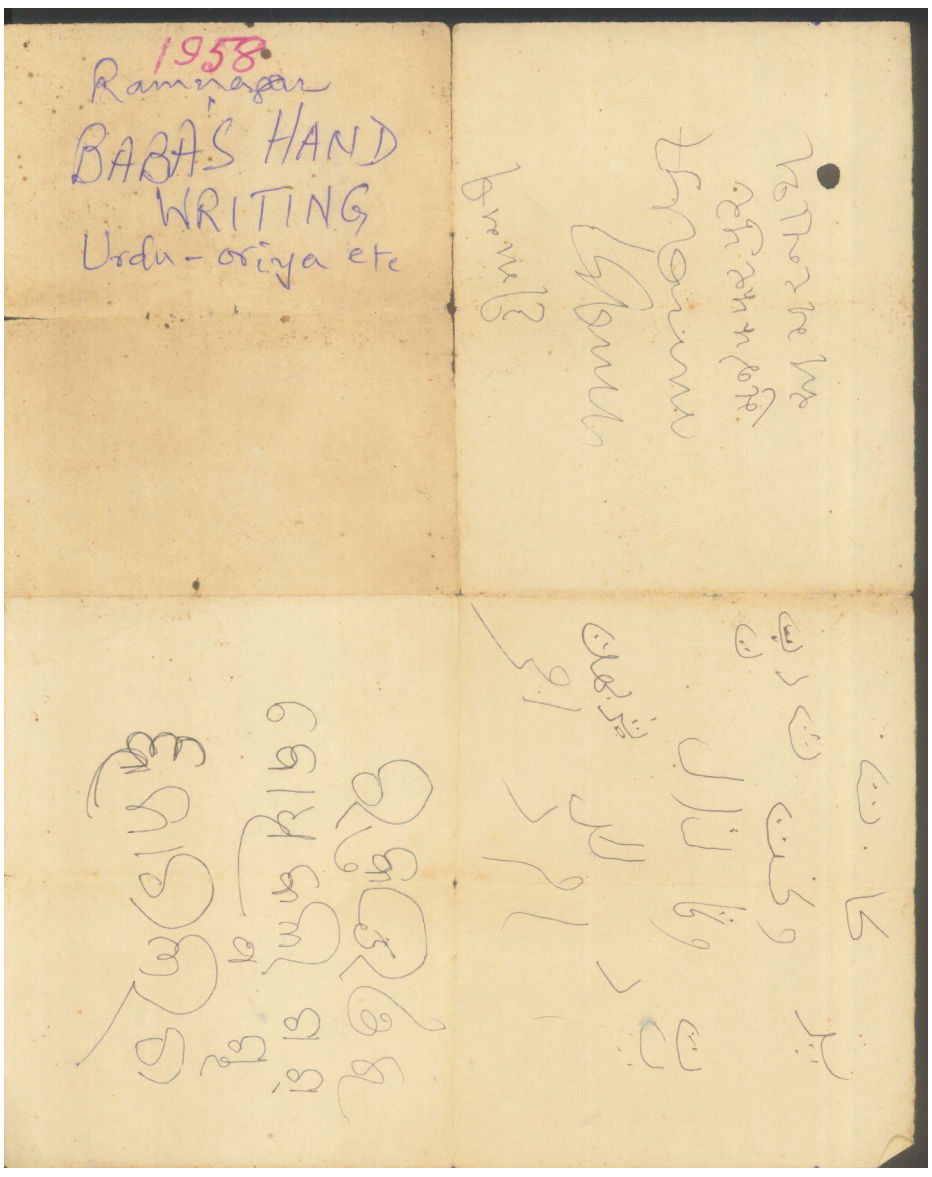
편집자

어느 날 밤 바바가 야외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 프라밧 상기타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바는 앉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서 우리에게 깊고 특이한 소리가 많은 고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언어는 10,000년이 넘도록 들려지지 못했다."

바바는 깊은 목소리로 "빠라마 뿌루샤(지고의식)와 처음 접촉한 순간은 너무 오래 되어 기억할수 없다." 그는 이 마지막 단어의 발음을 길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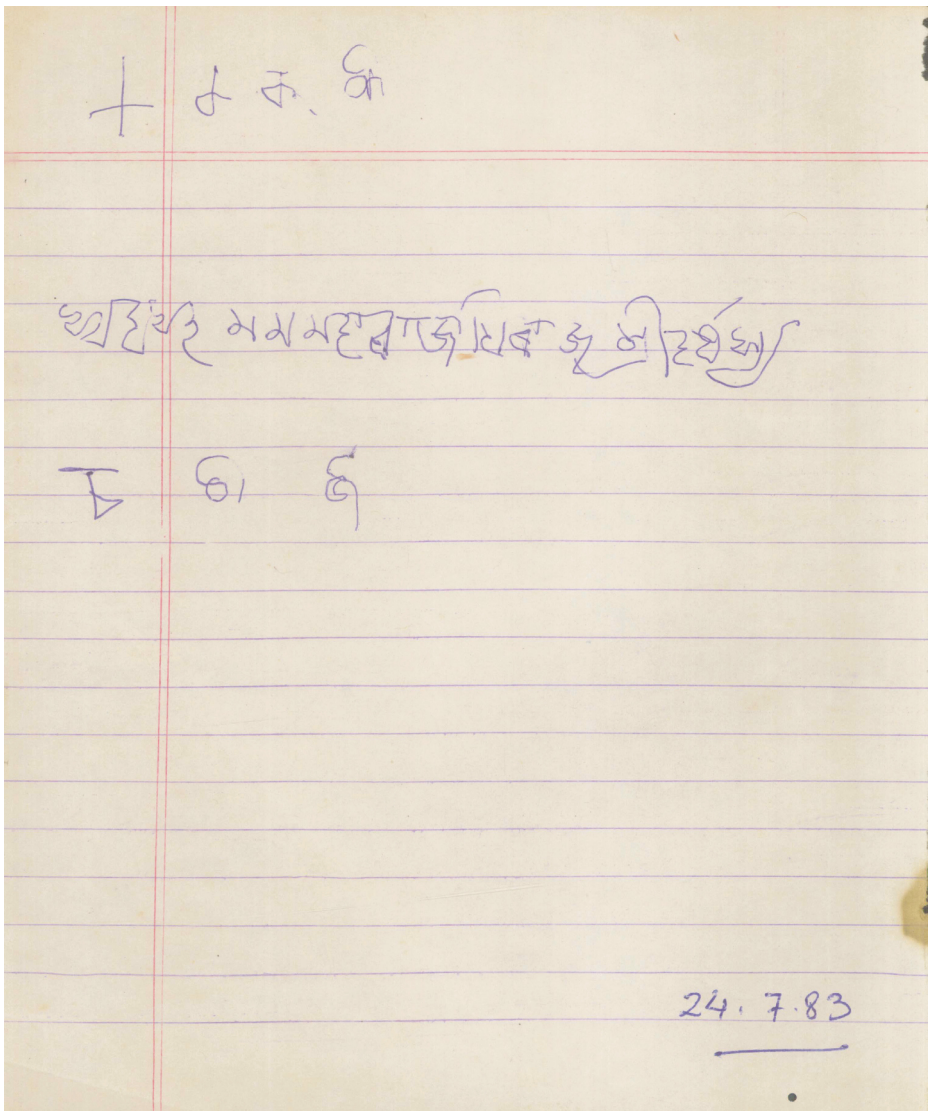
그리고 나서 바바는 고대의 아득함과 밤 공기에 진동하는 직관을 남겨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스승과의 만남>



오리야 주 우르두에서 쓰여진 바바의 필적과 신원 미상의 또 다른 글. 1958년 랑나가르에서 쓰여졌다.

1983년 7월 24일에 바바는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하르샤바르다나 왕의 이름을 슈리하르샤 문자로 썼다. 1981년에 그는 "고대 브라미 문자의 변형된 형태는 슈리하르샤 문자이다. 하르샤바르다나 왕의 이름을 따서 슈리하르샤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그 이유는 발견된 자필의 도장이 이 문자로 씌여졌기 때문이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94. 틸잘라 홍수

1986년 9월 틸잘라 델리 섹터 RDS('검토하고, 결함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모색') 동안 VIP 나가르 지역 전체가 집중 호우로 침수되었다. 아난다마르가 일꾼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고지대로 피신시킴으로써 인근 지역민들에게 재난 구호를 제공하며 아무르트와 아무르텔의 기치 아래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과 보급품을 나눠주고 인근 Eastern Metropolitan Bypass에 무료 급식 부엌을 차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한때는 바바의 안전을 위해 틸잘라 숙소, 마두꼬락에서 호수 정원 거주지인 마두 말란짜로 피신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바바는주변 이웃 모두가 안전해지고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대피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승낙했다.

바바의 9월 25일 틸잘라로부터의 대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그는 곤돌라를 닮은 배에 앉아 있고 WT들과 마르기들이 가슴 높이의 물속에서 배를 우회로의 더 높은 지대로 밀어 끌어올렸다. 그 곳에서 바바는 호수 정원으로 가는 특별 버스에 올랐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95. RU(르네상스 유니버셜)담화

RU 담화들은 바바가 르네상스 유니버설의 의장으로서 주신 연설들이다. 첫 번째는 1958년 1월 26일 바갈푸르 DMC 뜨리모한에서 열린 RU 의장 취임 연설인 '오늘의 문제'였다. 기록상으로는 26개의 RU 담론이 더 있으며, 더 많은 담론이 발견될 수도 있다. 그 중에는 '과학 및 인구 통제', '탄트라와 인도-아리안 문명', '문명의 미래', '마이크로바이텀, 우주 인자의 신비로운 발산', '4차원의 마이크로 정신의 갈망', '물질과 추상성' 등이 있다.

1990년 6월 2일 아난다 나가르에서 주어진 마지막 담화는 '마음은 무진장 확장된다.'였다. 아래는 담화의 끝부분이다:

"영적인 면에서 나오는 사고 파장만이 인류 사회를 하나의 존재로 바꾸는 데 걸림돌이 되는,서로를 분리시키는 파멸적인 도그마의 영향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이 합리화 과정은 마음의 모든 측면을 개조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잠재력을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가까운미래에 이것을 해야 한다. 문제는 특이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 너무나 많은 분열, 너무나 많은 혈전, 너무 많은 전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 우주의 평화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세 영역 즉 육체적, 정신적, 영적 영역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너희 모두의 노력으로 이 점에 있어서 구체적인 일을 하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지고한 신의 영광스러운 현현이다. 그래서 너희는 즉시 구체적인 것을 해야 할 것이다.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마지막 RU 담화, '마음은 무한정 확장된다'를 설하는 바바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96. 마이크로바이타

1986년 12월 31일 캘커타에서 바바는 중대하고 획기적인 '마이크로바이타, 신비한 우주 인자의 발산' RU 담화와 함께 마이크로바이타 과학에 대해 소개했다. 바바에 따르면 이 과학은 현재 인류의 지적 능력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이다.

그 담화에서 일부 발췌이다:

"물리적 현상계와 정신적 현상계 안으로 들어가는 실체들이 있는데 원자, 전자 또는 양성자보다 작거나 미묘하며, 정신계에서는 엑토플라즘보다 미묘할 수 있다. 그러한 물질이나 실체들에 나는 '마이크로바이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마이크로바이텀, 또는 복수로 마이크로바이타는 원형질(프로토플라즘) 계열이 아니어서 우주에서 생명의 초기 시점이나 초기 단계로 취급되는 탄소 분자나 탄소 원자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 물리성에 관한 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타의 위치는 단지 엑토플라즘과 전자 사이에 있지만, 엑토플라즘도 전자도 아니다."

"어떤 대상이나 물체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특징이나 다른 세부 사항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것이 '신비스럽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타에 대해, 우리는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다. 원형질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원생성 구조나 후생성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신비한 것이다."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텀이나 이 마이크로바이타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과제는 거대하고 우리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이 마이크로바이타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프라마[평형과 균형]는 지적 또는 지적 추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더 높은 지적 영역의 연구에서도 마이크로바이타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인간이 이러한 마이크로바이타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갖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우리의 육체적-정신적-영적 사다나보다 오히려 영적 사다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모든 영역에서 진보할 것이고, 개념의 힘, 상상의 힘 또한 진보할 것이고, 그 진보한 착상의 힘으로, 우리는 이 마이크로바이타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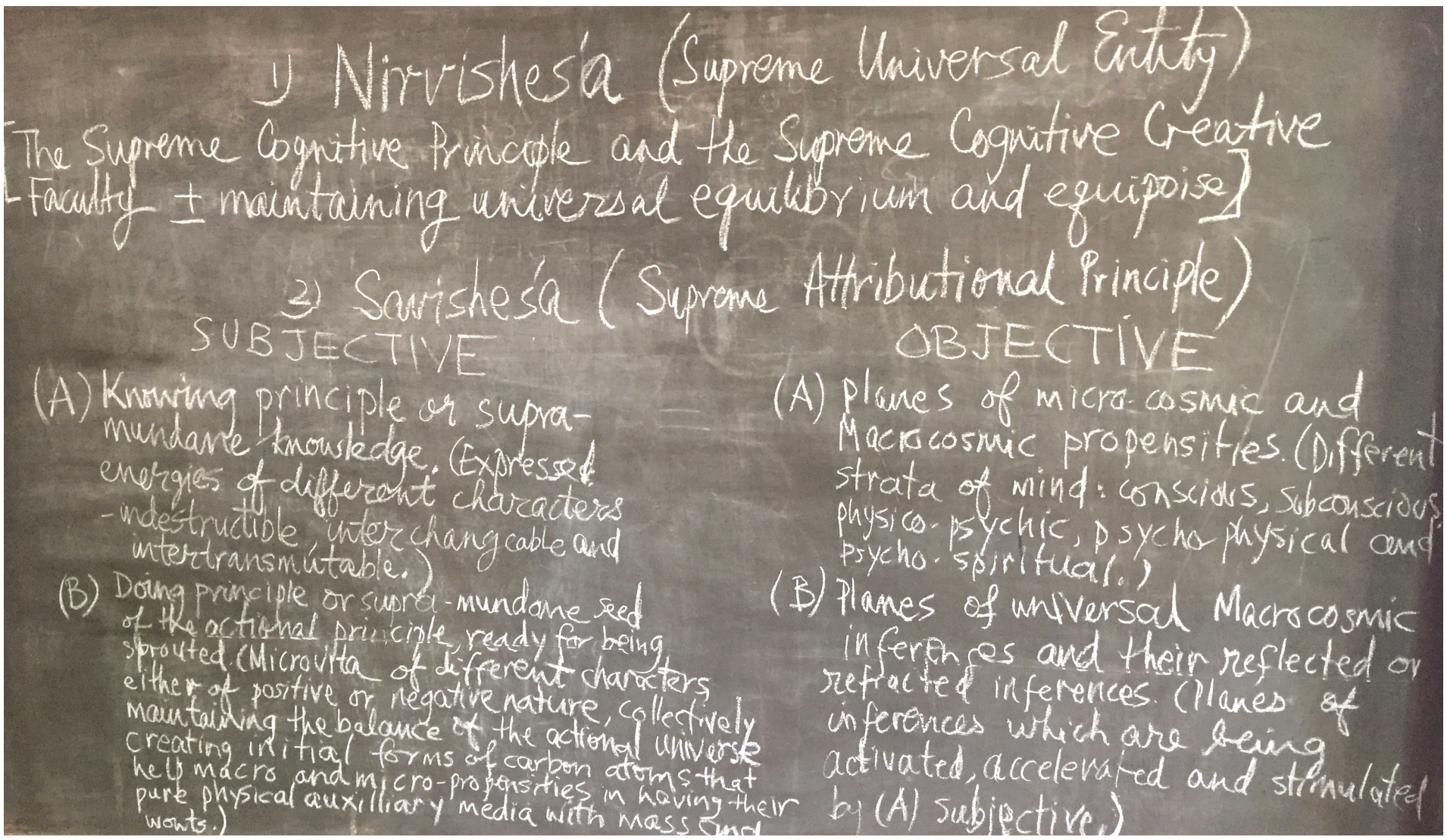
이후 2년 반 동안, 1986년 말에서 1989년 6월까지, 바바는 이 새로운 과학에 대해20회의 강의를 더 했으며, 1989년 6월 10일에 그의 마지막 칠판 세미나인 '마이크로바이타와 우주론'으로 끝났는데, 그는 이를 "새로운 철학적인 접근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1988년에 그는 마이크로바이타 연구를 위한 마이크로바이타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는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우주적 실체에 의해 양성 마이크로바이타가 지구 행성을 관리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더라도, 인류에 법열을 가져오면서, 지구는 오직 밝은 미래로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1988년 7월 15일, 바바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전화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도착해야 했던 선택된 사다카들에게 특별한 유형의 사다나(마이크로바이타 사다나)를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1988년 7월 15일부터 1989년 3월 9일까지 155명의 마르기와 헌신자들에게 마이크로바이타 사다나를 주었다. 그들은 바바로부터 양성 마이크로바이타를 직접 개인적으로 받아야 했는데, 양성 마이크로바이타의 주입은 바바만이 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바바는 마이크로바이타 과학을 바탕으로 양아들인 킹슉에게 약초들로 만든 약품들과 화장품의 제조법을 가르치고, 조제 및 생산의 세밀한 사항을 가르쳤다. 그 이후로 다른 조직적 의무 외에도, 아차리야 킹슉 란잔 사카르는 틸잘라 마이크로바이타 연구소와 공장에서 나오는 마이크로바이타 건강 제품의 상업적 생산 및 유통을 감독하고 있다.

1989년 6월 10일, 바바는 '마이크로바이타와 우주론'으로 마지막 칠판 세미나를 주었고, 다다 샴부시바난다가 칠판에 쓴 것을 이 차트에 받아 적었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97. 마스터 유닛, 농업 및 생태

1984년 6월 바바는 "인류는 이제부터 조심해야 한다. 생태계의 지시에 따라 생각, 계획, 활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1987년 말부터 1990년 중반까지 그는 농업과 생태에 대해 수많은 강연을 했는데, 농업 과학자로 훈련받은 다다 아씨마난다가 그 중 많은 내용을 적어 놓았다. 1990년 4월 2일 때 이른 사망으로 다다는 1988년 2월과 3월, 그리고 1989년 3월에 주어진 그의 노트와 다른 담론에 기초하여 출판된 <이상적인 농업 2편>의 출판을 직접 감독할 수 없었다.

1988년 2월에 바바는 중요한 작물, 작물 혼합 및 순환, 통합 농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했고, 그 해 3월에는 호반 및 강변 농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1년 후 그는 세계적인 물 위기를 예견한 물 보존에 대한 강연을 했고, 가뭄의 원인을 간략히 설명했으며 최상의 관개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강에 작은 사방 댐을 건설하고 청정 수역이 없는 곳에 작은 연못과 호수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리고 그는 강수량이 적을 때 표층수를 보존하기 위해 특히 강 주변과 연못, 호수 및 기타 저수지 주변에 있는 산림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60년대 건조한 시작부터 오늘날의 비교적 울창한 경관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아난다 나가르의 무성한 조경은 바바께서 주신 물을 보존하기 위한 조언들의 효험을 입증하고 있다.

1987년에 마스터 유닛(MU)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마스터 유닛은 시골의 다목적 개발 센터를 모델로 한다. 아난다 나가르는 그때까지 모델이었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더 많은 MU가 설립되었다.

1989년 11월 10일, 바바는 마스터 유닛에 대한 강연을 했다. 일부 발췌:

"마스터 유닛은 아난다 나가르의 축소된 형태가 될 것이며, 이 마스터 유닛은 아난다 마르기의 주요 센터가 될 것이다. 마스터 유닛의 산스크리트 이름은 '차크라의 핵'을 뜻하는 Cakranemii(차크라네미)이다. 모든 마스터 유닛이 모든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스터 유닛은 특히 교육, 문화, 경제 및 영적 향상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확장할 것 이다. 이 마스터 유닛은 우선 모든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계급, 신념, 인종, 종교 및 국가 장벽에 관계없이 말이다. 인류는 인위적인 장벽을 모른다."

"이상적인 마스터 유닛의 주요 필수조건은 무엇인가? 프라우트의 최소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5개 이다. 첫째, 연중 식량을 공급한다. 둘째, 의류를 위한 충분한 섬유와 직물이 생산되어야 한다. 셋째, 초등학교와 초등 이후의 학교는 모두 마스터 유닛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넷째, 일반 및 특수 의료시설도 설립해야 한다. 의료시설에서는 대체 의학적 치료를 강조해야 한다. 다섯 번째, 마스터 유닛은 극빈층을 위한 주택 건설 계획을 착수해야 한다."

"우리의 마스터 유닛 프로그램은 동양의 숭고함과 서양의 역동성의 결합이다."

다다 아씨마난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98. 아난다 마르가 구루쿨

'구루'라는 단어가 '어둠을 몰아내는 자'를 의미하듯이, '구루쿨'은 학생들의 마음에서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는 기관을 의미한다.

1990년 9월 7일 바바는 고대 아쉬람식 교육을 기반으로 아난다 마르가 구루쿨(AMGK)을 설립하고 다다 샴부시바난다가 총장으로 부임되었다. 며칠 후 바바는 그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에게 맡긴 책임의 범위를 이해하느냐?" 다다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지만, "네, 바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바는 "그대만 믿어도 되느냐?" 라고 물었다. 다다는 "네, 바바" 라고 대답했다. 마침내 바바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다. 다시 한 번, 다다는 그가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네 바바, 당신의 은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바바가 듣기를 기다리던 대답이었다. 그러자 그는 거의 공모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그대를 위해 대부분의 일을 해놨다."

바바는 구루쿨이 아난다 마르가의 교육 시스템을 위한 플랫폼으로 아난다 마르가 교육 이사회를 대체(및 확장)할 것이라고 지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루쿨 내에 46개 학부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86년 5월 4일 <샵다 차야니카> 담화들에서 바바는 쿨라빠띠(총장)의 의미에 대해 설했고, 1989년 9월 3일 구루쿨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 설했으며, 1990년9월 22일과 25일에는 의학, 지리, 지질, 광업, 역사 및 철학과 같은 구루쿨의 여러 학부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1990년 9월29일 그는 구루쿨의 역사와 계획에 대해 설했다.

아래는 마지막 담화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인간이 진지하게 생각하면 크고 작은 일을 하나같이 아름답게 해낼 수 있다. 일은 아주 적은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성취될 수 있다. 최대 인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통합적인 방식으로 일하기 위해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구루쿨 설립 계획을 준비했다. 이 계획에서, 몇몇 책임 있는 사람들이 취임했다. 또한 구루쿨은 설립될 것이 아니라 이미 설립되었음을 선언 한다. 너희들 모두가 함께 노력을 더해 그 진보를 이루길 바란다. 집단적인 지원을 통해 이를 확립하는 것이 너희 모두의 일이다. 바로 이 상서로운 순간부터 너희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진보하고 지구상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을 맹세해야 한다."

다다 바스카라난다에 따르면 바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모든 프로그램을 망라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은 구루쿨이다."

다다 샴부시바난다, 1990년대 초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99. 바바, 육신을 떠나다

바바가 말한 적이 있다. "내 일이 끝나면 나는 바로 떠날 것이다. 단 한 순간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1990년까지 바바는 감옥에서 투여되었던 독의 후유증과 이후 과중한 업무량에서 비롯된 당뇨와 고혈압을 포함한 많은 건강상의 문제들이 커졌다. 그는 두 번의 심장마비를 겪었고 우드랜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가 어느 날, "미래가 왔다, 주홍빛 새벽이 이미 당도했다. 단지 너희 의무를 다해라. 일은 내가 다 해놨다."

이는 바바가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일련의 암시 중 첫 번째였다. 그러나 암시에 도 불구하고, 그는 1990년 10월 20일 그가 떠나기 전날까지 아무도 암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바로 그날 저녁 틸잘라의 마두 꼬락에서 열린 프라우트 관련 WT들과 마르기에 관한 보고회에서, 그는 그 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맹세를 하게 했다. 그 맹세는 ADS(아난다 마르가 세바달) 일꾼들에게 바바께서 그 며칠 전에 주신 것과 같은 것이었다.

"나의 모든 에너지, 모든 마음,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행동을 다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지구상에서 내가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등한시하지 않고 인간 사회의 집단적 진보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라빈드라낫 타고르의 시의 결말을 인용하기 전에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렁이들이 사방에서 독을 내뿜고 있다. 평화의 달콤한 복음서는 공허한 조롱처럼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날, 나는 모든 집에서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와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쾌한 나팔소리를 보낸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다: "구렁이들이 사방에서 독을 내뿜고 있다. 지금 이 중대한 시점에서 우 리는 계속 평화의 복음서를 설교해야 하는가?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바바의 곧 떠날 가능성에 대해 예민해졌다.

"라빈드라낫이 말했다." 는 바바의 말에 그들 모두 안도의 숨을 쉬었다

"나는 이 악마들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다들 알겠느냐?"

"예, 바바." 모두 대답했다.

"60년 전 라빈드라낫이 한 말은 20세기 후반에도 사실이다. 다들 알겠느냐?"

"예, 바바." 그들이 대답했다.

"너희만 믿어도 되겠느냐?" 그는 물었다.

"예, 바바." 그들이 대답했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다다 케샤바난다는 그 다음날인 1990년 10월 21일에 있었던 일을 회상한다:

"마지막 날 그의 건강이 실제로 좋아졌다. 오랜 만에 더 좋았다. 아침은 평범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줬던 것과 같은 엄청난 속도로 일하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 프라밧 상기타 마지막 두 곡을 작곡했지만 평소처럼 3시에 일어나 영적 수행을 했다. 그 후 그는 면도하면서 여러 부서의 업무를 검토하고 지시를 내렸다. 이것도 그의 바쁜 일정의 통상적인 일부였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일하면서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죽으면서 일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조금 전, 그는 나에게 '생각 좀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을 닫으면서 나는 그가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분 후에 그가 나에게 전화했다. 그가 그의 모든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그 몇 분 동안이었던 것 같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아바두타 중 한 명을 보내라며 그와 만나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그 다다와 한 시간 동안 독대했다. 젊은 다다에게 사적인 관심을 주는 것, 그것이 바바 생애 마지막 일이었다. 그 후 그는 나에게 '이제 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단어들 또한 그가 전에 말한 적이 없었다. 약 5분 후에 그는 벨을 울렸다. 내가 들어왔을 때 그는 가슴을 가리키며 '심장'이라고 말했다. 나는 달려가 의사 마르기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재빨리 왔지만 그의 맥박을 재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바바의 생명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바바가 그의 육신을 떠난 것이다. 시간은 오후 3시 23분이었다.

5일 후 수천 명의 헌신자들이 장례식과 화장을 위해 틸잘라의 영내를 가득 메웠다. 여섯 점으로 이루어진 대형 프라틱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 바바의 시신이 안치되었다. 백단향 나무로 이뤄진 장작 더미에 불이 켜지고 비둘기 떼가 마치 인사라도 하듯 그 바로 위를 빙빙 돌았다. 심지어 프라틱도 몇 초 동안 빗물이 되어 눈물을 흘렸다. 다음 몇 시간 동안 불길이 타올라 서서히 타라카 브라마의 마하삼부티(육신)를 태웠다.

바바는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다. 이 육신은 내가 아니다. 나는 내 미션 속에 녹아 있으니, 나를 알고 싶으면 내 미션을 위해 일해라. 나는 그대들 가슴 속에 있고, 그대들은 내 가슴 속에 있다. 오직 헌신만이 내 육체적 현존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100. 바바 자서전

1969년 어느 날, 소수의 제자들이 바바의 전기를 쓰자는 생각에 모였다. 하지만 그들이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스승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 직접 자서전을 써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바바는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다. 그러나 거듭된 애원 끝에 그는 마침내 그들의 간청에 응했다. 다음 날, 일요일 일반 다르샨에서, 제자들은 바바가 그의 자서전을 끝냈다고 발표했을 때 놀랐다. "보고 싶으냐?" 그는 물었다. 호기심에 찬 헌신자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보통 스승이 일을 해내는 엄청난 속도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걸 끝낼 수 있었을까 궁금했다. 바바는 그들을 침대로 불러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 위에서 그들은 하나의 긴 문장이 손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미스터리(신비)였고, 나는 미스터리이며, 나는 언제까지나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아난다무르띠: 자말뿌르 시절>



Copyright © 2021 P.R. Sarkar Institute

P.R. SARKAR INSTITUTE

P.R. Sarkar 연구소(www.prsinstitute.org)는 슈리 프라밧 란잔 사카르의 가르침과 관련된 사상들의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연계 확대를 위한 아난다 마르가 구루쿨에서 주도한 프로젝트이다. PRSI는 슈리 P.R. Sarkar의 업적들과 관련 자료, 연구와 개발을 위한 포럼, 진보적인 교육 자료들의 진출확대를 위한 매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ananda marga

아난다 마르가(www.anandamarga.org)는 영적 수행과 사회 봉사에 헌신하는 국제 영적, 사회적 봉사 단체이다.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슈리 프라밧 란잔 사카르)에 의해 1955년에 설립된 이 단체의 미션은 자아실현(개체의 해방)과 모든 존재에 대한 봉사(집단적인 복지)인데, 이는 곧 모든 인간들과 동식물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욕구의 실현이다.

아난다 마르가는 전 세계에서 명상 센터들과 봉사 프로젝트들을 통해 명상과 요가 그리고 여러 자기 개발 수행법들을 비상업적인 방식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난 구호, 학교, 고아시설, 의료시설, 영성 생태촌, 다른 여러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응하고 있다.

